

中央語文學會

제47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한국어문학 연구의 과제 Ⅱ: 번역, 해석, 전파

- ◆ 일시: 2022년 8월 26일 (금)
- ◆ 진행: 실시간 화상 회의 및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 ◆ 주최: 중앙어문학회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중앙어문학회 제47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한국어문학 연구의 과제Ⅱ: 번역, 해석, 전파

◎ 전체 일정

12:40~13:00 실시간 화상 회의실 입장

13:00~13:10 개회사 및 축사

13:10~15:10 기획주제 발표

15:10~15:30 폐회사

- ◎ 일 시 2022년 8월 26일 (금) 12:40~15:30
- ◎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실
- ◎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_____ 대회 진행 방법 _____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_____ 기획 주제 발표 _____

사회: 김성문(중앙대)

13:10~13:40 말뭉치 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주별산대놀이 채록본의 변이 양상

▶발표 장경우 (숭실대) ▷토론 양종승 (샤머니즘박물관)

13:40~14:10 원영의(元泳義)의 『국문과본(國文課本)』(1908)의 특성과 하와이 국어 교과서로의 활용 연구

▶발표 이은선 (이화여대) ▷토론 최진호 (부산대)

14:10~14:40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과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

▶발표 유형동 (한신대) ▷토론 이현정 (제주대)

14:40~15:10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 연구 -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의 실행 결과를 중심으로 -

▶발표 박은정 (한국외대) ▷토론 민진영 (연세대)

-----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 국어학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

▶발표 김지혜 (성균관대) ▷토론 엄태경 (한양대)

단어 구조의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 김건영 (고려대) ▷토론 박정순 (송실대)

◎ 현대문학

정복근 희곡 <실비명>, 호모 사케르에 대한 호명

▶발표 김강원 (고려대) ▷토론 김민주 (중앙대)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 -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 -

▶발표 김민영 (한남대) ▷토론 이다운 (군산대)

◎ 고전문학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一面

▶발표 박상영 (대구가톨릭대) ▷토론 김성문 (중앙대)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

▶발표 김지은 (중앙대) ▷토론 이채영 (동국대)

◎ 한국어교육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연구

▶발표 손만복 (인하대) ▷토론 손진희 (강원대)

온라인 세종학당의 교육 플랫폼 적용과 운영에 대한 고찰 -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발표 김명권/안여경 (선문대 한국어교육원·한국어세계화연구소) ▷토론 임현아 (덕성여대)

▣ 기획주제 발표

한국어문학 연구의 과제Ⅱ: 번역, 해석, 전파

말뭉치 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주별산대놀이 채록본의 변이 양상
원영의(元泳義)의 『국문과본(國文課本)』(1908)의 특성과 하와이 국어
교과서로의 활용 연구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과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 연구 -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의 실행 결과를 중심으로 -

말뭉치 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주별산대놀이 채록본의 변이 양상*

장경우**

<차례>

1. 들어가기
2. 이본의 크기로 확인한 변이 양상
3. 소통매체로 분석한 변이 양상
4. 과장별 화소의 변화를 검토한 변이 양상
5. 단어의 쓰임을 조사한 변이 양상
6. 나가기

【국문초록】

본고는 약 1세기 동안 채록된 양주별산대놀이 구술자료 9개에 대하여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변이 양상을 확인하고 우리극과 무형문화재라는 서로 상이한 위치를 통합하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이본의 크기로 확인한 결과, 1950년대 자료는 무형문화재 지정본보다 3, 5, 6 과장이 발달했고, 현대 자료는 7, 8 과장이 확대되어 있었다. 이는 과거에는 의료혜택에 목마른 서민층의 현실 고발, 타락한 승려에 대한 풍자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현대로 올수록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풍자, 가부장사회에 대한 고발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변화라고 보았다.

소통매체로 확인한 결과는 여러 등장인물이 구술을 주고 받는 과장보다 1인 구술 과장에서 암기식 전락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모든 과장에서 화소나 말뭉치의 증감이 비슷하여 원형 고수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므로 1인 구술과장의 즉흥성을 확대시킬 것을 제언하였다.

과장별 화소의 변이를 확인한 결과는 1950년대 자료는 3, 5, 6 과장에서 가사나 언어유희가 자주 등장하였으나, 7, 8 과장에서는 비교적 짧은 가사와 언어유희가 나타났고, 현대자료에서는 3, 5, 6 과장에서 가사와 언어유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7, 8 과장에서는 거의 모든 화소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이본의 크기를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분석이 가능했다.

단어의 쓰임이 변하는 예를 검토한 결과, 음운 교체와 알 수 없음으로 분류된 형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새로운 이수자는 새로운 말을 사용하여 과거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들리는 소리값 그대로 구술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새로운 말이 탄생하였는데, 원형고수의 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현상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양주별산대놀이, 무형문화재, 말뭉치, 변이 양상

1. 들어가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21S1A5B5A17050484)

** 숭실대학교 강사

양주별산대놀이는 구술로 전승되는 연행예술로 1929년에 일본인 아끼바 다카시(秋葉隆)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다.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수차례 채록되다가 1964년에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었다. 첫 조사 이후 1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약 반세기가 지난 셈이다. 우리 가면극으로는 첫 무형문화재이기에 문화재 지정 이후에는 수많은 연구자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구술로 연희되는 가면극의 경우에 그 즉흥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변이는 당연한 수순이므로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변이 양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우리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변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일 것이다. 전경옥(2003)은 양주별산대놀이를 다각적으로 살피면서 연희의 즉흥성과 흥이 부족해지고 재담에서 육담과 육설이 생략되고 있으며, 대사나 불림이 빨라지고 있다고¹⁾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논증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주별산대놀이 이본에 대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여 변이 양상을 검토하고 양주별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로서 지속적으로 계승, 전파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별산대놀이의 첫 채록은 1930년에 김지연에 의해 이루어졌다.²⁾ 이후에 조동일은 현지인이 보관하고 있던 1957년 채록본을 소개하였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즈음에 임석재에 의해 채록된 구술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58년에 이두현, 이보라, 최상수 등에 의해 여러 번 채록되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된 지정본은 임석재, 이두현에 의해 정리되었고, 문화재 지정 이후에는 1973년 심우성이 채록한 자료가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채록본이 아니라, 연희되는 대본으로 보존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1 양주별산대놀이 이본 종류>

NO	구술자	채록/필사/정리/소장	수록처 (저자,도서명,발행연도)	채록 연대
1	조종순	김지연 필사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1984	1930
2	?	홍갑표 보관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1984	1957
3	?	임석재 채록	<협동> 49~50호 ³⁾ (소실)	?
4	김성대	이보라 정리	<현대문학> 1958년 10월-1959년 7월 연재	1957/ 1958 ⁴⁾
5	박준섭 김성태	이두현 채록	이두현, 한국의 가면극, 1984	1958
6	박준섭 김성태 ⁵⁾	최상수 채록	최상수, 산대·성황신제 가면극의 연구, 1985	1958
7	?	임석재·이두현 채록	양종승, 탈춤 대사집: 중요 무형문화재, 1981	1964 ⁶⁾
8	김성대	김성대 채록 심우성 정리	<창작과비평> 제8권 2호 통권28호, 1973년 여름호	1973 ⁷⁾

1) 전경옥(2003), 「양주별산대놀이의 지속과 변화」,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학회, p.227.

2) 이 대본에 대해 조동일(1984:280)은 한국구비문학전집(1977:298)에서 일본인 학자 아끼바 다카시(秋葉隆)가 채록한 자료라는 내용을 바로잡아 조종순 구술, 김지연 필사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정형호(2000:52)는 채록본을 열거하면서 아끼바 다카시(秋葉隆)를 소개하였는데, 아끼바 다카시는 양주별산대놀이를 소개하고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9	?	노재영 보유 박기운 필사	http://www.sandae.com/site/board/index.do ?mid=U00065	2004
10	?	보존회 소장	http://www.sandae.com/site/board/index.do ?mid=U00065	2009

위에 제시한 10개의 이본 중에서 하나는 소실되었지만 1930년부터 현재 연희되고 있는 자료까지 갖추었으므로 지난 1세기 동안의 변이를 살피는 자료로 큰 무리가 없다. 특히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 채록된 자료는 조종순과 김성태, 김성태, 박진섭의 구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같은 연희자의 구술이 변화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하고,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체된 이수자의 구술 형식이나 내용의 변화를 살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다음 장부터는 말뭉치를 구축한 결과를 토대로 이본의 크기, 소통매체, 과장별 화소의 변화, 단어의 쓰임의 관점에서 양주별산대놀이의 변이 양상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자.

2. 이본의 크기로 확인한 변이 양상

이상의 자료를 구축한 말뭉치의 크기는 총 53,686어절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면의 제약으로 표기하지 못한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5.15이다. 202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현대구어말뭉치와 현대문어말뭉치 통계를 살펴보면, 현대구어말뭉치의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3.7이고, 현대문어말뭉치의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18.1이었다.⁸⁾ 이는 양주별산대놀이 가 문어 형식이 아니라 구어 형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며, 말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표2 양주별산대놀이 채록본별 말뭉치의 어절수>

과장 ⁹⁾	1. 김지연본	2. 홍갑표본	4. 이보라본	5. 이두현본	6. 최상수본	7. 지정본	8. 심우성본	9. 박기운본	10. 보존회본	합계
1	0	0	0	0	0	0	0	0	0	0
2	47	124	88	75	60	129	120	156	125	924

- 3) 조동일(1984:279)은 임석재 채록본이 <협동> 49~50호에 발표되었고, 1966년에 국악예술학교의 '주요무형문화재전수자료'로 간행되었다고 설명하는데, <협동> 49~50호를 소장하고 있다는 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폐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국악예술학교는 국립국악원의 전신이므로 국립국악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했지만 주요무형문화재전수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 4) <현대문학> 1958년 10월호를 인용하면, 1957년 2월 9일 한국 연극 학회가 마련한 [이화노천극장]에서 연희된 것과 1958년 8월 20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연희된 것을 다듬었다고 한다.
- 5) 최상수(1985:3~5)는 김성태, 박준섭, 이장손이 고령의 노련한 연희자라고 언급하고,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양주별산대놀이 대해 설명을 듣고 기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 6) 양중승(1981:8~57)은 채록연대를 밝힌 바가 없고, 조동일(1984:279)은 무형문화재 지정자료가 1964년에 간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7) 정형호(2000:212)는 김성태의 생몰연대를 1907~1970년으로 소개하므로, 1970년 전에 채록해서 1973년에 발표했을 것이다.
- 8) 장경우(2021:164)는 2021년 국립국어원 구어말뭉치와 문어말뭉치 통계를 인용하였다. 이는 현대 한국인이 구어를 발화할 때, 한 문장에 약 3~4어절을 표현하고, 문어를 기술할 때, 약 18어절을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3	254	513	493	806	287	558	555	484	561	4,511
4	34	73	42	63	44	84	85	55	77	557
5(1)	292	583	500	715	360	542	543	401	496	4,031
5(2)	509	1,046	617	1,044	534	760	749		742	6,001
5(3)	495	951	536	769	490	489	470	660	481	5,341
6(1)	307	442	321	308	381	406	401	500	367	3,433
6(2)	242	372	300	430	239	368	368	387	336	3,042
6(3)	650	817	706	819	713	758	731	793	399	6,386
7(1)	550	979	980	1,132	657	858	863	863	1,486	8,368
7(2)	142	336	287	599	186	294	285	452	632	3,217
8	594	745	613	1,279	669	792	717	749	1,717	7,875
합계	4,116	6,981	5,483	8,039	4,624	6,038	5,887	5,099	7,419	53,686

말뭉치 크기로 이본들을 비교해보면, 1930년 김지연본이 가장 작고 1958년 이두현본이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증감의 일정한 흐름이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구술자(김성태)가 구술하고 서로 다른 시기에 채록된 이보라본과 심우성본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구술자(박준섭, 김성태)를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채록한 이두현본과 최상수본은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은 채록자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당시 한국인류학회의 회원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무형문화재 심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두현은 학회의 주도적 인물이었고, 문화재 조사 위원이었으며, 양주별산대놀이의 조사위원도 이두현이었다.¹¹⁾ 최상수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이 된 것은 1962년이었고, 그가 조사한 문화재는 동래야유 하나뿐이다.¹²⁾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극의 즉흥성이 여기에서 발현된 것이다. 김지연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앞에서 구술한 자료여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반영되어 구술이 축소되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존회본은 채록본이 아니라 대본이므로 최대한 많은 것을 기록해 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과장별로 말뭉치 크기를 확인해보면, 7(1) 샌님과 의막사령놀이경이 가장 크고, 8 신할아버지·미알할미 과장,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의 말뭉치도 비교적 큰 과장(경)에 해당한다. 반면, 대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1 상좌과장을 제외하면 4 연잎과 눈끔찍이과장이 가장 작다. 이는 비교적 등장인물이 많고 대화에 의존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장이 7(1) 샌님과 의막사령놀이경이며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술임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등장인물이 적고 대화에 의존하지 않는 과장이 4 연잎과 눈끔찍이과장이며 구술보다는 행위(춤)에 의존하는 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본을 중심으로 흥갑표본은 5(2) 팔목중과장의 침놀이경, 5(3) 팔목중과장의

9) 표의 공간이 여의치 않으므로 양주별산대놀이의 각 과장별 명칭을 여기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좌과장, 2 움중과장, 3 목중과 움중과장, 4 연잎과 눈끔찍이 과장, 5(1) 팔목중과장 염불놀이경, 5(2) 팔목중과장 침놀이경, 5(3) 팔목중과장 애사당법고놀이경, 6(1) 노장과장 파계승놀이경, 6(2) 노장과장 말뚝이(신장수)경, 6(3) 노장과장 취발이경, 7(1) 샌님 과장 의막사령놀이경, 7(2) 샌님과 포두부장놀이경, 8 신할아버지·미알할미과장이다.

10) 박기운본은 5(1) 팔목중과장 염불놀이경, 5(2) 팔목중과장 침놀이경이 없다.

11) 정수진(2008:186, 254, 277)은 이두현은 이 학회에서 민속학은 '민족과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구비와 생활 전승을 전하는 무기록 전승 자료들, 즉 민속문화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한국인류학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12) 정수진(2008:254)은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의 조사자 명단을 기술해 두었는데, 이두현이 17개의 무형문화재를 조사한 반면 최상수는 동래야유 한 건을 조사했다.

애사당범고놀이경, 6(1) 노장과장의 파계승경이 크게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고, 이두현본은 3 음중과 목중과장, 5(1) 팔목중과장의 염불놀이경, 6(2) 노장과장의 말뚝이(신장수)경,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의 재담이 많으며, 현재 보존회 대본은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이 기형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반면, 7(1) 샌님과장의 의막사령놀이경, 7(2) 샌님과장의 포도부장경,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은 크게 확대되어 다른 이본들을 압도할 만큼 크다. 이는 1957-1958년에는 의료혜택에 목마른 서민층의 현실 고발, 타락한 승려에 대한 풍자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현대로 올수록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풍자, 가부장사회에 대한 고발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소통매체로 분석한 변이 양상

양주별산대놀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해소하는 등장인물의 소통방식에서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대화 쌍방의 소통 매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 연잎과 눈끔쩍이 과장에서 연잎과 눈끔쩍이는 행위(춤)로만 표현하고 상대역인 목중, 음중은 연잎, 눈끔쩍이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목중과 음중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예로, 7(2) 샌님과장의 포도부장경에서 소무와 포도부장은 언어적 형식의 표현이 없이 행위(춤)로만 소통하지만, 상대역인 샌님은 소무나 포도부장과 언어적으로 소통한다. 이는 양주별산대놀이 채록본을 말뚝치로 구축하여 단순히 시대별로 몇 어절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다 정도의 분석을 넘어서 대화의 양상에 따른 변이 양상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대화의 소통매체(언어, 행위(춤))에 따라 변이의 양상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채록본별, 과장별, 대화 양상을 분류하면 ㉠대화가 없는 과장, ㉡대화의 소통 매체가 다른 과장(경), ㉢등장인물 모두가 대화로 소통하는 과장(경)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은 구술대화가 전혀 없고 춤과 음악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1 상좌과장인데 언어적 형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고 다루지 않는다. ㉡유형은 4 연잎과 눈끔쩍이과장, 5(3) 팔목중과장의 애사당범고놀이경, 6(1) 노장과장의 파계승경, 6(2)노장과장의 신장수경,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 7(2) 샌님과장의 포도부장놀이경,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이 해당한다. ㉢유형은 대화를 통해 갈등과 동류의식을 표출하는 2 음중과장, 3 목중과 음중과장, 5(1) 팔먹중과장의 염불놀이경, 5(2) 팔먹중과장의 침놀이경, 7(1) 샌님과장의 의막사령놀이경이 해당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양주별산대놀이의 과장 대화 구성 분류>¹³⁾

NO	채록 연대	이본 명칭	㉠대화가 없는 과장	㉡대화의 소통 매체가 다른 과장(경)	㉢대화로 소통하는 과장(경)
1	1930	김지연 필사본	상좌	노장(말뚝이) 노장(취발이) 샌님(포도부장놀이)	음중 목중과 음중 팔목중(염불놀이) 팔목중(침놀이)
2	1957	홍갑표 보관본			
3	?	임석재 채록본			

13) 채록본마다 각 과장이나 경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무형문화재 지정본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은 극의 연출이 행위(춤)나 음악으로만 전달되는 것이고 ㉡은 일부 등장인물이 언어적 대화를 하고 있지만, 상대역은 말이 아닌 행위(춤)로 의사로 전달하는 형식이며 ㉢은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 관계나 동류의식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실)		
4	1957 /1958	이보라 정리본	연잎과 눈끔적이 팔목중(애사당법고 놀이) 노장(파계승) 신할아비·미알할미	샌님의막사령놀이)
5	1958	이두현 채록본		
6	1958	최상수 채록본		
7	1964	임석재·이두현 채록본		
8	1973	김성대 채록/ 심우성 정리본		
9	2004	노재영 보유/ 박기운 필사본		
10	2009	보존회 소장본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이 서로 다른 소통매체(말과 행위)로 갈등을 표출하고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유형이다. 6(2) 노장과장의 말뚝이(신장수)경에서는 말뚝이(신장수) 재담만 있으며,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에서는 취발이 재담만 있고, 7(2) 샌님과과장의 포도부장놀이경에서는 샌님의 재담만 있다. 말뚝이(신장수)의 상대역인 노장은 행위(춤)로만 의사를 표현하고, 취발이의 상대역인 노장과 소무도 행위(춤)로만 의사를 표현하며 샌님의 상대역인 포도부장과 소무도 행위(춤)로만 의사를 표현한다. 갈등의 주체가 되는 쌍방의 소통방법이 달라 말뚝이와 취발이, 샌님의 구술은 혼잣말 아닌 혼잣말의 형태를 띠게 된다. 또, 4 연잎과 눈끔적이과장, 5(3) 팔목중과장의 애사당법고놀이경, 6(1) 노장과장의 파계승경, 8 신할아비·미알할미과장은 여러 등장인물이 구술을 하지만, 해당 과장의 중심 인물이 되는 연잎, 눈끔적이, 애사당, 노장, 미알할미만 말을 하지 않고 행위(춤)로만 표현한다는 점에서 쌍방의 소통 방법이 다르다.

㉠유형은 대화가 없으므로 논의를 생략하고, ㉡유형의 혼잣말 아닌 혼잣말 형태를 확인해보자. 아래는 6(2) 노장과장의 말뚝이(신장수)경,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 7(2) 샌님과과장의 포도부장놀이경의 어절수와 발화수를 확인한 것이다.

<표4 소통매체가 다른 과장(경)에서 1인 구술 유형의 어절수와 발화수>

과장	이본	1.	2.	4.	5.	6.	7.	8.	9.	10.	합계
		김지연본	홍갑표본	이보라본	이두현본	최상수본	지정본	심우성본	박기운본	보존회본	
6(2)	어절수	242	372	300	430	239	368	368	387	336	3,042
	발화수	42	74	58	72	40	66	70	74	63	559
	평균어절수 ¹⁴⁾	5.76	5.02	5.17	5.97	5.97	5.57	5.25	5.22	5.33	5.44
6(3)	어절수	650	817	706	819	713	758	731	793	399	6,386
	발화수	112	168	138	140	130	160	154	158	77	1,237
	평균어절수	5.80	4.86	5.11	5.85	5.48	4.73	4.74	5.01	5.18	5.16
7(2)	어절수	142	336	287	599	190	294	285	452	632	3,211

											7
	발화수	25	54	54	92	33	48	45	69	106	526
	평균어절수	5.68	6.22	5.31	6.51	5.76	6.13	6.33	6.55	5.96	6.11

과거에서 현대로 올수록 비중 있는 과장이 달라지고, 구술자가 교체되면서 각 채록본의 어절수의 증감은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평균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6(2) 노장과장의 말뚝이(신장수)경의 평균은 5.44이고, 자료값은 5.03~5.98에 분포하여 표준편차¹⁵⁾는 0.33이다.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의 평균은 5.16이고, 자료값은 4.73~5.80에 분포하여 표준편차는 0.40이다. 7(2) 샌님과과장의 포도부장경의 평균은 6.12이고, 자료값은 5.31~6.55에 분포하여 표준편차는 0.38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표준편차는 자료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가깝게 또는 멀리 분포하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로, ⊙유형의 1인 구술 유형은 대체로 자료들의 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상대역의 구술 없이 혼자서 구술하는 말뚝이, 취발이, 샌님의 발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역인 노장, 원숭이, 소무, 포도부장이 행위(춤)로 반응을 하더라도 극의 전개를 위해서는 말뚝이, 취발이, 샌님의 구술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혼자서 한 경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즉흥정보다는 암기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긴 문장의 암기보다는 짤막한 문장의 암기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형에서 1~2인 배제 구술 유형을 확인해 보자. 이 유형은 전체 등장인물 중에서 1~2인의 소통매체가 다르고 나머지 인물들은 서로 언어적 형식으로 소통하는 유형이다. 4 연잎과 눈끔찍이과장, 5(3) 팔목중과장 애사당법고놀이경, 6(1) 노장과장 파계승놀이경,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이 해당한다. 4 연잎과 눈끔찍이과장에서는 연잎과 눈끔찍이 2인이 행위(춤)로 표현하고 목중과 음중 2인이 구술하며, 5(3) 팔목중과장 애사당법고놀이경에서는 왜장녀와 애사당 2인이 행위(춤)로 표현하고 완보, 먹중, 음중, 말뚝이 등 2~4명이 구술한다. 6(1) 노장과장 파계승놀이경에서는 노장 1인이 행위(춤)으로 표현하고 완보, 음중, 먹중, 집장인 등 2~4명이 구술하며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에서는 미알할미 1인이 행위(춤)으로 표현하고 신할아버, 도끼, 도끼누이 3인이 구술한다. 이 유형은 등장인물 중 1~2인이 행위(춤)로 표현하여 구술이 없지만, 적어도 2~4명이 서로의 구술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소통하는 유형이다.

<표5 소통매체가 다른 과장(경)에서 1-2인 배제 구술 유형의 어절수와 발화수>

과장	이본	1. 김지연본	2. 홍갑표본	4. 이보라본	5. 이두현본	6. 최상수본	7. 지정본	8. 심우성본	9. 박기운본	10. 보존희본	합계
		어절수	34	73	42	63	44	84	85	55	77
4	발화수	5	18	13	8	8	20	19	13	16	120
	평균어절수	6.80	4.06	3.23	7.88	5.50	4.20	4.47	4.23	4.81	4.64

14) 어절수÷발화수, 소수 둘째자리미만 절사.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한 문장 안에 몇 어절이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5) $[\sum(\text{자료값}-\text{평균값})^2/\text{자료개수}]^{(1/2)}$, 소수 둘째자리미만 절사. 표준편차는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표준편차의 값이 클수록 자료값들의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의 1인 구술유형, ⊙유형의 1~2인 배제 유형과 ⊙유형의 표준편차로도 자료들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5(3)	어절수	495	951	536	769	490	489	470	660	481	5,341
	발화수	103	221	124	136	96	134	125	167	139	1,245
	평균어절수	4.80	4.30	4.32	5.65	5.10	3.64	3.76	3.95	3.46	4.29
6(1)	어절수	307	442	321	308	381	406	401	500	367	3,433
	발화수	65	85	77	50	71	82	81	99	81	691
	평균어절수	4.72	5.20	4.16	6.16	5.36	4.95	4.95	5.05	4.53	4.96
8	어절수	594	745	613	1,279	669	792	717	749	1,717	7,875
	발화수	118	143	154	206	132	207	159	142	278	1,539
	평균어절수	5.03	5.20	3.98	6.20	5.06	3.82	4.50	5.27	6.17	5.11

㉠의 1~2인 구술 배제 유형도 9개 자료의 어절수 증감은 불규칙적이고, 발화당 평균 어절수도 일정하지 않다. 4 연잎과 눈끔찍이과장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4.64이고, 자료값은 3.23~7.88에 분포하며 표준편차는 1.38이다. 5(3) 팔목중과장의 애사당법고 놀이경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4.29이고, 자료값은 3.46~5.65에 분포하며 표준편차는 0.68이다. 6(1) 노장과장의 파계승경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4.96이고, 자료값은 4.16~6.16에 분포하면 표준편차는 0.52이다. 8 신할아비·미알할미과장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5.11이고, 자료값은 3.82~6.20에 분포하며 표준편차는 0.79이다. 대체로 표준편차가 ㉠의 1인 구술 유형보다 크므로 ㉠의 1인 구술 유형보다 자료값이 고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역과 언어적 형식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한 결과다. 각 자료마다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고르지 않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는 ㉠등장인물 전원이 대화로 소통하는 과장(경)의 어절수와 발화수

<표6 등장인물 전원이 대화로 소통하는 과장(경)의 어절수와 발화수>

과장	이본	1.	2.	4.	5.	6.	7.	8.	9.	10.	합계
		김지연본	홍갑표본	이보라본	이두현본	최상수본	지정본	심우성본	박기운본	보존회본	
2	어절수	47	124	88	75	60	129	120	156	125	924
	발화수	10	21	21	12	11	33	28	30	33	199
	평균어절수	4.70	5.9	4.19	6.25	5.45	3.91	4.29	5.20	3.79	4.64
3	어절수	254	513	493	806	287	558	555	484	561	4,511
	발화수	41	91	100	140	43	130	117	111	153	926
	평균어절수	6.2	5.64	4.93	5.76	6.67	4.29	4.74	4.36	3.67	4.87
5(1)	어절수	292	583	500	715	360	542	543		496	4,031
	발화수	55	63	58	94	58	82	97		85	592
	평균어절수	5.31	9.25	8.62	7.61	6.21	6.61	5.60		5.84	6.81
5(2)	어절수	509	1,04	617	1,04	534	760	749		742	6,00

			6		4						1
	발화수	88	171	121	184	84	158	153		161	1,120
	평균어절수	5.78	6.12	5.10	5.67	6.36	4.81	4.90		4.61	5.36
7(1)	어절수	550	979	980	1,132	657	858	863	863	1,486	8,368
	발화수	98	175	200	189	117	210	178	194	266	1,627
	평균어절수	5.61	5.59	4.90	5.99	5.62	4.09	4.85	4.45	5.59	5.14

㉠ 유형의 자료도 어절수 증감은 불규칙적이고, 발화당 평균 어절수도 일정하지 않다. 2 음중과장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4.64이고, 자료값은 3.79~6.25에 분포하여 표준편차는 0.83이다. 3 목중과 음중과장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4.87이고, 자료값은 3.67~6.67에 분포하여 표준편차는 0.93이다. 5(1) 팔목중과장의 염불놀이경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6.81이고, 자료값은 5.31~9.25에 분포하여 표준편차는 1.36이다. 5(2) 팔목중과장의 침놀이경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5.36이고, 자료값은 4.61~6.36에 분포하여 표준편차는 0.60이다. 7(1) 샌님과과장의 의막사령놀이경의 전체 평균 발화당 평균 어절수는 5.14이고, 4.09~5.62에 분포하며 표준편차는 0.60이다. 대체로 표준편차가 ㉠의 1~2인 배제 유형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인을 배제하고 나머지 등장인물들 간에 소통한 것과, 등장인물 전원이 소통한 것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의 1~2인 배제 유형도 구술하지 않는 1~2인과 소통을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등장인물 간에 소통했기 때문에 ㉠의 대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동일 소통매체로 소통하는 상대역이 있는 상황은 ㉠의 1인 구술 유형처럼 서로 다른 소통 매체로 소통하여 혼잣말 아닌 혼잣말이 된 상황과는 즉흥성의 표출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화로 소통한 과장(경)에서는 즉흥성이 크게 표출되었고, 1인이 구술한 과장(경)에서는 즉흥성이 보다 적게 표출되는 변이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과장별 화소의 변화를 검토한 변이 양상

이 장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본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리극은 즉흥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연희할 때마다 다르게 구술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양주별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원형 고수라는 당위성이 대두되었고, 어느 것이 원형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무형문화재 지정본을 중심으로 어떤 화소가 삽입되고 생략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문화재 지정본의 과장(경)의 순서로 화소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7 무형문화재 지정본의 화소>

2 음중과장	음중의 물건팔기, 상좌의 음중의 물건 도적질
3 음중과 목중과장	음중의 의관놀이(어송화, 옥누 등 언어유희), 음중의 음에 대한 상좌의 조롱
4 연잎과 눈끔찍이과장	연잎과 눈끔찍이에게 놀라 음중과 목중이 달아남

5 팔목중 과장	염불놀이	오입쟁이 팔목중을 완보가 조롱
	침놀이	말뚝이 일가족(목중, 움중, 상좌)의 관격, 완보의 1차 진단(주당살, 상문살, 음마등병, 무당자손)과 처치(백구타령 등), 동네 아이의 조롱, 신주부 침으로 소생
	애사당법고놀이	말뚝이의 애사당 매매, 애사당의 법고놀이, 완보의 장사, 완보와 말뚝이의 법고놀이
6 노장 과장	파계승놀이	노장 등장, 소무의 노장 유혹, 소무의 노장 박대, 노장과 소무의 동거, 완보의 움중 매질, 완보의 노장 조롱
	말뚝이 (신장수)놀이	말뚝이 신장사, 노장과 신발 흥정, 원승이의 외상값 회수 (간통), 말뚝이의 원승이 성희롱
	취발이놀이	노장에 대한 취발이의 결투 승리, 소무 1인 타협, 취발이 득남, 마당이 글 배우기, 소무의 찢주기 거부
7 샌님 과장	의막사령놀이	말뚝이의 의막 부탁, 쇠뚝이의 의막 정함, 쇠뚝이 문안, 쇠뚝이의 양반 비웃음, 쇠뚝이의 2차 문안, 쇠뚝이의 양반 조롱, 말뚝이의 혈장 청탁, 종가집 도령님 납채 처리
	포도부장놀이	샌님이 포도부장에게 애걸과 꾸짖음, 샌님의 소무 회유와 애걸, 샌님의 포기
8 신할아버지미알할미 과장		신할아버지의 구박, 미알할미 죽음, 도끼 등장, 도끼가 누이 방문, 누이의 빈소 방문, 누이의 굿

말뚝이를 과장별로 병렬적으로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면에서는 김지연본과 최상수본의 구술자가 다르고 약 2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화소가 매우 비슷하다.

3 움중과 목중과장에서 의관놀이는 언어유희가 빼어난 부분인데, 김지연본과 최상수본에서는 어송화, 옥누 등에 대한 언어유희가 없다. 김지연본과 최상수본은 이본들 가운데서 가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3 목중과 움중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술이 상당 부분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1) 팔목중과장 염불놀이경은 목중이 자신이 오입쟁이이므로 염불이 아니라 가사를 읊는다고 자랑하는데, 김지연본과 최상수본에서는 가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보라본에서는 말뚝이가 목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심우성본에서 완보는 신할아버지가 미알할미를 찾을 때 나타나는 ‘집안에 개새끼가 나가도 찾는데 아니 찾을 수 있나.’와 같은 구술을 볼 수 있다.

5(2) 팔목중과장 침놀이경은 말뚝이 자손이 관격이 되었을 때 완보는 주당살, 된급살, 상문살을 맞았다고 하면서 말뚝이 집안에 무당이 많지 않냐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과장(경)이다. 흥갑표본, 이두현본에서는 말뚝이가 무당 자손이라는 화소가 생략된 대신에 살에 대한 설명은 풍성한 편이다. 특히 신주부를 소개하는 구술이 매우 자세한 것이 이두현본의 특징이다. 이보라본은 무당 화소만 생략되었고, 심우성본과 보존회본은 무당 화소는 살아있지만 살에 대한 설명은 축소되었다. 김지연본과 최상수본은 말뚝이 역할을 중이 대신하고 있는 현상도 볼 수 있다. 현대로 올수록 병의 원인을 미신에서 찾으려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5(3) 팔목중과장 애사당법고놀이경은 흥갑표본이 가장 풍성하다. 말뚝이의 크기도 압도적으로 크고 화소도 가장 많다. 딸이 다섯인 왜장녀는 아들이 없어서 ‘불장 다 본’ 것이고, 법고놀이가 왜 벗고놀이인지 잘 설명해준다. 김지연본에서는 동, 서, 남, 북을 향하면서 법고를 치는 장면에서 동서를 향하는 장면이 생략되었고, 이두현본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장면이 축소되더니 심우성본, 박기운본, 보존회본에서는 남북으로 향하는 놀이가 생략되고 있다. 김지연본, 이두현본, 최상수본은 말뚝이가 애사당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이

애사당을 매매하는 것으로 교체되어 있고, 이보라본에서는 완보가 대국을 다니면서 장사하다가 법고를 가져왔다는 화소가 생략되어 있다. 김지연본과 최상수본에는 발음의 유사성에 기댄 언어유희인 법고가 벗고놀이가 되는 맥락이 생략되어 있고 왜장녀의 구술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왜장녀가 구술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동서남북놀이는 언어유희와 놀이의 연쇄를 잘 활용한 구술인데 현대로 올수록 생략되는 추세다.

6(1) 노장과장의 팔목중경은 김지연본에서만 집장인의 구술이 나타나고, 다른 이본에서는 음중을 매질하는데 최상수본에서만 목중을 매질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것은 최상수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에서는 보존회본에 취발이 득남 화소가 없는 것이 눈에 뜨인다. 마당이가 없으므로 마당이의 글 배우는 장면, 소무의 짓주기 거부 장면도 없다. 본고의 사건에는 대본을 정리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서 취발이 득남 화소가 없으므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다. 만약 득남 화소가 모두 들어 있다면 가장 큰 자료는 보존회 자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1) 샌님과장의 의막사령놀이경은 쇠뚝이가 말뚝이의 권유로 샌님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2번 나타나는데, 박기운본과 보존회본은 3번 나타난다. 현대로 올수록 지배층의 횡포를 부각시키는 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7(2) 샌님과장의 포도부장놀이경에서 샌님은 포도부장을 꾸짖고 애걸하는 반면, 소무에게는 애걸하면서 고래등 같은 집으로 회유를 하는데, 김지연본, 흥갑표본, 이보라본, 최상수본에서는 소무에게 애걸하는 장면만 있고, 고래등 같은 집으로 회유하는 화소는 없다. 김지연본에서는 포도부장을 꾸짖는 화소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로 올수록 지배층의 횡포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방향으로 변이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8 신할아버지·미알할미 과장은 심우성본이 독특한 면이 있는데, 미알할미의 낫을 달래는 곳을 도끼가 하는 모습이 보이고, 미알할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 김지연본, 흥갑표본, 이보라본까지는 미알할미가 신할아버지의 구박에 못 이겨 음독 자살을 하는데, 이후의 자료에서는 미알할미의 자살 화소가 생략되었다. 김지연본, 이두현본, 최상수본, 보존회본에서는 미알할미의 3년상 화소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현대의 문화가 반영된 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6 이본별 화소의 변이 양상>

과장	1. 김지연본	2. 흥갑표본	4. 이보라본	5. 이두현본	6. 최상수본	8. 심우성본	9. 박기운본	10. 보존회본
3	어송화, 옥누 언어 유희 없음				어송화, 옥누 언어 유희 없음			
5(1)	가사 없음		오입쟁이는 말뚝이	완보와 목중만 등장	가사 없음			
5(2)	중의 자식이 관격	무당화소 없음.	무당화소 없음.	무당화소 없음, 신주부 소개	중의 자식이 관격	주당살, 상문살 화소 축소됨		주당살, 상문살 화소 축소됨

				풍성			×	
5(3)	중이 애사당 매매, 동서놀이 생략, 벗고 화소 없음. 왜장녀 구술있음		완보의 물건 팔기 없음	목중이 애사당 매매, 동서, 남북놀 이 축소	중이 애사당 매매, 벗고 화소 없음, 왜장녀 구술 있음		남북 놀이 없음	남북 놀이 없음
6(1)	집장인 있음				먹중 매질			
6(3)								취발이 득남 없음
7(1)							3번 문안	3번 문안
7(2)	소무 회유 없음, 포도부장 꾸짖음 없음	소무 회유 없음	소무 회유 없음		소무 회유 없음			
8	미알할미 3년상 없음 미알할미 음독자살	미알 할미 음독 자살	미알 할미 음독 자살	미알 할미 3년상 없음	미알 할미 3년상 없음	도끼의 긋, 미알 할미의 구술 있음		미알 할미 3년상 없음

5. 단어의 쓰임을 조사한 변이 양상

1세기라는 시간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양주별산대놀이의 이수자 교체를 부른다. 1930년대 채록본에는 19세기에 출생한 놀이꾼의 말이 담겼지만, 현대 보존회본에는 교체된 이수자의 말이 담기기 마련이다. 이 장에서는 과거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이 현대에 쓰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단어는 방언이 표준어로 대체된 예, 표기가 변화한 예, 한자 합성어의 일부가 고유어로 교체된 예, 음운이 교체된 예, 어떤 원리로 교체되었는지 규명하기 어려운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음운이 교체된 예와 원리를 규명하기 어려운 예인데, 비슷한 음운으로 교체되고 그것이 표기로 이어지면서 전혀 알 수 없는 단어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어로 대체된 예부터 확인하자.

방언이 표준어로 대체된 예는 김지연본 3 목종과 음종과장에 표현된 ‘백절(白절)’이다. 백절, 백차일이 모두 방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백차일 하나만 표준어로 인정되면서 ‘백차일’로 대체하여 구술하고 있었다. 김지연본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에 살림살이를 표현하는 ‘부정귀’는 표준어인 ‘부정기’로 대체되어 있다.

소리값은 같으나 표기가 변한 예도 있다. 김지연본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에서 신할아버의 아들 이름은 독기[도끼]였으나 도끼[도끼]로 표기하였다. 독기는 난봉꾼이라는 그의 성

격을 잘 설명하는 이름이고, 도끼는 과장의 후반부에 누이가 대패, 끌 등으로 언어유희를 하는 장면과 맥이 닿아있다. 이후의 연구자들이 언어유희 장면에 맞추어 도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 합성어의 일부가 우리말로 교체된 예는 김지연본 6(2) 노장과장 말뚝이(신장수)경에서 ‘女운鞋, 여당혜(女唐鞋)’로 쓰인 단어가 홍갑표본 이후의 자료에서는 ‘부녀신, 꽃당혀, 운녀신’으로 나타나는데, 唐鞋는 신으로, 女는 꽃으로 한자합성어의 일부를 고유어로 교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김지연본 7(1) 샌님과장 의막사령놀이경에 ‘道令님’으로 쓰인 단어가 박기운본 이후 자료에서는 ‘도련님’으로 쓰여, 道令을 도련으로 교체한 것도 볼 수 있다.

음운 교체는 매우 자주 나타나는데, 언어유희를 연쇄적으로 엮는 구술에서는 필연적인 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연본 6(2) 노장과장 말뚝이(신장수)경에서 신발을 의미하는 ‘발막이’는 무형문화재지정본 이후에는 모두 ‘발마개’로 표현되었다. 김지연본 6(3) 노장과장 취발이경에서 취발이가 아들을 업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居住없다’로 표현하던 구술이 박기운본부터는 ‘거지없다’로 표현되었다. 김지연본 6(3) 노장과장 취발이경은 단어의 쓰임에서 변화가 많은 편인데 이무기를 의미하는 ‘산중대망이(山中大蟒이)’가 보존회본에서는 ‘상중 대망이’로 표현되었고, ‘누구시오’라고 묻는 말 ‘월여(越汝)’는 ‘워리어’로 표현되었다. 김지연본 8 신할아비·미알할미과장에서 가재도구를 지칭하는 ‘떡동구리’는 ‘먹동구리’로 교체되었고, ‘숫개 부등가리’는 ‘솔개 부등가리’, ‘솔개 부등가리’로 교체되었다. 심우성에 의하면¹⁶⁾ ‘숫개 부등가리’는 살림살이를 의미하는데, 현대 연희자에게는 생소하므로 ‘숫개’는 ‘솔개’로 소리값이 변하고, ‘솔개’와 같이 소리값은 같으나 표기가 달라지는 변화가 생겼으며, ‘부등가리’는 ‘부등가리, 부등가리’ 등으로 변하여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음운교체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1)에 제시하였다.

- 1) 발막이 → 발마개 (i → æ/ɛ)
 - 居住없이 → 거지없이 (u → i)
 - 산중 대망이 → 상중 대망이 (n → ŋ, m → b)
 - 월여 → 워리어 (l → r)
 - 떡동구리 → 먹동구리 (t → m)
 - 숫개 부등가리 → 솔개 부등가리 (t → l, i → o)
 - 숫개 부등가리 → 솔개 부등가리 (표기변화, i → u)

- 2) 행전, 토수(토시), 굴네(굴레) → 행정거지구레 (?)
 - 총을치하겠다 → 종을 치겠구나, 종을 치하겠다 (?)

다음은 교체 원리를 명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 예로 위의 2)가 해당한다. 김지연본 6(3) 노장과장의 취발이경에서 취발이의 형편이 어려워 삼신제왕이 마당의 옷을 잘 해 입혔다는 표현으로 ‘바지, 저고리, 행전, 토시(수), 굴네(레)까지’ 입혀 보냈다고 하는데, 보존회본에는 취발이 득남 화소가 없고, 박기운본에는 ‘행정거지구레’로 표현된다. 바지를 입고 정강이를 감싸던 ‘행전[hɛŋjɛn]’은 ‘행정[hɛŋjɛn]’으로 음운이 교체되었고, 아들의 머리에 쓰는 ‘굴네[kulne](굴레)’는 ‘구레[kule]’로 음운이 탈락되었는데, ‘구레’ 앞에 ‘거지’가¹⁷⁾ 교착되어 탄생한 ‘행정거지구레’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될 수 없으

16) 심우성(1973:631), 『양주별산대놀이』 연희본, <창작과비평> 8(2), 창비과비평사.

나 하나의 단어로 취급되어 어떤 의미일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단순한 음운교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쓰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전혀 다른 의미나 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예로 홍갑표본과 무형문화재 지정본, 심우성본 7(2) 샌님과장에 나타나는 ‘총을치’가 있다. 쇠뚝이가 샌님이 양반이 아니라고 하다가 샌님의 호령소리를 듣고 ‘총을치 하겠다’고 하자, 말뚝이가 샌님이 벼슬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총을치’는 맥락상 벼슬하는 양반을 지시하는 단어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된 ‘총을치’는¹⁸⁾ 품계가 높은 무관의 주립 장식으로 사용되던 호수(호랑이수염)를 꿩깃털로 대신하던 관습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 ‘총을치’가 ‘종을 치겠다’, ‘종을 치하겠다’로 변형이 된다. 이것은 ‘총을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벼슬과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의한 바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8 단어의 변이 양상>

변이양상	전	후
표준어 교체	백절, 김지연본 3	백차일, 최상수본 3, 5(2)
	부정귀, 김지연본 8	부정기, 최상수본 8
표기변화	독기, 김지연본 8	도기, 홍갑표본 이후 자료 8
일부 우리말 교체	女운鞋, 여당혜(女唐鞋) 김지연본 6(2)	부녀신, 꽃당혜, 운녀신 홍갑표본 이후 자료 6(2)
	道令님, 김지연본 7(1)	도련님, 박기운본 이후 자료 7(1)
음운 교체	발막이, 김지연본 6(2)	발마개, 지정본 이후 자료 6(2)
	居住없이, 김지연본 6(3)	거지없이, 박기운본 6(3)
	산중대망이, 김지연본 6(3)	상중 대망이, 보존회본 6(3)
	월러, 월여, 김지연본 6(3)	위리어, 박기운본 6(3)
	떡동구리, 김지연본 8	먹동구리, 최상수본 8
	숯개 부등가리, 김지연본 8	솔개 부등가리, 이두현본 8 솔개 부등가리, 보존회본 8
알수없음	서피(犀皮), 김지연본 6(2)	휘리 진피, 홍갑표본 이후 자료 6(2)
	행전, 토시(수), 굴레, 김지연본 6(3)	행정거지구레, 박기운본 6(3)
	총을치하겠다, 홍갑표본, 지정본, 심우성본 7(1)	종을 치겠다, 박기운본 7(1) 종을 치하겠다, 보존회본 7(1)

6. 나가기

본고는 약 100년의 시간동안 채록된 양주별산대놀이 구술자료 9개에 대하여 국어학에서

- 17) 6(3) 노장과정 취발이경에서 ‘거주없이’가 ‘거지없이’로 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절에서 불을 때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는 노총각의 신세를 ‘거지’로 여겨서 ‘거지없이’로 변하고, 그것이 취발이 캐릭터의 성격으로 인지되어 ‘거지구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명징하게 증명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한다.
- 18) 다소 생소한 ‘총을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가운데 기세배에서 그 명칭을 찾을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열이 낮은 마을의 기(旗)가 서열이 높은 마을의 기(旗)에 세배를 하는 놀이인데, 농업신을 그려넣은 광목 깃발을 7미터 이상 대나무 장대에 달고, 장대 끝에 평장목을 달고, 평장목 아래는 ‘총을치’로 장식하였다. ‘총을치’란 침을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을 가는 실처럼 갈기리 찢은 다음 붉은 물을 들여서 장목 바로 밑에 매단 것을 말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2022년 8월 15일에 ‘총을치’로 검색함.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3357>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뭉치 구축의 방법을 활용하여 변이 양상을 다음의 4가지 정도로 확인하였다.

첫째, 이본의 크기로 보았을 때 이두현본이 가장 컸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자료는 무형문화재 지정본보다 3 음중과 목중과장, 5 팔목중과장, 6 노장과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했으며, 현재 보존회 자료는 7 샌님과장,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이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본고는 1950년대에는 의료혜택에 목마른 서민층의 현실 고발, 타락한 승려에 대한 풍자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현대로 올수록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풍자, 가부장사회에 대한 고발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소통매체로 보았을 때, 등장인물은 여럿이지만 구술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발화당 어절수가 모든 자료에서 고르게 나타난 반면, 등장인물 여럿이 구술을 하는 경우에는 발화당 어절수가 고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본고는 1인 구술 과장에서는 상대역의 구술 반응이 없으므로 암기식 구술 전략의 일환으로 발화당 어절수가 고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여러 등장인물이 구술을 주고 받는 과장은 즉흥성이 극대화되어 발화당 어절수는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과장별 화소의 변화를 살폈을 때, 모든 과장에서 김지연본과 최상수본이 매우 비슷한 전개를 보여주었고, 현대로 올수록 3 목중과 음중과장, 5 팔목중과장, 6 노승과장에서 언어유희, 가사 등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 구술되는 대본에서는 미알할미 3년상 화소, 미알할미의 음독자살 화소만 사라지고, 7 샌님과장, 8 신할아버·미알할미과장의 여러 화소들이 모두 나타나는 현상도 파악하였다. 이는 이본의 말뭉치 크기를 확인하고 분석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넷째, 단어의 쓰임을 보았을 때, 19세기에 있었던 단어가 현대에 변화한 모습이 보였다. 이를 표준어로 교체, 표기방식의 변화, 한자합성어의 일부가 우리말로 대체, 음운 교체,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음운 교체와 알 수 없음으로 분류된 변이는 과거의 단어가 현재는 전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양주별산대놀이는 과거에 양주에서 놀던 연희극의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극이라는 자리와 무형문화재라는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다. 우리극의 가장 큰 특징인 즉흥성은 필연적으로 변이 상황을 안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원형 고수, 체계성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본고가 양주별산대놀이의 이러한 애매한 위치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상과 같은 변이 양상을 토대로 2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즉흥성과 원형고수를 모두 안고 가야 한다면, 1인 구술과장에서 즉흥성을 확대시켜야 한다. 과장별 화소와 과장별 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꾸준히 변화하고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화소의 증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데에서 실마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1인 구술과장이거나 여럿이 구술하는 과장에서 대체로 원형 고수의 폭이 비슷하다면 암기식 전략을 축소하여 즉흥성을 확대시켜 자연스럽게 신명나는 극이 되도록 두는 것이다.

둘째, 즉흥성과 원형고수가 연합되려면, 단어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이수자에게 전수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은 말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이수자는 과거의 단어에 대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값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알 수 없는 단어로 소리값이 변하게 된다. 그 결과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

는 것이다. 국어학에서는 이러한 현상도 언어의 변화로 보고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다고 보지만, 무형문화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수자에게 과거의 단어를 정확하게 가르쳐 의미가 상통하는 변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극과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단지 말의 관점에서 양주별산대놀이의 변이를 검토하였으므로 관심 있는 동학의 천착을 바란다.

참고문헌

- 김재철(2003), 『조선연극사』, 동문선.
- 김호석(2013), 「양주별산대놀이의 음악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57, 한국민속학회, pp.279~313.
- 박인수(2018), 「양주별산대놀이 깨끼춤의 전승양상 고찰 -‘기본춤’과 ‘모듬깨끼’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4, 역사민속학회, pp.265~292.
- 박인수·김지훈(2020), 「양주별산대놀이 상좌·음중춤의 전승양상 고찰」, <공연문화연구> 47, 한국공연문화학회, pp.285~320.
- 서연호(1993), 『산대탈놀이』, 열화당.
- 심우성(1973), 「『양주별산대놀이』 연희본」, <창작과비평> 8(2), 창비과비평사, pp.582~631.
- 양정화(2018), 『양주별산대놀이』, 지식과교양.
- 이두현(1984), 『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 이보라(1958), 「양주산대놀이」, <현대문학> 10월호, 현대문학사, pp.294~299.
- 이보라(1958), 「양주산대놀이」, <현대문학> 11월호, 현대문학사, pp.295~298.
- 이보라(1958), 「양주산대놀이」, <현대문학> 12월호, 현대문학사, pp.292~297.
- 이보라(1959), 「양주산대놀이」, <현대문학> 2월호, 현대문학사, pp.358~363.
- 이보라(1959), 「양주산대놀이」, <현대문학> 3월호, 현대문학사, pp.280~284.
- 이보라(1959), 「양주산대놀이」, <현대문학> 6월호, 현대문학사, pp.263~267.
- 이보라(1959), 「양주산대놀이」, <현대문학> 3월호, 현대문학사, pp.250~255.
- 임석재(1965), 「양주별산대놀이」, <문화재> 1, 국립문화재연구소, pp.140~156.
- 원혜진(2003), 「양주별산대놀이 반주음악의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30, 한국음악사학회, pp.515~547.
- 장경우(2013), 「꼭두각시놀음에 나타난 청자경어법의 통시적 변이 양상 연구」, <사회언어학> 21, 사회언어학회, pp.215~240.
- 장경우(2016), 「덜미에서 흥동지 재담의 변이 양상 연구」, <어문론총> 70, 한국문학언어학회, pp.205~233.
- 장경우(2021),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자 인터뷰 자료의 언어적 특성」, <사회언어학> 29(1), 사회언어학회, pp.149~174.
- 전경옥(2003), 「양주별산대놀이의 지속과 변화」,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학회, pp.227~84.
- 정상균(2001), 「『양주별산대놀이』의 비극성 연구」, <연민학지> 9, 연민학회, pp.337~378.
- 정수진(2008),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 정형호(2000), 『양주별산대놀이』, 화산문화.
- 조동일(1984),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 주현식·이상란(2013), 「『양주별산대놀이』의 공손어법과 불공손어법의 문화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27, 한국고전연구학회, pp.327~369.
- 최상수(1985), 『산대·성황신제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 최윤영(2009), 「『양주별산대놀이』를 중심으로 한 儺과장의 등장인물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소고」, <한국극예술연구> 30, 한국극예술학회, pp.13~47.
- 한명옥(1984), 「양주별산대놀이 춤사위 연구」, <한국무용연구> 3, 한국무용연구학회, pp.113~130.
- 황지선(2014), 「양주별산대놀이 연행공간과 동선에 관한 연구」, <민족미학> 13(2), 민족미학회, pp.107~148.
- 아키바 다카시(1980), 『조선민속지(復刻板)』, 명저출판.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2021년 2월 27일 검색함.
-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s://www.gugak.go.kr/site/main/index001> 2021년 2월 27일 검색함.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3357> 2022년 8월 15일 검색함.

Abstract

Variation pattern by yangju byeolsandaenori records,
using the corpus analysis method

Jang, Gyeong woo

This paper is

Key words : Yangju Byeolsandaenori, intangible cultural asset, corpus, variation pattern

장경우 : zaptlin@nate.com

<말뭉치 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주별산대놀이 채록본의 변이 양상>
토론

양종승
(민속학 · 샤머니즘박물관 관장)

장경우 선생의 양주별산대 채록본 변이 양상 연구는 국어학 연구의 귀중한 성과는 물론이고 전승보존회 소속의 연희자들에게도 적지 않게 도움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민속극 전승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민속학 연구자료로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까닭은 장경우 선생의 이와 같은 언어학적 분석법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본의 비교 연구는 민속학이나 연희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오로지 언어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19세기에 사용되었던 방언이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표준어로 교체되거나 표기방식이 변화되고, 한자 합성어는 우리말로 대체되는가 하며, 음운 또한 교체되는 등 이러한 언어학적 검토 및 분석은 연구자만의 깊은 안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민속학을 공부하는 토론자는 본 연구에 대해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다만 연구자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무형문화재 그리고 원형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보태며 주어진 소임을 다할까 한다.

무형문화재(또는 무형유산)는 시간, 장소, 상황, 전달자에 의해 변하는 특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는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기 위해 또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문화전달자인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 핵심적 의미와 관건은 변화 그리고 전달자이다. 이에, 무형문화재 변화에 대한 전달자의 대처 방식이 이전의 것을 고수하기 위해 과거 시간에 매여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며 주어진 현재적 상황에 적응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인간 본성의 특성은 적응성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야기되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사회화하는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변화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과정이다. 이와같은 구조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형문화재 용어가 등장하였고 원형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원형의 언어적 정의는 본디의 꼴이다. 그러나 이는 가식에 지나지 않는 개념일 뿐이다. 무형문화재에서 본디의 꼴은 어디에도 없는 허구이다. 지난 시간 속에서 통용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온 어제의 문화가 오늘에 이르면서 하나둘 쌓여 누층된 전형만이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양주별산대놀이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며, 그 발판 위에서 또 다른 시대적 본이 생성된다.

양종승 관장님의 토론문에 대한 답변서

<말뭉치 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주별산대놀이 채록본의 변이 양상>

승실대학교 장경우

무형문화재에 대한 양종승 관장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변화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과정”이고 근래에는 원형보다는 전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탈춤의 보존회에서는 종종 제 연구에 대해 원형 보존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불쾌해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민속학 연구자는 이수자와는 다른 시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자의 입장도 양종승 관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줄고의 본문에 기술한 바와 같이 탈춤을 구술로만 지도하다 보면 다음세대 이수자가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소리값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단어 또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여 구술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탈춤은 예술적 요소와 더불어 언어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학에서 활용하는 전산언어학(말뭉치 언어학 등)이 텍스트에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언중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언어학이 나아가야 할 바이므로 말로 된 우리 예술을 현대의 방법론으로 탐구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마무리 합니다.

원영의(元泳義)의 『국문과본(國文課本)』(1908)의 특성과 하와이 국어 교과서로의 활용 연구

이은선*

1. 서론

원영의(元泳義)는 근대 초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던 인물로, “애국계몽기에 80여 편의 다양한 저서를 남기고, 학교를 세워 교육활동에 전념”¹⁹⁾하였다. 『기호흥학회월보』 제2호~제12호까지 ‘식물학’을, 『대한협회회보』 제2호~제12호까지 ‘정치학’을 연재했고, 『교남교육회잡지』 제10~제11호, 『대동학회월보』 제3호와 제6호,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에 일부 논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²⁰⁾ 원영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누구보다도 활발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²¹⁾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의 한문 교재 『소학한문독본(小學漢文讀本)』(1907), 『몽학한문초계(蒙學漢文初階)』(1907), 『초등작문법(初等作文法)』(1908)에 대한 연구²²⁾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近代 初期의 한학자이자 교육자”²³⁾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국문과본』(1908)은 원영의의 저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최미경은 『소학한문독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문과본』을 간략히 살피고 있다.²⁴⁾ 김봉희는 개화기 국어 교육을 위해 발행되었던 서적을 검토하였는데, 이 목록에서 『국문과본』을 찾아볼 수 있다.²⁵⁾ 허재영의 연구에서도 원영의가 『몽학한문초계(蒙學漢文初階)』, 『국문과본』, 『국조사(國祖史)』, 『초등작문법(初等作文法)』 등의 교과서를 집필했다²⁶⁾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국문과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원영의의 저서 중 한 권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재미 한인의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국문과본』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원용은 『재미한인 50년사』에서 교과서 편찬을 살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대한인 국민회 지방총회가 1911년 6월 10일에 초등국어 교과서 상·하 두 권을 편찬하고, 1917년 2월 8일에 『국민국어과정』 상·중·하 3권을 편찬하였으며, 대한인교민단이 1923년 8월에 『국민독본』 상·중·하 3권을 편찬²⁷⁾했다. 1911년 이전 교재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국문과본』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 강양원·클레어 유 역시 『한국 이민 초기 교육의 발자취』에서 1900년대~1910년대 교재를 다루면서, 『국민독본』과 『대도(大道)』²⁸⁾만 언급하고 있다. 재미

* 한경대학교 강사

19) 최미경, 「원영의의 『소학한문독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4쪽.

20) 허재영, 「지식 보급 차원에서 본 근대 계몽기 잡지 교육적 기능과 한계」, 『우리말교육현장연구』 Vol.9 No.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5, 245쪽.

21) 위의 논문, 59쪽.

22) 최미경, 「원영의의 『소학한문독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영주, 「개화기 한문교재의 편찬 의식과 현재적 시사-원영의(元泳義)의 한문교재 편찬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0, 동방한문학회, 2017. ; 홍유빈, 「<초등작문법>의 허사설(虛詞說)에 대한 검토와 이해(1): 名詞類부터 副詞類까지를 대상으로」, 『대동한문학』 69, 대동한문학회, 2021.

23) 홍유빈, 「<초등작문법>의 허사설(虛詞說)에 대한 검토와 이해(1): 名詞類부터 副詞類까지를 대상으로」, 『대동한문학』 69, 대동한문학회, 2021, 311쪽.

24) 최미경, 앞의 논문, 17쪽.

25)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147쪽.

26) 허재영, 앞의 논문, 246쪽.

27) 김원용, 『재미한인 50년사』, 손보기 편, 혜안, 2004, 188쪽.

한인의 국어 교과서에 대한 윤금선의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회 하와이지방 총회에서는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1910년대에는 『초등국어』 상·하권과 『국민국어과정』 상·중·하 3권을, 1925년에는 『초등국민독본』 상·중·하 3권을 편찬하였고 각 국어학교가 이를 교과서로 사용하였다.”²⁹⁾ 또한 북미 지방총회의 의결과 그 지휘 아래에서 1차 국어 교과서 『국민독본』을 1909년 2월에 출판하였다.³⁰⁾ 이와 같은 국어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한 검토에서 『국문과본』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와이에서 『국문과본』을 국어 교과서로 사용했다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기록을 기반으로³¹⁾ 『국문과본』의 국어 교과서로서의 성격과 재미 한인의 한글 교육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재미 한인 교육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의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살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통감 시대라는 국내의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국문과본』이 발간된 1908년 5월 이후 이 책이 국내에서 어떻게 읽히고, 활용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다만 1910년 7월 1일 기준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에 『국문과본』이 포함되어 있다³²⁾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국문과본』이 ‘국어 교과서’로서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의 체재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문과본 서」와 「국문과본 범례」를 통해 이 책에서 저자 원영의가 ‘국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을 국어 교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국문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국한문혼용’의 방식으로 ‘한주국중체’가 널리 선택되었던 당대의 사례들과 다른 ‘국문 표기’ 선택이 가능해진다. “개화기에 나온 각종 교재를 보면 한글만으로 제작된 교재는 달리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부분 국한문혼용체를 지향, 국한문혼용을 하되 한자 옆에는 반드시 한글 음을 달았다”³³⁾는 점을 참고할 때, 저자의 판단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문과본』의 판본 및 체재 검토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국문과본』의 세 가지 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판본 확인 작업을 완료하였다.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소장본([그림 1] 참조)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소장본³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책 표지 상단에 ‘리세영’이라는 이름이 보인다([그림 2]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은 ‘이선일 목사 기증 자료’이다. 이 복사본의 표지 상단에도 ‘리세영’이라는 이름이 보인다([그림 3]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검색 화면에는 “소장자(처)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생산자 리세영”, “주제어 교과서; 한글; 리세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국어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던 ‘리세영’이라는 이름을 생산자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8) 강양원·클레어 유 편, 『한국 이민 초기 교육의 발자취』, 선인, 2011.

29) 윤금선, 「미주 지역 한인의 국어교육 전개양상」,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2012, 425쪽.

30) 윤금선,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 기관과 국어교과서 연구-일제강점기 미주 본토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525쪽.

31)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한국이민사박물관, 2010, 76쪽.

32)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의 실태』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45_0020_0050_0030_0050(검색일: 2022.4.27.)

33) 정상균·김영욱·한형구 외, 『국어교육이란 무엇인가』, 혜안, 2001, 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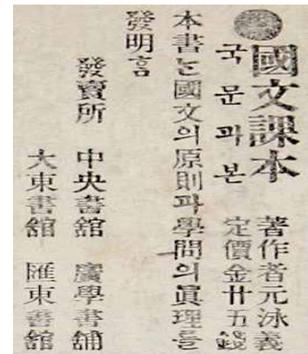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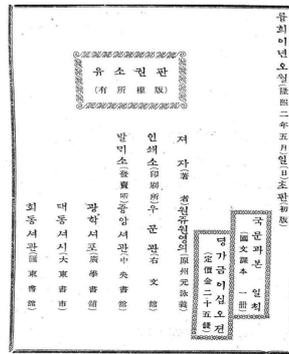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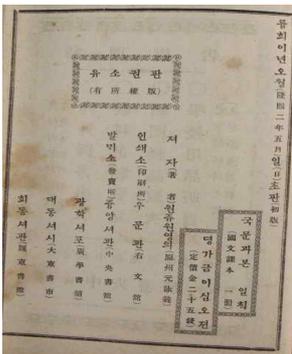
34) 원본 열람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서강대 로올라도서관에 감사를 표한다.

35) 원본 열람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감사를 표한다.



[그림 1] 서강대학교 소장본 [그림 2]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본 [그림 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이 세 판본의 발행 사항은 모두 일치하는데, “인쇄소 우문관”, “발미소 중앙서관” 등이다 ([그림 4], [그림 5] 참조). 판권지에 ‘5월’은 표기되어 있지만, 발행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문과본 서」에 “음력 이년 오월 망전 저술자 서”라고 적고 있어, 오월 ‘보름 이전’에 집필을 마쳤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의 광고를 『황성신문』³⁶⁾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08년 5월 30일에 첫 광고가 실린다([그림 6] 참조). 따라서 이 책의 실제 발간일은 5월 15일³⁷⁾부터 5월 30일 사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 이민사박물관 소장본 판권지 [그림 5]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판권지 [그림 6] 『황성신문』 광고

『국문과본』의 체재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국문과본 서」와 「국문과본 범례」를 검토할 것이다. 「국문과본 서」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국문’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비판한다. “한문만 숭상하다가 지금은 또 영문과 일문을 귀히 역이고 대한 국문은 천히 역이여 오음청탁과 아설순치성의 원리를 도모지 몰으니”³⁸⁾에서와 같이 한문·영문·일문에 대한 존중과 국문에 대한 무지를 대조하고 있다. 이어서 “이국심 업는 것도 국문을 연구치 아니한 연고오 나라이 빈약함도 국문을 연구치 아니한 연고오 외국의 룹모보는 것도 국문을 연구치 아니한 연고라”³⁹⁾고 주장하며, ‘국문’과 애국심을 연결시킨다.

36) 「국문과본(國文課本)」, 『황성신문』, 1908.5.30., 3면(이후 1908년 5월 31일(4면)부터 1908년 6월 23일(4면)까지 광고가 실린다).

37) ‘망전(望前)’의 사전적 의미는 “음력 보름이 되기 이전”인데, 1908년 음력 5월 15일은 양력 6월 13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력 보름 이전’으로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8) 원영의, 「국문과본 서」, 『국문과본』, 1908, 1쪽.

다음으로 이 책을 저술한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인이 시스를 감기하야 국문을 여러 히 연구하다가 훈민정음과 정음통석을 의거하야 국문과본 팔십여 과를 저술하노니 대기 국문의 원측과 학문의 리론을 발명하야 부인 유주와 초등 목슈라도 다 이국하는 습과 성을 양성코자 흠이라.”⁴⁰⁾ 원영의는 ‘국문’을 여러 해 연구한 결과, 훈민정음과 정음통석에 의거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 저술을 통해 ‘애국’하는 습관과 성격을 양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一) 교육계(教育界)에 국슈(國粹)를 직히기 위(爲)하야 국문의 원측(原則)을 발명(發明)흠

(一) 이국사상(愛國思想)을 위주(爲主)하야 신학문(新學問)의 리론(理論)을 저술(著述)흠

(一) 한문(漢文)은 지나(支那)의 국문인 고로 본국(本國) 국문으로 원위(原位)를 삼고 명사(名詞)에는 한문으로 보조(補助)를 삼아 주석(註釋)흠

(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의거(依據)하야 이십팔 자(二十八字)의 발음(發音)을 한문자(字)로 비준(比準)흠

(一) 초종성 팔 자 초발성(初發聲)은 ㉠(君) ㉡(那) ㉢(斗) ㉣(間) ㉤(彌) ㉥(瞥) 슈르⁴¹⁾(戊) ㉧(慾)이오 종성(終聲)은 초성을 다시 쓰느니 ㉨은 아금니로 발하야 아금니로 굿치는 고로 (그)(옥)이라 하거늘 정음통석(正音通釋)에 (기)(역)(其役)이라 흠을 인(因)하야 오히(誤解)된 고로 발니노니 남아지 일곱 지이다 이를 의방(依倣)흠⁴²⁾

「국문과본 범례(凡例)」에서 저자는 이 교과서가 어떤 편찬 의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수’를 지키기 위해 ‘국문’의 원칙을 밝히고⁴³⁾, ‘애국사상’에 초점을 두면서 ‘신학문’의 이론으로 저술한다고 밝힌다. ‘국문’ 교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수’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국문’ 문장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저자는 ‘신학문’을 언급함으로써 근대적 지식 체계에 기반한 내용을 선정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⁴⁴⁾

39) 위의 책, 2쪽.

40) 위의 책, 2쪽.

41)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판본의 정오(正誤)에 따르면 ‘(스)π’으로 정정해야 한다.

42) 원영의, 앞의 책, 「국문과본 범례(凡例)」, 1~2쪽.

43) 당대 ‘초성종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ㄱ’을 ‘기역’으로 읽는 데 반해 원영의는 ‘기역’을 ‘그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初聲終聲을 通用하는 八母字 ㄱ(其役)”(「국문원류」, 『황성신문』, 1899.5.3.), “초성과 종성에 함께 사용하는 여덟 자 ㄱ 기역”(「국문원류」, 『소년한반도』 1, 1906.11.1.), “가즈에 기역하면 각하고 가즈에 니은하면 간하는 거스로”(미심주, 「국문론」, 『경향신문』 30~31, 1907.3.28.~1907.4.6.)에서 ‘기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지석영 역시 화동정음통석에 따라 “초성·종성은 8개의 글자를 통용한다. ㄱ 기역”(지석영, 「대한국문설」, 『대한자강회월보』 11, 1907.5.25.)으로 표기하고 있고, 이는 “초종성통용 8자, 초성독용 8자, 종성독용 11자에 대한 설명은 당시에 널리 읽히던 《화동정음통석운고》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 『풀어쓰는 국문론집성』, 박이정, 2012, 83쪽).

44)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국문 초종성(初終聲) 여덟 자(字) 1 / 초성 아흠 자 1 / 종성 열한 자 1 / 초종성의 합음 1 / 변절(翻切) 1 / 초중종(初中終)성의 합음 1 / 여러 자의 합음 1 / 국문의 원인(原因) 1~2 / 지구(地球) 1 / 대한민국 1~11 / 아가(我家) 1~2 / 인종(人種)의 경쟁(競爭) 1~3 / 정신(精神) 1~2 / 테력(體力)과 지력(智力) 1~2 / 수신(修身)하는 도(道) 1~2 / 가족(家族) 1~2 / 사회(社會) 1~2 / 국가 1~3 / 동포(同胞)의 이정(愛情) 1~5 / 지식 1~7 / 독립(獨立) 1~7 / 생업(生業) 1~3 / 로농(老農) 1~3 / 시간(時間) 1~3 /氣息(氣息) 1~7 / 천리(天理) 1~3 / 지리(地理) 1~2 / 태양(太陽) 1 / 공기(空氣) 1 / 삼체(三體) 1 / 삼물계(三物界) 1).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표기 방식 선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이 ‘국문’ 교과서라고 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에 큰 차이가 생긴다. 저자는 ‘국문’으로 ‘원위(原位)’를 삼고, 명사(名詞)에는 ‘한문’으로 보조를 삼아 주석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대 ‘국문’과 ‘한문’을 둘러싼 논의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1906년 이능화는 「국문일정법의견서」에서 ‘국문’과 ‘한문’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몇 가지 예시를 시하고 있다.

- 一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 純漢文唯雅者讀
- 二 텃디스이만물가운데오직사람이가장귀하니 純國文俗者讀
- 三 天地之間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하니 今之國漢文交用法俗者仍不能讀
- 四 天地(텃디)之間(스이) 萬物(만물)之 中(가운데)에 唯人(오직 사람)이 最貴(가장 귀)하니 漢字側附書諺文雅俗共讀

위 예시에서 첫 번째 문장은 순한문으로 식자층(아자)만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순국문으로 일반인(속자)들도 읽을 수 있으며, 세 번째 문장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한문 혼용법으로 일반인은 읽을 수 없는 데 반해, 네 번째 문장은 한자 옆에 언문을 붙여 쓴 것으로 식자층과 일반인 모두 읽을 수 있다.⁴⁵⁾ ‘국한문혼용체’의 경우 이와 같이 ‘한주국종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보경 역시 ‘국문’을 ‘전폐’하고 ‘한문’을 ‘전용’할 것인가, ‘국문’과 ‘한문’을 ‘병용’할 것인가, ‘한문’을 ‘전폐’하고 ‘국문’을 ‘전용’할 것인가⁴⁶⁾ 사이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 ‘국문’론의 전개와 원영의의 ‘국문’ 인식

‘국문’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으로 이어졌다. 한국 최초의 근대 자전으로 평가받는 정익로(鄭益魯)의 『국한문신옥편』이 1908년 11월 6일에 간행⁴⁷⁾된 바 있고, 유길준이 『대한문전(大韓文典)』을 통해 국문 의식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동시에 국문과 한문의 관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한 것⁴⁸⁾은 1909년이였다. ‘국문으로 지은 보배’에 비유하여, ‘국문 글쓰기’의 본보기를 제시하려는 편집 의도가 표기 방식에 반영된 『국문보감』⁴⁹⁾은 1910년에 발간된다.

1908년 5월 원영의는 이능화가 제시한 바 있는 ‘국한문혼용’과도 거리를 두고, ‘국문 글쓰기’를 내세운 『국문보감』과도 다른 선택을 한다. 즉 ‘국문’으로 ‘원위(原位)’를 삼고, 명사(名詞)에 ‘한문’으로 보조한다는 것이다. 현재 관점에서는 ‘한글’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이와 같은 판단을 하려면 ‘국문’과 ‘한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국문’을 위주로 제시하고, ‘한문’을 그 아래에 보충하여 배치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45) 이능화, 「국문일정법의견서」, 『황성신문』, 1906.6.1.~1906.6.2.

46) “一, 國文을 專廢하고 漢文을 專用할가. 二, 國文과 漢文을 並用할가. 三, 漢文을 專廢하고 國文을 專用할가. 以上 三者中 詳密히 利害關係를 斟酌 商量하라 一을 定지 아니지 못할지라”(이보경,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 『태극학보』 21, 1908.5.24.)

47) 하강진, 「한국 최초의 근대 자전 『국한문신옥편』의 편찬 동기」,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5쪽.

48) 임상석, 「유길준의 국한문체 기획과 문화의 전환: 신체호, 최남선과의 비교연구」, 『우리어문연구』 43, 우리어문학회, 2012, 442쪽.

49) 이은선, 「『국문보감(國文寶鑑)』(1910) 연구」, 『한국문학연구』 6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288쪽.

이와 같은 표기와 관련된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문과본』의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원영의가 비슷한 시기 한문 교재를 제출한 바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 『소학한문독본(小學漢文讀本)』(1907), 『몽학한문초계(蒙學漢文初階)』(1907), 『초등작문법(初等作文法)』(1908) 등의 한문 교재를 편찬하였고, 이때 『독본』의 서문에서 원영의는 문자의 가치, 전통교육의 폐해, 한문의 가치 등⁵⁰⁾을 밝히고 있다. 이 일련의 저술을 고려할 때 원영의의 ‘국문’에 대한 인식을 도출할 수 있다. 원영의는 ‘국문’만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국문’을 제시하고 한문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원영의는 이 책의 ‘교과서’로서의 기능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문’ 교육에서 왜 ‘한문’ 교육이 필요한가를 이 교재의 형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한자’의 뜻과 음을 ‘주석’으로 보충함⁵¹⁾으로써 ‘국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자’ 역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원영의는 『소년한반도』 제1호에서 찬술원⁵²⁾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성질」, 「교육신론」, 「지리문답」, 「심리문답」을 연재한다. 이 일련의 저술에서 ‘어학’, ‘지리’와 ‘역사’, ‘물리’와 ‘화학’ 교육에 대한 인식⁵³⁾이 드러나는데, 신학문을 교육해야 한다는 원영의의 판단은 『국문과본』의 전체적인 구성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국문’을 통해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한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국어 교과서는 서구적 지식이 어떻게 호명되고 근대 담론으로 창출되었는가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⁵⁴⁾이다. 더하여 『국문과본』은 국어 교과서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며, 궁극적으로 ‘국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실천하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896년 순국문지로서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관보(官報)』를 비롯한 공문용 문자가 한문에서 국한문으로 바뀌는 등 국어·국문 인식과 보급은 진전되었다.⁵⁵⁾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의 국문 관련 논설에서는 교과서에서 국문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주장이 나타난다.⁵⁶⁾ 통감시대는 국문 통일론, 국문과 한문의 경중론이 새롭게 등장하던 때⁵⁷⁾였다.

『조양보』에서는 신학문(新學問)을 연구하려 해도 교과서가 없고, 또 교사로 적합한 인재가

50) 김영주, 「개화기 한문교재의 편찬 의식과 현재적 시사-원영의(元泳義)의 한문교재 편찬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0, 동방한문학회, 2017, 119쪽, 122쪽.

51)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테팔과(第八課) 국문의 원인(原因) (일) 네적 우리 세종조(世宗朝)게옵서 국가제도(國家制度)를 갖초 명(定)하실 시 외국(外國)은 다 국문이 잇시되 아국(我國)에는 홀노 업심을 미흡(未恰)히 역이사 목구멍과 혀와 아금니와 닙술과 니의 천연(天然)한 형상(形狀)이며 천연(天)의 성음으로 넷전즈(篆字)를 의방(依倣)하야 조모음 이십팔 즈를 지으시니 일흠을 같으디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니라

인홀인(因) 인간세(世) 마루종(宗) 아침조(朝) 집가(家) 지을게(제)(制) 법도(度) 명홀명(定) 밖외(外) 나아(我) 안일미(未) 흡족홀흡(恰) 하날턴(天) 열골형(形) 형상(狀) 전즈전(篆) 의지홀의(依) 의방홀방(倣) 가라칠훈(訓) 빅성민(民) 바를정(正) 여덟팔(八)”

52) 『소년한반도』 제1호, 소년한반도사, 1906.11.

53) 「교육신론」, 『소년한반도』 제6호, 소년한반도사, 1907.4에서 “제2. 어학은 지식을 교환하는 매개이고 품성을 도야하는 자료이니, 윤리와 균등하게 각 과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제4. 지리와 역사는 우리의 경험을 확장하는 중요한 과목이니, 지리는 공간에 관한 관념을 넓게 하는 것이고 역사는 시대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게 하는 것이다. 제6. 물리와 화학은 만물요소의 조직과 그 변화를 연구하여 수학의 방정식으로 자연현상의 진면목을 터득하는 것이니, 또 추리력과 사고력을 숙달시키기 때문에 역사·지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54) 강진호, 『국어 교과서의 탄생』, 글누림, 2017, 49쪽.

55) 이지원, 「동아시아의 근대와 한국학의 근대성」,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편,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 소명출판, 2020, 36쪽.

56) 앞선 시기의 국문이 문명개화 중심의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데 비해, 국문 통일의 필요성과 국문의 가치 재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되며, 통감시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을 맺고 어문 민족주의가 등장한다(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44쪽).

57) 허재영, 『근대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 교육』, 보고서, 2010, 100쪽.

부족하여 교육 준비에 보탬 길이 없다⁵⁸⁾고 진단한다. 주시경은 「국어와 국문의 필요」에서 ‘국어’를 ‘자주국’의 표식이라고 전제하고, 그 말과 그 글을 쓰는 인민이 곧 그 나라에 속하여 한 단체가 되는 표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자는 그 말, 글을 없애고 자신의 말, 글을 가르치려 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말, 글을 유지하여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은 고금 천하 사기(史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내 나라 글이 다른 나라만 못하다 할지라도 내 나라 글을 숭상하고 잘 고쳐 좋은 글이 되게 해야 한다⁵⁹⁾고 주장하고 있다. 『서우』에서는 위엔궁바오(袁宮保)의 부인이 한 연설을 소개하면서 국문, 위생, 글쓰기, 산수, 역사, 지리, 미술, 윤리를 강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 교육을 실천할 때, 중국이 강국이 되느냐 약국이 되느냐의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한다.⁶⁰⁾

이동초는 「소년국민의 양성」⁶¹⁾에서 ‘국민교육’이 나라 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러일전쟁’을 들고 있다. 교전 시 러시아 병졸 중 ‘문자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기 드물었고, 이는 애국성이 본래 없고 인내심이 부실해서 국체가 손상되는 것이 고통이 된다는 생각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반대로 일본 병사는 모두 ‘문자 지식’이 있는데, 이 때문에 국체를 더럽히고 훼손함은 곧 자신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느낌이 뜨거운 뇌 속에 가득 차서 끓어오르는 것인가 반문한다. 이와 같이 나라의 ‘강함’ 여부와, ‘진보’의 여부가 오직 국민교육에 달려 있는데, ‘문자 지식’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며,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자국어 교육이 이와 같은 논리와 접속되는 순간에서 ‘국문’ 교육에 거는 기대를 확신하게 된다.

호연자의 경우 『사민필지』를 교과서로 쓰는 것을 비판하며 청나라의 교과서 ‘따위’는 청나라 사람이 자국 인민들의 이상과 역사와 풍속 및 예절을 저술하여 자국 인민들의 애국사상을 배양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일본 교과서가 정밀하다 하여 지리 및 각종 교과서를 무수히 채택”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자국의 국어국문으로 자국의 정신을 부지런히 교양”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교과서의 미비로 인한 것⁶²⁾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문’, ‘교과서’, ‘국어’를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가 펼쳐지고 있었던 당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원영의 『국문과본』은 ‘국문 교과서’에 대한 시급한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화답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하와이 한인학교의 국어 교과서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기록에 따르면 『국문과본』으로 공부했던 리세영(Ye, Sei Young)⁶³⁾은 1905년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1909년⁶⁴⁾ 귀국했다⁶⁵⁾고 한다. 로버타 장-웨인 패터슨의 표현을 빌리면, “20세기의 제1차 한인 이민 행렬”에 속했던 인물⁶⁶⁾이다. “1905년 하와이 이민경험이

58) 『조양보』 4, 1906.8.

59)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서우』 2, 1907.1.

60) 「총독 위안스카이(遠世凱) 부인의 연설」, 『서우』 6, 1907.5.

61) 이동초(李東初), 「소년국민의 양성」, 『태극학보』 16, 1907.12.

62) 호연자(浩然子), 「교육계(教育界)의 사조(思潮)」, 『태극학보』 19, 1908.3.

63) 이덕희의 조사에서 이세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Ye, Sei Young, 21, married, Nam Chang Dong, 5/18/1905, Mongolia”(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2004, p.176).

64) 웨인 패터슨에 따르면 1909년에는 134명의 한인이 고국으로 돌아갔다(웨인 패터슨, 『하와이 한인 이민 1세-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정대환 역, 들녘, 2003, 58~59쪽).

65)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한국이민사박물관, 2010, 76쪽.

66) 로버타 장-웨인 패터슨, 「머리말」, 『하와이의 한인들-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100년사 1903-200

있는 리세영 씨가 지냈던”, “국어 교과서”⁶⁷⁾라는 언급과 “1908년 중앙서관에서 발행한 『국문과본』은 하와이 한인학교에서 사용한 국어 교과서”로, “표지에 연필로 쓴 이름인 ‘리세영’은 1905년⁶⁸⁾ 하와이로 간 이민자로 실제로 이 책으로 하와이에서 국어를 공부했다”⁶⁹⁾는 한국이민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현아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1908년 5월이라는 발간 시점과 1909년에 이세영이 귀국했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발간 이후 매우 빠른 시간 내 이 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⁷⁰⁾

1903년부터 1905년까지 7000명 이상의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을 때, 한인 사회가 직면한 교육적 필요성 첫 번째는 그들 중 3분의 2에 가까운 동료 문맹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문안 편지를 쓰고 하와이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⁷¹⁾ 1905년 4월 한인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⁷²⁾ 한인기숙학교(The Korean Compound)는 1906년 워드만 목사의 제의로 호놀룰루 시내에 세웠다.⁷³⁾ 1906년 7월에 설립된 이 학교는 9월부터 문을 열고, 하와이 공립학교 초등 교과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영어, 국한문, 산수 등의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⁷⁴⁾ 1907년 4월 하와이섬 힐로(Hilo) 한인감리교회에 한글학교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그 후 많을 때는 24개의 한글학교가 각 섬의 농장과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에 있었다.⁷⁵⁾ 한글학교는 어른들의 야간학교이기도 했다.⁷⁶⁾

20세기 초 하와이에서는 “한인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는 “예배 후에 모국어로 교제”하는 공간이었으며, “한인들의 교육 센터”가 되어, “초기 인민의 65%가 문맹자들”이었으나, 교회가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십년 후에는 완전히 문맹을 퇴치할 수 있었다.⁷⁷⁾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온 한국인들 사이의 공통점은 기독교⁷⁸⁾라고 언급된다. 교회는 곧 학교이기도 했고, 주일학교와 ‘국어학교’가 주로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민 제1세대들이 한글과 영어를 배우면서 국내 소식을 듣고 현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교환⁷⁹⁾했던 것이다.

3. 눈빛출판사, 2008, 5쪽.

67) 최선미, 「[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품] 국문과본」, 『재외동포신문』, 2009.5.10.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79>(검색일: 2022.4.27.)

68) 대한제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작한 하와이 이민은 1903년에서 1905년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총 64회에 걸쳐 7,226명(1903년 1,133명, 1904년 3,434명, 1905년 2,657명)이 이민 행렬에 동참했다. 이 중에서 남자는 6,048명, 여자는 637명, 아이는 541명이 하와이로 건너갔다(김재현·류명균·최선화, 『하와이 디아스포라 이야기』, 키아츠, 2020, 51쪽).

69) 이현아, 「[오래된 이민이야기] 김도라의 미국 시민권 발급 신청서」, 『재외동포신문』, 2017.3.17.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16>(검색일: 2022.4.27.)

70) “국내서가 하와이 한인사회로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그 주체와 경로의 문제는 따로 논구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윤금선의 고찰과 같이 이 책이 어떤 경로로, 또 출간 직후 국어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었는가 등의 경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윤금선, 「하와이대학교 한국 컬렉션 현황 연구-스페셜 코리안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9 No.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8, 343쪽).

71) 안형주,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청년교육(1913~19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혜안, 2003, 148쪽.

72) 장태한·캐롤 박, 『미주한인사』, 장태한·윤지아 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26쪽.

73) 웨인 패터슨, 『하와이 한인 이민 1세-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정대화 역, 들녘, 2003, 198~199쪽.

74) 오영섭·홍선표 외,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45~46쪽.

75) 이덕희,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13쪽.

76)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한미동포재단·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기념사업회, 2002, 16쪽.

77) 유동식, 「재미한인의 정착과정에서의 종교의 역할-하와이의 한인사회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연세논총』 24,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71쪽, 76쪽.

78) 장태한·캐롤 박, 앞의 책, 24쪽.

79) 고정휴,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9쪽.

후일 최남선은 “고종 전후로 예수교의 보급에 따라 조선 국문이 보급되면서 국문의 지위가 또 한 번 높아졌”다 언급하고 있다.⁸⁰⁾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초창기 이민자들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어 학교’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메리 흥 박’은 “모든 찬송가를 한국어로 배워 부르던 것”을 떠올리고, ‘메리 리 문 한’은 “영어 학교가 파하면 한국어 학교”로 갔다고 회고한다.⁸¹⁾

하와이의 한인 개신교 교회는 조국의 독립 운동의 중심지였다.⁸²⁾ 미주에서 한글 보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⁸³⁾ 한인 이민자들이 교육에 많은 힘을 쏟은 이유는 교육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려 했던 초기 이민자들의 염원 때문⁸⁴⁾이었다.

5. 결론

원영의(元泳義)는 근대 초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던 인물로, 선행 연구에서는 『국문과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원영의의 저서 중 한 권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재미 한인의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국문과본』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하와이에서 『국문과본』을 국어 교과서로 사용했다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기록을 기반으로 『국문과본』의 국어 교과서로서의 성격과 재미 한인의 한글 교육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재미 한인 교육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의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살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통감 시대라는 국내의 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국문과본』이 발간된 1908년 5월 이후 이 책이 국내에서 어떻게 읽히고, 활용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다만 1910년 7월 1일 기준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에 『국문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다.

『국문과본』이 ‘국어 교과서’로서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의 체재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문과본 서」와 「국문과본 범례」를 통해 이 책에서 저자 원영의가 ‘국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을 국어 교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국문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국한문혼용’의 방식으로 ‘한주국종체’가 널리 선택되었던 당대의 사례들과 다른 ‘국문 표기’ 선택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국문과본』의 세 가지 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판본 확인 작업을 완료하였다. 『국문과본』은 1908년 5월 ‘국문 교과서’와 ‘국문 교육’에 대한 시대적 열망과 기대 속에서 집필되었으나, 1910년 7월 1일 기준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가 되어, 어떤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원영의의 ‘국문’과 ‘한문’의 활용에 관한 판단이 이 교재에 집약되어 있었고, 또한 국문 ‘교육’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문’과 ‘한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더하여 어떤 방식으로 ‘국문’과 ‘한문’ 모두를 가르칠 수 있을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역시 고려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담고 있는 『국문과본』이 하와이 이민 사회에서 ‘국어 교과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점을 보여준다. 한 가지는 ‘교과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측면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와이’ 국어 교육이 갖는 의미와 연결된 것이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80)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이영화 역, 경인문화사, 2013, 223쪽.

81) 이선주·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초창기 이민자들과의 인터뷰』,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14, 22쪽, 49쪽.

82) 구선희·김점숙 편, 『북미주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07, 175쪽.

83) 강영란,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8쪽.

84)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한국이민사박물관, 2010, 74쪽.

‘국문’을 배우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난에 처한 ‘민족’과의 연결·접속을 지속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방증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문과본』의 체제 및 특징을 검토하고, 국어 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근대 초기 국어 교과서 연구와 재미 한인의 국어 교육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이은선, <원영의(元泳義)의 『국문과본(國文課本)』(1908)의 특성과
하와이 국어 교과서로의 활용 연구>의 토론문

최진호(부산대)

이은선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1900년대 새로운 지식의 형성, 그리고 하와이로의 지식의 전파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배울 수 있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식 형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제가 근대 지식인 원영의(元泳義)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한문에서 국문이라는 문자 체계의 변동의 의미를 공부할 계기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원영의가 저술한 『국문과본』이 이민자 이세영을 거쳐 하와이 한인들의 국어 교과서로 활용되는 지식의 전파 과정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1900년대 조선에서 발간된 『국문과본』이 하와이에서 국어 교과서로 활용되었다는 전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기록만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이 논문에서 쓰신 것처럼 『재미 한인 50년사』나 『한국 이민 초기 교육의 발자취』 등에서는 『국문과본』의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국문과본』의 역할이 누락되었거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문과본』과 하와이 한인 학교의 국어교육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세영이 가져간 『국문과본』이 1910년대를 전후해 어떻게 한인의 국어교육에 영향을 미쳤는가가 조금 더 논증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2장과 3장에서는 『국문과본』의 판본 및 체제, 원영의의 국문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수(國粹)’를 지키기 위해 국문이라는 표현 방법을, 그리고 애국의 습관을 위해 새로운 사상이라는 내용을 취한 것이 『국문과본』의 특징이라고 서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국수를 위한 표기 방법의 선택이 이 당시 다른 국문 교과서, 그리고 원영의가 저술한 『小學漢文讀本』과 『蒙學漢文初階』와 대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시에 『국문과본』에서 담긴 내용들(각주 26번 참조)은 원영의가 『소년 한반도』에서 게재한 글들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국문과 새로운 지식이 결합 속에서 선생님이 발견한 『국문과본』의 특이성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4장은 하와이 한인 학교의 국어 교과서 문제입니다. 사실 ㉠번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2·3장과 4장의 연결성이 약해집니다. 더 나아가 ㉠번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소된다고 했을 때, 하와이 한인 학교에서 『국문과본』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하와이 노동이민자의 공통점이 기독교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국어가 보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국문과본』에 담긴 내용 중에 기독교와 강한 친연성을 보이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친연관계가 드러난다면 『국문과본』이 하와이 국어 교과서로의 활용된 이유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㉔ 전체적으로 2·3장과 4장의 연관 관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제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장은 『국문과본』이 특성을, 4장은 하와이 국어 교과서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두 부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4장은 하와이에서 국어 교과서가 필요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 2·3장과 연결성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구도 위에서 2·3장과 4장을 배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영의(元泳義)의 『국문과본(國文課本)』(1908)의 특성과
하와이 국어 교과서로의 활용 연구>의 토론문에 대한 답변문

이은선(한경대)

토론을 맡아주신 최진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26일 진행된 학술대회 당일 토론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국문과본』을 둘러싼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1910년 7월 1일 기준 학부불인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문과본』이 발간된 1908년 5월 이후 이 책이 국내에서 어떻게 읽히고, 활용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찾아볼 계획입니다. 발표문을 준비하는 시점까지 명확한 『국문과본』의 활용 사례는 국내가 아니라, 미주 하와이 국어 교육과 관련된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간 시기를 고려할 때, 거의 시차 없이 국어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국문과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다면, 하와이의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 발표문의 장 구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4장 하와이 한인학교의 국어 교과서”가 다른 장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주에서 이루어졌던 국어 교육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2022년 12월 학술대회 발표 예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문과본』에 대한 논의로 한정할 때, 『국문과본』과 미주 한인교회 사이의 내용적 차원의 긴밀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측면이 아니라 당대 하와이에서의 한인교회와 한글 교육의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 지점 역시 논문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학술대회 당일 드렸던 답변에서 큰 진전이 없는 내용입니다. 추후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위 지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과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

유희동(한신대)

1. 머리말

1999년 한국 연희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학계에 소개되었다. 나손문고에 잠들어 있던 『기완별록』이 윤주필의 노력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⁸⁵⁾ 『기완별록』은 「경복궁영건가」, 「경복궁영단가」, 「경복궁창건가」, 「경복궁중건승덕가」, 「복궐중건가」 등과 함께 소위 ‘경복궁 중건 가사류’로 분류된다. 이들 작품은 1865년(고종 2년)부터 1967년(고종 4년)까지 진행된 경복궁 중건 사업을 그 창작 배경으로 삼고 있다.

경복궁 중건 사업은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와는 다른 위상을 지닌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뤄지는 동시에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한 다양한 연희가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고된 노동으로 허덕이는 중에 조선 후기의 종합적인 축제의 장이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벌어졌던 연희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기완별록』의 등장은 이때 연행되었던 연희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큰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연희의 종류, 연희에 활용되었던 도구, 연행자들의 복식과 소품, 연행자들의 행위 등 『기완별록』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현재 연행되는 전통연희와 경복궁 중건기 연희와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는 연행되지 않는 연희의 모습도 재구할 수 있다. 또한 『기완별록』에 묘사된 연희를 재구하고 살피는 것은 학술적 연구의 측면 뿐만 아니라 전통 연희 문화의 복원과 콘텐츠로의 변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완별록』의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날카로운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자료를 소개한 윤주필은 『기완별록』을 비롯한 연희시가를 통해 전통 공연 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⁸⁶⁾ 사진실은 『기완별록』을 통해 유독공이 언급한 산희와 야희라는 전통 연희의 연행 양상을 재구하고 이를 연극사적으로 조망하였다.⁸⁷⁾ 전경옥은 『기완별록』의 한 대목을 통해서 ‘취발이’의 연원을 추정하기도 했다.⁸⁸⁾ 그리고 정형호는 경복궁 중건 당시 참여한 각종 전문 예인패와 지역 두레패의 작업과정과 놀이 등을 분석했다.⁸⁹⁾

위와 같이 전개된 선행연구는 『기완별록』에서 언급된 전통연희, 나아가서는 『기완별록』 자체를 복원·재현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용하기 이전에 『기완별록』 자체를 꼼꼼히 읽어야 하고, 복원과 재현에 참여하게 될 여러 사람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대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주필이 자료를 소개하면서 교감과 주석 작업을 더해 주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

85) 윤주필(1999), 「경복궁 중건 때의 전통놀이 가사집 『奇苑別錄』」, 『문헌과 해석』9, 문헌과해석사, 197-232쪽.

86) 위의 글; 윤주필(2007), 「경복궁중건 연희시가를 통해 본 전통 공연문화 연구」, 『고전문학연구』31, 한국고전문학학회, 219-256쪽.

87) 사진실(2001), 「산희와 야희의 공연양상과 연극사적 의의 -기완별록에 나타난 공연행사를 중심으로」, 『고전희곡연구』3, 한국공연문화학회, 251-322쪽.

88) 전경옥(2004), 「가면극의 성립과 발전」, 『한국의 전통연희』, 학교재, 370-374쪽.

89) 정형호(2011), 「경복궁 중건과 안성 바우덕이의 관련성 고찰」, 『한국민속학』53, 한국민속학회, 173-211쪽.

려움이 없지만,⁹⁰⁾ 고전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기서는 『기완별록』 현대어역 과정에서 마주친 난점들을 점검하고 콘텐츠로 활용할 구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고전시가 현대어 번역의 방법

고전문학 작품의 현대어 번역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詩歌에 있어서 小倉進平의 향가 해석과 그를 극복한 양주동의 향가 해석은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⁹¹⁾ 향찰과 이두 등을 해석하고 주석을 더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⁹²⁾ 고려가요와 『악장가사』 소재 작품들에 대한 현대어 번역도 계속되고 있다.⁹³⁾ 향가와 고려가요에 대한 주석은 향찰과 이두의 해석, 초기 훈민정음의 해석이라는 지점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훈민정음의 사용이 보편화된 조선 후기의 시가 작품들, 예컨대 시조나 가사를 현대어 번역하는 데에는 이와는 결이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들 작품들은 대개 한글 필사본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흘려쓰기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글 필사본을 판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완결된 한편의 작품, 혹은 완결된 작품집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필사자의 쓰기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⁹⁴⁾ 둘째, 한자어 어휘도 순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미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대어 번역에 있어서 시가가 지니는 형식적인 특징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조는 대표적인 정형시 갈래로 형식적인 미학이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측면도 현대어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가사도 시조보다는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형식이 존재한다. 대체로 4·4조로 구성되어 율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가사의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4·4조에 맞게 간결하게 표기된 어휘를 얼마나 풀어 쓸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기완별록』과 같은 조선 후기 한글 필사본 가사 작품을 현대어 번역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① 필사 원문의 활자화 + 한자 병기
- ② 필사 원문의 활자화 + 한자 병기 + 주석

90) 윤주필(1999), 앞의 글, 197-232쪽; 윤주필의 번역 교감 작업은 보완을 거쳐 윤주필(2020), 『조선조 축제문화의 마지막 광경을 읽다 경북궁 중건의 연희 공연과 관극시가 연구』, 민속원, 257-315쪽에 수록되었다.

91)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詠の研究」, 京城帝國大學; 양주동(1942), 『朝鮮古歌研究 - 詞腦歌箋註 -』, 박문서관.

92) 지현영(1947), 『향가요요신석』, 정음사; 홍기문(1956), 『향가해석』, 국립문화예술서적출판사; 김종우(1971), 『郷歌文學論』, 석학문화사; 서재극(1975), 『新羅 郷歌의 語彙研究』, 계명대출판부; 김완진(1980), 『郷歌解讀法研究』, 서울대출판부; 박노준(1982),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등을 대표로 언급할 수 있다.

93) 김태준(1939), 『고려가사』, 학예사; 양주동(1947),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지현영, 위의 책; 홍기문(1959), 『고가요집』, 국립문화예술서적출판사; 전규태(1968), 『고려가요』, 정음사; 김형규(1969), 『고가요주석』, 일조각; 박병채(1994), 『새로 고친 고려가요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김명준(2008), 『개정판 고려속요 집성』, 다운샘. 등을 대표사례로 제시한다.

94) 고전의 현대어 번역은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 제시한 번역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 즉 ‘동일 언어 내에서의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에 해당한다. 정혜옥(2020), 『문화 번역과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적 프레임』, 도서출판3, 28쪽.

- ③ 필사 원문의 활자화 + 한자 병기 + 주석 + 현대어 번역
- ④ 필사 원문의 활자화 + 주석 + 문장수정 + 현대어 번역
- ⑤ 현대어 기술

①은 한글 필사본을 한글 활자본으로 바꾸고, 일부 어휘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다. 이는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의미 맥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②는 ①에서 더 나아가 어휘에 주석을 달아 의미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체로 원문을 교감·주석하는 작업은 ①과 ②에 해당된다. 이는 현재 가사 현대어 번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전문적인 연구자를 위한 현대어 번역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③은 ②의 작업에 현대어 번역을 일부 가미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기, 예를 들면 ‘ㅅ’, ‘ㅆ’ 등의 표기를 ‘ㅅ’, ‘ㅆ’로 바꾸는 것이다. 고어투의 문장형태는 그대로 살리고 읽기 편하도록 표기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④는 ③의 작업에서 고어투의 표현/문장도 현대어로 바꾸는 것이다. 가독성을 높여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어 번역은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기에 적당하다고 본다.

⑤는 형식적인 제약마저도 벗어나 최대한 풀어서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의미를 파악하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석과 한자어의 노출이 없고, 어휘는 물론 문장의 형태도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다. 고전 시가 현대어 번역에서 이 방법을 택할 경우 의미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식적인 아름다움, 절제미 등은 느낄 수 없게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어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번역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번역학술대회에서 제안된 이 개념은 번역(학)이 언어학의 분야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권력 등 사회 문화 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⁹⁵⁾ 문화번역은 의미의 등가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다. 언어의 등치가 불가능한 개념에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작품을 산출한 전반적 문화 배경에 대한 입체적 조망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연구 자체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축제 콘텐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 번역과 같은 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95) 위의 책, 35-36쪽.

3.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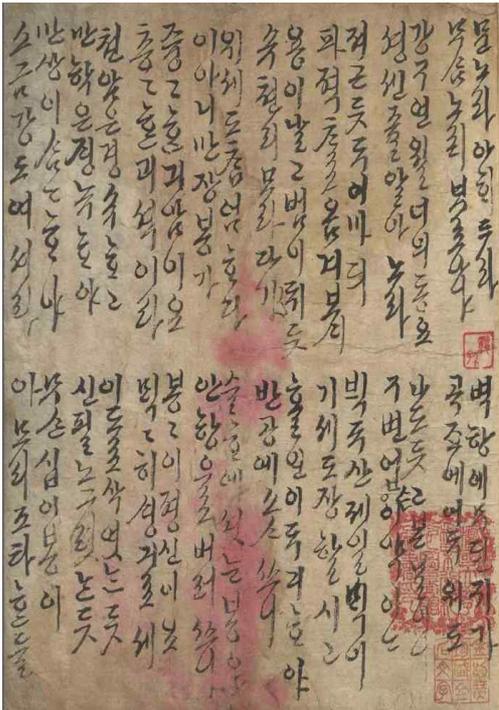


그림 14 『기완별록』 1면

기완에 윤주필에 의해 진행된 『기완별록』의 교감·주석은 ②에 해당하는 현대어 번역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은 『기완별록』의 1면이다. 보는 바와 같이 『기완별록』은 한글 필사본 자료이다. 3·4조 혹은 4·4조의 4음보격 가사로 한 면은 2단으로 되어 있고, 가사의 음보에 맞춰 두 구씩 정연히 필사되어 있다. 이를 윤주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개했다.

문노라 아히드라 무숨 노리 부르느냐
 벽향(僻巷)⁴에 무딘 귀가 곡조에 어두워도
 강구연월(康衢煙月)⁵ 너의 동요 성센(盛世-)줄 알아노라
 나도 듣고, 본 날이니 구변(口辯)업슨 이야기는
 저근듯⁶ 두어 마디 파적츄(破敵次)⁷로 옮겨보시⁹⁶

우선 필사된 한글을 활자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띄어쓰기와 한자 병기이다. ‘벽향’, ‘강구연월’, ‘성센’, ‘파적츄’ 등의 단어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벽향’, ‘강구연월’, ‘저근듯’, ‘파적츄’에는 주석도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역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다.

주석은 평범한 어구는 제외하고 비교적 까다로운 어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각주로 처리했다. 또 원문은 한자 표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가능한 한 병기했다. 한자 병기만으로도 어구의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는 경우에는 주석을 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까지 냈다.⁹⁷⁾

이처럼 윤주필의 선행 작업은 『기완별록』 한글 필사본 읽기의 수고를 덜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여를 했다. 실로 『기완별록』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이 성과를 딛고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완별록』의 독해가 녹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윤주필의 성과에 더하여 ③ 혹은 ④의 방식까지 나아가야 『기완별록』의 복원과 재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 문노라 아히들아 무숨 노리 부르느냐
 벽향(僻巷)⁴에 무딘 귀가 곡조에 어두워도
 강구연월(康衢煙月)⁵ 너의 동요 성센(盛世-)줄 알아노라
 나도 듣고, 본 일이니 구변(口辯)없는 이야기니

96) 윤주필(1999), 앞의 글, 202쪽.

97) 위의 글, 201쪽.

잠깐 동안⁶ 두어 마디 파적초(破敵次)⁷로 옮겨보세

위 인용은 ③의 방식으로 현대어 번역을 진행한 것이다. ‘아래 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표기를 제외하고는 어휘를 대부분 현대식의 표기로 바꾸었다. 즉 ‘문노라’ → ‘문노라’, ‘본 날이니’ → ‘본 일이니’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이는 시도를 한 것이다. 기실 이와 같은 표기의 변화는 소리 내어 읽을 경우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익숙한 세대에게는 표기를 바꾸는 것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ㄹ) 문노라 아이들아 무슨 노래 부르느냐
벽항(僻巷)⁴에 무딘 귀가 곡조에 어두워도
강구연월(康衢煙月)⁵ 너의 동요 성세(盛世)인줄 알겠구나
나도 듣고, 본 일이니 구변(口辯)없는 이야기라도
잠깐 동안⁶ 두어 마디 심심풀이로 옮겨보자

위는 ④의 방식으로 현대어 번역을 진행한 것이다. ③의 작업에 더해서 서술어 부분을 현대의 문장방식으로 바꾸어 주어와 호응 관계를 맞춤으로써 의미의 이해를 도모한다. 형식적인 틀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역을 시도할 경우, 의미는 보다 명확해지지만 본래 작품이 지는 뉘앙스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ㄹ) 문노라 아이들아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가난한 동네에 살아 무더진 귀가 곡조를 잘 구분하지 못해도
태평 변화한 길거리에 들리는 너들의 노래를 들이니 지금이 태평성세인줄 알겠구나.
나도 듣고 본 일이니 비록 말주변이 없어 이야기를 잘 못하지만
잠깐 동안 두어 마디를 심심풀이로 옮겨보자.

위는 ⑤의 방법으로 번역을 시도한 사례이다. 어구 사이사이에 조사를 삽입하고, 주석이 필요한 한자어도 모두 쉽게 풀어쓰는 방식으로 고쳤다. 또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사어나 동사, 형용사 등을 첨가하였다. 의미는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사라는 문학 갈래가 주는 운율은 사라져버렸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②와 ③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식이다. 『기완별록』의 경우 ②의 작업이 진행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③의 작업을 진행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 또 본래 작품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⑤의 작업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기완별록』의 내용을 복원·재현하여 콘텐츠로 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복원·재현을 위한 작업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편하게 『기완별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4.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의 난점

위에서 정립한 방향에 따라서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을 수행할 때 마주하게 가장 큰 문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어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완별록』의 작자인 벽동병객은 작품의 말미에 ‘을축 윤월 상한 벽동병객 서’라는 기록을 남겨두었다. 이를 통해서 『기완별록』은 ‘1865년 윤 5월 상순’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밖에 되지 않는, 멀지 않은 과거이지만 현재와 당시를 단절시키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어휘의 의미 해석이 난해한 것은 특정 분야에 문화적 변화에 따른 언어적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완별록』은 제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기이한 놀이’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 그 놀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행 맥락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기완별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놀이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각색놀이, 2. 탈놀이, 3. 각종 무동놀이, 4. 사냥놀이, 5. 팔선녀놀이 I, 6. 금강산놀이, 7. 서유기놀이, 8. 팔선녀놀이 II, 9. 신선놀이(요지연놀이), 10. 상산사호놀이, 11. 선동놀이, 12. 기생놀이, 13. 축사놀이, 14. 백자도놀이⁹⁸⁾

결국 『기완별록』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들 놀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놀이 가운데에는 현재 전승이 되고 있거나 친연관계에 있는 놀이도 있고, 전승이 완전히 단절된 놀이도 있다. 따라서 언급되고 있는 놀이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난점이 존재한다.

더 문제인 것은 기실 놀이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지만, 놀이의 양상을 소개하는 것은 그리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

(㉞) 슈활치 모리군은 손헝기 압 세우고
 갈넛 쓰더 머리 덩고 실흔 작디 손에 쥐고
 드문드문 걸은 망티 가막가치 쥬셔너허
 단단이 불이 얹어 비속이 가로메고
 풀습도 둘레둘레 돌틈도 기웃기웃
 노로 스슴 토기간에 잇는 디로 투길 드시
 총중에 좃구즌 놈 예설 구즌 작논으로
 호피를 뒤여 쓰고 밀이 미복 헛였다가
 불의에 호통하고 박줄을 듯 내다르니
 절도하다 슈활치놈 제가 가장 놀는 처로
 한 마디 목션 소리 두 눈을 치엿드고
 숨간이느 뛰여 다라 오간이느 좃바지니
 판중에 허다 스름 일시에 디소흐니
 방포일성 놀노왜라 저 호랑이 마즌 처로
 소리치고 구러지니 포슈놈이 다라드러
 총씨로 짜리느 체 장도로 지르느 체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사냥놀이는 놀이의 양상이 제법 잘 드러나 있다. 사냥개를 앞세운 물이 끈은 망태에 까막가치를 넣어 메고 있고, 갈잎으로 위장한 뒤 사냥감을 찾고 있다. 호랑이 역을 맡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 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치며 달려들고 이에 물이끈은

98) 윤주필(2020), 앞의 책, 51-52쪽 참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자빠진다. 이를 보던 사람들이 박장대소 하는 사이 포수가 호랑이를 잡는다. 이처럼 자세한 놀이의 묘사를 통해서 사냥놀이는 동해안 별신굿의 범굿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놀이에 사용되는 도구나 무대, 등장인물의 외향묘사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 각색놀이 부분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의 복식을 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당당홍의 진남창의 초록분합씩을 찌고
 빅슈쥬 줄흔숨에 쇠금당선 선축을 달고
 디딤동곳 지지두건 모양 잇게 숙이 쓰고
 지죽피 외코신에 부어항전 격이로세
 중동치레 무엇무엇 가진 그물 쥬렁쥬렁
 디모장도 진옥치통 이궁전 비취향과
 옥식항나 허리찌며 분홍갑스 귀낭즈와
 유록빙스 도리삼지 가진 미듬 당스쓴에
 향낭 약낭 슈쥬머니 물식 고흔 향스 찌고
 주슈정 학술안경 너도 너무 일죽 썼다

또 흰 별감 농항복식 차림벌이 의슈하다
 노랑 초립 흥전쭈미 숲은입식 단장구며
 키 갖튼 공죽우와 믹순 갖튼 호슈 꽃고
 도금영즈 밀화피영 순호격즈 식이 쥬타
 십이승 존술철닉 물식도 고을시고
 이광단 너분 찌를 흥복통 놀너 미고
 편숙마 실총승혜 낙복지로 들메엿니
 한 죽지 쳐지우고 또 한 죽지 혼음거려
 숨승보선 발밧시논 간들간들 하나 양이



위 대목에서는 두 명의 별감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진남색의 창의를 입고 그 위에 홍의를 입고 초록색의 띠를 매고 있는 별감의 모습이 그려진다. 한 손에는 부채를 들었고, 지지두건을 모양있게 숙여 썼다고 한다. 허리에는 대모장도와 진옥치통, 향갑, 귀주머니 등을 차고 학술안경을 썼다.

두 번째 별감은 노랑초립을 쓰고 초립에는 호수를 꽃았다. 잔살철릭을 입고, 미투리를 신었다고 하며, 건들건들 걷는 모양으로 외입장이라고 말한다.

두 별감의 기본적인 복식은 신윤복의 ‘야금모행’에 나타나는 별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림 15 신윤복
 ‘야금모행’ 부분

이처럼 많은 경우에 등장인물의 복식, 장신구 등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자세한 묘사에서 발생한다. ㉔)처럼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경우 맥락에 따른 의미의 포착과 해석이 가능한데, ㉔)의 경우에는 각 어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학이나 고어 연구자 뿐만 아니라 복식 연구자와 협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진남창의’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진남을 振男으로 해석하여 어린이가 입는 옷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민주는 과거 복색에 대한 연구와 풍속화를 검토하여 이를 ‘진한 남색’으로 교정하였다. 또한 ‘농항복색’도 미상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를 ‘능행복색’으로 추정하였다. ‘이궁전’이라는 어휘도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이궁전(弛弓箭)으로 활시위를 벗겨 놓은 활과 화살이라는 의미 외에 중국에서 수입했던 향의 이름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⁹⁹⁾

㉔) 한편에 셋는 거슨 유자손이 분명하다
 파초선에 상모다라 조심하야 드러쓰니
 턱쓸을 붓치느니 히빛출 가리느니
 조도지족 풀은 외에 의복조초 풀오도다
 머리우히 풀은 버들 가지가지 느러지고
 풀은 얼굴 흰 눈이요 풀은 허리 흥호로라
 전신이 다 풀은 중 눈과 호로 이식지니
 형상도 흥기하고 거지도 히괴하다
 귀신이 아니라도 요괴가 정녕하니
 조화도 신기하고 인교도 층냥 업다



그림 16 순양노조도

㉔)는 9. 신선놀이에 등장하는 유자선에 대한 묘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유자손’으로 보고 미상, 혹은 심부름하는 어린아이를 대접하여 쓰는 말로 추정했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앞서 등장하는 여동빈과의 관련성을 단서로 유자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푸른 빛이라고 묘사되고, 머리 위에 버들가지가 늘어졌다는 표현, 형상이 흥기하고 귀신이 아니라면 요괴라는 언급은 그림3에서 보이는 유자선의 모습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의 보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점은 존재한다. 가령 23면에 나타나는 “무빈도 손손하고 도 시도 연연하다”와 같은 구절은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전후의 맥락을 살펴도 의미 확인이 어렵고, 이러한 난점 때문인지 선행 연구에서도 미상으로 남겨둔 부분이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어 번역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99) 『기완별록』에 묘사된 복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이민주(2018), 「『기완별록』을 통해 본 연행복식 연구」, 『정신문화연구』41-2, 65-98쪽을 참고할 것.

야할 문제이고 문화 번역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어휘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지만, 어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기완별록』의 현대 역이 이뤄지고, 또 복원과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가장 『기완별록』을 통한 전통연희 복원과 재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기실 『기완별록』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학제간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전통연희,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복식, 국어학, 고전문학 등 다방면에서 함께 텍스트를 다룰 때 새로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몇몇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경복궁영건가」, 「경복궁영단가」 등 친연성을 지닌 작품은 컨텍스트 까지도 두루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기완별록』의 실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5. 『기완별록』의 콘텐츠로의 활용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완별록』은 19세기 말 이루어졌던 조선 연희문화의 종합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된 놀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놀이공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장 퍼레이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전통연희라고 했을 때 머리에 떠올리는 판소리, 탈놀이를 뛰어넘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공연이 이뤄질 수 있다. 실로 2003년 ‘봉사도’의 발견 이후 여러 축제에서 예산대를 복원하고 퍼레이드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며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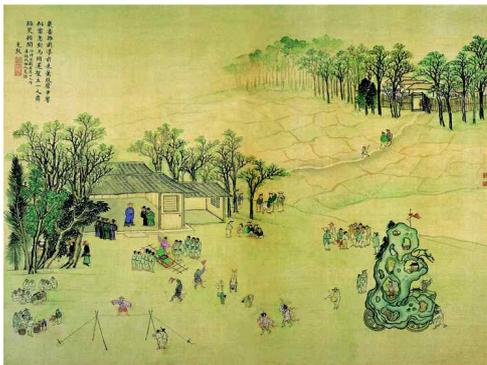


그림 17 봉사도 제7면



그림 18 2004년 실학축전 예산대



그림 19 2018 제4회 궁중문화축전 예산대

이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절된 산대놀이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궁중문화축전’의 중요한 행사인 퍼레이드에 『기완별록』의 현대역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완별록』 현대어 번역과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이현정(제주대)

글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기완별록』의 현대어 번역 문제는 참 많은 해결 거리들을 요하는 듯합니다. 어휘부(語彙部, lexicon)의 동요나 변천의 문제에는 응당 문명.문화의 변화와 속도, 그 투영도가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들이 음운이나 통사 부문보다 해당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군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발표자가 “문화 번역”이라는 개념에 천착하며 어석(語釋)의 중요성과 난점 등을 짚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 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완별록』이 작자가 개인의 소회나 심정의 형상화나 표출이 아닌, 연희의 연행에 대한 “묘사와 기록”을 창작 의도의 골자로 삼았고 그 구성적 측면까지 재구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더욱 그러합니다.¹⁰⁰⁾

발표자가 관심을 둔 『기완별록』의 현대어 번역은 결국 “『기완별록』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 언어 내의 번역” 내에서도 “여러 형태의 목적 언어로 규정될 만한” 다양한 번역 방식과 그 생산 가능성을,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번역 결과물의 자원적 확장와 활용 가치를 짚어낸 지점이 특히 값지다고 여겨집니다.

토론자는 발표문을 읽으며 많은 사실을 배운 터라, 소임에 충실할 께념이 부족합니다. 그저 몇 가지 작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작자인 “벽동병객(碧洞/壁洞病客)”의 존재가 현대어 번역 또는 문화 번역의 문제에서 크게 고려할 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완별록』을 다룬 기완의 연구에서 “미상”으로 남겨진 영역이긴 하지만, 작품에 쓰인 어휘와 관용구(고사 관련) 등을 포함한 시작 관습 등은 작자 개인의 신분적 특성이나 소양과 맞물려 있는 듯합니다. 이런 정황은 번역에 있어 원작을 관철하는 문체, 언어적 감성을 읽어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정 시가 갈래의 형식이나 운율 체계를 넘어선 개인적인 혹은 시대적인 차원의 뉘앙스(역양 음조) 문제도 일견 관여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완별록』 번역 시 이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절들은 존재하지 않는지요.

그런가 하면 이민주는 작자의 기술적(記述的).표현적 오류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학제 간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도 이런 부분들이 도출될 경우, 번역 방식 가운데 “어느 단계까지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발표자에게 현답을 구합니다.

[둘째] 『기완별록』 속 연희들 역시 산대잡희가 중단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야말로 재건된

100) 형형식식 각각 노리 괴괴괴괴 별별 모양 붓스로 다 못 쓰고 입으로 다 못 옮겨 디강을 기록함은 괴완을 앓기미니 초초로 관광하여 성편후 리 잇쓸는지(『기완별록』 28-29면 일부.)

일군입니다. 물론 이 기록이 실제 연희로든, 공연의 크고 작은 무대로든 복원.재현된다면 꽤 큰 대중적 호응을 얻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2018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완별록』이 다루어진 것이겠죠. 현대 이런 범주에서 “『기완별록』만의 특수한 연희”에 대한 복원.재현과 “『기완별록』에서도 언급된 유사 연희”에 대한 복원.재현은 학술적.문화적으로 다소 다른 의미를 띠 것 같습니다. “단절된 산대놀이의 복원” 외에 『기완별록』의 다채로운 복원.재현의 의미는 이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을까요.

[셋째] 『기완별록』의 현대어 번역도 연구도 여전히 현재 진행이지만, 굳이 콘텐츠화 자원으로서 그 결과물을 소중히 한다면 원자료 혹은 2차 번역 자료의 “접근성 제고”, “적극적인 활용”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복원.재현 연구되었던 콘텐츠들 다수가 그저 아카이브에 머물러 있는 사정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역 작업 시 염두한 대상이 콘텐츠 제작자나 대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발표자께서 제시한 ⑤번 방식 외에 다른 형태의 번역 결과물을 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궁중문화축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연과 예술창작물의 산실로 『기완별록』이 기여하길 바라시리라 여겨집니다. 생각하여 두신 대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문을 보면서 개념 상의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의 차이, 즉 『기완별록』을 시가 문학 작품으로 볼 것인지,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사의 형식미.작가의 의도.원문과 번역의 병치 여부 등 번역 형태에 따른 고려 대상이라 언급한 요소들이 길항하며 관계하는 듯 하다고 느꼈습니다. 곧 더 좋은 글로 다듬어진 결과물을 만날 수 있길 고대합니다. 거듭 토론자가 이 분야에 과문해서 얽은 질문들만 두서 없이 나열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논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십시오.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 연구

-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의 실행 결과를 중심으로 -

박은정(한국외대)

< 차례 >

- | | |
|--------------------------|------------------|
| 1. 들어가는 글 | 3.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 |
| 2. B언어로의 번역과 과정 중심 번역 교육 | 3.1 전형적인 어순 고착 |
| 2.1 과정 중심 번역 교육 | 3.2 복문 구조의 단순화 |
| 2.2 역번역과 자가수정/평가 | 4. 나오는 글 |

1. 들어가는 글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어 통/번역 전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교양 과목에서 개설되던 통/번역 관련 교과목이 이제는 외국인 전용 학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어 번역전공이 신설되고 있으나 한국어 번역 교육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 교수법, 교재 등 여러 가지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직업적인 전문 번역을 할 한국어 번역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한국어 능력시험의 고급 수준 한국어 실력을 가진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의 번역 수준은 어떠한지 상황을 진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번역전공의 특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번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¹⁾ 특히 AB방향의 번역에서 도착어인 B언어(한국어) 능력이 번역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²⁾

Kussmaul(1995)은 전문가가 아닌 번역 과정의 학생들은 언어 과정 학생들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제2언어나 외국어 실력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Daniel. G.(2005)에서도 모국어 화자에게 해당되는 언어 완성 수업과 달리 AB번역 교육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수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³⁾ 따라서 언어 학습을 위한 '교육적 번역'이 아닌 '전문적 번역'을 위한 도착어 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학습자들의 실제 번역 자료를 살펴보고자

101)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오류 분석의 차원의 연구가 아니다.

102) AB번역이라 함은 모국어(A)에서 외국어(B)로 번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BA(외국어에서 모국어)방향의 번역이 번역가에게 부담 없는 자연스러운 작업 과정이 된다.

103) 심지영(2021)에서도 한국어 번역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습자들의 서로 다른 한국어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 번역전공 개설 학교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하는 것이다.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의 번역에 나타난 어휘나 문법 항목들은 부분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¹⁰⁴⁾ 어휘나 문법과 달리 문장 어순, 복문의 구조 분석은 한국어 교육 수업에서 다루어질 기회가 적다. 특히 오류 문장이 아니면 언어 교육에서는 피드백의 대상이 아니기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1.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분석 대상 자료인 번역물을 제공한 학습자들은 모두 한국어 능력시험 6급 소지자이다. 서울 소재 H대학원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이고, 2022년 1학기 ‘번역을 위한 고급한국어’ 강의 수강생이다. 자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언어	스페인	프랑스	중국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일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S15	S16	S17	S18	S19	S20	S21	S22	S23	S24	S25	S26	S27	
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일어							

<표1 연구자료 제공자 정보>

대부분은 중국어 모어 학습자이지만 영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학습자들의 언어는 모두 6개이다. S1인 스페인어 모어화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 번역전공자이다.

본 연구는 실제 번역 교육에서 역번역과 자가수정/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한국어 번역 교육의 방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먼저, 실제 번역 수업에서 역번역을 활용한 이유는 아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1:1 언어쌍이 아닌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의 경우 AB방향 번역 또는 BA방향 번역을 할 때 번역 결과물의 번역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수자의 피드백이 불가능하다. 둘째,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텍스트만 있으면 역번역을 한 후 원문과 역번역문을 비교하면서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문이 발생했는지, 원문의 문장과 의미 차이는 거의 없지만 다른 문장구조로 표현이 된 것인지를 분석하면서 번역 훈련을 할 수 있다.¹⁰⁶⁾ 셋째,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의 한국어(도착어) 사용 양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역번역문에 나타난 한국어 문장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항목들의 도착어(한국어) 교육이 필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¹⁰⁷⁾

104) 허용(2018)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장의 특징, 박은정(2019a)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어휘, 박은정(2019b)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피사동, 박은정(2020)의 양태표현 등이 있다.

105) 본고에서 실제 번역 교육에서 역번역과 자가수정/평가를 활용한 이유는 2장에서 다루어지는 과정 중심 번역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6) 물론 원문과 역번역문을 비교할 때 문제가 되는 차이와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를 모두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교수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107)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역번역문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 수 없는 상태라서 선택한 차선의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용한 번역 교육 방법이 되었고 번역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원래 역번역은 각각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하는 형태이지만 한국어 번역전공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모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학습자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취한다. 물론 B(한국어)A(학습자모국어)번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하여 원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국어로

자가수정/평가는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장치이다.¹⁰⁸⁾ 역번역 자료의 결과를 분석한 후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의 문장을 원문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번역 문장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원문과 자신의 역번역문을 비교하면서 표현한 문장의 형식은 다르지만 원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으로 번역한 것인지, 원문과 달리 번역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 오역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¹⁰⁹⁾ 또한 자신의 번역 결과물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번역 성향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자가수정/평가를 활용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고의 분석 자료는 매주 수업 시간에 실시한 번역과 과제로 제시한 번역 텍스트를 취합한 것이다. 자료를 출석부 순서대로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문장별로 다시 정리하여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번역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그 후 원문의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을 출석부 순서대로 S1, S2, S3 등으로 표시하여 원문 문장을 개별 학습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¹¹⁰⁾

2. B언어로의 번역과 과정 중심 번역 교육

2.1. 과정 중심 번역 교육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생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식의 교육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번역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번역학의 주된 연구 방법은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 비교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결과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1980년대 말부터 번역학 분야 연구에서는 번역가의 번역 과정에 관심을 보여 왔다. 번역가의 사고 과정을 알 수 있다면 번역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고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Gile(1995)은 번역 현장에서 번역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Gonzalez-Davies (2005) 역시 번역의 결과보다 번역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여러 학자들이 번역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번역전공은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 집단이라는 특징으로 교수자 피드백의 한계, 학습자들 간의 집단 토론의 한계 등이 존재하므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번역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의 특이한 제한점을 이해한다면 더욱 더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이 필요하다.¹¹¹⁾ 동일한 모국어 언어권의 학습자들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다양한 모국어를 알 수 없고, 학습자들의 번역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어

번역한 텍스트만을 보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08)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한 번역일기/일지와 비슷한 개념이나 본고에서 번역일기보다는 스스로 수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 위해 자가수정/평가자료라고 하기로 한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반성적 태도에 치중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와 같은 말을 많이 썼다. 그러한 결과를 보고 연구자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번역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된 점과 잘 안 되는 것들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고, 평가자의 관점으로 수정해보자고 독려했다.

109) 학습자들이 자신의 번역 문장을 제대로 수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자가감수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교수자가 개입이 필요하다. 비문의 수정, 여러 문장 중 맥락에 가장 적절한 번역 문장 제시 등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110) 자세한 것은 첨부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111)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의 특성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박은정(2022)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번역전공 현장의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번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 결과물인 번역물을 통해 언어능력만 평가할 뿐 그들의 번역 과정이 어떠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등가 처리된 어휘, 표현들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번역 과정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해 학습자들의 번역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과정 중심의 번역 교육에서는 역번역과 자가수정/평가와 같은 교육 방법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2. 역번역과 자가수정/평가

1) 역번역

한국어 번역전공은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출발하는 서로 다르지만 도착어는 공통적으로 한국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모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한 결과물로는 교수자가 학습자 번역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¹¹²⁾ 이때 역번역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역번역문과 원문의 비교를 통해 ‘문제가 되는 차이’와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¹¹³⁾

역번역은 원래 번역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한국어 번역 교육에 적용하면 유용한 교육 방법이 된다.¹¹⁴⁾ Paegelow(2008:23)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제가 되는 차이’와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차이’는 오역이나 오류에 해당되므로 피드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는 표현 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번역 교육에서 활성화해야 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Original source text(원문)	Genes are <u>tiny</u> things you can't see <u>that</u> tell your body how to grow
English-to-spanish translation(번역문)	Los genes son muy pequeños y no se pueden ver, pero le dan instrucciones al cuerpo sobre cómo crecer.
Spanish -to-English back translation(역번역문)	Genes are <u>very small</u> and cannot be seen, <u>but</u> they give the body instructions about how to grow

<표2>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

위의 <표2>는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역번역한 것이다. 원문과 역번역문의 문장은 동일한 표현의 영어 문장은 아니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112) 최권진(2021) ‘번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교실 수업 시에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번역문은 국외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하여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방법은 한국어 번역전공의 특수성 그리고 교육방법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13) 한국어 학습자들의 역번역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허용(2018)에서 이루어졌다. 고급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장의 특징을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문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호응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고급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의미의 다양한 표현보다는 초·중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구조가 덜 복잡한 문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첩표의 기능, 문장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조사 ‘은/는’의 사용 오류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114) A라는 번역가가 번역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B라는 번역가에게 A가 한 번역물을 다시 원문 언어로 번역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되지 않는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장 구조나 어휘가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되지 않아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오역은 아닐 수 있으나 원문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으로 번역했다고는 볼 수 없다. 문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초점의 이동이 있으면 원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수식을 받는 대상이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번역전공 한국어 학습자들은 원문과 등가를 이루는 다양한 문장으로 한국어 번역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의미적, 기능적 등가를 위해 문장의 변화가 불가하다면 그때 나타나는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역번역문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 수 없는 상태라서 선택한 차선의 방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용한 번역 교육 방법이 되었고 번역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번역전공 수업에서 학습자가 모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학습자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취했다. 물론 B(한국어)A(학습자모국어)번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하여 원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만을 보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다.

2) 자가수정/평가

역번역을 통해 학습자의 번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은 가능해졌으나 번역 과정을 알 수 없고 모국어로의 번역, 한국어로의 번역 두 과정 중 어디에서 발생한 어려움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역번역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자가수정/평가를 활용하게 한 이유는 도착어가 외국어인 경우는 특히 도착어 표현에 대한 교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매번 번역을 한 후 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번역 문장을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정보를 삭제하거나 첨가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문장의 어순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때 모국어와 다른 언어 구조의 차이로 모국어로 번역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 문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했는지, 스스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 더 좋은 번역 문장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Pym(1993)은 번역 능력을 설명하면서 '생산한 여러 개의 TT 문장 중 가장 적절한 TT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번역과 자가수정/평가는 여기서 언급한 번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번역 교육 방법이라고 본다.

3.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

3.1 전형적인 어순 고착

Colina(2003)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의 번역에 나타난 특징 3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중 언어 사전의 오용과 과도한 의존, 부적절한 일반 지식의 사용, 불완전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바꿔쓰기'가 그것인데,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의 번역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발견되곤 한다.¹¹⁵⁾

115) 본고에서 다루는 어순, 문장 구조 변경, 전형적인 SOV어순 고집하기 외에 다른 특징들(문장 붙이기, 태의 전환 등등)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사례1: SOV어순 고착> <‘지구재생에너지’ 텍스트 중에서>

원문) 먼저 중국은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에너지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은 85GW인데, 43GW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역번역)

S1 먼저 ~ 작년 태양광 에너지의 신규 발전 설비의 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85GW였으며 그 중 중국은 43GW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재생 에너지 부문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준다.

S2 먼저 태양광 발전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 작년 전 세계 태양광 에너지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은 85GW 중의 43GW를 차지했으며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S6 먼저 중국은 태양열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작년 전 세계 태양 에너지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은 85GW인데, 중국이 43GW를 차지하면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S9 우선 중국은 태양에너지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용량은 85GW이며, 중국이 43GW를 차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S16 우선 중국은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에너지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은 85GW이고 중국은 43GW를 차지하며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위의 원문의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주어+서술어’의 구조이다. SOV 어순이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이므로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이 전형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의 밑줄 친 부분은 85GW 중에서 ‘43GW’라는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술어 가까운 자리로 이동시킨 문장이다. 구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약센트를 얹히는 방법도 있지만 문어에서는 언어 외적 요소로 표현할 수 없으니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달리 목적어를 앞에 놓고 주어와 서술어를 붙여서 서술어 ‘차지하다’의 주체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에 반해 번역문의 어순은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식을 갖춘 전형적인 한국어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사례1-2: 목적어+서술어 어순에 집중 > <‘언어 사용 패턴과 심리상태의 연관성’ 텍스트 중에서>

원문) 이와 같이 개인적인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 상태도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한다.

번역문)

S1 또한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 상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S2 그래서 한 사람의 언어 사용은 자기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S4 이와 같이 인간의 언어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의 심리 상태도 인식할 수 있다.

S22 마찬가지로, 연구진이 언어를 통해 개인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위의 원문을 분석해 보면 서술어 ‘알 수 있다’의 대상인 목적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사회 전체의 심리 상태’이다. 또한 ‘알 수 있다’의 방법을 부사구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와 같이 A(개인적인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B(사회 전체 심리상태)도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A와 B도 언어사용을 통해 알 수 있다’가 되어

‘목적어+부사어(부사구)+서술어’의 어순이 된다. 원문의 제목이 ‘언어사용패턴과 심리상태의 연관성’으로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다룬 것이 아닌 언어 사용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언어사용’에 초점이 있다. 반면에 학습자들의 번역문은 ‘언어사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어순에 집중하여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¹¹⁶⁾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은 공통적으로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부사구를 넣지 않고 목적어와 서술어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S22의 문장은 원문에 없는 주어 ‘연구진’을 넣어 ‘알 수 있다’의 목적어인 ‘개인적인 사람의 심리상태, 사회전체의 심리상태’를 서술어 바로 앞에 위치시켰다. 포르투갈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는 한국어와 모국어의 어순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항상 한국어의 어순을 생각하면서 번역문을 구성했다고 자가수정/평가에서 기술하고 있다.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S2의 경우도 부사구를 ‘언어 사용은’이라는 주어로 만들고 목적격 조사를 살려서 서술어 앞에 두는 구조로 ‘SOV’ 어순의 문장으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문장은 SOV 언어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목적어나 부사어 등 보충어가 들어간다. 목적어가 서술어 가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어순이지만 목적어 외에 다른 성분들을 추가하게 될 때 그들의 어순은 서술어에 가깝게 놓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분인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¹¹⁷⁾

예)

- | | |
|--|----------------|
| a. 한국 사람은 <u>손가락으로</u> 밥을 먹는다. 밥> 손가락 |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 |
| b. 한국 사람은 <u>밥을 손가락으로</u> 먹는다. 손가락> 밥 |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

위의 예문a와 b는 각각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었지만 문장 성분의 위치가 달리 배치된 두 문장이다. 한국 사람은 손가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으나 서술어에 가까이 있는 성분이 다르다. 이것은 서술어 가까이 있는 그 성분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례1>, <사례1-1>, <사례1-2>를 통해 번역전공 학습자들이 원문의 문장성분 배치와 달리 번역한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적 차이로 인해 필수적인 문장 구조의 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문의 의도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원문에서 전략적으로 쓴 문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이런 문장으로 번역문을 구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3.2. 복문의 단순화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은 한국어 복문의 번역을 어려워한다. 외국인인 고급한국어 학습

116) ①이와 같이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 개인적인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심리상태도 알 수 있다. ②이처럼 사람들의 언어 사용으로 개인적인 심리상태, 사회전체의 심리상태도 알 수 있다.

2021년 학습자들의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번역 문장 ①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A(개인적인 심리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사회 전체 심리상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 사용을 통해 A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도 알 수 있다.’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알 수 있다’의 목적어 A와 B를 서술어 가까이 위치시키고 부사구를 목적어 앞으로 보냈다. 번역문 ②의 경우도 목적어인 ‘개인적인 심리 상태, 사회 전체의 심리 상태’를 서술어 가까이 위치시키고 ‘언어 사용을 통해서’를 ‘언어 사용으로’로 변경하였지만 목적어 앞으로 보낸 것은 번역문 ①과 동일하다.

117) 허용(202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이해’에서 인용한 예문이다.

자가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문법 항목뿐만 아니라 복잡한 한국어 복문을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 복문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복문 중에서도 연결어미의 결합으로 구성된 구조인지, 전성어미로 연결해야 하는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관계인지를 파악해야 정확한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번역은 이해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착어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복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장 구조 분석 교육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수준의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복문의 구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의 실제 복문 문장 중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이 포함된 문장의 번역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장 분리

<사례2: 문장 분리> <‘지구재생에너지’ 텍스트 중에서>

원문)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칭을 말하는 것으로,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번역문)

S5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불리는 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다른 점은 쉽게 고갈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총칭이다. 주로 태양 에너지, 풍력, 물력, 지열,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S12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불리는 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칭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S21 재생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도 불린다.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칭이며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S2 재생 에너지란 화석연료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중에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력, 파력 등이 있다.

S4 재생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도 불리며, 지속 사용이 가능한 모든 에너지의 총칭이다. 화석연료와 달리 아무리 써도 무궁무진하며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영어권)

S22 '재생에너지'란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조력 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의 재생에너지가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전공 학습자는 복문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원문은 재생 에너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재생 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이다’, ‘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력, 파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에 제시된 번역문은 모두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분리하여 번역되었다. S5, S12, S21은 중국어 모어 학습자의 번역 문장이고 S2는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학습자의 번역문, S4 번역문은 영어가 모국어인 학습자의 것이고, S22는 포르투갈어가 모국어인 학습자의 번역 문장이다.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문장을 분리한 경우인데, 원문의 문장을 분리해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문과 목표어의 문장 구조가 달라 원문 문장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문장의 구조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문장을 분리하여 번역을 하더라도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응집성

있는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 학습자가 번역한 문장에서는 ‘재생 에너지는’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반복을 피하려면 원문과 같이 긴 관형사절 주어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두 문장으로 분리하였으나 ‘재생에너지는’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S2와 S4의 번역 문장은 ‘재생 에너지는’이라는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나 S4의 경우는 앞뒤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S2는 ‘재생에너지’의 반복 대신 ‘재생에너지가 있다’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장 구조도 변경된 경우이다. S2는 앞의 ‘재생에너지’를 가리키는 지시표현 ‘그’를 사용하여 반복을 피하고 있다. 원문의 문장을 분리하여 번역한 것은 동일하지만 분리한 두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장 분리 여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분리된 문장들 간의 논리적 연결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 번역 텍스트의 응집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둘 다 원문과 동일하게 안긴문장 안은문장으로 번역하였다. 모국어로 번역할 때부터 한국어 원문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이 한국어 복문을 분리하지 않고 번역하는 경우는 없을까? 아래의 예문은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이 위의 <사례2>의 원문처럼 긴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을 하였으나 원문과 구조가 달라진 문장이다.

2) 문장 구조 변경

<사례3: 문장 구조 변경> <‘지구재생에너지’ 텍스트 중에서>

원문)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재생 에너지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30여 개 주에서 의무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친재생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다

번역문)

S19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재생 에너지 시장을 보유하여, 30여 개 주에서 의무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친(親)재생 에너지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SC5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재생 에너지 시장으로서, ‘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30여 개의 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게 했다.

SC9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재생 에너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주에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녹색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례의 원문은 긴 관형사절이 ‘미국’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재생 에너지 시장을 보유하-’가 ‘미국’에 대한 설명이다. 수식하는 부분은 피수식어 ‘미국’을 주어로 구성하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된다. 위 번역문의 문장은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문장을 나누어서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어로 ‘미국은’이 문장의 첫 머리에 위치한 것이 공통적이다. S19와 SC9의 경우는 전성어미로 연결한 명사절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대등문으로 만들었고 SC5는 자격, 역할의 의미기능을 하는 부사절로 구성하였다.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나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을 구성할 때 전성어미로 연결된 복문, 특히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의 구성이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하여 복합문을 만들 때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대등문을 만드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더 용이한 것이다.

<사례2>와 <사례3>을 통해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이 내포문을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

이 문장을 분리하여 번역하는 경향을 보이고 문장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는 복문이기는 하나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문장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보아 내포문 생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복문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관형사절이 가지는 수식 기능과 문장 확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관형사절 교육이 주로 시제와 관련하여 의미 형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인식 부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4. 나오는 글

지금까지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의 번역문을 살펴보았다.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이므로 도착어의 대한 언어 교육은 그다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번역을 위한 좋은 문장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언어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한국어 문장의 특징, 특히 한국어는 SOV 어순이라는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일률적으로 SOV 어순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한국어 복문의 생산이 익숙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었다. 모국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장을 분리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분리된 두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여 구성하지는 못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한국어 번역 문장의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았다. 고급학습자이지만 번역을 잘하기 위한 도착어(한국어) 능력 향상을 필요함을 보여준 연구라는 점, 앞으로 한국어 번역 수업에서 언어교육인 한국어 교육과 달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도착어인 한국어 숙달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은정(2019a), 유학생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어휘 특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6(1),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157-186.
- 박은정(2019b), 한국어 사동과 피동 표현에 대한 고급학습자 번역 양상과 인식 연구. 국제어문 82집, 국제어문화회. 479-501.
- 박은정(2022), 한국어(A→B방향) 번역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RMIT대학의 통번역 교과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26(2), 25-48.
- 심지영(2021),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 설계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12(2), 1637-1650.
- 최권진(2021), 번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18(1), 243-269.
- 허용·박은정(2019), 한국어 역번역문에 나타난 '이/가, 은/는'의 번역 양상과 그에 따른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109, 한국언어문화회, 265-294.
- 허용·박은정(2020), 한국어 고급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복합적 구성의 양태 표현 연구, 국제어문 87, 345-369.
- Campbell, S.(1998), Translation into the second language, London and NewYork: Longman.
- Colina, S. (2010), 번역교육: 이론과 실제, 배만호, 박기성, 안동환, 윤일환, 김용규 역 서울: 동인.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Translation Teaching, from Research to the Classroom)
- Daniel G.(2017), 번역을 이해하고 배우기(La traduction. La comprendre, l'apprendre.), 김대영 역. 한국문화사(원저 출판 2005).
- Kussmaul. P.(1995), Training the Translator, Philadelphia and Amsterdam: John Benjamins.

- Paegelow, R. S. (2008), Back Translation Revisited: Differences that Matter and Those that. The ATA
- Pym, A. (1991), Mladen Jovanovic (ed.) Translation: A creative profession: 12th World Congress of FIT. Proceedings, Belgrade: Prevodilac, 541-546.
- Pym, A.(1993), Epistemological problems in translation and its teaching. Calaceit: Caminade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 연구
-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의 실행 결과를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문

민진영(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대학원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 중 ‘번역을 위한 고급한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번역한 문장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연구자가 밝히셨다시피 어휘나 문형 혹은 표현과 달리 문장 어순, 복문의 구조 분석은 한국어교육 수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룬 이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저의 작은 의견을 보태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께서 밝히신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번역 수업이 진행된다면 한 학기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다루어지는 텍스트 개수, 텍스트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번역 코퍼스 구축하신 것을 부록에 첨부하셨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번역 코퍼스 구축하신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의 특이한 제한점 때문에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시해 주신 논문을 참고해도 되겠으나 이들의 특징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역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차이’는 오역이나 오류에 해당되므로 학습자의 역번역문과 원문을 비교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등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는 표현 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번역 교육에서 활성화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가능한지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역 전공 한국어 학습자들은 원문과 등가를 이루는 다양한 문장으로 한국어 번역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알겠으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또한 역번역의 경우 B(한국어)A(학습자 모국어) 번역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원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만을 보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정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들은 한국어 복문의 번역을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번역을 공부하는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 아닐지요? 복문 번역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 덕분에 한국어 번역 전공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자로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 번역 문장에 나타난 특징 연구’ 토론문에 대한 답변

1. 연구자께서 밝히신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번역 수업이 진행된다면 한 학기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다루어지는 텍스트 개수, 텍스트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교재: 번역을 위한 고급한국어, 허용 박은정 외(2020)**

다양한 주제(사회현상, 예술, 과학, 환경 등)를 다루고 있고 8과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텍스트는 약 1752자 분량

꽃들의 사진

새해가 왔다. 새해가 오면 누구나 꽃을 본다. 도래할 시년의 속삭임만이 가득한 캘린더가 스페셜북인 듯 그 위에 새로운 연어의 꽃들을 그려 넣는다. 누구나 저녁의 꿈이 있고 그 꿈들은 서로 얼굴이 다를 것이다. 캘린더 위에 그려지는 꽃들의 그림도 왕으로 다양해진다. 사실 꽃이란 어쨌든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림에도 그 무수한 꽃들을 본뜬해서 하나의 사진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꽃들의 사진이 만들어질까?

우선 밤에 푸는 꿈과 낮에 꾸는 꿈이 있다. 하기와 꿈은 꿈 속의 세상이나 낮의 꿈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실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꿈이 반드시 꿈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낮에 깨어서 더 많은 꽃들을 꾸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림 그릴 때는 백일몽이라고 부르지만, 백일몽이 반드시 맞지도 비장상의 현실인 건 아니다. 커피를 들으면서, 차 안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비즈니스 당파에 열중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심 없이 눈앞의 목적과 상관없이 혼자서 흘러가는 무목적적 생각들, 몽상들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많은 생의 진실들이 그 꿈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또 개인의 꿈과 집단의 꿈이 있다. 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내밀하게 자기 안에 품은 소망으로 정의되지만, 그 꿈들이 과연 사적이고 개인적이기만 한 걸까.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의 꿈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면 우리가 다 같이 무의식적으로 꿈꾸는 다른 세상의 지도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할 바 있었다. 장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상상된 현실의 세상'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자의 유명한 '호랑몽'도 꿈과 현실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는 재깁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자연의 꿈과 도시의 꿈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공간 상상력은 도시는 작약하고 자연 안에는 꿈이 있다고 이분화한다. 그래서 도시 안에 견제 치라는 이들은 누구나 자연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 동경은 아마도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꿈이 반드시 현실의 외무로 상징되는 자연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꿈은 오히려 우리가 갈채서 살아가는 일상적 삶의 공간인 데도시 곳곳에 포진해 있기도 하다. 자연을 향한 꿈이 소극적 도리러면 도시 안에서의 꿈은 적극적인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꿈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에서의 꿈은 일종의 '정치적 무의식'의 발현일 수도 있다.

결론으로, 과거로 향하는 꿈과 미래로 향하는 꿈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꿈은 본디는 언제나

살렘했던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쁨이 가능한 미래의 시간으로 향하는 소망이다. 하지만 과거로 역류하는 꿈, 지나간 시간들을 또 한 번 되새김질하는 기억이라는 꿈도 있다. 과거의 시간들에 대한 생생한 정서로 상상력이 내면의 새로운 꿈이 개화되고 실현될 수 있을지, 과거의 꿈들이 역사 속에서 왜 때때로 배반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꿈꾸던 미래에 대한 간절한 꿈들이 왜 이 나쁜 현실만을 가져다주었는지 기억하고 묻지 않은 채 그려지는 미래의 꿈은 또 한 번 반복되는 생생한 과거가 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면서 산다. 아마도 그 꿈의 가능성은 개인의 꿈과 집단의 꿈, 나의 꿈과 공동체의 꿈이 서로를 발견하는 그 어떤 연결점 위에 있을 것이다. 그 연결점의 영역, 과거가 진정한 꿈의 고향이고 꿈들도 모두 그곳으로 돌아오고 싶으리라.

김정연 '꿈들의 사진'에서 발췌

3 어휘 및 표현 연습

1. 아래의 문장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십시오.

과거한 상상력	삶의 공간	현실의 변화	성찰 없이
1)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_____	_____	_____을/를 발휘해야만 참모적이고 독창적인 발명품이 탄생한다고 한다.
2)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한 일들에 대해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는	_____ (는)	_____	_____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_____	_____을/를 빨리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심지어 단순한 참을 사는 등의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_____	_____을/를 휴식을 줄 수 있는 안전한 _____이/가 되어야 한다. [출처] 크로이 동화책 Wind	

수업진행: 한 과를 두 주에 걸쳐 수업

1주차- 어휘, 본문 텍스트 이해하기 과제: 모국어로 번역하기

2주차- 모국어로 번역한 자료만 보면서 한국어로 역번역하기(수업시간에 통제)

교수자는 자료를 모아서 분석, 다음 차시에 피드백하기

2. 번역 코퍼스 구축하신 것을 부록에 첨부하셨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번역 코퍼스 구축하신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회날 발표할 때에 일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의 특이한 제한점 때문에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시해 주신 논문을 참고해도 되겠으나 이들의 특징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의 특이한 제한점은 박은정(2022)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모국어)→B(외국어) 번역

한국어 번역전공의 특징은 먼저, A(모국어)→B(외국어)로의 번역을 들 수 있다. B→A 번역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한국어 번역전공은 이와 반대이다.1) 일반적으로 B(외국어)→A(모국어)

로의 번역이 비교적 용이하고 번역가들이 선호하는 번역형태이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A(학습자의 모국어)→B(외국어:한국어)로의 번역을 하게 된다. 즉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에게 한국어가 공통언어이자 도착어가 되는 L2번역이 되는 것이다.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B→A 번역보다 A→B 번역 과정에서 훨씬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B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고 B언어의 원어민이라면 범하지 않을 오류와 누락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2) 다:1 언어 쌍 번역 수업으로 인한 제약

국내의 통·번역 전공과 달리 수업에서 영-한 또는 한-영 통·번역처럼 1:1 언어 쌍의 통·번역 훈련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습자들로 이루어진 교육현장에서 1:1 언어 쌍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번역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지 못하면 번역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는 것, 번역 교육을 할 교수자의 전문성, 교재, 교수법 등은 교육 현장에서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번역 작업을 진행했는지를 알면 교수자가 학습자를 지도하기에 용이하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언어권의 학습자들은 함께 토론하고 언어권이 혼자인 학습자는 교수자와 함께 토론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3. 역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차이’는 오역이나 오류에 해당되므로 학습자의 역번역문과 원문을 비교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등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는 표현 방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번역 교육에서 활성화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가능한지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 ‘같은 언어권의 학습자들은 함께 토론하고~~~~’

원문의 한 문장에 대해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을 제시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문장인데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비문이나 정문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상황에 가장 적절할지 토론을 하는 과정이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하루 책을 읽는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관형어+ 주어+ 서술어)

학습자 번역문: ① 통계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하루 책을 읽는 시간이 채 10분도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②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하루 책을 읽는 시간이 채 10분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은 발표의 주체인 ‘통계청’을 주어가 아닌 관형어로 성분 이동을 한 문장인데 학습자들은 항상 주어가 문장의 맨 앞, 서술어는 마지막에 놓는 전형적인 한국어 문장 구조로 번역을 한다. 어느 문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전공 한국어 학습자들은 원문과 등가를 이루는 다양한 문장으로 한국어 번역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알겠으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요? 또한 역번역의 경우 B(한국어)A(학습자 모국어)번역이 끝나고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원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만을 보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정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1번 질문의 답과 연결: 1주일 정도(과제를 제때 하지 않는 학생은 1주일보다 짧은 시간)

4. 한국어 번역 전공학습자들은 한국어 복문의 번역을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번역을 공부하는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 아닐지요? 복문 번역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어 번역전공뿐만 아니라 한국어 언어 학습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겠지요. 본고에서 'Kusssmaul(1995)은 전문가가 아닌 번역 과정의 학생들은 언어 과정 학생들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제2언어나 외국어 실력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번역전공은 B(도착어가 외국어인 한국어)언어로의 번역이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렇다고 한국어 번역교육이 한국어 교육과 동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적 번역'이 아닌 '전문적 번역'을 위한 도착어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논문에서도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 번역전공 교육에서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문 번역을 잘하려면 한국어 복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학습자들은 수식과 피수식, 안긴문장 안에서의 주술관계, 주어 서술어 호응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의미 파악도 어려워하고 정확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어 번역전공 학습자들에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국어학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
단어 구조의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

◇ 현대문학

정복근 희곡 <실비명>, 호모 사케르에 대한 호명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 -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 -

◇ 고전문학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一面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

◇ 한국어교육

K-POP을 활용한^[L]_[SEP]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연구
온라인 세종학당의^[L]_[SEP]교육 플랫폼 적용과 운영에 대한 고찰 -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국어학]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

단어 구조의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김지혜(성균관대)

1. 서론

이 글은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국어사전이 이전의 ‘종이사전’의 형식과 체계로부터 ‘웹사전’의 형식과 체계로 변모하게 되면서 국어사전의 편찬과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연구 주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나,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 등을 포함한다(김현, 2016: 14). 사전학에서는 이전의 종이사전 시기에 시도하지 못하였던 여러 연구 주제를 웹사전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수행 가능하게 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종이사전’은 종으로 출판되어 나온 사전을 가리키고, ‘웹사전’은 인터넷에서 웹 페이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전을 가리킨다(『우리말샘』). 이 정의는 사전이 대중에게 제공되는 매체가 무엇이나에 따른 분류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종이’로 인쇄된 사전이나,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전이나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런데 1999년 종이사전으로 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이 2008년 개정을 거쳐 웹사전으로 제공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수정·보완된 사항을 살펴보면 ‘웹사전’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¹¹⁸⁾ 형식상 웹사전의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사전으로의 편찬 당시에 세웠던 기준과 지침에 의거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근’의 수록이다.

(1) 반질01 ‘반질거리다’의 어근.

반질거리다 「1」거죽이 매우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다. ≒반질대다.

반질대다 「1」거죽이 매우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다. =반질거리다.

종이사전 편찬 시기의 어근의 수록은 ‘지면의 절약’이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즉 ‘반질거리다, 반질대다’ 등의 ‘-거리다, -대다, -이다, -하다’ 등의 파생어를 하나의 어근 아래에 한데 모아 묶어서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어근의 파생어라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일한 뜻풀

118)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전의 수정·보완은 ‘정확한 뜻풀이의 추구, 누락된 표제어의 등재, 계열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수정, 어문규범과 관련한 수정·보완, 사회적 인식 변화의 반영, 단순 오류의 정정’이라는 6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김지혜, 2022). 6가지의 수정·보완 내용은 모두 웹사전으로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개편 방향이라기보다는 사전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오류 수정과 보완에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웹사전에서는 '지면의 제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파생어마다 각각 뜻풀이를 하고 각각의 관련어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등 미시 구조의 양과 제시에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그 자체로 온전한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 즉 '어근으로만 존재하는 어근'은 굳이 따로 사전에 등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반질'은 '반질거리다'나 '반질대다'의 어근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뜻을 갖거나 용례를 보이지 않으므로 웹사전의 체제에서는 사전에 수록된 의의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거리다, -대다, -이다, -하다, -되다' 등의 어근 중 전혀 용례가 없이 어근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이 여전히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는 웹사전을 도입한 지 십여 년이 지나고 디지털 인문학 시대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웹사전이라는 형식의 특성이 사전의 미시 구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웹사전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 디지털 인문학 시대에 걸맞은 사전으로서 개편되어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표준국어대사전』의 미시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앞으로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웹사전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적·형식적 변화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과 실제 사전의 처리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인문학 시대에 걸맞은 웹사전으로서의 개편 방향이 무엇일지 논의할 것이다.

2.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의 변화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된 이래로 지금까지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맞이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은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2008년 웹사전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2016년 개방형 지식 대사전인 『우리말샘』의 개통이다. 그 외에도 어문규범의 개정이나 시대적 인식의 반영 등에 따라 수시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변화는 시대의 반영인 동시에 형식과 내용의 거시적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데 반하여, 이전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다. 본 절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변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2.1. 정보 제시 방식의 변화

첫째, '비표준어'의 제시 방식이 변화하였다. '종이사전으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종이)』)에서는 비표준어의 뜻풀이를 '○○의 잘못'으로 제시하였으나(국립국어연구원, 2000: 22) '웹사전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웹)』)에서는 '→○○'으로 뜻풀이의 형식이 변화하였다. 여기서 '→'의 의미는 → 뒤에 제시한 표준어의 뜻풀이를 참고하라는 뜻으로, 『표준(웹)』에서는 → 뒤에 오는 표제어를 클릭하면 해당 표제어의 페이지

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 (2) 가. 『표준(종이)』 개뿔 ‘갯벌’의 잘못.
- 나. 『표준(웹)』 개뿔 → 갯벌.

예를 들어 ‘개뿔’은 『표준(종이)』에서 (2가)와 같이 ‘‘갯벌’의 잘못.’으로 제시되었으나, 웹사전이 도입되면서부터는 『표준(웹)』에서 (2나)와 같이 ‘→ 갯벌.’로 풀이되고 ‘갯벌’을 클릭하면 표준어인 ‘갯벌’의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¹¹⁹⁾

둘째, 주표제어와 부표제어¹²⁰⁾ 모두에서 뜻풀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표준(종이)』에서는 주표제어에서만 뜻풀이하고 부표제어에서는 주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리는 식으로 제시하였으나(국립국어연구원, 2000: 120), 『표준(웹)』에서는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모두에서 뜻풀이를 한다.

- (3) 가. 『표준(종이)』 도치-되다 「1」 =>도치05(1).
「2」 『어』 =>도치05(2).
- 나. 『표준(웹)』 도치-되다 「1」 차례나 위치 따위가 서로 뒤바뀐다.
「2」 『언어』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어순 따위가 뒤바뀐다.

예를 들어 『표준(종이)』에서는 ‘도치되다’를 찾으면 다시 주표제어인 명사 ‘도치’의 뜻풀이를 확인하도록 해 놓아 사전 이용자는 명사 ‘도치’의 뜻풀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표제어인 동사 ‘도치되다’의 뜻풀이를 가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표준(웹)』에서는 ‘도치되다’를 검색하면 ‘도치’를 재검색하지 않고도 바로 동사로 풀이된 뜻풀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면의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종이사전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동일한 어근을 공유하는 표제어끼리 묶어 한곳에 제시한 후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위계를 두어, 주표제어에만 뜻풀이를 제시하고 부표제어에는 뜻풀이를 생략함으로써 지면을 절약하는 전략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웹사전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지면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모두에서 각 품사에 알맞은 뜻풀이를 각기 제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부표제어에도 뜻풀이를 제시하게 된 변화의 또 다른 이유는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종이)』의 이용자가 ‘동사’인 부표제어 ‘도치되다’의 뜻풀이를 알기 위해서는 ‘명사’인 주표제어 ‘도치’의 명사로서의 뜻풀이를 통해서 ‘도치되다’의 동사로서의 뜻을 직접 유추해야 했지만, 『표준(웹)』에서는 주표제어를 굳이 재검색하지 않더라도 부표제어의 검색 결과 내에서 동사로서의 뜻풀이를 바로 알 수 있다. 즉 사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피동사와 사동사 모두에서 뜻풀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표준(종이)』에서는

119)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비표준어의 제시 방식의 변화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준어는 아니나 그렇다고 비표준어라고 명료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모두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제시 방식을 수정한 것이기도 하다. 화살표(→) 뒤에 오는 어휘에는 비표준어 이외에도 방언, 순화대상어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120) ‘주표제어’란 사전에서 다른 표제어에 딸리지 않고 배열되는 말을 뜻하고, ‘부표제어’란 사전에서 다른 표제어에 딸려 배열되는 말을 뜻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00: 120). 예를 들어 ‘반짝이’는 주표제어이고, ‘반짝대다, 반짝하다, 반짝거리다, 반짝이다’는 부표제어이다.

피동사와 사동사의 뜻을 각각 “○○’의 피동사’, “○○’의 사동사’로만 제시하였으나(국립국어연구원, 2000L: 42), 『표준(웹)』에서는 피동사와 사동사에서 뜻풀이를 제시한 후 “○○’의 피동사’ 또는 “○○’의 사동사’라는 정보를 함께 제시한다.

- (4) 가. 『표준(종이)』 먹-이다 「1」 ‘먹다02『I』(1)(1)’의 사동사.
 나. 『표준(웹)』 먹-이다 「1」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게 하다. ‘먹다’의 사동사.

따라서 『표준(종이)』에서는 사전 이용자가 ‘먹이다’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먹다’를 다시 찾은 후 ‘먹다02『I』(1)(1)’에 해당하는 뜻갈래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다. 반면 『표준(웹)』에서는 ‘먹이다’를 검색하면 ‘먹다’를 재검색하지 않고도 바로 풀이된 뜻을 찾아볼 수 있고, ‘먹이다’에 대응되는 ‘먹다’의 뜻갈래도 ‘먹다’를 클릭함으로써 연결된 ‘먹다’의 페이지에서 대응되는 뜻갈래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피동사와 사동사의 『표준(웹)』에서의 처리 방식은 대응되는 뜻갈래를 링크로 연결하여 보여 줌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뿐더러 웹사이트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변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생략하거나 축약하여 제시하던 원어 정보와 발음 정보를 모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5)와 같이 『표준(종이)』에서 원어 정보는 고유어와 합성된 단어나 구인 경우 고유어 위치에 ‘-’ 기호를 음절 수만큼 반복하였으나(국립국어연구원, 2000G: 123), 『표준(웹)』에서는 고유어를 그대로 적어서 고유어가 원어임을 밝히고 있다.

- (5) 가. 『표준(종이)』 나비-넥타이 (--necktie)
 나. 『표준(웹)』 나비-넥타이 (나비necktie)

또한, 원어의 원어명은 『표준(종이)』에서는 (6가)와 같이 ‘○’ 안에 그 약호를 밝히는 방식으로 제시하되, 영어에서 온 외래어는 (7가)와 같이 언어명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국립국어연구원, 2000G: 131~132). 반면 『표준(웹)』에서는 (6나)와 같이 원어 뒤에 달린 화살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언어명이 온전하게 보이도록 보이도록 변화되었으며, (7나)와 같이 언어명이 영어인 표제어에 대해서도 언어명을 제시하여 보여 주고 있다.

- (6) 가. 『표준(종이)』 콩소메 (프)consommé



- 나. 『표준(웹)』 콩소메

- (7) 가. 『표준(종이)』 힙합 (hiphop)



- 나. 『표준(웹)』 힙합

한편, 발음 정보는 『표준(종이)』에서는 표기와 발음 표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와 순수히 연

음화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발음 표기를 하지 않았으나(국립국어연구원, 2007: 140), 『표준(웹)』에서는 표기와 발음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단순히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더라도 발음 표기를 하고 있다.

- | | | | |
|------|-------------|-------|--------------|
| (8) | 가. 『표준(종이)』 | 고래 | |
| | 나. 『표준(웹)』 | 고래01 | [고래] |
| (9) | 가. 『표준(종이)』 | 알음-알이 | |
| | 나. 『표준(웹)』 | 알음-알이 | [아르마리] |
| (10) | 가. 『표준(종이)』 | 자다 | 자, 자니 |
| | 나. 『표준(웹)』 | 자다 | 자[자], 자니[자니] |

(8)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이고, (9)는 발음이 순수하게 연음화되는 경우이며, (10)은 활용형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8)과 (9)는 표제어의 발음 정보를, (10)은 활용형의 발음 정보를 보여 주는데, 『표준(종이)』에서는 모두 발음 정보란을 빈칸으로 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표준(웹)』에서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더라도 (8나), (10나)와 같이 그대로 발음을 제시하고 있고, (9나)와 같이 연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음화된 발음으로 발음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종이)』에서는 원어 정보와 발음 정보에서 생략하거나 축약하여 제시하였던 정보를 『표준(웹)』에서는 빠짐없이 모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웹사전이 도입됨에 따라 지면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3월 『표준국어대사전』은 크게 개편된 바 있는데, 위에서 검토한 변화들 중 첫 번째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변화는 모두 2019년 3월 개편이 단행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들이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이 종이 사전의 체제를 벗어나 진정한 형태의 웹사전으로 탈바꿈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이전에 지면의 제약으로 온전히 제시하지 못했던 발음 정보, 원어 정보, 주표제어가 아닌 표제어의 뜻풀이, 피동사·사동사의 뜻풀이 등을 수록하게 된 것이다(김지혜, 2022: 31). 이로써 언어 사전으로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사전 정보를 보다 상세하고 풍부하게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우리말샘』 공존 체제에 따른 변화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별개의 웹사전으로 2016년 개방형 지식 대사사전인 『우리말샘』을 개통하였다. 규범성이 강한 언어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우리말샘』은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위키(wiki) 방식의 사전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전이다. 『우리말샘』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표제어 등록과 수정 등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성격의 『우리말샘』이 개통됨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두 사전은 다른 방향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2019년 3월 이루어진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사항 중 큰 개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방언, 북한어, 옛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 결과 ‘방언, 북한어, 옛말’은 『우리말샘』에만 등재되어 있게 되었다.

- (11) 가. '-의 방언'으로 뜻풀이되거나 '땡'이라는 표지가 있는 표제어
 나. '-의 북한어'로 뜻풀이되거나 '뚝'이라는 표지가 있는 표제어
 다. '-의 옛말'로 뜻풀이되거나 '옛'이라는 표지가 있는 표제어
 ⇒ 2019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외, 『우리말샘』에만 등재

‘방언, 북한어, 옛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외한 이 개편 사항은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과 ‘언어 현실’ 중 규범성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규범의 역할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일임하고 언어 현실을 폭넓게 수용하는 역할은 『우리말샘』으로 넘긴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지혜, 2022: 31).

이로써 『우리말샘』은 국어 정보를 집대성하는 사전이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전의 이름 그대로 ‘표준’, 즉 규범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2.3. 어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전 처리의 변화

첫째, 2017년 어문 규정 개정에 따라 ‘너라’ 불규칙 활용이 삭제되면서(국립국어원, 2018: 5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너라 불규칙 활용, 너라 불규칙 용언’ 등의 표제어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12가)와 같이 이전에는 표준형으로 인정하지 않던 ‘오다’에 ‘-아라’가 결합한 활용형 ‘와라’도 (12나)에서의 해설과 같이 표준형으로 인정되었다.

- (12) 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2007: 26)
 명령형어미 ‘-너라’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복합동사로 한정한다. 나머지 동사는 ‘-아라’를 취한다.
 오다: 와, 오니, 오너라 ☞ ‘와라’는 비표준어이고 ‘오라’는 표준어이다.
 나.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해설(2018: 56)
 ‘와라(←오+아라), 오너라’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하였다.···‘-너라’는 ‘-아라/-어라’에 비해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문 규정의 개정은 어미 ‘-아라’와 ‘-너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시켰는데, 그 변화 내용이 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 (13) 가. ‘-아라’의 문법 정보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나. ‘-너라’의 뜻풀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보다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다. ‘오다’의 활용 정보

왜와, 오네오네, 오너래오너래
→ 왜와, 오네오네

‘오다’와 ‘-아라’의 결합형 ‘와라’도 표준형으로 인정함에 따라 표제어 ‘-아라’에 문법 정보로 제시되어 있던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의 동사 ‘오다’가 명령형 어미 ‘-아라’와 ‘-너라’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라’와 ‘-너라’의 차이점을 기술할 필요가 새롭게 요구되었다. 이는 (12나)에서 확인하였듯이 규정에서 어감의 차이, 즉 ‘-너라’가 ‘-아라’보다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내용으로 메꾸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이 반영되어 표제어 ‘-너라’에서 뜻풀이에는 “‘-어라’보다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표현이 덧붙게 되었다.¹²¹⁾ 그리고 동사 ‘오다’의 활용 정보에서도 불규칙 활용형이었기 때문에 덧붙여 제시하였던 ‘오너라’형을 삭제하게 되었다.

둘째, 2015년 ‘말아, 말아라, 말아요’의 표준어 추가 인정에 따라 표제어 ‘말다’의 명령형 활용에 대한 규범 내용을 부가 정보란에 제시하게 되었다.

(14) 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2007: 25)

‘말다’가 직접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ㄹ’이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지 말아라’는 ‘~지 마라’가, ‘~말아’는 ‘~마’가 표준어이다.

술을 먹지 말아라 → 술을 먹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 → 너무 슬퍼 하지 마

나.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해설」(2018: 56)

‘말다’의 어간 ‘말-’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마라’와 ‘말아라’ 두 가지로 활용하고, ‘-아’가 결합할 때에도 ‘마’와 ‘말아’ 두 가지로 활용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마/말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말아요.

(15) 말다03

(활용정보) 말아, 마니, 마오

(부가정보) ※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따위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

사전의 미시 구조 중 ‘부가 정보’란(일명 ‘돋보기 정보’)은 표제어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 기호 다음에 보여 주는 곳이며 그 위치는 표제어의 정보 맨끝이다(국립국어연구원, 2000L: 494). ‘마라, 마’의 활용형만 표준형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말아라, 말아’의 활용형도 표준형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규정의 변경 내용을 부가 정보로 제시한 것을 (15)를

121) 어문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예스러운 느낌’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다’에 ‘-아라’가 결합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너라 불규칙 활용’을 삭제함에 따라 ‘-아라’와 ‘-너라’는 결합하는 동사에서 더 이상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즉 ‘오다’가 결합될 수 있고 동일하게 명령형을 나타내는 ‘-아라’와 ‘-너라’의 두 어미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문 규정에서는 ‘-너라’가 ‘-아라’에 비하여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국립국어원, 2018: 56), ‘예스러운 느낌’이라는 설명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구체화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너라’와 ‘-아라’가 결합 가능한 조건에는 상대높임법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말다’의 활용 정보에서는 ‘말아, 마니, 마오’의 세 활용형만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규정의 변경 내용이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활용 정보란에 기존의 활용형과 더불어 추가로 ‘마, 마라, 마요, 말아, 말아라, 말아요’ 등을 추가하여 제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는 활용 정보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활용형은 ‘-어, -으니’ 형이지만¹²²⁾, 특이하게 활용하는 용언이나 발음 표시가 필요한 활용형은 별도의 활용형을 추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활용형에 제약이 있다면 불가능한 형태의 활용형은 표시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국립국어연구원, 2000 ㄱ: 160~161), ‘말다’의 활용형에도 ‘마, 마라, 마요, 말아, 말아라, 말아요’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16) 가. 놓다 놓아(놔), 놓으니, 놓는, 놓소
 나. 딛다 딛는

(16가)와 같이 표제어 ‘놓다’는 ‘-아, -으니’ 형 이외에 ‘-는, -소’ 활용형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16나)와 같이 표제어 ‘딛다’는 ‘-어, -으니’의 활용형은 표시하지 않고 ‘-는’ 형만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용언의 활용 특성에 따라 활용 정보의 제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말다’의 경우 규범 내용이 수정된 사실을 사전 이용자에게 직관적으로 표시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활용 정보에 표준형으로 인정된 활용형들을 나열해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말다’의 활용형에 ‘마, 마라, 마요, 말아, 말아라, 말아요’ 등을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다른 하나의 근거는, 활용형에 대한 정보는 활용 정보란에서 제시하는 것이 사전 이용자에게 더 직관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15)와 같이 부가 정보로 제시된 정보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정확하며 규정에 근거한 온전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대중에게는 소통성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규정의 변화 내용을 필요로 하고 사전에 찾아보게 될 사전 이용자는 오히려 국어학 전공자가 아닐 확률이 크므로 사전의 정보는 최대한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시해야 할 정보는 활용 정보이므로 활용 정보란에 여러 활용형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가장 사전 이용자에게 쉬운 제시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활용 정보에 표준형으로 인정된 활용형들을 나열해 보여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17년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5항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네 바다주, 뉴욕주’ 등의 표제어들은 품사 정보가 ‘품사 없음(구)’에서 ‘명사’로 바뀌고 표제어를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

(17) 표제어 ‘뉴욕주’의 변화 사항

- 「표제어」 뉴욕 주 → 뉴욕-주
「품사」 품사 없음 → 명사

1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활용형은 ‘-어, -으니’의 두 가지인데, ‘-어’는 모음 어미의 대표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고, ‘-으니’는 매개 모음을 취하는 어미의 대표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며, 자음 어미의 대표형은 표제어가 ‘-다’ 형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다(국립국어연구원, 2000 ㄱ: 160).

「구분」 구 → 단어

예를 들어 표제어 ‘뉴욕주’는 규정 개정 이전까지 ‘뉴욕 주’로 띄어 써 ‘구’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이기 때문에 품사 정보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주’ 등의 단어를 띄어 쓴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래어인지 우리말인지를 고려하여 ‘주’의 띄어쓰기를 고려할 필요 없이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사전에 등재되어 있던 ‘뉴욕주, 네바다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뉴멕시코주, 뉴저지주’ 등의 표제어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되어 ‘표제어, 품사, 구분’ 정보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¹²³⁾

규범 내용의 변화 사항을 사전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기 쉽게 제공하고 형식적으로도 웹사전의 특성상 정보의 제공에 지면의 제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규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 섬, 강, 산, 주, 현, 성’ 등의 표제어들에 부가 정보로 외래어와 우리말에 상관없이 붙여 쓴다는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문 규정의 개정에 영향을 받거나 관련된 표제어들의 띄어쓰기, 품사 정보, 활용 정보, 문법 정보, 뜻풀이, 부가 정보 등의 처리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의 내용은 언제나 규범의 내용을 보존하며 따른다. 따라서 규범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와 관련한 사전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규범이 변화하면 그와 관련한 사전의 내용은 수정된다. 그리고 규범이란 것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겪지 않지만 언중의 언어 현실과 규범 사이에 큰 괴리가 있고 충분히 논의되어 언중의 납득을 얻을 수 있을 때 규범은 변화하기도 한다. 그 결과 변화한 규범의 내용이 사전에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은 언어 현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범의 내용이 변화하면 웹사전에서는 즉각적이고 손쉽게 사전의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다.

3.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의 개편 방향

본 절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을 사전의 미시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교한 논의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과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집필 지침」(2008) 내용의 사전에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고, 디지털 인문학 시대에 웹사전에서 개편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미시 구조 중에서 웹사전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문인 ‘표제어, 원어, 활용, 용례’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한 개편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3.1. 표제어

3.1.1. 표제어의 선정

첫째,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에서는 표제어로 ‘-음직하다’는 사전에 접미사로 올리고

123) 이러한 처리는 미국의 ‘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 ‘현’, ‘성’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 온타리오주, 나가사키현, 쓰촨성 등)

‘직하다’는 보조용언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다.(국립국어연구원, 2000: 29) 그러나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음직하-’ 또는 ‘-ㅁ직하-’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¹²⁴⁾ 단지 ‘들음직하다, 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의 3개만 파생어 단위로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음직하다’를 접미사로 사전에 등재한다는 것은 ‘-음직하다’의 구성 전체를 하나의 접미사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는데, ‘-음직하다’의 형태소 분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18) ‘-음직하다’

- 가. -(으)ㅁ직하- + -다
- 나. -(으)ㅁ직 + -하- + -다
- 다. -(음)ㅁ # 직 + -하- + -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 ‘-음직하다’를 접미사로 올린다고 한 기술은 ‘-음직하다’를 (18가)와 같이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하나는 접미사가 ‘-음직했다, -음직한’ 등의 형태로 활용하므로 ‘-음직하다’를 접미사로 인정하여 등재한다면 그 활용형인 ‘-음직했다, -음직한’ 등의 모든 활용형태들도 함께 등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음직하다’를 접미사로 취급하면서도 ‘들음직하다, 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는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였다는 점과 이 세 개의 표제어에 대한 IC분석을 ‘들음직-하다, 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와 같이 ‘-음직’과 ‘-하-’ 사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지침의 기술과 달리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음직하다’가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음직하다’에 대하여 제기되는 위의 두 문제는 형태소 분석을 (18나)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등에서는 ‘-음직’의 형태만 접미사로 등재함으로써 모든 활용형을 등재해야 한다는 딜레마 문제와 부적절한 IC 분석의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19) ‘-음직02’ 『고려대한국어대사전』

- 형태분석: -음직
- 품사: 접미사
- 뜻풀이: ‘ㄴ’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대상에 대해 ‘매우 그렇게 할 만한 상태임’의 뜻을 더하는 말.
- 용례: 먹음직. 믿음직.
- 참고어: -ㅁ직

한편 ‘직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조용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문법 정보에서 ‘-ㅁ/음 직하다’의 구성으로 쓰인다는 정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20) 직하다03 「보조 형용사」 ((용언이나 ‘이다’ 뒤에서 ‘-ㅁ/음 직하다’ 구성으로 쓰여))

이러한 문법 정보의 기술을 통해서도 ‘-음직하다’의 처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음 직하다’로 띄어 적어 제시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더 이상 ‘-음직하다’를

124) 반면 ‘-(으)ㅁ직스럽-’은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다.

접미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음지하다’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18다)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에서는 ‘신화, 전설, 민담을 제외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가상의 국명’은 표제어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나(국립국어연구원, 2000ㄱ: 49)¹²⁵⁾,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에 어긋나는 표제어가 일부 있다.

- (21) 가. 산초 판사(Sancho Panza) 『문학』 소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인물.
나. 샤일록(Shylock) 『명사』 『문학』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인물.

지침에 어긋나 대표적인 삭제 대상이 되는 예는 (21) 등을 들 수 있다. ‘산초 판사’, ‘샤일록’은 모두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명으로 우선적인 삭제 대상이 될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명, 가상의 국명 등의 삭제 처리는 현재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과 정비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사전에 실는 고유명사¹²⁶⁾를 어느 범위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말샘』이 국어 정보의 집대성 매체로 기능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 사전으로서 기능한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까지 궁벽한 고유명사 모두를 실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말샘』에 모든 고유명사가 이미 등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등재될 것이므로, 등재 가치가 있거나 규범 제시의 의미가 있는 고유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말샘』에 고유명사의 등재 기능을 일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이 웹사전의 형식을 띠며 지면의 제약이 없다는 면에서 모든 고유명사를 등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지면의 제약과 웹사전의 형식이라는 것에 앞서서 사전은 편찬과 개편은 우선적으로 본질적인 기능과 지향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 사전의 기능을 가지며 규범성의 강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 궁벽한 고유명사까지 모두 등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1.2. 뜻풀이에 사용된 단어의 등재

사전의 뜻풀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뜻풀이된 표제어이어야 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00ㄴ: 4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전문어인 경우에만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어의 뜻풀이에 사용된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드물게 발견된다.

- (22) 모제르총 권총의 하나. 독일의 마우저(Mauser, P. P.)가 발명한 것으로, 연발식이고 구조가 간단하며 견고하다.

표제어 ‘모제르총’의 뜻풀이에 사용된 단어 중 ‘마우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지침과 사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25) 지침에서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 것은 ‘릴리펫’이다. ‘릴리펫’은 「걸리버여행기」에 나오는 난쟁이 나라의 이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삭제해야 할 대상이 된다.

126) 여기서 말하는 ‘고유명사’는 인명, 지명, 책명, 기타 고유명사로 구분된다. 이때의 ‘기타 고유명사’에는 단체명, 기관명, 건축물명, 기업명, 시설명 등이 포함된다(국립국어연구원, 2000ㄱ: 77~78).

첫째, 뜻풀이의 형식은 정의항과 부가 뜻풀이로 구성되는데, 정의항에 사용된 단어가 해당 사전에 등재되어야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자연스럽지만 부가 뜻풀이에까지 들어가는 모든 단어까지 사전에 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지침에서 전문용어에 예외를 두었듯이 전문용어라면 더욱 그러하다. 전문용어 뜻풀이의 경우 뜻풀이를 해당 사전에 등재된 단어로만 뜻풀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대로 전문용어의 뜻풀이에 사용된 모든 단어를 해당 사전에 등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23) 간01 「1」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정의항

부가 뜻풀이

따라서 뜻풀이의 첫 번째 문장, 즉 정의항에 사용된 단어까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등재 범위가 될 것이다.

둘째, 뜻풀이에는 등재된 표제어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22)의 예에서 인명 ‘마우저’가 미등재어였던 데서 문제가 제기된 바와 같이 고유명사를 어느 범위까지 등재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런데 하나의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사전에 등재하는 일은 하나의 해당 어휘만을 등재하면 되는 간단한 차원이 아니라, 복잡한 등재 범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지명 ‘익산’을 등재하게 되면 익산 일부 지역의 옛 지명이었던 ‘이리’도 함께 등재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때 만약 옛 지명을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익산’과 ‘이리’뿐만 아니라 익산과 동일한 층위의 행정구역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하고, 각 행정구역명의 옛 지명도 모두 등재해야 한다.(‘대구’-‘달구벌’, ‘울산’-‘개지변’ 등) 즉 하나의 지명을 한 번 등재하면 해당 지명의 연혁을 따라가면서 종적(縱的)으로 추적해 옛 지명을 모두 등재해야 하는 한편, 해당 지명과 같은 선상의 지명을 횡적(橫的)으로 모두 찾아 내어 등재해야 하는 등 등재 범위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뜻풀에 사용되는 단어 중 고유명사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전의 목적과 등재 범위에 대한 지침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2. 원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원어가 두 개 이상인 한자어끼리 합성어를 이룰 때에는 가능한 원어의 짝 중에서 처음 것과 맨 나중 것만을 제시하였다(국립국어연구원, 2000: 134).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이사전의 특성상 지면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원어를 보일 경우 원어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원어가 여럿일 경우 대표형을 두어 대표형만 보이기로 한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의 기본적인 원어 제시 지침이다.

(24) ‘목판장’의 원어

	木板(A)	木版(B)
牆(a)	木板牆	木版牆
牆(b)	木板牆	木版牆

예를 들어 ‘목판+장’의 구성으로 합성어를 이루는 ‘목판장’의 원어는 총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그 조합은 (24)에서 보듯이 Aa형, Ab형, Ba형, Bb형으로 ‘木板牆, 木板牆, 木版牆, 木版牆’이 된다. 그러나 지침에서는 ‘맨 처음 것’과 ‘맨 나중 것’ 즉, Aa형과 Bb형만 대표형으로 삼아 원어 정보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서는 원어를 Aa형과 Bb형만 제시하던 두 가지 이유가 모두 해소되었다. 다시 말해 지면의 제약이 사라졌으며 웹페이지에서의 구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어의 제시에서 굳이 대표형을 Aa형과 Bb형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어의 개편에서는 사전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서 조합이 가능한 모든 원어의 쌍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3.3. 활용

2.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되는 활용형은 ‘-어, -으니’ 형이다(국립국어연구원, 2000 7: 160). ‘-어’ 형은 모음 어미의 대표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 ‘-으니’는 매개 모음을 취하는 어미의 대표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며, 용언의 표제어가 ‘-다’ 형으로 제시되는 것은 자음 어미의 대표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활용형 제시에 대한 지침은 예외를 허락하는데, 2.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이하게 활용하는 용언이나 발음 표시가 필요한 활용형은 별도의 활용형을 추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활용형에 제약이 있다면 불가능한 형태의 활용형은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활용 정보는 사전 이용자에게 유용한 규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의 체계에서는 사전 이용자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25) 갖다 갖는[간는]

예를 들어 사전 이용자가 ‘갖다’의 어간 ‘갖-’에 어미 ‘-어’를 결합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갖어”라는 활용형이 옳은지 그른지 (25)의 사전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사전에서는 불가능한 활용형에 대하여 아예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 이용자로서는 그른 표기에 대한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웹사이트에서는 더 이상 지면의 제약이 없으므로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활용형을 충분히 제시하고 불가능한 형태에 대하여서도 (26)과 같이 제시한 후 잘못된 표기임을 함께 표시한다면 사전 이용자에게 훨씬 유용할 것이다.

(26) 갖다 갖어(X), 갖으니(X), 갖는[간는]

(27) 먹다 먹는다[명는다], 먹습니다[먹습니다], 먹어[머거], 먹으니[머그니], 먹는[명는], 먹음 [머금], 먹게[먹께]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활용형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은 인식이 공유되어, (27)과 같이 현재의 평서형 종결어미 ‘-는다/는다/다’, ‘-습니다/습니다’, 연결어미 ‘-아/어’, ‘-니/으니’, 현재의 관형사형 어미 ‘-는/ㄴ/은’, 명사형 어미 ‘-ㅁ/음’,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한 7개의

활용형을 용언의 기본적인 활용 정보로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박용찬, 2020: 158~159).

한편 웹사이트 의 큰 장점 중 하나인 ‘검색용 이형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언중의 오류 형태를 파악하여 오류형을 검색용 이형태로 충분히 입력해 놓음으로써, 사전 이용자가 다양한 활용형을 검색하더라도 옳은 표기의 표제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이) 가팔라’의 활용형을 ‘가파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용자가 ‘가파라’로 검색하더라도 사전에서는 표제어 ‘가파르다’가 검색되도록 설계하여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색된 표제어 ‘가파르다’의 활용 정보를 통해 사전 이용자는 ‘가팔라’가 옳은 활용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4. 용례

사전의 용례는 사전 이용자에게 간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주스병’의 ‘병’을 띄어 써야 할지 붙여 써야 할지 알고자 할 때 사전 이용자는 ‘병05’의 ‘3’번 뜻갈래의 뜻풀이와 용례를 통해 ‘주스병’으로 붙여 쓸 수 있음을 파악한다.

(28) 병05 「3」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용기’를 나타내는 말.

농약병. 링거병. 요구르트병.

‘병05 「3」’의 용례로 ‘농약병, 링거병, 요구르트병’이 제시된 것을 통해 ‘병’의 선행 명사가 병에 담긴 내용물일 때 붙여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용례는 사전 이용자에게 유사한 용례 정보를 보여 줌으로써 맞춤법과 띄어쓰기, 용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는 사전 이용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충분하고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전 이용자가 ‘건의받다’의 띄어쓰기가 ‘건의 받다’인지 ‘건의받다’인지 알고자 하는 경우¹²⁷⁾,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미사 ‘-받다’의 용례로 ‘강요받다, 미움받다, 사랑받다’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띄어쓰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29) -받다03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강요받다.미움받다.사랑받다.

사전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식은 사전에 어떠한 정보로든 올라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 쓰이거나 언중의 질문이 많은 ‘건의받다, 부름받다, 사랑받다, 놀림받다’ 등의 용례를 풍부하고 충분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받다’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언중의 규범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는 형태 ‘-하다’, ‘-드리다’, ‘-되다’, ‘-시키다’, ‘-당하다’ 등에도 용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7) 사전 이용자의 질문 내용은 국립국어원(2013: 70)의 온라인 가나다 질의응답 분석 자료를 참조하였다.

4. 결론

예전에는 사전의 분량 제한 때문에 어떤 단어를 사전에 등재할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권위 있는 일이었다. 지금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새롭게 실린 신어는 뉴스에 소개되기도 한다. 2021년 한국어가 기원인 표제어 ‘oppa(오빠)’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등재돼 그 당시 한동안 미디어에서 회자되었던 것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사전은 등재 여부를 고민하는 일의 부담과 무게가 다소 덜어졌다. 종이사전 시기에 사전의 형식과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지면의 제약이 사라졌고, 사전의 여러 미시 구조 정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류가 있는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올바른 결과값으로 검색되도록 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사전의 편찬과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2008년 웹사전이 도입되고 2016년 개방형 지식 대사전인 『우리말샘』이 개통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첫째, 정보 제시 방식이 종이사전 시기의 구태를 버리고 웹사전에 적절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둘째, 『우리말샘』과의 공존 체제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방언, 북한어, 옛말’이 모두 제외되었으며, 셋째, 그동안의 여러 차례의 어문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사전의 표제어, 띄어쓰기, 품사 정보, 활용 정보, 문법 정보, 뜻풀이, 부가 정보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웹사전으로 변화한 지 15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편찬 당시의 종이사전 형식에 기반한 지침의 흔적들이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꾸준히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표제어, 원어 정보, 활용 정보, 용례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미시적인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한다. 하나는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활용형의 제시, 오류형의 제시, 풍부한 용례 제시, 검색용 이형태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면의 제약을 벗어난 웹사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향이다. 이전의 종이사전에서 생략되거나 축약되어 제시되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지면의 제약 없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논의는 『표준국어대사전』이 편찬된 이후로의 개편과 변화 양상을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개편해 나가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웹사전으로서의 개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웹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1』, 국립국어연구원, 2000년.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2000년.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집필 지침』, 국립국어연구원, 2008.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웹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원, 2007.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교육용 규범 정보(사전) 구축』, 2013.
 국립국어원, 『문장 부호 해설』, 국립국어원, 2014.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국립국어원, 20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개편을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2021.

<단행본>

정철, 『검색, 사전을 삼키다』, 사계절, 2016.

<논문>

김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사전과 데이터 - 한국역사인물사전(데이터)을 위한 탐색 -」,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1, 219~240쪽.
 김지혜,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 분석」, 『반교어문연구』 61, 반교어문학회, 2022.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50, 열상고전연구회, 2016, 13~38쪽.
 도원영, 「인문 융합형 디지털 사전 편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사전학회 제 28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2016, 6~18쪽.
 박용찬, 「국어사전의 형태론적 정보 -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55, 한말연구학회, 2020, 129~165쪽.
 박진호,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에서 도메인 지식의 역할」, 『인공지능인문학연구』 4,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19, 135~166쪽.
 시정곤, 「‘음직하’ 구성의 형태·통사적 연구」,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2010, 193~221쪽.
 안상순, 「국어사전의 새로운 모색-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21세기의 국어정책』 1, 국립국어연구원, 2000, 179-193.
 안의정,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사전 편찬-전자사전 편찬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014, 206~225쪽.
 이태영, 「디지털 시대의 사전 편찬의 방향」, 『국어문학』 69, 국어문학회, 2018, 41~67쪽.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토론문

엄태경(한양대)

이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종이 사전에서 웹 사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를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 편찬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면밀히 비교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디지털 인문학’ 시대에 우리 국어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궁금증을 질문 드리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혹 제가 곡해한 것이 있다면 너그럽이 이해하여 주십시오.

1. ‘디지털 인문학 (시대)’은 무엇인가.

글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미래가 아닌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서론에서 ‘웹사전’ 형식의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식견 탓에, 디지털 인문학과 웹사전의 연결 고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용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문학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김현, 2016)”과 같이 정의한다면 ‘종이사전 → 웹사전’이라는 전달 매체의 변화는 디지털 인문학의 지엽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현(2016)에서 언급한 ‘연구의 소통과 협업, 응용’ 등을 상기하면, 전달 매체의 변화보다는 전달 매체의 변화(혹은 기술의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가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3장에서 언급한 사전의 개편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제어의 선정, 뜻풀이, 용례 정보 등 미시 구조의 각 정보들이 편찬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데이터 기술 또는 그 환경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사전의 규범성과 언어 현실 수용(개방성)에 대하여.

2.2장에서, 『우리말샘』의 개통으로 인해 『표준(웹)』이 규범성을 선택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우리말샘』과 『표준(웹)』은 편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표준=규범성’과 ‘우리말샘=개방성’과 같이 대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표준(웹)』이 규범성을 선택했다기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과정에서 언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기술하셨듯이 어문 정보를 사전에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규범성과 개방성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기타 몇몇 질문들

몇몇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비표준어의 경우 “~의 잘못.”대신 “화살표(→)”로 바꾸고 해당 표제어를 클릭하면 그 표제어의 팝업창이 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의 잘못’이라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클릭할 수 있게 하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 ‘-음직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는 선생님의 논의대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견들을 차치하고, 『표준』에 제시된 정보만 본다면 오히려 (18나)와 같이 ‘-(으)ㅁ직’을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ㅁ직’ 형태인 ‘그럼직하다, 바람직하다, 꺼림직하다’ 등도 파생어로 등재되어 있고, 예로 제시하신 ‘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 들음직하다’ 역시 ‘-하다’ 앞에서 분지된 것으로 보아 ‘가치’의 의미를 지닌 것들은 접미사로 처리하고,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보조용언 ‘직하다’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편찬 지침의 내용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아니더라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편찬(집필) 지침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선별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3.3이나 3.4에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방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표준(웹)』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사용자로 설정할 것인가? 어떤 미시 정보를 사용자에게 맞게 제시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시대의 국어사전 개편 방향』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의 토론문에 대한 답변문

김지혜(성균관대)

먼저, 발표문을 상세히 읽고 토론문을 작성하여 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자세히 풀어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질문에 순서대로 아래에 답변 말씀을 전해 드리며 미진한 발표문의 방향을 잡아 가고자 합니다.

1.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학문 체계에 비하여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웹사전’의 형식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이라는 데에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종이로부터 웹이라는 전달 매체의 변화보다 웹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사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여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제 식견이 짧은 탓에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에서 사전의 변화 방향을 거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당장 접근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한 미시적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갔으나, 앞으로 좀 더 고민하여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사전의 변화 방향에 접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2.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이 공존하는 체제로 접어들면서 두 사전의 정체성과 차별성에 대한 고민은 사전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국립국어원 내부에서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말샘』은 개방형 지식 대사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정보가 중심이 된 대규모의 정보 총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전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표제어 등록, 수정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은 맨 처음 편찬되었을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규범 사전으로서 언어생활의 준거이자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험 출제, 교과서 집필, 각종 언론에서의 단어 정의 등 다방면에서 언어의 표준이자 준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여 표제어의 수정, 등재, 뜻풀이의 수정, 추가 등의 개편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적 성격을 유지·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하되, 개방성이라기보다는 ‘언어 현실의 반영’도 함께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1. 사전 이용자의 대부분은 사전의 ‘일러두기’ 부분을 읽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사전 이용자에게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제시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의 잘못’이라는 사전 뜻풀이 방식이 크게 나쁘지 않은 방식이기는 하였으나, ‘잘못’이라는 용어가 주는 규범성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고민 끝에 기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표제어는 잘못, 즉 비표준어인 것이 아니라 ‘방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잘못’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자칫 언어 이외의 문제(지역 갈등 등)를 불러일으

킬 여지가 있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함의를 담은 기호 →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3-2. ‘-음직하-’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던 ‘그림직하다, 바람직하다, 꺼림직하다’ 등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8나)의 형태소 분석, 즉 ‘-(으)ㅁ직 + -하- + -다’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직’ 또는 ‘-(으)ㅁ직’가 접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분석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의 오류일 수도 있고, 현재 사전의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고민하였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2000년의 지침을 현재의 사전에 비추어 논의할 수 있는가였기 때문에 주신 질문이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침이 변화를 거쳐 오기는 하였으나 2000년의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표준국어대사전』 집필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지침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되 논문을 구성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 기술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3-3.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용자는 크게 3 부문으로 나뉘리라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언중으로, 단어의 뜻, 발음, 활용형 등을 찾아보고자 할 때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할 것입니다. 이때 직접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를 이용하기보다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 언중을 위해서는 발표문에 제시된 몇 가지 방식대로 정보의 직관적이고 쉬운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파급력이 있는 글을 쓸 때 규범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언론인, 시험 출제자, 교과서 집필자 등이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집단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인지 여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개편 방향은 전수 표제어의 검토, 뜻풀이의 검토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국어학, 한국어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의 전공자로, 학문적 필요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사전 자체의 구성과 등재 등을 의미 있는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므로 『표준국어대사전』 자체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토론문에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이 모두 논문을 완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기하여 주신 몇 가지 사항들을 잘 반영하고 찬찬히 고민해서 더 나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단어 구조의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

김건영(고려대)

1. 서론

한 언어의 단어를 연구하는 형태론에서 단어의 구조와 그 구성 요소를 밝히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에 포함된다. 이 작업은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언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모어 화자들에게 형태소 분석은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외국어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에서 직관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모어의 경우에도 어떤 단어가 내부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형태소 분석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단어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형태소를 추출해 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최형용, 2002:271). 어떠한 요소가 같은 성질을 가진 다른 요소와 대치되어 계열 관계를 이루고, 앞뒤로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통합 관계를 이룬다면, 그 요소를 형태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건영, 2012:60).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떤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그 단어는 복합어로, 더 이상 분석되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그 단어는 단일어로 판정된다.

그러나 형태소의 분석과 판명이 어느 경우에도 명확한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때로는 복합어로도, 때로는 단일어로도 볼 수 있는 경계선상의 단어들이 존재한다.¹²⁸⁾

- (1) 프락, 무덤, 주검, 이빨, 감쪽갈-
- (2) 달큼, 들큼, 매큼, 새큼, 시큼

(1)은 구성 요소들 중 일부는 명백한 형태소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형태소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단어들이다. 예컨대 ‘프락’은 ‘플’과 ‘-악’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악’의 형태소 자격이 의심스럽다. ‘무덤’과 ‘주검’은 고영근(1993)에서 언급한 이래 단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성소’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소’로 구성된 단어의 대표격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빨’과 ‘감쪽갈-’ 등은 정서법상 연철하여 표기할 이유가 없어 시각적으로도 구성 요소들 간의 경계가 뚜렷하나, ‘빨’과 ‘감쪽’은 각각 ‘이[齒]’와 ‘갈-’을 제외하고는 결합하는 일이 없다. (1)과 같은 단어들은 형태소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구성 요소를 유일 형태소로 보고 복합어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전체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단일어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2)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복합어로 취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서로 계열 관계를 만족하는 단어들이다. 개중에는 ‘달-, 시-’처럼 형용사의 어근으로서 통합 관계에 있는 구성 요소도 있어서 복합어로서의 가능성을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이들을 복합어로 보고자 한다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형태소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128) 분석의 차원에서는 내적 변화어도 논의의 대상이 됨이 마땅하나, 본고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이 중 (2)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분석 문제를 다루어 볼 것이다. 비록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는 해도 (1)에 관해서는 유일 형태소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데 반해 (2)는 상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2)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 (1)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보다 선명해지게 된다.

2. 내부적으로 계열 관계를 보이는 단일어들의 분석 가능성

형태소 경계를 기준으로 단어 구조를 분석할 때, 그 분석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편의적이고 임시적인 분석을 취하기도 하다. 예컨대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분석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끄저께’는 ‘그-끄저께’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 전체를 분석되지 않는 단일어로 보기도 한다.¹²⁹⁾

화석형의 분석을 다룬 이현희(1991)에서는 “공시적으로는 거의 화석화되었으나 기원적으로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는 어떤 어형이 존재할 때,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연구자가 어떠한 방법론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현희, 1991:316) 즉 문제의 단어 [X]가 공시적으로는 생산성이 있는 β 를 포함하여 $[a\beta]$ 와 같이 분석 가능할 때, β 의 형태소성을 인정하여 이를 복합어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X] 전체를 분석되지 않는 단일어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선웅·오규환(2017)에서는 형태소의 분석이 연구 목적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분석 가능해 보이는 어떤 결합 단위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늘 분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선웅·오규환(2017)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형태소 추출과 단어 구조 분석은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태소는 언중의 어휘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심리적 실체이며, 단어의 형성과 이해 역시 형태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소처럼 보이는 것’을 극한까지 검증함으로써 단어를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에 형태소의 자격을 줄 수 있는지 판정하는 일은 형태론에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2장에서는 단일어이지만 내부적으로 계열 관계를 보이는 단어들이 실제로 단일어인지, 혹은 복수의 구성 요소로 분석될 수 있는 복합어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1. 분석 가능성의 타진

기왕에는 단일어로 취급하였으나 내부적으로 계열 관계를 보이는 단어들은 앞서 (2)에서 보인 단어들 외에도 더 존재한다. 그중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 (3)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2)의 단어들도 (3)에 포함하여 다시 제시하였다(3a).

- (3) a. 달큼, 들큼, 매큼, 새큼, 시큼
b. 가망-,¹³⁰⁾ 까망-, 노랑-, 뇌랑-,¹³¹⁾ 발갈-, 빨갈-, 파랑-, 파르랑-,¹³²⁾ 하얗-

129) ‘그끄저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끄저께’로 분석하는 반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단일어로 보고 있다. 분석을 하기에는 ‘그저께’라는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이지 않고, 단일어로 보기에 ‘그저께’에서 기원한 단어라는 것이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명백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재론의 여지가 있다.

c. 일찌감치, 멀찌감치, 널찌감치, 느지감치

계열 관계에 따르면 (3a)에서는 ‘-큼’을, (3b)에서는 ‘-왕-’을, (3c)에서는 ‘-암치’를 분석해 낼 수 있다. (3a)는 맛을, (3b)는 색깔을, (3c)는 상당한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며, 각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인 ‘-큼’, ‘-왕-’, ‘-암치’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a)에서 ‘-큼’을 분석해 내고 나면 ‘달-, 들-, 매-, 새-, 시-’가 남는데, 이들은 또한 다른 형태와 통합 관계를 이루어 맛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측 요소 좌측 요소	-곰	-굶	-금	-콤	-쿰	-큼
달-	달곰	×	달금	달콤	×	달큼
들-	×	×	×	×	×	들큼
매-	×	×	×	매콤	×	매큼
새-	새곰	×	새금	새콤	×	새큼
시-	×	시굶	시금	×	시쿰	시큼

<표 16> 맛을 나타내는 ‘달콤’류 단어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일군의 단어에서 형태소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면, <표 1>의 각 단어들(이하 ‘달콤’류 단어들이라고 한다.)을 이루는 좌측 요소와 우측 요소 하나하나를 형태소로 인정하지 못할 것이 없다. ‘달-, 시-’가 이미 독립적인 형용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들-, 매-, 새-’가 그와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들-’을 제외한 ‘매-, 새-’는 ‘-큼’ 이외에도 ‘-곰, -굶, -금, -콤, -쿰’ 등과 어울리는 등 통합 관계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 1>의 각 단어들을 복수의 구성 요소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복합어로 처리하여야 할까? 계열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표 1>의 단어들을 해체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를 형태소로 묶는다면 이는 다소 기계적인 처리 방식이 될 수 있다. ‘-곰, -굶, -금, -콤, -쿰, -큼’ 등을 형태소로 볼 수 없는, 따라서 <표 1>의 단어들을 복합어로 볼 수 없는 근거와 예상되는 반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4) <표 1>의 단어를 복합어로 볼 수 없는 근거

- a. 어원적으로 복합어로 볼 근거가 없다.
- b. ‘-곰, -굶, -금, -콤, -쿰, -큼’의 생산성이 낮다.
- c. ‘-곰, -굶, -금, -콤, -쿰, -큼’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

(5) <표 1>의 단어를 복합어로 볼 수 없는 근거에 대한 반박

- a. 어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시대 안에서 형태소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130) 가맏다: (형) 밝고 열게 검다.
 131) 뇌랏다: (형) 생기가 없이 몹시 노랗다.
 132) 파르랏다: (형) 조금 파랗다.

- b. '생산성'의 기준은 가변적이다.
- c. 의미의 외연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첫째, <표 1>의 단어들은 어원적으로 복합어로 볼 근거가 없다. '달콤, 시콤'의 경우를 볼 때 이 단어들이 '달-, 시-'와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달콤, 시콤'의 어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표 1>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달콤 : 달금 : 달콤 : 달콤' 등의 관계가 단순한 계열 관계를 넘어 내적 변화로도 보이므로, '달-'에 이어 '-곰, -금, -콤, -콤' 등이 연쇄적으로 결합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어기에서 내적 변화를 거쳐 나머지 단어들이 파생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어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시대 안에서 동일한 기능을 지니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요소에 형태소의 자격을 주는 일이 있다. 예컨대 '오솔길'과 '오솔하다'에서 보이는 '오솔'은 어근으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뚜렷한 의미도 알 수 없지만 '오솔-길', '오솔-하다'로 분석되어 형태소와 같이 취급된다. 형성에 참여한 단어가 하나가 아니므로 유일 형태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원이 불분명하더라도 서로 조직적인 관계를 보이는 <표 1>의 단어들을 복수의 형태소들이 결합한 복합어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둘째, '-곰, -금, -금, -콤, -콤, -콤'은 <표 1>의 단어들 외 다른 단어들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므로 생산성이 낮고, 따라서 굳이 분석해 낼 필요가 없다. 사전에서의 어휘 처리를 위해 파생 접사의 기준을 마련한 연구인 송철의(2001)에서는 김창섭(1995)의 논의를 받아들여 3개 이상의 파생어 형성에 참여한 파생 접사는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송철의, 2001:5). 만일 이 논의에 따른다면 '들-, 매-'와 '-곰, -콤'은 형태소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송철의(2001)는 사전에 등재할 어휘 항목을 선정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양적인 기준을 세운 연구였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단어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쁘-, 슬프-, 미쁘-' 등의 형성에 참여했던 '-브-'가 과거에는 생산적인 접사였다는 사실은 통시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현대 공시대에서는 그 형태조차 알아보기 쉽지 않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던 '오솔'이나 유일 형태소들은 출현 예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소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생산성의 기준도 정확히 세울 수 없고, 생산성과 무관하게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면 낮은 생산성을 들어 '들-, 매-', '-곰, -콤'을 형태소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셋째, '-곰, -금, -금, -콤, -콤, -콤'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 이 중 가장 많은 계열 관계를 보이는 '달콤(하-), 들콤(하-), 매콤(하-), 새콤(하-), 시콤(하-)'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표 2>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달콤하다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	(음식이)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
들콤하다	맛깔스럽지 아니하게 조금 달다.	(음식이) 맛깔스럽지 아니하게 조금 달다.
매콤하다	냄새나 맛이 아주 맵다.	(음식이나 그 맛, 냄새가) 약간 맵다.

새콤하다	맛이나 냄새 따위가 맛깔스럽게 조금 시다.	(음식맛이나 냄새가) 맛깔스럽게 적당히 시다.
시큼하다	맛이나 냄새 따위가 조금 시다.	(음식이) 신맛이나 신 냄새가 꽤 있다.

<표 17> ‘달콤(하-), 들콤(하-), 매콤(하-), 새콤(하-), 시큼(하-)’의 의미

‘달콤, 들콤, 매콤, 새콤, 시큼’에서 ‘-콤’을 형태소로서 추출해 내고자 한다면 ‘-콤’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 2>에서 보이듯이 ‘-콤’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달콤하다’의 의미 중 ‘달다’가 ‘달-’에서 기인한 것이고 ‘시큼하다’의 의미 중 ‘시다’가 ‘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콤’은 각 단어 의미의 나머지 부분 중 일정 정도에 동일하게 기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달콤하다’와 ‘시큼하다’의 뜻풀이에서 의미적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 ‘매콤하다, 새콤하다, 시큼하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사이에는 약간의 불일치가 보인다. 단어의 의미조차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¹³³⁾ 이런 상황에서는 ‘-콤’이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형태소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콤’이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 의미만 지니고 단어 형성에 참여한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즉 ‘달-, 시-’ 따위 뒤에서 ‘앞 어근의 성질을 가지는 맛’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만을 보유한 채 단어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양진(2017)에서도 (3b)에서 언급한 ‘노랑-, 파랑-’ 등에서 ‘-알-’을 분석해 내며 ‘놀-, 팔-’을 형용사로 만드는 접사로서의 기능을 부여한 바가 있다.¹³⁴⁾

2.2. 분석 가능성의 실제

‘달콤’류 단어들을 내부적으로 분석하여 복합어로 보는 견해와 내부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단일어로 보는 견해 양쪽 모두에 일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 결국 한국어 단어 체계 내부에서 좀 더 설명력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달콤’류 단어들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 체계를 이해하는 데 더 유리한가?

본고에서는 우선 ‘-곰, -굸, -금, -콤, -쿰, -큼’ 등이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곰, -굸, -금, -콤, -쿰, -큼’ 등이 형태소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공시태 안에서는 더 이상의 조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맛을 의미하는 또 다른 형용사들인 ‘짜-, 쓰-’ 따위와 어울려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단어의 독자적인 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대 공시태 안에서 조어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형태소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극한의 분석을 통해서만 그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요소, 새로운 단어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 요소가 어휘부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

133) 이것은 단어의 의미를 기존 사전에 기대지 않고 직접 의미 평정을 통하여 정립하면 해결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표 2>의 단어들의 정의에 대해 아직 연구자들 간의 의견차가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하여 둔다.

134) 그러나 실제로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언급에 그친다.

다. 아마도 ‘달콤’류의 단어들은 언중의 심리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 전체로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달콤 : 달금 : 달콤 : 달큼’의 관계는 내적 변화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내적 변화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형태소의 연쇄로 본다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표 3> ‘잘각’류 단어의 어휘장

잘각	잘각	잘각	절걱	절걱	절컱
짤각	짤각	짤각	쩨걱	쩨걱	쩨컱
찰각	찰각	찰각	첼걱	첼걱	첼컱

<표 3>은 ‘잘각’과 내적 변화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보인 것이다. 만일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를 기준으로 일군의 단어에서 형태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면, <표 3>에서는 형태소로서 ‘잘-, 절-, 짤-, 찔-, 찰-, 첼-’과 ‘-각, -걱, -각, -걱, -각, -걱’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3>의 단어들은 의미적으로도 <표 1>의 단어들보다 더 규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음절에서 고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비교적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의 단어들을 형태소의 연쇄로 보지 않고 내적 변화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정리하는 것은 그 편이 단어들 간의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상징어 사이에서 자음 또는 모음의 교체로 달라지는 어감이 반드시 규칙적이거나 빈틈없이 정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표 3>의 가로와 세로로 이어지는 단어들은 내적 변화로 연결하였을 때 상호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 용언의 활용형 ‘달아서, 시어서’에서 ‘달-, 시-’를 추출해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추출된 형태들은 서로간의 음성적 관련성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적 변화로 설명되는 단어들은 서로간의 음성적 관련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의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달콤’류 단어들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일어로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일부 형태를 공유하는 단어에서 형태소를 기계적으로 추출해 내는 일은 때로 불필요하며, 한국어의 단어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다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달콤’류 단어들 상호간의 형태적 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립된 형태소로 분석할 수는 없으나 형태소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해서는 최형용(2014)를 참고할 수 있다.

최형용(2014)는 합성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형태적·의미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도 각각의 단어 형성 과정이 상이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이들의 관계를 ‘어휘장 형태론’을 설정하여 포섭하려는 시도이다. 의미적으로 관계있는 단어들이 하나의 어휘장을 이루는 것처럼, 형태적으로 관계는 있으나 동일한 단어 형성 기제로 설명될 수 없는 합성어들을 하나의 형태적 어휘장으로 엮어 합성어들 사이의 계열 관계를 드러낸 것이다.

최형용(2014)는 합성어, 즉 내부 구조가 있는 단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이를 형태 일부를 공유하는 단일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달콤, 들콤, 매콤, 새콤, 시콤’이 ‘-콤’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종의 관계를 ‘-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비록 내부 구조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이더라도 동일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3. 유일 형태소 결합형에의 적용

1장의 (1)에서 보인 ‘뜨락, 무덤, 주검, 이빨, 감쪽같-’ 등은 유일 형태소를 보유하고 있는 단어이다. 비록 각각의 단어에서 ‘-악, -엄, -빨, 감쪽’의 정체는 알 수 없으나 상대를 이루어 결합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의 형태소 자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형태소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2.1.과 2.2.의 논의를 통해 ‘달콤’류 단어들을 더 이상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이들을 단일어로 취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은 유일 형태소가 단어 형성에 참여한 단어들을 바라보는 견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달콤’류 단어들을 단일어로 취급하기로 한 것은 곧 단어 구조에 대해 극도로 분석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형태소에 준하는 요소들을 추출해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어를 최대한 분석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에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그 구성 요소의 정확한 의미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를 제공한다. ‘시쿰’의 ‘시-’가 독립된 형태소라고 해서 ‘시-’와만 결합하는 ‘-쿰’에 (유일)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쿰’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점과 하나의 어휘 단위로서의 ‘시쿰’ 내부의 강력한 결합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반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동일한 궤에서, 유일 형태소가 단어 형성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그 유일 형태소를 분석해 내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인다. 유일 형태소는 의미를 알 수 없고 특정 어근과만 연쇄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결합된 어근과의 관계가 여타 단어들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유일 형태소가 참여한 단어들에 대한 사전에서의 구조 분석도 통일되지 않아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빨’은 단일어로 처리한 반면 ‘감쪽같다’는 ‘감쪽-같다’로 보아 분석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일관된 기술을 위해 이는 통일되어야 할 문제이며, 모두 단일어로 처리하는 쪽이 불분명한 유일 형태소를 양산하는 것보다 설명의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이 경우 ‘유일 형태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3. 결론

단어 구조와 형태소에 대한 분석은 모어 화자들로서는 얼마간의 직관으로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미지의 언어를 탐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견지에서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때도 있다. 이에 본고는 단일어로 보이는 단어들이 일부 형태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를 공통적으로 묶어 분석해 낼 것인지, 각 단어들의 형태론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달콤’류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단일어로 보이는 단어들은 일부 형태를 공유하더라도 공유된 형태를 분석해 내어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우선 공유된 형태의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고 불분명하였으며, 또한 ‘달콤’류 단어들은 기계적인 형태소 연쇄로 파악하기보다는 내적 변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상호간의 연계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일 형태소를 보유하고 있는 ‘무덤, 주검, 이빨, 감쪽같-’ 등과 같은 단어들도 극한까지 단어 구조를 분석하는 대신 그 전체를 분석되지 않는 단일어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본고는 일부 형태를 공유하는 단일어들에 대해 형태소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단일어들을 형태론적으로 연계하여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

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어휘장 형태론을 다룬 최형용(2014)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복합어에 한정된 연구인바, 단일어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93).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形態』, 태학사.
- 김건영(2012), 「한국어의 형태소 인식과 범주 설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1999), 「국어 형태 정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7), 「한국어의 형태와 형태소」, <국어학> 81, 국어학회, pp.227~261.
-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 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보고서.
-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웅·오규환(2017),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국어학> 81, 국어학회, pp.263~294.
- 이은섭(2007),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형태론, pp.93~113.
- 이현희(1991), 「中世國語의 合成語와 音韻論的인 情報」,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 기념 논총』,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pp.315~333.
- 최형용(2002), 「형태소와 어소 재론」,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pp.263~276.
- 최형용(2014),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형태론: 어휘장 형태론을 제안하며」, <형태론> 16(1), 형태론, pp.1~23.

‘단어 구조의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의 토론문

박정순(숭실대학교)

이 글은 형태론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구조의 분석 과정에서 그 분석의 기준을 더욱 객관화, 세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구조 분석이 애매한 ‘경계선상’의 단어들을 확장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별 단어들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재차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립된 기준이 자연스럽게 ‘경계선상’에 속하지 않은 단어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도 발표문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논제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토론의 역할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는 ‘달콤’류 단어들을 단일어로 처리하여 분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시며, 그에 대한 가장 핵심적 근거는 해당 단어를 분석하여 ‘-콤’을 형태소로 인정할 때 ‘-콤’류 접사가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발표문에 의하면 이러한 ‘-콤’의 낮은 생산성은 이것이 맛을 의미하는 ‘짜-, 쓰-’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다만 발표문에도 언급되었듯 어떠한 형태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논지의 핵심으로 삼고 계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콤’류의 형태들은 ‘맛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발표문의 논지 전개가 ‘달콤’류 단어를 분석하는 기준을 우선 세운 뒤에 이 기준을 ‘무덤’ 등 유일 형태소 결합형 어휘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에서 ‘생산성’이 단어 구조 분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근거가 된다면 오히려 유일 형태소 결합형 어휘들에 대한 논의가 보다 우선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유일 형태소들은 생산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 발표문을 읽으며 발표자께서 단어의 분석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시는 2.1절과 2.2절의 내용이 약간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령, 2.1절만 보아서는 ‘내부적으로 계열 관계를 보이는 단일어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실 것이라고 느꼈는데, 2.2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셔서 읽으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1절에서 ‘달콤’류 단어들을 복합어로 볼 수 없는(혹은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소개하시며 “생산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등 생산성을 근거로 한 형태소 설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만을 일부 보여주신 상태에서 절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소개하시며 발표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함께 보여주신다면 저와 같이 오독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론자가 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우문을 한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어 구조의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의 토론문에 대한 답변

정돈되지 않은 발표문을 주의 깊게 읽고 귀중한 의견을 베풀어 주신 토론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 주신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저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생산성’을 논의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하여

발표문에서는 ‘-곰, -굸, -금, -콤, -쿰, -قم’ 등이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즉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독립적인 형태소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참여한 단어는 더 이상 분석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은 이광호(2009), 최정도·김민국(2010), 차준경(2011)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전체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모두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심지어 가능어로 범위를 넓힐 경우에는 그 출현 양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어에서 형태소의 목록을 확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계열 관계를 활용한다면, 같은 자리에 교체되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의 가짓수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계열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수가 충분히 많다면 그 요소와 함께 출현하는(앞이나 뒤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상대 요소는 형태소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생산성은 형태소 목록을 확정할 때 여전히 유효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문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코퍼스에서 ‘-قم’류 가능어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قم’류의 형태들이 맛을 의미하는 단어들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정 형태의 생산성과 의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유일 형태소 결합형에 대한 우선적 처리

이 부분은 토론자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유일 형태소 결합형에 대해 먼저 다루고 차후에 ‘-قم’류 형태들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내부적으로 계열 관계를 보이는 단어들의 분석 여부에 대하여

본 발표문의 요지는 어떤 단어들이 단어라고 간주되어 왔음에도 내부적으로 계열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분석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분석하지 않는 것이 한국어 형태론 내부에서 더욱 합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결론 그 자체는 기존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일지는 모르나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미숙하여 토론자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그러한 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던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논리 전개 방식을 다듬고 예시를 추가하여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문이 완성된 논의로 나아가기까지는 아직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토론자께서 나누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미약하나마 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이광호(2009), 『국어파생접사의 생산성과 저지에 대한 계량적 연구』, 태학사.

최정도·김민국(2010), 「생산성 측정에 대한 몇 문제: 이론과 실제, 그 응용을 중심으로」, <형태론> 12(1), 형태론, pp.122~133.

차준경(2011), 「형태적 생산성과 저지 현상」, <형태론> 13(1), 형태론, pp.125~145.

[현대문학]

정복근 희곡 <실비명>, 호모 사케르에 대한 호명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 -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 -

정복근 희곡 <실비명>, 호모 사케르에 대한 호명

김강원 (고려대학교)

1. 서론
2. 호모 사케르, 지워지는 존재
3. 호모 사케르들의 역사
4. 결론

1. 서론

정복근은 한국 희곡계의 대표적 여성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작가라는 구분으로 그의 작품과 작가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접근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역사적, 시대적 인간의 문제에 대한 천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들은 ‘지금-여기’의 문제들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실비명>¹³⁵⁾은 이러한 정복근의 시대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작품 중 하나이다. <실비명>은 1989년 발표된 작품으로 80년대 당시 노동운동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작품이다 노동운동과 깊은 연관을 갖는 학생운동, 성고문, 의문사 등도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등장하고 있다. 이 작품이 발표된 것 역시 80년대라는 점에서 동시대의 문제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가 큰 작품이기도 하다.

<실비명>은 노동운동 중에 행방불명이 된 정우, 정우의 연인이자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 현이, 정우와 친한 형이자 현이를 사랑했던 광식, 그리고 정우를 찾아다니는 정우의 모친 순영, 현이 모친 은옥이 중심이 되는 극이다. 현이는 성고문의 위협으로 인해 연인인 정우를 밀고하였고, 이에 정우는 잡혀가 행방불명이 된다. 현이의 모친인 은옥은 ‘흙’이 생겨버린 딸을 지키기위해 대기업에 다니는 광식과 결혼시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게 하고자 한다. 광식은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프락치 노릇을 해왔다. 그는 현이 모친인 은옥의 주선으로 대가를 받고 현이와 약혼 한다. 정우의 행방불명-죽음-을 둘러싼 현이, 광식,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인 순영과 은옥의 고뇌와 파국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서사이다.

이 글에서는 <실비명>을 해석하기 위해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 대한 정의를 빌려오고자 한다. 호모 사케르란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한 용어로 직역하자면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페스투스에 의하면 고대 로마법 하에서 일종의 죄인을 칭했던 것으로 “나쁘거나 불량한 자를 신성한 자로 부르는 풍습에서 유래”¹³⁶⁾한 표현이다. 흥미로운 것은 호모 사케르를

135) “1989년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윤호진 연출로 극단 실험극장이 문예회관소극장에서 초연해 서울연극제 대상과 연출상, 신인상, 미술상을 받았으며 작가는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수상하였다. 초연한 뒤 《한국연극》 1989년 11월호에 ‘모욕’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했다.” 정복근, 『실비명』, 지만지드라마, 2019, 64쪽. 이 책은 <실비명>의 희곡집으로, 이 글에서는 작품의 직접적 인용은 모두 이 책에서 발췌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죽여도 살인자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를 희생물로 바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외적 존재로서 호모 사케르의 개념은 일종의 종교적 신성의 범주에서 이해되었으나, 아감벤에 의해 정치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아감벤적 의미에서 호모 사케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치적으로 희생된 자, 혹은 배제된 자라는 의미에서 <실비명>의 인물들과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호모 사케르, 지워지는 존재

정복근의 작품은 사건의 발생이나 전개 of 양상보다는 인물 그 자체에 중심에 두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작품을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서사화 전략”¹³⁷⁾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비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에서의 인물들은 개성적 인물이라기 보다는 전형적 인물이다. 정우, 현이, 광식은 노동 운동에 적극 참여해 희생된 인물, 고문을 못 이겨 변절한 인물, 프락치 등 당시 투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유형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시대의 주요 사건을 겪어내는 인물들로서”¹³⁸⁾ 전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개성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이 인물들의 시대적 존재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비명>의 인물들이 갖는 시대적 함의를 호모 사케르로 설명하고자 한다.

호모 사케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페스투스스는 호모 사케르를 “사람들이 범죄자로 판정한 자”¹³⁹⁾로 정의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포착해야한 지점은 범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용어의 기원은 로마법 당시이므로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 바로 호모 사케르로 구분되었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로마법에 의해 호모 사케르를 구분하는 준거와 규칙이 이어져온 것은 아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판정’의 준거와 주체는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변화한 주체들이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권력,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치권력이라는 점이다.

아감벤은 과거에는 통치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독재자가 이러한 통치권력을 소유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통치권력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치권력을 아감벤적으로 표현한다면, ‘주권’이 된다. 그리고 현대의 주권자인 ‘국가’는 범죄를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주권자의 결정은 외부와 내부, 배제와 포함, 노모스 νόμος(법·관습)과 피시스 φύσις(자연) 사이의 비식별역을 구획짓고 종종 이를 갱신”¹⁴⁰⁾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본래적 방식은 적용이 아닌 내버림, 추방이 되는 것이다.¹⁴¹⁾ 그리고 이 내버려진 존재가 바로 호모 사케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호모 사케르는 일종의 터부이다. 이러한 터부들은 추방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신성한 동시에 저주받은 존재에 대한 사케르의 어원은 터부라는 민속학적 개념과 관련되면서 호모 사케르의 형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¹⁴²⁾ 건드리면 오염이 될 수 있는 저주받은 존재들은

136)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56쪽.

137) 정고희, 「정복근 희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쪽.

138) 이지훈, 「과거 속의 폭력-정복근의 <독배> <땃에걸린 집> <실비명>」, 『용봉인문논총』 32집, 전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2, 178쪽.

139) 조르조 아감벤, 156쪽.

140) 조르조 아감벤, 77쪽.

141) 조르조 아감벤, 80쪽.

제의에 바쳐지는 신성함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 글의 논점인 역사적 존재들로 환원해 보자면, ‘그들’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들’ 곁에 선 이들은 위험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숭고하다. ‘그들’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의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호모 사케르로 호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호모 사케르적 특성이 두드러진 인물은 세 명의 젊은이인 정우, 현이, 광식이다. 정우는 노동운동을 하는 인물, 현이는 학생운동을 하는 인물이다. 광식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은 반역자이자 역적이다. 과거의 반역은 시간이 흘러 운동이나 투쟁으로 표현을 달리하였지만, 주권자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광식은 월복을 한 아버지를 둔 반역자의 집안이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핏줄을 지우기 위해 주권자에 복종하게 된 인물이다. 그러나 광식 역시 정우와 현이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인물인 정우와 밀고자인 현이나 광식을 적대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작품의 전반에서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시선이 드러나는데, 죄책감에 미쳐가는 현이를 정우와 광식이 양쪽에서 부축하는 장면, 역광을 받아 세 사람의 실루엣이 동일하게 윤곽으로 보이는 장면, 세 사람의 한 목소리처럼 대화를 이어받는 장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우와 광식의 대사 합창처럼 동시에 울리며 하나의 음조를 이룬다”와 같은 지시문들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들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극의 시작에서는 희생자와 밀고자를 구분 하는 듯 보였으나, 극이 진행되면서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세 사람은 그림자 너머에 함께 존재하게 된다. 죽음을 맞이한 정우나 죄책감 때문에 현실의 삶을 놓게 되는 현이나 광식은 결국 시대의 희생자들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실비명>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정복근의 <독배>나 <덧에 걸리 집>과 비교해 “극의 관점이 투쟁에 관여했던 젊은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의 시선에서 전개”¹⁴³⁾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극의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하는 것을 넘어 이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투쟁을 했던 주체인 젊은이들-정우, 현이, 광식-이 모두 그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부정되는 존재는 타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 성격을 갖는 화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모를 내세우는 것은 지워진 존재로서 이들을 재현하는 유의미한 기법이 된다.

함께 잡혀갔지만, 그 곳에서 죽은 정우와 살아남은 현이, 그러나 생사와 무관하게 그들은 지워지는 존재가 된다. “대체 그 이정우라는 청년이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지요?”라는 당국자의 질문에 순영은 “고맙소. 그렇게 물어 주기를 기다렸다우.”라며 정우의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에 이르는 지엽적인 일화들을 꽤 길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는 지시문을 통해 “객석을 보며 침착하게”말하도록 연출된다. 당국자가 키, 나이, 생김새, 혈액형 등으로 특정하던 정우의 존재, 그리고 당국자가 요구하던 갖은 증명서 서류상에서의 정우는 순영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고집은 있지만 나서서 떠드는 일도 없고 남과 다투는 법도 없고 남의 말 꾸벅꾸벅 잘 들어주는” 막둥이 정우라는 개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당국자 (침묵하다가) 아드님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정우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군요.

순영 (당황하며) 그럼 그 애가 죽었다는 말이요?

142) 조르조 아감벤, 1698~170쪽.

143) 이지훈, 앞의 글, 176쪽.

당국자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순영 그럼 어디 살아 있다는 거네. 그렇지 않소? 그건 확실하지?

당국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아드님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순영 왜? 내 속으로 날아서 스물다섯 살까지 잘 키운 내 자식이 왜 존재하지 않아?

당국자 우리도 그게 궁금합니다. 확실히 불순하고 수상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지요. 사회에 불안감을 퍼뜨리고 안정에 회의를 품게 하며 끊임없이 의혹을 던지는 누군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어떤 시대의 어떤 통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일탈당하지 않는 이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국로서는 여간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말장난 같은 대화로도 쉽게 부정되는 것이 정우의 존재이다. 치열하게 살아온 개인의 삶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정된다. 이들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조차도 함께 부정당하며, 그 존재의 지워짐은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극의 초반 등장하는 ‘목격자1’인 등산객은 동굴에서 발견된, 청바지를 입고 양말만 신었던 젊은이의 시신에서 본 고문의 흔적을 거듭 강조한다. 극의 중반에 등장하는 ‘목격자2’ 늙은 해녀는 허리에 콘크리트를 매달고 있던, 다리가 부러진 스무남은 살 되는 시신이야기 한다. 극의 흐름을 끊으며 갑자기 등장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정우의 죽음에 대한 증언일수도 있지만, 정우와 같은 죽음들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작품은 이것이 누구의 죽음을 목격한 것인지 불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우 한 사람의 죽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목격자들이 발견한 시신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목격자들은 모두 “객석을 향해” 그들의 목격담을 쏟아내도록 지시문을 통해 명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격에 확신을 담아 당국자에게, 그리고 관객에게 강조하지만, 등산객의 진술은 결국 당국자들이 정한 실족사라는 결론에 맞춰 조작되고, 해녀의 진술 역시 관객들에게 외면당한다. “그...왜...시국이 시국이니 만큼...”이라는 등산객의 중얼거림이나 “입다 물어? 왜? 재미없어? 무슨 재미?”라며 객석을 향해 역정을 내는 해녀의 대사는 결국 이들의 목격이 결국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지워졌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죽은 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자 역시 지워지기는 마찬가지이다. 극의 시작 부분, 현이 모(母) 은옥과 정우 모(母) 순영의 대화 장면에서 현이는 가려진 장막 뒤에서 소리로만 등장하는데, 이 때 은옥은 현이의 목소리를 순영이 알아챌까 두려워 못들은 척, 더 큰소리로 덮어버린다. 현이는 “무대 안쪽의 희미한 조명”아래 “흩어진 모습의 현이 비스듬히 객석으로 등을 돌린 채” “속삭이”는 목소리라는 지시문으로 재현되는데, 이를 통해 극에서 현이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현의 방식은 현이가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은유가 된다. 현이가 당한 ‘험한 일’을 지우기 위해 은옥은 현이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는데, 이는 비단 은옥 뿐 아니라 이 사회가 현이와 같은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은옥으로 인해 현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현이는 항상 없는 사람이 된다. 은옥은 현이에게 “네 몫의 싸움은 끝났어. 투사인 척하지 마.”라며 그녀의 투쟁을 한갓 ‘잘난척’으로 폄하한다. 현이가 했던 학생운동, 현이가 당한 성고문은 모두 은옥을 통해 부정되었다. 과거가 지워져야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거를 지우지 못하면 결국 지워지는 것은 현이가 된다. 그리고 현이는 과거를 지우는 데 실패한 현이는 스스로를 지우게 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지워진 존재는 정말 지워진 것일까? 그들을 지우고 남은 사람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 인위적 망각의 공간을 메우고 그 위에 이후의 삶을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었을까? <실비명>은 현이와 광식, 그리고 순영과 은옥을 통해 이에 대한 다면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론화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우와 같은 인물들을 신성화하는 작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미한 지점이다. 오히려 남겨진 인물들의 현재, 그리고 삶이 정우와 같은 희생자들과 상당 부분 동일시 된다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서사가 가능해진다.

정우는 과거의 인물이다. 지금은 사라진 인물이자 지워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우를 찾아 헤매는 정우 모(母) 순영을 비롯한 현재의 인물들은 정우로 대표되는 과거에 억눌려 있다. 정우의 연인이었던 현이는 성고문을 당한 기억, 정우와 광식을 내세워 폭력에 굴복한 그녀의 과거에 압도당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현이의 모(母) 은옥 역시 딸의 과거에 함께 얽매여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받아들이기 힘든 딸의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현재를 지키고자 한다. 현이의 약혼자인 광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현재는 온통 과거의 정우와 연관되어 있다. 광식은 현이는 물론, 은옥이나 순영과의 대화를 통해 거듭 상처 입는다. “말하며 들으며 상처 받는” 광식을 표현하는 지시문들, 혹은 순영이 광식에게 건내는 “우냐?”와 같은 말들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광식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인물들은 ‘그 이후’를 살아가는 데 실패한다. 정우는 행방불명되었고, 정우의 모친 순영은 정우를 찾지 못한다. 현이는 성고문으로 인해 정우를 고발하였으며, 그 고발에 대한 누명을 광식에게 씌운다. 그녀는 그녀를 사랑 한 두 남자를 모두 팔아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탓에 자신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으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미쳐버린다. 현이의 모친은 딸의 과거를 지우고 결혼을 시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고 싶었으나 이것 역시 실패한다. 광식 역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고 현이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현이와 스스로를 모두 상처를 주게 되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처럼 모두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것이다. 이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투쟁이었나?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승자가 있기는 했을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워진 존재를 되살려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현이가 진실을 폭로하면서 과거는, 그리고 그 과거에 존재했던 정우와 현이, 광식을 더 이상 지워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을 되살리는 방식은 과거의 이름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호모 사케르들의 존재, 그들의 역사로 포함되어 이어지게 된다.

3. 호모 사케르들의 역사

‘실비명(失碑銘)’이라는 제목에서 명기하듯 이 작품은 이름 없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름 없는 죽음이란 국가에 저항하다 결국 추방된 이들의 죽음이다. 이 작품은 이름 없는 죽음을 ‘그림자’라는 존재를 통해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림자의 존재는 극의 시작을 열고, 끝을 닫는다. 극의 중간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그림자는 역할을 배우가 연기하는 직접적인 등장인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조명을 통해 드러나는 무대 뒤의 존재이다. 진짜 그림자, 그 자체가 되어 극장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막이 오르면 어둠 속에서 낮고 장중한 구음의 합창이 들리기 시작한다.
 무대 전면의 스크린에 크고 작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어나서 다가온다.
 그림자들 점점 다가오며 커진다. 음악에 맞추어서 크기가 점점 자라난다.
 구음의 합창이 점점 뒤엎을 듯 울리던 음악이 멎으며 일제히 절도 있는 몸짓으로 반대쪽을 바라본다.
 정지된 거대한 그림자들을 배경으로 객성을 향해 앉고 선 정우, 현이, 광식의 모습이 한 장의 사진처럼 드러났다가 사라진다.
 조명이 엇바뀌어 무대 중앙의 거실이 밝아진다. [후략]

위의 인용부분은 극의 시작을 여는 무대지시문이다. 이 시작의 무대는 극의 끝을 맺는 무대와 연관되어 있다. 아래는 극 마무리의 무대지시문 인용이다.

(무대 안쪽에 움직이지 않고 앉고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 역광을 받아 검고 뚜렷하게 떠오르며 거실이 어두워진다. 구음의 합창 낮게 깔린다. 순영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순영 [중략] (손내밀며) 아가 정우야 이리 온. 엄마 예 있다. 컴컴한 데 있지 말고 이리 나와 봐.

(거실의 조명 사라진다. 두 사람 움직이지 않는다. 합창과 음악 고조되며 스크린 가득 서 있던 목 없는 그림자들 점점 커지며 걸어간다. 막 내린다.)

이 두 부분의 인용에서 확인하듯 그림자는 극의 시작과 끝을 맺는 데 가장 중요한 메타포가 된다. 극장의 어둠 속에서 들리는 “낮고 장중한 구음의 합창”은 마치 장송곡과도 같은, 혹은 그림자의 존재들이 내는 소리와도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극의 시작과 끝에서 반복되는 이 구음의 합창은 그림자들이 내는 억눌린 목소리일수도, 그들에 대한 추도의 노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관객들은 극의 시작 부분에서는 미처 이들의 존재도, 이 소리의 의미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극의 끝에서 다시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그제야 그 그림자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우와 현이, 광식 세 사람이 “역광을 받아 검고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결국 이들이 그림자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이다. 순영은 아들 정우를 향해 어둠에 있지 말고 나올 것을 애타게 부르지만, 결국 그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몸집을 키우면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들에게는 목이 없다. 목이 없는 그림자들의 존재는 극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선명하게 유추할 수 있다. 광식은 그들을 “역적”으로 부르며 “죄 짓고 목 잘린 사람”이라 부연한다. 그러나 순영은 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부르며 “무얼 좀 해보려다 꺾인 사람들”이라도 설명한다. 동일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마치 대구를 이루듯 표현을 달리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사를 통해 6·25 때 인민재판을 받고 죽은 순영의 친정아버지, 최영 장군, 사육신, 조광조 대감과 같이 직접적인 예시로 등장한다. 이들은 역사에 의해 희생된 인물들이다. 그리고 정우와 같은 현재의 젊은이들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가 개입된 범죄”에 의해 희생된 인물들이다.

광식이 사용하는 “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범죄의 피의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다. 역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 혹은 국왕-아감벤적 의미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에는 정치가 개입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널리 알리거나 혹은 반대로 숨기는 과정까지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다. 역적을 효수해서 “잘린 목을 내걸어 온 세상에 구경시키고 방부제를 발라서 시

간의 어둠 속에서 썩지 않게”하는 행위는 살아남은 자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하고 무안하게 하고 불행하게”한다. 이러한 내용은 ‘살아남은 자’인 광식의 울부짖음으로 내뿜어지면서 그 무게를 더하게 된다. 광식은 목이 잘린 자들을 “잘난 녀석들”이라고 부른다. 광식의 빈정거림은 사실 남은 자들은 그들의 투쟁에 빛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의 무게를 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열등감의 표현이다. 비석에 남길 이름조차 없는 목 잘린 존재들은 살아가는 사람의 주위에 마치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존재하는 것이었다. <실비명>은 이렇게 투쟁의 역사성을, 그리고 그 투쟁의 희생에 빛을 지고 이어져온 역사를 그림자로 재현한다.

은옥 겉으로야 다들 동정하고 분개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했다는 얘기 수근대며 온갖 지저분한 상상들을 하면서 즐길 텐데 왜 나서서 빌미를 줘? 정치가 개입된 범죄의 진상이 한 번이나 제대로 밝혀져 본 일이 있는 줄 아니?

[중략]

은옥 환상 갖지 마. 독재든 아니든 정치는 결국 범죄밖에 아니고 역사에 남은 치적을 이루었다 해도 잘 꾸민 우수한 범죄밖에 아냐. 데모는 너희만 해 본 줄 아니?

은옥의 단언처럼 진상 한 번 제대로 밝혀져 본 적 없는 “정치가 개입된 범죄”의 역사는 유구하다.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거듭 반복되어온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은옥의 단언과 달리 남은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못하였다. 이 작품은 결국 현이와 광식이 그림자가 되었듯, 순영과 은옥이 결국 그러한 자식의 존재를 지우지 못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결말을 보여주며, 결코 잊혀지지 않는 호모 사케르들의 호명을 역설한다.

역사란, 이러한 호모 사케르들의 역사이기도 한 셈이다. 우리 주변에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림자들이 만들어 내는 구음의 합창들이 들리게 되는 삶의 순간,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그림자의 존재를 되살리는 사람들이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투쟁의 역사를 이어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우 데모 현장에서 풍물 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 보면 소리 뒤에 또 하나의 소리가 그림자처럼 떠 오르는 게 느껴지지. 바로 그 사람이 치는 북소리고 장구 소리아. 어찌면 그 사람 자신이 바로 그 풍물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광식 기득권을 향해 맞서는 원칙론이 항상 반역 취급을 받는다는 걸 모르겠냐? 역적, 불령선인, 빨갱이... 백 년이 가면 변할까?

정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데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사실은 음악 그 자체를 앞서서 끌고 간다는 느낌이 느껴지거든.

광식 결국 처형밖에 얻을 게 없다.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데 왜 빠져드냐?

정우 징에서 북에서 장고에서 그리고 팽가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는 다 끌어내서 우쭐우쭐 흥 돋우어 어우러져 춤추면서 산 넘어가지. 시간을 넘어서 어디론가 우리를 끌고 가 버려. 더 완벽한 곳, 더 자유로운 곳, 더 환한 곳으로... (돌아서며) 봐,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누군가의 존재를... 시대의 어리석음과 패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는 마음 뒤의 마음... 저 완벽한 정신을...

(객석을 뒤덮을 듯 격렬하게 들리던 북소리 갑자기 멎는다)

광식 (화낸다) 무슨 덕을 보겠다고 우리 같은 놈들이 나서서 피해를 보냐? 뭐하러 지목받고 잡혀 가

서 전과자가 돼? 누구든 적당히 대고 빠져나와라. 쓸데없는 감상에 목을 걸지 마.

그림자들은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누군가”였고, “시대의 어리석음과 패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는 마음 뒤의 마음”이었다. 정우는 그 존재의 본질을 알아채고 그들의 존재에 조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에서는 항상 희생자였고, 패배자였다. 그들의 승리는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의 선택과 투쟁은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결국 승리한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야하는 광식과 같은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얻을 게 없는 불 보듯 뻔한 -현재의-패배인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아감벤 이전의 호모 사케르는 종교적, 신화적, 원형적 의미에서 해석되었다면, 아감벤을 통해 법적,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주권을 갖고 있는 세력에 대항한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동시대에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추방된 존재였다. 즉 아감벤적인 의미에서 호모 사케르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후대로 오면서 종교적으로, 혹은 신화적인 존재로 그 의미를 달리 하게 된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아감벤 이전의 호모 사케르적 존재로 바뀌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학농민운동, 항일투쟁,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주체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대, 약 반세기의 시차를 둔 지금에 와서 80년대 운동의 주체들은 희생자로서의 신화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실비명>의 배경이 되는 80년대의 ‘지금’에서 그들은 정치적 추방자에 불과하였다. 그들이 현재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역사 안에서 그러한 패배가 궁극적 승리가 되었던 사례들에 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 정우 역시 그러한 그림자들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통해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틈에 그림자는 과거의 흔적인 동시에 그들 자신이 된다.

4. 결론

정복근이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한 역사의식, 그리고 역사적 존재들은 잊혀진, 지워진 존재였다. ‘실비명(失碑銘)’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이러한 메타포들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실비명>의 인물들을, 그리고 시대적 역사적 담론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호모 사케르의 이론적 적용을 근본에 두고 그에 맞춰 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 것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정복근이 역설하는 그림자의 존재들, 그리고 그림자가 되어버린 정우와 현이, 광식을 설명하는 명명하기 위해 호모 사케르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국가가 지우고자 했던 그들, 주권자에 의해 추방된 그들의 존재가치에 대해 이 작품이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지워져버린 존재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비명>의 극적 담론의 유의미한 지점이다. 아울러 당대의 민감한 문제제기와 반성에 집중하는 강한 공시성으로 주목받은 작품이지만, 그 공시성에 담지된 통시적 역사성을 작가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담론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역사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지금-여기’의 시공간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고 그에 조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다른 그림자가 되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나 관객은 정우와 현이, 광식, 그리고 순영과 은옥을 ‘지금-여기’에 언제든지 대입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실비명>이 호모 사케르에 대해 호명 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김강원 선생님의 <정복근 희곡 <실비명>, 호모 사케르에 대한 호명>에 대한 토론문

중앙대학교 박사수로 김민주

모자란 소견이나마 질문과 감상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주축은 (페스트스에서 출발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그 바탕에 있는 통치권력/법의 자기형성으로 인하여 ‘그림자’가 되어가는 극적인 연출을 큰 소재로 삼아 한 장을 할애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온 이 작품이 연극이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연극에 죽은 이가 등장하고 발화하는 장면은 정복근만이 아니더라도 종종 나타나는 기법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고, 권력을 쥐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것이며, 그를 유혹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며, 강제하는 것이고, 욕망하는 것이다.(…)

연극에서 거리는 재현되지 않고 관객의 상상 속에 머무는데, 이때 배우의 말은 일상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고 사유, 즉 영혼이나 정신의 움직임들을 의미화한다. (…) 연극배우의 텍스트는 각 광을 넘어가야 하며 무대 앞에 앉은 관객과 공모해야 한다. 단어는 현존성을 부여받는다.¹⁴⁴⁾

그 지점에서 말하기를 부정당하고 ‘그림자’로만 떠도는 인물들, 살아남은 채로 ‘지워지고’ 목소리가 ‘덧어지는’ 현이 등의 인물이 본격적으로 부정당하는 그 양상 역시 현재적으로 은육의 직접적인 비난(‘투사인 척하지 마’)에 의해, 그리고 그림자가 되어가는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극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1로 진행되는 그림자 되기와 그림자 만들기엔 관객이 움직이거나 나갈 수 없는, 본질적으로 밀폐되어 있으며 사각 무대에 집중해야 하는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전제로 합니다. 정복근의 문제의식과 역사, 재난-그-이후를 다루는 선생님의 방식에 크게 동의하면서도, 연극적 형상화에 대하여 정복근이 특히 주목한 것이 그 현재성이며, 뮤지컬로 치자면 첫 장면의 리프라이즈(reprise)를 극의 마지막에 배치해 의미화하여 그 현재성을 극대화한다는 데에서 이 작품이 연극이며, 관객에게 어떠한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관객은 그림자 만들기에 공모하는 역할을 맡게 될까요, 그것을 방관하는 역할을 맡게 될까요, 그것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상호작용하게 될까요? 관객의 감상은 자유로이 열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림자 되기’와 관객의 이해라는 상호작용을 논의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또한, 죽은 자의 말하기라는 기법이 정복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신문이 침묵하는 중에 어떤 사건도, 어떤 상실도 없었”¹⁴⁵⁾다는 표현에서, 공적인 애도는 ‘신문’에 나오으로써, 즉 공적인 언어로 보증됨으로써 ‘가해자들’의 동일시 바깥에서 형상화됩니다. 그렇다면 주권과 ‘역적’이라는 표현에서 선생님께서 잡아내셨듯 여기에는 공적인 질서, 폭력적인 주권과 역사라는 거대한 키워드가 발생합니다. 이를 선생님께서는 ‘구음의 합창’을 통

144) 클레르 바세, 『대사-글로 쓴 텍스트에서 연출된 목소리로』, 박지희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21-29면.

145)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68면.

해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위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어나가, 공적 언어에 명백히 대응되는 정복근의 '구음', 하나하나의 사적 목소리들이 합쳐지고 익명들이 그림자가 되어 합쳐지는, 말하자면 '신문이 침묵하는', 은옥의 '정치가 개입된' 범죄에 대한 호모 사케르'들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것은 버려진 자들이라는 집단이면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거부당하는 인간이므로 근본적으로 집단이기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호모 사케르'들이 대상의 자리에서 말하는 주체의 자리, 사인에서 연대하는 개인들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 역시 '그림자 되기'의 과정일 것입니다. 정치적 추방자들이 근원적으로 말하기 불가능한 존재에서 말하는 존재로 이행하는 데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제가 식견을 넓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히 읽었습니다.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

김민영(한남대)

1. 서론
2.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양면성
3. 신화적 상상의 전도(顛倒)
4. 결론

1. 서론

우리의 시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플랫폼, 알고리즘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간 별도의 영역이라 판단했던 문화와 기술을 하나로 결합·융합시키며 인간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중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라 할 수 있는데, 외부의 간섭없이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빅데이터의 근원이 된다. 빅데이터는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모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쌓인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관심사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로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등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인터넷 공간에 전시하기도 한다. 그들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거대한 데이터의 자원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사회 구성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유사 이래 인류 문명 기록만큼의 방대한 데이터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¹⁴⁶⁾

이로써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인간 상징 언어를 통한 담론적 발화나 상징 교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체를 둘러싼 분위기나 감정선의 분출 데이터, 그리고 신체의 생체리듬과 시·공간 정보 등에 대한 자가생산된 데이터가 매순간 상호 뒤섞이는”¹⁴⁷⁾ 데이터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의 데이터를 “사실의 기록, 1차 자료, 자료의 집적이라는 표면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일정한 의미를 창출하면서 삶과 신체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권력의 축수이자 저항의 무기”로 이해한다면, 데이터는 “사물의 단순 모사와 기록의 흔적을 넘어 사물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물질성으로 전화하는 역동성”¹⁴⁸⁾을 지니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만드는 역할에 일조한다. 이는 데이터가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홀대를 받았던 과거의 위치를 탈피하고 끊임없이 갱신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힘을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⁹⁾

146)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인류의 의사 전달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면 50억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 지금 우리는 단 이들 만에 그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엘리 프레이저, 이현수·이정태 옮김, 『생각 조종자들』, 시공사, 2011, 17쪽.) 이 책이 2011년도에 출판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그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 및 축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7) 이광석, 「데이터사회의 형성과 대항장치의 기획」,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30쪽.

148) 김성일, 「산업사회와 데이터사회에서 작동하는 물신주의」, 위의 책, 99쪽.

이러한 데이터가 한데 모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간이 ‘포털(portal)’이다. “인터넷 창을 열면 누구나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관문 같은 곳”(13화)인 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관련서비스와 콘텐츠를 한 공간에 집적시켜 놓은 인터넷 이용을 위한 통합 사이트”¹⁵⁰⁾로 정의된다. 인터넷 사용이 포털이라는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포털이 통합미디어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포털은 인터넷 사용자를 그곳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영역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해당 포털의 주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포털로 끌어들이면, 이들은 자사 사이트에서 각자의 기호나 욕구에 맞는 다른 서비스나 콘텐츠를 사용하게 된다.

포털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이다. 국내에서는 포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해외에서 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는 ‘검색엔진(search engine)’이다. 즉 포털이 인터넷 콘텐츠 유통에서 절대적인 우위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¹⁵¹⁾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에 뜨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¹⁵²⁾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검색은 포털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서비스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포털은 고유의 알고리즘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포털에서 오래 잡아둘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 검색 서비스와 포털의 여타 서비스,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사용자를 포털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점차 포털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사용자가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포털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혹은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한다. 그렇기에 포털은 자사의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즉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이용자들에게 접근한다.¹⁵³⁾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이하 <검블유>)는 포털사이트를 배경으로 삼아 데이터 사회에서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¹⁵⁴⁾ 연구자들과 비평가들은 기존의 드라마와는 달리 <검블유>가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주인공을 호명하여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우정, 연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도된 남녀관계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¹⁵⁵⁾ 이 글은 중심 캐릭터에 집중했던 시선에서 벗어나 <검블유>의 서사적 배경이

149) 이광석, 앞의 글, 28쪽.

150) 백선기·최민재·김위근, 『인터넷 공간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64쪽.

151) 김위근,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 한국언론정보학회, 2014, 7쪽.

152) 크리스토프 드뤼서, 전대호 옮김,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해나무, 2018, 73쪽.

153) 2022년 상반기(2022.01.01.~2022.06.30.) 포털사이트 종합 점유율은 네이버(60.14%), 구글(29.21%), 다음(5.24%) 순이다. 네이버는 자사 콘텐츠만 검색되도록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한다. 여전히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때 80%를 넘었던 기억이 있는 네이버가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그들의 정책이 더 이상 사용자들의 발길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http://www.internettrend.co.kr/trendForward.tsp> 참고. 2022.08.21. 최종검색.)

154) 권도는 극본, 정지현·권영일 연출, tvN, 16부작, 2019.06.05.~2019.07.25.

155) 김미라, 「포스트페미니즘 드라마의 서사와 정치적 함의」, 『한국극예술연구』 6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김숙현, 「포스트모던한 여성 이미지와 로맨스의 갈등과 타협」,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7, 한국영상학회, 2019.

박주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다 걸크러쉬야?」, 『일다』, 2019.08.16. (2022.08.13. 최종검색)

박현숙, 「‘검블유’ 리얼 포털 업계 종사자 “포털의 본질 짙은 에피소드에서 감동”」, 『스포츠 경향』, 2019.07.02. (2022.08.13. 최종검색)

신규진, 「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젠더 미러링’ 콘텐츠, 논란은?」, 『동아일보』,

되는 ‘포털’이라는 공간에 집중하고자 한다. 기획의도에서 밝히듯, <검블유>는 거대 포털 기업이 ‘인터넷 영역을 차지하는 비율’, 즉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러티브가 주축이 된다. 데이터의 우주인 인터넷은 사회 구성원의 일상 경험은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깊이 통합되어있다. 그들은 인터넷 영역에 드나들며 “서로가 진정으로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영역은 “형태, 질감 윤곽, 깊이, 세부사항이 이미 주어져 있는, 간단히 말해, ‘실재(reality)’”¹⁵⁶⁾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공간은 중립적인 범주이거나 객관적이고 순진한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실천을 통해 구성”¹⁵⁷⁾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회에서 ‘포털’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산물로 읽어낼 수 있다. TV드라마가 현 사회 구성원들의 구성물이자 이들의 선택, 문화적 결정, 사회적 압력의 결과라면,¹⁵⁸⁾ <검블유>를 통해 인터넷 사용의 출발점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함의를 밝히는 작업은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 기대된다.

2.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양면성

대한민국이 ‘정보화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도약한 시점은 약 15년 전, 즉 2000년대 중반이므로, 현재와 같은 인터넷 인프라의 이미지가 구축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물론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췄는지의 여부는 세부적인 지표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초고속 통신망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단기간에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⁵⁹⁾

인터넷 출발점으로서의 포털은 초기에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검색 기능 보다는 콘텐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용자는 제공받는 서비스가 불편하면 가차없이 다른 포털로 이동하므로, 포털은 인터넷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구축해야 했다. PV(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검색은 기본이고 이메일에서 블로그와 카페,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포털에 머물 수 있는 전략 구사는 ‘점유율’ 경쟁에서 필수불가결하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가 곧 최우선적 자산이고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직원들에게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연봉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의 복지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들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며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결국 포털은 여타의 기업보다 ‘사람’의 창의성과 개발 역량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 덕분에,

2019.07.30. (2022.08.13. 최종검색)

이로사, 「주류 서사를 그대로 뒤집었더니, 본의 아니게 ‘여탕’이 됐다」, 『경향신문』, 2019.06.21. (2022.08.13. 최종검색)

이수연, 「‘검색어 WWW를 입력하세요’ 여심을 사로잡은 드라마!」, 『스타뉴스』, 2019.06.14. (2022.08.13. 최종검색)

하재근, 「여성주의 열풍, 한국 드라마를 바꾸다」, 『시사저널』, 2019.07.27. (2022.08.13. 최종검색)

한숙인, 「‘남자친구’ 박보검 VS ‘검블유’ 장기용, 페미니즘 남주의 진화」, 『셀럽미디어』, 2019.06.28. (2022.08.13. 최종검색)

황진미, 「드라마로 먼저 온 한국 사회의 미래」, 『한겨레』, 2019.06.21. (2022.08.12. 최종검색)

156) 메리 차이코, 배현석 옮김, 『초연결사회』, 한울엔플러스(주), 2018, 93쪽.

157) 최효찬, 『일상의 공간과 미디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60쪽.

158) 존 피스크·존 하틀리, 이익성·이은호 옮김, 『TV 읽기』, 현대미학사, 1997, 21쪽.

159) 강병준·류현정, 『구글 vs 네이버 검색대전쟁』, 전자신문사, 2008, 14~18쪽.

“개방, 중립, 평등 그리고 진보의 함의”¹⁶⁰⁾를 지닌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자본과 정보가 집약된 포털은 <검블유>에서 언급된 포털윤리강령 제1조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장 진보하며 참여적인 광장”(2화)으로 탈권위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매개자가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포털을 배경으로, <검블유>는 국내 양대 포털인 ‘유니콘’과 ‘바로’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러티브를 재현한다. 42% 점유율을 차지한 포털 2위인 ‘바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경쟁사 유니콘에서 배타미(임수정 분)를 영입하여 52% 점유율을 보유한 ‘유니콘’과의 점유율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 배타미는 대기업 KU의 며느리인 송가경(전혜진 분)이 시어머니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친정권적 행위를 하는 유니콘에서 벗어나, 본인이 기틀을 다진 포털윤리강령을 이행할 수 있는 ‘바로’에서 점유율 1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검블유>에서 ‘유니콘’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띤 기업으로, ‘바로’는 진보적인 기업으로 그려진다. ‘유니콘’은 앞서 전술한 포털 기업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전략을 준비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1위를 빼앗긴 직후 회의에서도 “보수적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세련”(15화)된 이미지를 고수하기로 결정한다. 반면, ‘바로’는 자유분방한 이미지이며 직급 대신 영어이름을 부르고 직원들 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며 강제적인 회식 문화도 부재하는 등 수평적이고 탈권위적인 포털의 이상적 기업으로 그려진다. ‘유니콘’이 아닌 ‘바로’였기 때문에, 배타미는 자신의 신념대로 ‘바로’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었다. 이 신념이 낯설어 차현(이다희 분)이 “여긴 바로예요. 유니콘이 아니라.”(3화)고 막아서기도 하지만, 배타미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며 진취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때 배타미가 시도하는 마케팅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바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하면서 ‘바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바로’라는 기업의 수익 창출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바로’의 점유율 1위 선점은 배타미 개인의 목표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최종 목적은 ‘바로’라는 기업으로서의 이익 추구이다. 포털이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창출의 도구”로서 “공간의 상품화”¹⁶¹⁾가 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배타미가 ‘바로’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시도한 전략이 “검색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누가 봐도 노린 게 분명한 비교광고”(3화)라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는 ‘바로’가 점유율이 낮아 ‘유니콘’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다는 약점을 역으로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클릭 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게하여 검색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광고는 환상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따라서 환멸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며, 아울러 경쟁과 패배, 도취와 우울을 체계적으로 생산한다. 광고의 소통 메커니즘은, 적당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유혹과 결부된 ‘부족하다’는 느낌을 생산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¹⁶²⁾

포털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검색’ 부문에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바로’는 사용자들을 자사 사이트에 더 오래 붙잡아둘 대의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유니콘’과 ‘바로’의 검색 기

160) 김동원, 『플랫폼 담론과 플랫폼 자본』,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84쪽.

161)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41쪽.

162)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서창현 옮김, 『노동하는 영혼』, 갈무리, 2012, 123~124쪽.

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사용자들은 광고를 통해 퍼진 환상에 의해 진실은 보지 못한다. 인터넷 유저들은 현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주저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에 종속되고 쾌락을 자극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¹⁶³⁾당하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리하다는 이미지를 선점한 ‘바로’로 흘러들어 간다. 이는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딘가 자기의 현재 생활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데 있다”¹⁶⁴⁾는 광고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데이터사회는 전통적인 인간 상징 언어를 통한 담론적 발화나 상징 교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체를 둘러싼 분위기나 감정선의 분출 데이터, 그리고 신체의 생체 리듬과 시,공간 정보 등에 대한 자가생산된 데이터가 매순간 상호 뒤섞이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⁵⁾ 사회 구성원들은 노동과 데이터를 기부함으로써 그들이 즐기는 디지털화된 경허맹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일은 그들의 단순히 웹 여기저기를 클릭하여 정보를 서로 주고 받거나 공유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지만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에 있으며, 전혀 노동처럼 보이거나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대중들이 인터넷에서 소통하거나 공유하는 거의 모든 것이 전유되고 상품화되어 대부분 이들을 광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회사에 팔린다.

이제 기계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바깥의 기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대신 이제 ‘정보기계’는 사회의 신경 체계와 교차하고, ‘생체기계’는 인체기관의 유전적 생성과 상호작용한다. 디지털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은 강철로 된 외부의 기계를 생명 정보 시대의 내부화된 재조합 기계로 바꿔 놓았다. 생명정보기계는 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기계가 더 이상 외부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형시키는 내부의 변형장치, 우리의 언어, 인지 능력을 증진시키는 증강장치가 됐기 때문이다. 기계는 바로 우리이다.¹⁶⁶⁾

이것이 표면상 무료인 인터넷의 이율배반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용과 이율배반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검블유>에서 ‘포털윤리강령’¹⁶⁷⁾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인터넷 이미지 뒤에 은폐된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불편한 것은 통치와 자본의 장치로 만들어 관리하려는 새로운 체제 질서에 기인한다.

163)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장유리 옮김,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난장, 2013, 178쪽.

164) 존 버거, 최민 옮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2(초판6쇄), 165쪽.

165) 이광석, 앞의 글, 30쪽.

166) 프랑코 베라르디, 강서진 옮김, 『미래 이후』, 난장, 2013, 41쪽.

167) <검블유>에서 언급한 ‘포털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포털은 가장 진보하여 참여적인 광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털은 사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2조 포털은 조작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는다. 이를 해치려는 모든 압력과 침해, 제한, 차별 등으로부터 사용자의 권리를 적극 수호한다.

제3조 포털은 사익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제4조 포털은 포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관리, 감독하며 책임을 진다. 절대 침묵과 회피로 묵과하지 않는다.

제5조 포털의 영향력은 사용자에게서 오고 사용자로 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지 않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로,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선별하여 추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량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에 머무르지만, 알고리즘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규칙에 관한 부분이다. 즉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규칙”¹⁷⁰⁾을 가리킨다. 알고리즘은 다수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 컴퓨터는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른다. 그렇기에 포털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포털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제시된 정보에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포털에 강력한 권력의 발판이 된다.

배타미 실검이 호불호의 문제인가? ... 불호요, 극혐. ... 포털에게 쓸데없이 권력을 쥐여 주니까. 이걸 이래서 지우고 저건 저래서 놔두고, 그 자체가 난 좀 이상해요. 검색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그걸 포털이 검열하니까요.

차현 검열이 아니라 점검이죠. 누군가에게 유해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지 않기 위해.

배타미 근데 스칼렛은 그 기준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차현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기준은 없습니다.

배타미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서비스는 불완전한데 영향력은 지대하니까. 영향력은 지대한데, 다스릴 법규는 없으니까. 포털이 실검을 삭제하고 조작해도 처벌할 수 없어요. 법이 없어서.

차현 실검은 포털의 수익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법규가 없는 겁니다. 뭐, 포털이 여론의 중심이라고 해서 비즈니스할 자유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 버는 건 다 나쁘니까?

배타미 안 나쁘죠. 실검이 싫다고 했지 없애자고 안 했어요. 없애면 안 되죠. 실검은 수익과 직결돼 있고 우리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주는 최고의 수단인데 그 장사엔 동의해요, 나도. (4화. 강조는 인용자)

네트와 허공을 떠다니는 데이터의 가치화 정도는 대체로 플랫폼 업자들이 운영하는 알고리즘을 얼마나 정교하게 짜는가에 달려 있다. 알고리즘은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의 무한한 생성과 유입, 그리고 이들 데이터들의 관계로부터 특정 경향을 발견하는 행위에 이용된다. 즉 데이터 사회는 불신과 무력화된 상징 재현의 질서, 불끈하는 정동의 무수한 흐름, 몸 안에서 맥박치는 생체 정보가 한데 빅데이터로 뒤섞여 모여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면서 사실과 의미의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내는 국면이 된다. 그 가운데 데이터 사회에서 이들 거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KU 장희은 회장과 서명호 대통령은 포털 1위 기업인 ‘유니콘’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 및 은폐하거나, 가짜뉴스를 배포, 혹은 정부가 포털 실검 규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룬다. 특히 서명호 정권은 민간 소셜웹과 개인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찰하기 위해 개인 정보 열람권까지 행사하려 한다. 이들은 데이터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포털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과거와 지금의 통제 범위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 먼 미래의 예측까지 언어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데이터 사회에서 권력의 작동은 플랫폼 뒤에 머무는 첨단 기술의 암흑상자 안에서 일어나고

169) 송해엽, 「알고리즘과 뉴스편집」, 『언론중재』 157, 언론중재위원회, 2020, 19쪽.

170) 위의 쪽.

있다. 즉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술장치는 “특정한 형태의 기술 및 합리성을 구현한 것으로, 객관성이라는 약속을 중심으로 구축된 일종의 사회적 질서를 나타내는 징후”¹⁷¹⁾이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기술을 의도적으로 아주 단순한 인터페이스 아래에 숨기는 것 또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알고리즘의 닫힌 암흑상자의 논리를 객관성의 신화로 치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의 작동은 권력의 암흑상자 내부에 숨겨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찰나의 순간에 자동 계산과 판단이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신화적이다. “투명성이란 오히려 불투명한 것, 즉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서도 작동시킬 수 있는 것”¹⁷²⁾이라면 알고리즘의 자동기계 산술 공식이 결점 없는 가치로 표상된다. 자본 권력의 핵심인 데이터 알고리즘의 고도 기술을 매개한 신화화 과정은 데이터 사회 속 통치권력의 속성 변화에서 깊게 관계한다.

데이터 기록의 역사성이나 진본성 등 질적 가치는 거세되고 데이터의 빈도, 선호, 반응 등 계측 가능항 값들로 치환된다. 이는 살아있는 사건을 죽은 데이터로 바꾸거나 폭력적인 계산 공정을 미끈한 알고리즘의 외양으로 은폐하는 효과를 보인다. 알고리즘 과정에서 무수한 편견의 과정과 가치왜곡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동 알고리즘의 형식을 도입해 외부 관찰자로부터 불편부당한 객관성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 사회의 현신을 후진적 정치 상황과 재벌 기업들의 굴절된 욕망으로 인해 뒤튼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171) 루크 도멜, 노승영 옮김, 『만물의 공식』, 반니, 2014, 15쪽.

172) 위의 책, 166쪽.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다운(국립군산대)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는 현대의 대표적 데이터 공유 공간인 ‘포털사이트를 배경 삼아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룬(2쪽)’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이하 <검블유>)를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는 연구물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검블유>는 주로 여성인물들의 주체성과 연대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는데, 이 역시 작품의 의의를 추적하는 유의미한 접근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포털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용이 내러티브의 주축이 되는 만큼 <검블유>를 데이터, 포털 등의 키워드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일 역시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1) 2장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양면성’에 관한 질문

본 발표문의 2장은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양면성’이라는 제목하에 내용이 전개됩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통해 본 발표문에서 제안하고자 한 ‘양면성’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포털은 ‘개방, 중립, 평등 그리고 진보의 함의를 지닌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가장 진보적이며 참여적인 광장(4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수적인 기업에 의해 운용된다.
- ② 포털은 ‘검색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누가 봐도 노린 게 분명한 비교 광고를 하는(5쪽)’ 말하자면 겉으로는 무료로 보이지만 실상은 상품화된 공간이다.
- ③ 포털은 ‘점점 더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에 종속되고 쾌락을 자극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5쪽)’ 말하자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변형시키는 중간장치다.

①은 <검블유>의 기업 특성을 서술한 부분에서 ②는 이후 내용(4쪽) 그리고 ③은 2장의 후반부에서 감지된 것입니다.

본문 안에 삽입된 다양한 분석과 인용으로 본 발표문이 상당히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본 발표문이 ‘<검블유>를 통해 인터넷 사용의 출발점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함의를 밝히는 작업(3쪽)’에 의의를 두고 있다면 ‘미디어 플랫폼의 양면성’을 밝히는 데에도 해당 작품이 조금 더 개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3장의 경우 ‘미디어 플랫폼의 양면성’을 <검블유>가 어떻게 체현하고 있으며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현재 발표문에 있는 다양한 이론과 연계하여 조금 더 상세

하게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포털의 이율배반적 특성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이를 <검블유>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분석할 때 본 발표문의 변별성과 의의(새로움)가 강화될 듯합니다.

(2) 2장과 3장의 내용 중복 및 분리에 관한 질문

본 발표문의 2장은 '미디어 플랫폼의 양면성'을 3장은 '미디어 플랫폼의 신화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장의 경우 검색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하며 기존 포털 플랫폼과 <검블유> 속 포털 플랫폼이 어떻게 신화를 구축해 가는지를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는 주제(키워드)가 중복되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대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연구물에서 각 장의 내용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으나, 논문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해서는 장의 분리성을 성취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장에서 다루었던 '검색' 내용이 3장에서 다시 반복·확대되며, 보수적 기업에 관한 내용도 3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또한 3장에서 다룬 내용도 크게 보면 2장 '미디어 플랫폼의 양면성'에 포함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장과 3장을 명백하게 분리해 줄 만한 기준을 재설정하거나, 내용을 생략·집중·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2장에서는 '포털의 자본주의적 문제점'을 <검블유>의 분석과 함께 논의하고, 3장에서는 '포털의 통치권력적 측면'을 해당 작품과 연계하여 분석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에 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 '포털, 데이터'와 <검블유>의 관계에 관한 고민

본 발표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검블유>는 '전쟁터'와 같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의 치열한 업무 현장을 다룬 작품입니다. <검블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전쟁을 치르는 주역이 여성이었기 때문이지만 본 작품은 성별을 초월하여 포털 사이트의 실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검블유>에는 포털 사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등장하며 이러한 사건이 상당히 극적이고 리얼하게 재현됩니다. 그런데 <검블유>를 '포털, 데이터'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의하게 되면서 해당 작품의 본질이라 할 만한 리얼하고 팽배한 긴장감이 축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본 발표문의 중심제목이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이고 여기에 부제로서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가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애초부터 본 발표문이 '포털, 데이터'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검블유>라는 작품과 연계하여 해당 주제를 논의해 본다면, <검블유>라는 작품의 드라마로서의 의의와 특성을 조금 더 강화해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제가 연구할 때마다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본 발표문을 통해 다양하고 유의미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다운 선생님 토론문 잘 읽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글을 읽고 명쾌하게 길잡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번과 2번은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사회학 논문의 성격이 많이 보여서, 글을 쓰면서도 많이 주저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것이 결국 텍스트 자체의 분석이 부족하고, 여러 이론들의 나열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장의 경우 너무 범박하게 논의를 전개하여 미완성된 장이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첨예하고 세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서론에서 밝힌 이 논문의 의도가 본문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3번은 저 또한 매번 논문을 쓰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키워드인 '포털', '데이터'라는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실제 텍스트에서 다룬 다양한 에피소드들의 분석과 그들의 의의에 대한 평가가 빠졌습니다. 분명 <검블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포털이나 데이터에 한정된 것이 아닐 것이기에,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부분 또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논문의 주제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고전문학]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一面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一面

박상영(대구가톨릭대)

목 차

1. 들머리
2. 사설시조 속 ‘죽음’에 대한 인식의 지층들
3. 지층들 틈새로 발견되는 시학적 의미
4. 결론-삶과 죽음, 그 일상-비일상의 경계를 넘어서

1. 들머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死(죽음)’의 문제이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生’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死’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生-死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의 학적 관심 대상이 되곤 했다. 죽음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오히려 즐거운 여행의 일부로 인식한 소크라테스의 죽음 인식¹⁾에서부터, 누구든 자신의 죽음을 서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죽음을 “앞서 나가는 의식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거나 “선형적으로 규정된 표상에 의해 가능해지는 대상”으로 이해한 하이데거와 칸트²⁾,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죽음 개념을 넘어서 실천적 방법의 한 형태로 죽음학의 실체를 마련하고자 한 퀴블러 로스³⁾, 에로티즘 연구 과정에서 죽음을 발견한 프로이트와 바타유⁴⁾, 죽음을 다른 생명체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인간의 의미론적 사건으로 규정한 엘리아스와 모랭⁵⁾ 등 과거에서 현대의 죽음 연구가에 이르기까지 실로 죽음 관련 논의는 방대하다.

이는 비단 서구에서만만의 일도 아니다.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죽음에 대한 사유 및 인식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었다. 공자가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⁶⁾라고 한 것이나,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두 다리를 뺀고 앉아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며, “아내는 지금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방 속에 편안히 누워 쉬고 있는데 내가 소리 내어 곡한다면 자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 곡을 멈추고 노래를 한 것”⁷⁾이라 한 것은 모두 죽음을 둘러싼 유가와 도가적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이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전개되어 온 이 같은 죽음 관련 논의들은, 곧 生死의 문제가 초자연적

1)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완전히 無로 돌아가는 경우는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고,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의 여행이라면, 또 생전의 훌륭한 이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어느 것이든 좋은 일’이라며 生死,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신 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였다(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왕학숙 옮김), 신원문화사, 2002).

2) 칸트, 『순수이성비판』(최재희 옮김), 박영사, 서울, 2001 및 남경아, 「순수지성 개념으로서 죽음 개념과 그 역설」, 『동서철학연구』94호,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19, 256쪽 참조.

3) Kübler-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What the Dying Have to Teach Doctors, Nurses”, *Clergy & Their Own Families*, New York: Scribner, 1969.

4)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 52~53쪽; 김효영, 「바타유의 ‘에로티즘’개념에서 ‘죽음의 의미」, 『프랑스문화연구』45집, 프랑스문화학회, 2020, 33쪽.

5) 에드가 모랭, 『인간과 죽음(L’homme et la mort)』(김명숙 옮김), 동문선, 2000, 1~422쪽).

6) ‘未知生 焉知死’(『論語』 <先進>, ‘季路問事鬼神’章).

7) 不然，是其始死也，我獨何能无概然！察其始而本无生，非徒无生也而本无形，非徒无形也而本无氣。雜乎芒芴之間，變而有氣，氣變而有形，形變而有生，今又變而之死，是相與爲春夏秋冬夏四時行也。人且偃然寢於巨室，而我嗷嗷然隨而哭之，自以爲不通乎命，故止也(<至樂> , 『莊子』(안동림 역주), 현암사, 1993, 451쪽).

인 힘에 의지하던 원시 문화의 흔적에서부터 점차 자연철학에 기반을 두면서 존재와 만물의 생성에 관한 의문 탐구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준다.⁸⁾ 그 과정에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가 소멸되고 마는 생물학적인 죽음뿐 아니라, 군중 속의 소외와 고독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학적 죽음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했고, 죽음을 역사적 산물로 이해하면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죽음에 관한 표상들이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는 탁견⁹⁾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는 곧 죽음의 문제가 이제, 단순히 한 개체의 소멸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당대의 사유 인식의 일면을 찾아낼 단서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죽음의 개념사적 정립과 사적 이해를 토대로, 우리의 사설시조 속 죽음의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사설시조에는 다른 국문시가 갈래보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간 군상들이 펼치는 향연을 일상(성), 유희, 통속/(대중성), 웃음(해학), 근대(성) 등의 측면에서 논의한 감이 크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보여주는 일상의 모습 뒤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 또한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비단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삶의 질곡과도 연결되어 애틋한 느낌마저 자아낸다. 이는 결국 지금껏 사설시조를 관통해 온 웃음 미학 이면에 다양하고도 세세한 정감이 숨어 있음을 밝혀낼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한 갈래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된 정감 및 특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주변적인 美感을 살피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는 것 또한 의미가 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죽음에 대한 오랜 학적 관심과는 달리, 또 고전 서사에서와는 달리, 실제 한시를 제외한 고전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기에는 고전 名詩를 대상으로 죽음의 주제학을 통찰하려 한 경우¹⁰⁾를 비롯해, 한국 민요에 나타난 죽음 의식을 살피거나¹¹⁾, 죽음과 관련된 몇몇 향가 작품 논의에서 소멸 모티프와 더불어 죽음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경우¹²⁾, 최근 그간 도외시되었던 ‘죽음 교육’의 차원에서 고전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죽음 교육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경우¹³⁾ 및 현대시조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연구¹⁴⁾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죽음이 늙음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보면, 노년 문학의 가치를 구명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언급된 경우는 더러 발견된다. 하지만 그마저도 嘆老의 문제에 집중된 감이 있어 죽음 자체의 양상 및 이에 대한 의미 있는 고찰은 아쉬운 실정이다.

8) 이창욱, 「장자철학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초월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91집, 새한철학회, 2019, 261쪽.

9) 프랑스 죽음 연구의 대가이자 심성사 연구의 터전을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 아날학파의 학자 Aries는 근대 이전에는 죽은 자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반면에, 근대 이후에는 죽음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보면서, 근대 이전과 이후의 죽음을 각각 “순화된 죽음(der gezähmte Tod)”과 “죽음의 야성화(die Verwilderung des Todes)”로 지칭한 바 있다(필립 아리에스, 『죽음 앞의 인간』(고선일역), 새물결, 2004, 1076~1082쪽).

10) 최규수, 『고전 명시(名詩)에 나타난 죽음의 주제학』,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6, 1~184쪽.

11) 박선애, 「한국 민요에 나타난 죽음 의식 연구」, 『반교어문연구』23호, 반교어문학회, 2007, 269~306쪽; 서영숙, 「죽음의 노래에 나타난 역설의 기능과 교육적 의미-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의 비교를 통해」, 『고전문학과 교육』2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107~130쪽.

12) 서철원, 「신라 향가의 소멸 모티프와 죽음 인식」, 『우리문학연구』14집, 우리문학회, 2010, 153~173쪽; 박옥규, 「<제망매가>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식」, 『논문집』14집, 서강정보대학, 1995, 1~17쪽.

13) 황병희, 「고전시가에 나타난 죽음 인식과 그 교육적 가치」, 고려대 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7, 1~90쪽.

14) 박영우,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의식 연구」, 『국어문학』53집, 국어문학회, 2012, 75~95쪽.

죽음의 문제가 비단 죽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또 다른 측면을 밝혀낼 실마리가 된다면, 이제 문학에서 ‘삶’이 아닌 ‘죽음’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을 키워드로 하여 그간 ‘일상(성)’, ‘삶’, ‘웃음/해학’ 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온 사설시조에서, 그와는 대척되는 지점에 서 있는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작품 속에 현현되고 표상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작가는 한 갈래 속 죽음의 양상들을 고찰해 보는 것에 한정되지만, 크게는 고전시가 전체를 관통하는 죽음학, 생사학의 시가미학사적 토대 작업이 되기도 할 것이다.

2. 사설시조 속 죽음에 대한 인식의 지층들

사설시조를 가만 들여다보면, 의외로 죽음과 관련된 작품들이 꽤 많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죽음이 부수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고, 시적 화자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상상하여 묘사한 경우도 있으며, 죽음 자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경우도 있다. 한편, 삶과 관련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및 인식이 긍정적일 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등 어느 하나로 일괄 규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논의의 편의상, 시적 화자가 죽음을 ‘삶’, ‘현세’, ‘이승’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단절’로, 사후 세계가 현세와 연결된 인식을 보여주는 경우는 ‘연속’으로, 삶과 죽음의 관계 문제를 넘어서 죽음 자체가 다루어진 경우나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활용된 경우 등은 편의상 ‘초월’로 명명¹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1. 生-死의 단절과 현세향유

우선, 사설시조에는 시적 화자가 生死를 단절된 그 무엇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죽음의 극복 의지를 보이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슬픈 감정을 즉자적으로 토로하는 경우와 그러한 죽음에 대한 거부의 일환으로, 현세에 대한 유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공도라니 빅발이오 못 면홀손 죽엄이라

천황 디황 인항후에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성덕 업서 봉히시며 어리도다 진시황은 만리장성 굿이 찢고
아방궁 늪히 누어실체 이목지 소호호고 궁심지지 소락하여 장침불스 흐릿더니 려산에 고훈 되고 독
형천리 관공님도 녀몽간계 즈스호고 화타편작이 약명 몰나 죽어스며 왕개석승 이돈이가 지산업서
죽엇갓네

흐물며 초로인싱이야 말 다하여 무엇하라. <36>

15) 본 연구에서의 ‘초월’은, 生死의 문제를 넘어서 화자가 거리낌 없이 초연하고 초탈한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生-死 간 대자적 관계 문제를 넘어서는 지점에서의 초월’이라는 의미이되, 논의의 편의상 줄여서 ‘生-死의 초월’로 사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사설시조에는 死에 대한 인식이 生과 맞물려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설적 언술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生-死가 어떤 대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죽음’ 그 자체의 문제로 다루어지거나 ‘죽음(장례)’의 현장,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서 의미 있게 차용된 경우 또한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죽음 인식’이라고 할 때는, ‘죽음 자체에 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죽음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관한 인식’도 포함된다. 이는 실제 작품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가 주인공이 되어 죽음 인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 3자가 ‘텍스트 속 화자들 사이에서 죽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작품 가번은 기존에 『고시조대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시조대전』(아세아문화사, 박을수 편), 『정본 시조대전』(심재완 편) 등을 모두 참고하여 이미 정리한 바 있는 『사설시조 웃음 미학과 담론』(박상영, 아세아문화사, 2013)의 사설시조만 수록한 부록 편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밝혀둔다.

저 건너 놓고 나즌 저산 밋헤 영웅호걸이며 청춘홍안들이 다 못쳐구나
 루루중통 북망산을 뉘 힘으로 쏘아내며 흘러가는 장류슈를 뉘 지조로 막아내며 심어방천이면 슈용이
 궤라 넷날넷적 진시황은 만리장성 돌너눅코 아방궁을 놓히 지여 장싱불스 허려하고 불스약을 구허
 려다가 그도 쏘흔 못되여서 려산황릉 깃흔 곳에 속절업시 누어 잇고 텃하장스 초피왕도 오강에서
 즈문하고 룡국 지상 소진이도 말이 모잘나 죽어스며 텃하절식 구련이는 절기 업서 죽엇갓네 먹나슈
 깃흔 물에 굴삼녀라도 장어가 되고 시중턴자 리태빅은 치석 월하 돌 붉은디 국화슈 취케 먹고 돌을
 스랑하다가 기경비상턴하여 잇고 진쳐스 도연명은 추강상 비를 무어 망월시에 흘니 저어 오류촌 도
 라가서 장취불성 혀엇건만 우리긋흔 인싱들은 감아니 곰곰 싱각히니 풀싯헤 이슬이오 단불에 나뉘
 로다
 금도일석이라도 실슈되여 북망산천 도라가면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썩어진토 되고 삼흔칠빅이 훗
 터질 적에 어니 귀천타인이 날 불상타 허갓소. <309>

우선 위에는 生-死의 공간이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6>에는, 죽음이란 덕이 많거나 장생불사를 염원하던 왕도, 세상의 병을 다 고친 의사나 돈 많은 부자도 모두가 피할 수 없던 것인데, 하물며 필부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고 한 데서, 죽음의 불가항력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서글픔이 애잔하게 묻어난다. 북망산천에 가게 되면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되고 혼백들도 모두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인식(<309>) 또한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곧 有에서 無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유를 보여준다. 이러한 생사 단절 인식은, 한 존재의 사라짐이란 것은 결국 광활한 우주론적 관점에서 보면 티끌 같은 존재의 사라짐이자 한갓 의미 없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조차 않을 것이라는 종장의 발언에서는 존재에 대한 허망함마저 묻어난다(<309>). 여기에는 어떤 죽음에 대한 거부나 극복 의지가 보인다기보다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슬픔과 존재의 사라짐에 대한 허망함을 자설적으로 토로하는 즉자적 인식이 보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감정 토로는 현실(生)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이왕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러한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이에 저항해 차라리 현재 여기 있는 삶을 즐겁게 보내자는 인식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명 ‘노세류’에 해당하는 일련의 사설시조에서 그러한 측면을 읽을 수 있다.

노새노새 每樣長息 노새노새 낮도 놀고 밤도 노새
 壁上에 그린 黃鷄숫들이 뒤늑래 탁탁치며 긴 목을 느리워서 뻘뻘쳐 우도록 노새그러
 人生이 아춤 이슬이라 아니 놀고 어이리. <77>

歲月아 네월아 가지를 마라 가지를 마라 靑春紅顏이 다 늙는구나
 人生一世 生覺곳 하니 잠든 날 病든 날 다 除히 노면 다만단 四十 못사는 人生 안이 놓고서 무엇을 하리
 오날도 날이오 리일도 날이라 오날도 놀고 來日도 놀고 놀고놀고 놀아를 보세. <202>

위에는, 우리네 인생이 짧고 아침 이슬과 같은 것, 죽고 나면 죄다 없어지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生 이후의 또 다른 삶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生-死의 단절¹⁶⁾ 인식의 일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죽어서 또 다른 삶이 없다면 현재, 오

16) 生死 단절이라고 하면, 생과 그 이후의 삶이 일단 전제되어 있고, 이 둘의 관계가 연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사후 세계)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때의 유희 혹은 즐거움의 노력은 유쾌하고 발랄한 긍정의 감성이 결코 아니다. 현실의 질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늙어감이란 것을 깨달을수록 ‘늙’에 대한 열망과 갈망은 짙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壁上에 그린 黃鷄가 울 때까지, 곧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해서까지 놀자고 하거나(<77>), 이런저런 날 다 제하고 나니 정말 몇안되는 인생살이, 오늘, 내일 주구장창 놀아보자는 것(<202>) 등은 모두 유한한 삶에서 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자 죽음에 대한 거부이다.

사실 죽음에 대한 거부는 늙음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이들이란 곧 죽음에 한발짝 다가서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늙음에 대한 한탄(歎老)은 곧 인생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것이자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늙기 설웨란 말이 늙은의 妄伶이로다

天地江山은 無限長이요 人之定命은 百年間이니 설웨라 ㅎ는 말이 아모려도 妄伶이로다

두어라 妄伶엿 말을 우어 무슴ㅎ리오. <85>

色긔치 도쿄도흔 거슬 그 뉘라서 말리느고

天子 | 로디 瑤臺에 宴樂ㅎ고 項羽는 天下壯士 | 로디 滿營秋月에 悲歌慷慨ㅎ고 明皇은 英主 | 로디 解

語花離別에 馬嵬坡下에 우렷느니

ㅎ물며 날긔흔 小丈夫 | 야 몇 百年 살리라 ㅎ올일 아니ㅎ고 속절업시 늘그랴. <189>

위에서 보듯이(밑줄 부분), 늙음에 대한 인식은 곧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각성임을 알 수 있다. 유한한 인생살이를 단순히 한탄하는 경우도 있지만(<85>), 늙더라도 色을 맘껏 즐기며 늙겠다며 태도(<189>) 등은 모두 현재의 삶과 순간의 찰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곧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까닭에, 生死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기에 가능한 행동들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늙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곧 늙음 이후에 다가올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죽음’과 ‘늙음’은 짝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설시조에는 생사의 단절 인식이 사후 세계의 제시 없이, 현세에 대한 긍정, 놀이, 유희, 향락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후 세계가 제시된 상태에서 단절 인식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¹⁷⁾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작품 속 사후 세계의 표상 여부에 따라 느껴지는 美感은 다르지만 모두 표현상에서 오는 표면적 웃음 이면에 생사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로 수렴된다.

2.2. 生-死의 연속과 영생추구

한편, 사설시조에는 현세에서 못다 이룬 욕망 및 욕구를 사후에도 이어서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사후 세계, 곧 理界가 반드시 설정되는 경우로, 理界는 현실계의 연장

死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곧 표면상 언표되지는 않았지만, 無言의 ‘生-死’의 연속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단절’의 영역에 넣어 두었다. 즉, 사후 세계가 등장하되 이를 ‘삶’과 다른 공간(理界)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계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생’과 단절된 것으로 본다.

17)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예시로 들 수 있다. ‘博浪沙中 쓰고 남은 鐵椎를 엇고/江東子弟八千人과 曹操의 十萬大兵으로 當年에 閻羅國을 破ㅎ던들 丈夫의 屬節업슨 길흘 아니 行흘써슬/오날에 날쫓추 가자하니 그을 슬허 ㅎ노라.//<143>.’ 이승과 단절된 길이기에 끝까지 부정하고 싶지만, 마침내 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죽음 거부의 의지와 유한성의 자각을 읽을 수 있다. 표면상 술과 결합되어 ‘노세’를 외치는 앞선 작품들과는 일면 미적 정서의 결이 다르지만 그 이면에 담긴 비극적인 정서는 동일하다.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理界 설정은 보이지 않지만 죽음-재생의 순환적 구조 속에서 生死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품들도 있다. 어느 경우든 모두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연장'이거나 새로운 탄생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2.2.1. 異界 설정 속 순환적 인식

功名과 富貴과란 世上스름 다 맞기고

가다가 아모디나 依山帶海處에 明堂을 갈외서 五間八作으로 黃鶴樓맞치 집을 짓고 벗님네 다리고 晝
夜로 노니다가 압니에 물 지거든 白酒黃鸚로 내노리 가있다가

내 나히 八十이 넘거드란 乘彼白雲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帝傍投壺多玉女를 니 혼자 넘즈되여 늙은 늑
를 모로리라.<37>

功名을 헤아리니 榮辱이 半이로다

東門에 掛冠하고 田廬에 도라와서 聖經賢傳 헛쳐노코 넘기를 罷헌 後에 압니에 슬진 고기도 낙고 뒷
뒹히 엄긴 藥도 키다가 臨高遠望하야 任意逍遙하니 淸風은 時至하고 明月이 自來하니 아지 못게라
天壤之間에 이기치 즐거움을 무어스로 對홀소나

平生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老死太平하야 乘化歸盡하면 그 도흔가 하노라.<38>

니 本是 上界人으로 黃庭經 一字 誤讀하고

塵寰에 다시 謫下하여 五福을 누리다가 乘彼白雲하고 帝鄉에 올라가서 네 노던 群仙을 다시 만나
八極에 周遊하여 長生不死하리라.<73>

우선 위의 밑줄 부분을 보면, 시적 화자는 모두 죽음 이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希求하는 데서 生死가 이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죽은 이후에도 흰 구름을 타고 飛翔하여 '帝傍投壺多玉女'를 혼자 거느리며 늙지 않고 영생을 누리겠다는 바람이나(<37>)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늙어 죽은 이후에도 삶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38>)¹⁸⁾, 이승에 잠시 왔지만 다시 천상계(선계)로 돌아가 장생불사하겠다는 것(<73>) 등은 모두 앞선 경우와 확연히 미감의 차이를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작품에 드러난 장생불사에 대한 염원도 죽음 거부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거부가 작품 속에서 현세의 유흥으로 표상되는 대신, 현세와 이어진 공간(천상)을 希求하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 주목해 볼 문제이다. 이는 죽음이라는 철학적 문제를, 현세에서 놀이/유흥을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거나 신선 세계(천상계)의 동경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거나 간에 모두 죽음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차라리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있는 동안 삶을 즐기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러한 죽음 이후의 삶을 차라리 이상화된 세계로 그림으로써 죽음을 즐겁게 인식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천상계 설정을 통해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또 이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순환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모든 작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¹⁹⁾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에서 신선 세계로 설정되는 천상계는 모두 지상

18) 비록 이 작품은 종장에서 보듯이 乘化歸盡 이후의 삶이 제시되지는 않았어도 관련 작품들에서 추정되듯이, 현세에서 누리던 삶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역시나 신선 세계로 표상되는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과 희망, 현세의 삶을 지속하는 공간으로서의 '천상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개의 행복한 삶의 연장이자 시적 화자가 원래부터 있었던 곳,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 곳, 그러한 마땅함이 있는 곳 등으로 제시된다(<37>, <38>, <73>). 다시 말해, 이 유형에서 발견되는 사후 세계는 시적 화자에게 긍정적으로 표상되는 그 무엇으로서, 현실 속 행복이 연장되는 공간이거나 현실에서의 아픔을 극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새겨지는 것이다.

2.2.2. ‘죽음-재생’ 속 순환적 인식

새악시 書房 못마자 애쁘다가 주근 靈魂
 건삼밭 쪽삼되야 龍門山 開骨寺에 니썩진 늘근 중놈의 들뵈나 되엿다가
 잇다감 썩나 7려온제 슬적여나 불가 하노라.<187>

어제는 못보게도 하여 못볼시도 的實도 한다
 萬里 가는 길의 海枯絶息하고 銀河水 건너 뛰여 北海水 가로지고 風土 | 切甚한다 摩尼山 갈감마괴
 太白山 기슭으로 골각골각 우닐면서 촛들도 바히 못어더 먹고 굴며 죽은 짜히 내 어디 가서 님츠츠
 보리 아히야 님이 오셔들란 줄여 죽단말 生心도 말고 쓸쓸이 그리다가 骨슈의 병이 들어 갖과 썩만
 걸려 앓장밭삭 건이다가 주근 쇼마 보신 후에 氣韻이 漸盡하야 임아우희 손을 언고 한다리 취여 들
 고 되에 掩버서 노운드시 벌떡 나뒹쳐졌다가 長嘆一聲에 奄然命盡홀제 죽어 奸魂 的呼 | 되야 님의
 몸의 촌촌 감겨 슬드리 알히다가
 나종의 부디 자바 가렸노라 ㅎ드라 ㅎ고 슬와라. <241>

冤鳥되야 帝宮의 나니 孤身隻影이 碧山中이라
 暇眠夜夜眠無暇요 窮恨年年恨無窮을 聲斷曉峯殘月白요 血淚春谷落花紅이로다
 至今에 天聲尙未聞哀訴하고 何乃愁人耳獨聽고 하노라.<272>

한편, 사설시조에는 理界 설정을 통해서가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죽음-재생을 통해 순환적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있다. <187>에서는 결혼 못한 채 죽어버린 처녀의 영혼이 ‘건삼밭 쪽삼’으로 재생한 후, 비록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니썩진 늘근 중놈의 들뵈’라도 되어서 현실에서 못다한 욕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한 존재의 죽음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면서까지 다시 태어나는 순환 과정, 곧 ‘삶-죽음-재생’ 속에서, 마침내 현실에서 못다 이룬 소망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²⁰⁾ 비록 그 소망이, ‘이 빠진 늙은 중놈’이라는 해학적 표현과 더불어 땀이 나 가려울 때 가끔 문질러보는 존재 이상은 되지 못하더라도, ‘죽음’은 삶과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삶을 탄생하는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241>에서는 시적 화자의 기이한 죽음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표면상으로는 앞서 살펴본

19)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 중 2수 정도(<37>, <234>)는 理界를 통해 생사의 연속성은 뚜렷이 보이지만, ‘천상-지상-천상’의 설정이 아닌, ‘지상-천상’의 단계로만 설정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표면상 순환성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乘化歸盡이라는 구절을 통해 천상계가 이미 화자의 인식 속에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면, 곧 ‘(제시되지 않은 천상계)-지상계-천상계’로 보아 넓은 의미에서 순환적 인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 이는 ‘無情하고 野宿헌 任아 哀魂離別後에 消息이 어이 頓絶허나/夜月空山杜鵑之聲과 春風桃李蝴蝶之夢에 다만 生覺는니 娘子로다 梧桐에 걸닌 달 두렷헌 네알골 宛然이 것헤와 슯치는듯 이슬에 져진 슯 妍妍헌 너의 티도 눈압헤 버렸는듯 碧紗窓前 新벽 비에 沐浴하고 안전는 제비 네말소리 곱다 마는 니귀에 하습는 듯/밤中만 靑天에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에 잠든 나를 씨우는나.//<129>’와 같이 죽고 난 후 전혀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생사가 단절된 것이자 존재 간의 교류가 없다는 인식과는 상반된 것이다.

<287>의 작품과 동일한 계열인 듯싶지만, 죽음 인식의 측면에서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신선 세계를 동경하며 생사를 연속으로 인식하던 <287>번과는 달리, ‘奸魂 的呼 | 되야 님의 몸의 촌촌 감겨 솔드리 알히다가’라는 표현에서 보듯 <241> 속 시적 화자는 현실에서 못다 이룬 사랑을 이루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奸魂이 되어서라도 임과 함께 머물겠다는 것은 곧 죽음이 생과의 단절이 아닌, 생의 연속으로서 보는 태도이자 현실에서 부재하는 욕망을 해소하려는 장치로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표면상 시적 화자가 죽어서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 속 시적 화자가 기다림에 지쳐 버린 한 가련한 여인으로 형상화된 데 비해, ‘간혼’이 된 시적 화자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임의 몸에 칭칭 감겨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때의 죽음은, 시적 화자의 이전(生)과 이후(死)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단이다. 이는 임과 늘 함께하고픈 의지가 처절하리만큼 강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기도 하다. 얼마나 그 뜻이 강렬했으면, 종장에서 보듯이 나중에 임이 죽어서라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이는 곧 ‘(같은 공간: 生) 현실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삶->(다른 공간: 生-死) 죽음 이후에 귀신이 되어서 함께 하려는 삶->(같은 공간: 死)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겠다는 삶’이라는 일련의 순환 과정에서 ‘죽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 결핍된 욕망을 해소해 주는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죽음-재생 과정 속 순환적 인식은 <272>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관찰자로서 등장하는 시적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冤鳥는 살아생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왕(단종)이다. 많은 사설시조가 그러하듯, 이 작품 또한 단종이 유배길에 잠시 들른 자규루에서 지은 한시²¹⁾가 사설시조적 질서로 재편된 것이다. 『금옥총부』에는 ‘端宗大王 寧越淸冷浦 御制’라고 하고서 안민영이 지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작품을 원작인 자규시가 아닌 사설시조로 본다면, 시적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원조’는 이미 현세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왕(단종)이 죽어 재생한 새를 의미한다. 죽어서 새가 되어 帝宮을 날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에 와서도, 하늘 또한 귀머거리인양 이 사연을 모르는데 어찌 시적 화자의 귀에만 그 슬픈 사연이 들리는가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왕(현세: 生)->죽음(死)>원조(현세: 生)’의 순환 과정에서, 한 맺힌 억울함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면서까지 토로되는 것으로 보아, 삶과 죽음이 결코 다른 세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죽음’은 살아생전에 겪은 억울함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3. 生-死의 초월과 현실비판

한편, 사설시조에는 生死가 단절 혹은 연속의 문제를 넘어서 죽음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도구 및 수단으로서 부분 사용되거나 현실비판 수단으로서 차용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시적 화자가 죽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묶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단순히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보조적 수단이자 부수적인 차원에서 ‘죽음’이 활용된 것이어서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면, 후자의 경우는 사설시조 중에서도 당대 현실에 대한 비적 인식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 인식을 보여주므로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자규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一自冤禽出帝宮/孤身隻影碧山中/假眠夜夜眠無假/窮恨年年恨不窮/聲斷曉峯殘月白/血流春谷落花紅/天聲尙未聞哀訴/何乃愁人耳獨聽.(한 마리 슬픈 새 궁전을 나와/외로운 그림자 푸른 산을 헤매네/밤은 가고 또 와도 잠은 늘 못 이루고/해가 오고 가도 쌓이는 원한은 끝이 없구나/새 지저귀도 끊긴 새벽, 남은 달빛은 현대 봄 계곡에 핀 꽃은 피같이 붉구나/하늘은 귀 멀었는가, 슬픈 기도는 듣지 못하고/어찌 수심 깊은 내 귀에만 들려오는고.’).

저 건너 월양바희 우희 밤등마치 부형이 올면
넛스름 니른 말이 놉의 식앗되여 妖怪롭고 邪奇롭고 百般巧邪호는 저문 妾년이 急殺마자 죽는다호데
妾이 對答호되 안해님 호신 말습이 아마도 망녕저의 나눈 일즉 듯조오니 家翁을 薄待호고 妾새음 甚
히 호는 늘근 안히님이 몬져 죽는다 호데. <312>

靑개고리 服疾호여 주근날 밤에
金두텁 花郎이 존호고새남 갈식 靑밧독 거대는 杖鼓 던더러쿵 호는디 黑밧독 典樂이 저 힐니리분다
어디서 山진거북 돌진 가재는 舞鼓를 둥둥 치느니. <353>

신흥스 증놈이 암감골 승년에 머리치 쥐고
암감골 승년니 신흥사 증놈에 상투을 잡고 하나님 전에 등장갈제 杓막손이 육갑 씹고 竊장이는 장초
맛고 안집방니 탁견호고 장안판슈 呑상니세고 병어리는 판결스현다
길아러 목업는 돌부처는 양천디쇼. <218>

우선 위에서는 모두 죽음이 생사의 단절이나 연속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떠나 제시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처첩 갈등을 둘러싸고 서로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키워
드가 소환되기도 하고(<312>), 한 존재의 비극적인 죽음과는 상관없이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
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제시되기도 하는가 하면(<353>), 죽음 이후의 상황 설정을 통해 비현실
적인 존재들의 비현실적인 행동을 통해 기괴한 웃음, 그로테스크한 웃음마저 자아내는 것
(<218>)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작품 속 죽음이 모두 현실비판의 문제와 크고 작게 달아
있다는 점이다. 처첩 갈등은 표면상 한 남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爭寵과 질투의 표현이지만
그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성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심성 표현이기도 하다. 질투를 하면 칠거지악으로서 내쫓김을 당한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요, 聘禮之女인 妻와 野合之女인 妾의 분명한 서열을 잘 인식하는 것이 여성의 미
덕이라 여기던 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횡포 속에서 그간 여성으로
서 감당해 내야 했던 시련들, 여성이기에 당연시되었던 것들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다. 처첩 갈등은 이제 한 쪽에서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되어야 해결될 만큼, 공존불가능한
심각한 일이 된 것이다. 사회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발화 속에서 죽음이 차용된
만큼, 죽음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함께 제시된다.

죽음 자체의 문제를 다룬 <353>은 더더욱 심각하다. 여기에는 슬픈 죽음과 이를 둘러싼 즐
거운 향연이라는 상반된 장면의 독립된 병치가 그로테스크한 웃음을 창출하고 있다.²²⁾ 그로
테스크는 “일그러진 사회 현실과 비인간성을 예술적으로 문학작품에 담아서 그 실제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현실과 연관된 형상화 수단”²³⁾으로 친숙하고 반복적이어야 할
일상의 기표들을 낯설게 만든다. 낯설게 된 일상의 기표들은 텍스트 내 규범어를 뒤집은 반언
어로서, 이들은 서로 파편화되어 텍스트의 내적 질서를 깨뜨리는 동시에 애매성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써 텍스트에 여백을 만들고, 이를 채우려는 독자의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독
자-텍스트 간의 거리감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본 지적²⁴⁾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22) 이 작품은 기생이나 장난꾼의 행상(行喪) 곧 친구끼리 상여를 메고서 풍악치고 춤추며 멧거리 있게
노는 줄무지 놀이를 형상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작품 속 나열된 기호들은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
다. 즉 현실과 환상이 혼재된 공간에서 서로 의미론적 연관성 없이 파편화된 채 낯설게 다가온다.

23) 김용호, 「그로테스크와 희극적인 것」, 『영산논총』16집, 영산대학교, 2006, 181쪽.

24) 박상영,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51쪽.

죽음 자체가 현실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그로테스크한 웃음과 반언어들은 원래의 현실이 뒤집혀진 왜곡된 형태로 텍스트에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반세계의 한 특질을 표상한다. 반세계의 기호체계는 비현실계를 그리면서 동시에 또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실재계가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모순된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한 현실에 대한 비판은 <218>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작품 속 제시된 공간은 사후 세계다. 이 세계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곳으로 기대되는 곳이지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상황과 반언어들의 향연들로 아이러니컬한 상황만 연출될 뿐이다. 중늬, 승년 등의 비하적 발언에서부터 승려 계층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읽을 수 있고, 실제 있지도 않을 상투와 머리채를 잡고 가는 이들의 상황 설정 또한 매우 비현실적이며, 비정상적인 기호들이 누가 옳고 그런지의 판결을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불구자(장애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판단들 또한 비현실적이다. 이는 결국 현실의 문제가 사후 하느님 전 앞에서까지 해결될 수 없음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황당한 상황은 크게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그것조차 ‘목 없는 돌부처’가 ‘양천대소’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 속에서 제시되면서, 작품 전체가 모두 비판적 의미를 함의하게 된다.

여기서 사후 공간은 반언어가 존재하는 반세계의 표상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곳이자 현실 문제를 해결도 못하는 곳으로 등장한다. 반언어들로 가득한 반세계의 표상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시적 화자가 처한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일상이 더 이상 조화로운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준다. 시적 화자가 처한 일상은 이제 파편화되고 부서져 있는 당대의 모순으로 가득한 삶일 뿐이며, 현실보다는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후 공간 역시, 단지 헛된 꿈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시선의 지층들 틈으로 발견되는 죽음 인식의 시학적 의미

지금까지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그것의 텍스트적 기능을 일별해 보았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죽음의 양상은 사설시조에서만 발견되는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우리의 고대가요 <공무도하가>에서는, 사랑하는 임을 상실한 후 남겨진 자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하는 문제 앞에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 대신 사랑하는 이를 따라 죽겠다는 선택을 한 죽음이 있었고, 왕비 송씨의 죽음 이후 맞이한 두 계실 간의 갈등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고구려 유리왕의 슬픔도 죽음과 상실의 문제 속에서 드러나며(<황조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림 없이 도를 닦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영재 우적의 마음도 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문제와 연관 있다(<우적가>). 또 사모하거나 추모하던 화랑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애잔한 마음을 표현한 낭도의 쓸쓸함 속에 비친 죽음의 문제(<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등 고대가요에서 향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가사적 흐름 속에서 죽음은 결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이후에 등장하는 국문시가 갈래인 고려속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얼어 죽을만정 댓잎 자리보아 임과 영원히 살고픈 바람을 담은 <만전춘별사> 속 여인에게 있어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바람을 표현하고자 동원된 것이며,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 가능할 때여야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죽음)을 상상하겠다는 <정석가> 속 죽음은, 오히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넉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고 외치던 이의 배신이 뼈에 사무칠만큼 한스러움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정과정>에서의 ‘죽음’은, 삶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를 어긴 군주에 대한 원망의 정서는 독자들에게도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

기도 한다. 때때로 벼락 맞아 무간지옥에 떨어져 바로 죽을지라도 절대 다른 입을 따르지 않고 맹세코 사랑하는 임만을 굶은 날씨에도 한없이 기다리겠다는 <이상곡> 속 여인에게 있어 ‘죽음’은 비록 이승과는 다른 단절된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래도 <정석가>, <만전춘별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를 놓지 않겠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단어나 의미가 분명치는 않아도 사랑하는 이의 부재가 남겨진 이에게 죽음에 맞먹는 느낌을 주는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등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관한 흔적은 이후 시조, 가사에 오면서도 종종 발견될 뿐만 아니라 고전시가를 넘어 고전 서사에서도 단골로 발견되는 주제이다. <운영전>, <숙영낭자전>, <삼한습유>, <주생전>, <심생전>, <유씨삼대록> 등에서 보듯, 자기 의지나 사랑,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직, 간접적인 자결을 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²⁵⁾, 야담 속에서도 이승과 저승의 관계 속 이 둘이 단절된다는 믿음이나 단절되어야만 한다는 소망을 담은 죽음 서사가 상당수 발견된다.²⁶⁾

이처럼 죽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 자기 안에 은폐된 죽음의 관념이나 공포 상념을 들추어내고 자기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찾고 길을 넓히고 마침내 그 길에 익숙해지는 죽음 명상을 통해 죽음을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²⁷⁾이다. 즉, 자신의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준비는 물론 타자의 죽음을 통해 현재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사설시조 속 죽음의 흔적 찾기가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해학, 웃음, 골계 등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학적 의미 발견을 넘어서, 이와는 대척되는 지점에서 비극성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금까지 사설시조를 관통하는 핵심 미학은 웃음/해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조선 후기 미의식의 변화상(송고, 우아미-->골계미)과 더불어 더욱 공고해졌고, 이에 풍류방이라는 연행 현장적 특성까지 가미되어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해 왔다. 즉, 연행 환경이 즐겁고 오락적인 분위기였을 거라는 대전제는, 실제 이 작품의 미의식까지 그와 같은 것의 일변도로 단정 짓게 하는 동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가벼움, 오락성, 유희가 충만한 곳에 진지함은 있기 어렵다거나, 그렇기에 더욱더욱 근대가 담보하는 ‘진지함’과의 관련성을 논할 수 없다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이와 관련해 사설시조의 미적 특성에 대한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가 갈무리된 바 있지만²⁸⁾, 여전히 이는 이 방면 연구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작품이 연행되던 환경이 비록 유희와 오락이 충만한 자리였다고 해서, 그 노랫말 자체에 (희)비극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예로부터 향기로운 술과 멋진 음식, 美人들의 가무가 함께하는 유희의 자리에서도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가 오가기도 했고, 현재의 즐거움을 논하면서도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환도 함께 멋들어지게 풀어내곤 했던 것이 바로 놀이판이 갖는 성격이자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사설시조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죽음 인식 층위는 지금껏 사설시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새롭게 볼 가능성을 열어준다.

가벼움 속에도 진지함이 있고, 진지함 속에서도 가벼움이 발견되는 것이 놀이판이다. 즐거움 속에서도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서도 해학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네 문학이다. 그래서 일찍이 김대행 교수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와 같은 멋진 표현으로 한국 시가의 한 특질을 제시하기도 했다.²⁹⁾ 그런 점에서 사설시조 속 발견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층위는, 단순히 이 같

25) 정선희, 「고전소설에서 죽음을 선택한 여성의 감정과 반응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145쪽.

26) 이강옥, 「야담 속에 나타난 죽음서사의 양상과 죽음명상 텍스트로의 활용」, 『고전문학연구』54집, 한국고전문학회, 2018, 247~283쪽.

27) 이강옥, 위의 논문, 278쪽.

28) 박상영, 「사설시조의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사설시조의 맛과 멋』, 지성인, 2019, 233~264쪽.

래를 ‘해학, 웃음, 골계=가벼움’으로 등식화해 온 그간의 연구에 반성적인 물음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웃음 이면에도 진지함이, 또 그 웃음 안에서도 ‘눈물’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새로운 미학적 의미 발견 외에도, 사설시조 속 죽음에 대한 인식 층위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유가-도가의 생사관과 연결되는 지점을 통해, 거시적으로 한국시가 전체에서 발견되는 유가적 현실과 도가적 초월에 대한 나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작품에서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본 관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동경, 기대감이 ‘무한성’과 더불어 도가적 초월의 모습으로 새겨졌다면(긍정성), 생사를 단절로 인식한 경우에는, 유한성과 더불어 유가적 인식이 새겨짐으로써 사후의 삶을 부정하는 면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부정성).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사를 단절이 아닌 연속된 것으로 인식하는 도가적 사유를 보여준다고 해서, 늘 긍정적인 감성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죽음’과 관련해서는 표면상 드러나는 긍정의 감성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거부’, ‘초월 의지’ 등이 애잔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가적 사유를 잘 보여준 도연명에 대한 기존의 지적들을 한번 살펴볼 만하다. “도연명을 거론하면 많은 사람들이 곧장 술과 田園을 사랑하는 시인으로 대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모습을 떠올릴 것이나 그의 문학작품 내면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³⁰⁾는 것이나, 실제로 그의 시 작품 134편 가운데 1/4이 넘는 34편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니와,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죽음’이 뇌리를 떠나지 않아 “편마다 죽음이 있으므로”, ‘죽음을 읊은 시인’이라 불러도 좋다고 여기기까지 한다는 지적³¹⁾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곧 표면상 보이는 탈속적 경지의 긍정적인 감성과 그 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비극의 감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나아가 사설시조의 표면상 드러나는 유희, 향락, 현세 초월 등의 긍정적 감성 이면에, 그러한 현세적 삶에 대한 성찰로 그 대척 지점에 있는 ‘죽음’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자리함으로써, 사설시조의 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한편, 사설시조 속 생사를 단절로 인식한 경우는 유가적 사유와의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도가에서뿐만 아니라 유가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생사관에 대한 논쟁은 치열했다. 즉 氣의 聚散을 ‘生死’로 인식했기에, 조선의 경우에도 많은 유자들이 이러한 유가의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김시습은 「生死說」³²⁾에서 관련 논의를 펼친 바 있고, 이후 조선 중기에는 서경덕이 「鬼神死生論」에서 관련 논의를 펼친 바 있다. 즉 “氣는 흩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송대의 주희, 정이천의 ‘사생귀신론’을 비판했던 것이다.³³⁾ 이에 대한 반론으로, 조선 중기 이항의 제자인 조호익은 「題徐花潭鬼神死生論後」에서,³⁴⁾ 이구는 「書徐花潭鬼神死生論後」³⁵⁾에서 각각 서경덕의 기론 중심의 사생론은 程頤와 주자의 학설에 입각해 타당치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이천, 주자, 이항으로 이어지는 신유학의 이기론적 사생관과 장재, 김시습, 서경덕으로 이

29)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 한국 언어문화의 한 특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110쪽.

30) ‘陶潛總不能超于塵世, 而且, 于朝政還是留心, 也不能忘掉‘死’, 這是他詩文中時時提起的. 用別一種看法研究起來 恐怕也會成一個和舊說不同的人物罷(魯迅, 『魯迅全集』3 《而已集》,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 538~539쪽).

31) 大地武雄, <陶淵明の死生觀について>, 『日本中國學會報』43집, 90쪽, 101쪽(양희석, 「고전시가를 통하여 본 고대 중국인의 생사관과 그 문학적 역할」, 『중국문학』69집, 한국중국어학회, 2011, 12쪽에서 재인용).

32) 김시습, 『매월당문집』20권, 「生死說」.

33) 서경덕, 『화담선생문집』2권, 「鬼神死生論」.

34) 조호익, 『지산집』5권, 「題徐花潭鬼神死生論後」.

35) 이 구, 『활재선생문집』4권, 「書徐花潭鬼神死生論後」.

어지는 이론적 사색관에는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후 이황 계열의 理를 중시하는 전자의 사색관은 조선 후기까지 계승되기도 했다. 박윤목은 「死生論」³⁶⁾에서,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낮밤과 같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듯이 자연의 조화라고 했다. 때문에 반드시 삶에 묶일 것도 없고 죽음에 공허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 모든 것은 天命이 알 뿐이며, 天命에 순종하는 죽음이 올바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좋음과 나쁨은 감각에 기초해 있고, 죽음은 감각을 박탈해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나쁜 것들 중 최악인 죽음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으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⁷⁾고 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사실 죽음은 서양 고대철학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 이는 ‘불멸(영원성)’의 관점에서 고찰된 것으로 영혼, 구원, 영생, 초월, 절대성 등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변주해 냈지만,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영원불멸, 무한성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을 규정하던 시선이 그 힘을 상실하면서 ‘무상성(Vergänglichkeit)’의 관념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³⁸⁾이다. 비록 사설시조가 성행하던 18세기적 상황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서양사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던 19세기적 상황과 일대일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분명, 항상성에서 무상성으로 변모되어 가던 시대적 흐름의 한 단면을 고민해 볼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즉, 사설시조의 여러 작품 중 현세 중심의 유희적, 향락적인 인식의 작품들(소위 ‘노세류’)은 바로 항상성에서 무상성으로 이어지던 세계사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을 단절로 인식하던 층위는 그 이전 고대가요에서도 발견되던 바이지만, 이 시기에 오면서, 이제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이를 ‘놀이’와 ‘유희’으로 풀어내려 한 지점들은 분명 같은 삶-죽음의 단절 인식이라도 소소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삶이 어느 시대나 있던 것이고, 죽음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나 있던 것이라면, 그러한 인간사가 반영된 시가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층위 또한 동일할 법한데 실상, 제시된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 주목해 볼 문학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설시조 속 죽음의 인식 층위를 고찰해 보는 것이 의미를 갖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에로티시즘’과의 연결 가능성이다. 일찍이 바타유는 모든 필멸하는 개체(불연속적 존재)는 불멸, 영원, 전체의 의미에서의 연속성을 염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염원은 곧 소멸성-영원성 간의 관계에서 후자의 연속성에 참여하려는 강한 생의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연속성은 불연속성을 파괴하는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기에, 연속성에 대한 강한 열망은 이미 죽음마저 초월해버리는 무서운 광적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바타유는 일찍이 “에로티즘, 그것은 죽음까지 인정하는 삶(l’approbation de la vie jusquedans la mort)”³⁹⁾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에로티즘이 번식이라는 생의 본능과만 직접적으로 결부된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죽음의 문제까지 내포하는 것이라는 관점⁴⁰⁾을

36) 박윤목, 『존재집』24권, 「死生論」.

37) Epicurus, “Letter to Menoeceus,” in W. J. Oates (ed.), *The Stoic and Epicurean Philosophers*, New York: Free Press, 1940, 31쪽.

38) 발터 슈츠,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죽음의 철학』(정동호 외 편), 청람, 1997, 33쪽; 김정현, 「현대에서 죽음의 의미」, 『열린정신인문학연구』15집,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77~100쪽 참조.

39) 바타유, 『에로티즘』(조한경 옮김), 민음사, 2009, 11쪽.

40) 김효영, 「바타유의 ‘에로티즘’개념에서 ‘죽음의 의미」, 『프랑스문화연구』45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20, 33쪽.

제시한 것이다. 사설시조 속에서 보이는 성에 대한 묘사 및 성적인 것의 욕망 발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크게 대담한 여성의 성적 표현의 발현으로 이해하거나, 남성의 대리자 혹은 꼭두각시로서의 여성의 실제 등으로 해석해 왔거나 간에 모두 ‘현재, 여기,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좀 더 고구해 볼 일이지만, 이제 삶의 문제 너머 다루어야 할 죽음의 문제는 곧 이러한 에로티시즘 역시 삶 이면에 있는 죽음의 문제와 연결지어 논의해 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고전시가 미학사에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4. 결론-삶과 죽음, 그 일상-비일상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까지 사설시조 속 죽음에 대한 인식의 층위와 그것이 갖는 시가사적 함의를 한번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크게 ①삶과 죽음을 단절로 인식하는 경우, ②연속적으로 인식하여 현세적 삶을 사후에까지 잇고자 하는 경우, ③이러한 문제를 초월해 현실비판 의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다. ①은 다시 죽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슬픈 감정을 즉자적으로 토로하는 경우와 죽음 거부의 일환으로 현세 유희적 측면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면, ②는 현실계의 연장선인 理界가 제시되는 가운데 죽음 인식이 드러나는 경우(공간적 측면에서의 순환적 인식)와 죽음-재생의 순환 구조 속 生死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경우(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순환적 인식)가 있었고, ③은 죽음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보조적 수단이거나 반언어, 그로테스트 등 주요 미적 개념과 함께 현실비판 수단으로 차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설시조 속 이들 죽음에 관한 흔적은, 고대가요, 향가, 고려속요 등 그 이전 시기의 시가에서도 파편화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야담, 소설 등 서사 문학의 전통에서도 다양하게 발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설시조 속 죽음 인식에 관한 흔적 찾기가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 갈래의 핵심 미학인, 해학, 웃음, 골계 등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감(美感) 너머로, 그와는 대척되는 지점에 선 비극성의 관점을 한번 들여다볼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상반된 인식이, 현세적 삶과의 연속 혹은 단절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도가적 초월이나, 유가적 현실 인식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고, 나아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설시조 연구에서 오랜 핵심 논쟁거리이기도 한 에로티시즘의 문제를 ‘삶의 문제 영역’이 아닌 ‘죽음’의 문제 속에서 볼 가능성도 아울러 제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은 이제 ‘well-being’의 문제를 넘어 ‘well-dying’의 문제로 접어들었고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사회사적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현재적 삶에서 우리가 맺어온 모든 관계가 단절되며, 인간 행동의 모든 가능성이 남김없이 부서짐으로써 그동안 유지해 온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비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것에 대한 상상 자체는 두려움과 공포, 불안 등의 감정을 몰고 온다. 삶이 존재하는 ‘일상’과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이 존재하는 ‘비일상’의 공간은 서로 만날 수 없는 대척 지점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상-비일상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많은 이들이 비일상의 공간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일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면서 사후 세계에서 평온한 삶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삶과 죽음, 일상-비일상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를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비일상적 공간에 속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상적 ‘삶’을 허망하게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사후 완벽한 세계를 보장받

왔다는 믿음 속에서 현재적 '삶'을 의미없이 보내서도 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마주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이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고전시가 속 죽음의 시가미학사적 문제와 더불어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고전시가 속 죽음의 미학사의 궤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곧 일반 민중들의 죽음 인식을 넘어서 권력자들의 죽음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일상-비일상, 미시사-거시사의 경계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미셸 푸코는 “오랫동안 군주의 권력을 특징짓는 특권의 하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죽음에 대한 문제는 비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민중들에게 뿐만 아니라 막대한 권력을 지녔던 군주에게도 엄청난 화두였음을 의미한다. 시간과 지면상, 이 모든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박상영 선생님의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一面」에 대한 토론문

김성문(중앙대 국어국문학과)

박상영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설시조에 대해 오랜 시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사설시조 전문가이시지요. 선생님의 글들을 보노라면 항상 적절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이번 발표문을 보면서 사설시조가 갖는 다양한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계기로 저도 사설시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몇 가지 여쭙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몇 년 전에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국어국문학』183, 국어국문학회, 2018)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 발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설시조를 공부하면서 ‘장애’나 ‘죽음’의 키워드를 포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설시조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이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장애’에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주제 라인이 참 신선하게 와 닿습니다. “한 갈래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된 정감 및 특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주변적인 美感을 살피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는 것 또한 의미가 깊을 것이기 때문이다.”(2쪽)라고 한 견해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음 살펴본 사설시조의 ‘一面’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일면을 고찰한 본 발표문은 “고전시가 전체를 관통하는 죽음학, 생사학의 시가미학사적 토대 작업이 되기도 할 것이다.”(3쪽)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매우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상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2.1. 生-死의 단절과 현세향유”의 설정과 관련해서 ‘단절’과 ‘현세향유’ 사이 위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시적 화자가 죽음을 ‘삶’, ‘현세’, ‘이승’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단절’로 명명하여 살피고자 한 것이라면 인식의 양상은 ‘단절’이라 할 수 있고, ‘현세향유’는 단절의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단절’이 다시 ‘수용(죽음의 극복 의지를 보이는 대신 받아들이는)’과 ‘현세향유’로 나뉠 수 있는 것이라면 “生-死의 단절: 수용과 현세향유(저항)”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요? (‘수용’이란 용어는 선생님께서 4쪽에서 사용한 ‘저항’에 대응되는 뜻으로 편의상 사용했는데, 이 상황에 적합한 표현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작품 <241>(7~8쪽)을 “현실 속 결핍된 욕망을 해소해 주는 장치”라고 보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272>의 경우에는 “‘죽음’은 살아생전에 겪은 억울함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 역시 앞의 <241>과 같이 (죽어) 새라도 되어서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서 앞의 현실 속 결핍된 욕망을 해소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 논의가 갖는 각별한 가치는 지금껏 웃음(해학), 가벼움, 오락성, 유희 등의 관점에서만 주로 다루어지던 사설시조에 대한 관심과 연구 태두리를 벗어나서 사설시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죽음’의 一面」에 대한 토론문에 대한 답변

박상영(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우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실 텐데, 본 발표문을 꼼꼼하게 읽고 질의해 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조 문학, 특히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해 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해결된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지점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생님의 질문들은 그러한 점을 다방면으로 짚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사설시조의 ‘一面’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전에 논의한 바 있는 ‘사설시조 속 장애’의 한 측면과 이번에 살펴본 ‘죽음’의 한 측면이 사실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장애’가 있으면 ‘죽음’으로 연결되거나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비슷한 美感을 제시할 것 같지만, 실제 작품을 보면, ‘장애’ 관련 작품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층위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작품이 ‘장애’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장애’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현 상황 속 불편함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장애’의 문제보다는 ‘탄로(늡음)’와 관련된 것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월의 흐름이라는 시간적 변화 속에서 ‘젊음-늡음’의 이원적 구도가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한 어떤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용한 ‘一面’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개념사적 층위에서 사설시조의 한 측면을 밝혀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설시조의 ‘一面’에 대한 계획은, 여성(젠더의 문제), 아이, 풍류, 웃음, 장애, 혐오,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결과물이 ‘사설시조의 맛과 멋’이라는 저서로 얼마 전에 갈무리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지점들도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해서 좀더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설시조 작품 자체에서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장애와 죽음의 관계가 다른 고전시가 작품에서는 충분히 발견되기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결론 부분에 잠깐 언급했지만, 사설시조에서 보이는 성애적 표현이 지금까지는 에로티시즘, ‘삶’의 문제 속에서만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분명, ‘죽음’의 측면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설시조 속 에로티시즘과 죽음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혹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향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2. 1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또 “고전시가 전체를 관통하는 죽음학, 생사학의 시가미학사적 토대 작업”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 역량 상 단시간에 해결하고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고전시가 연구에서, 시가문학 전체를 하나로 꿰는 죽음학, 생사학의 시가미학사적 논의가 없었기도 하고, 이에 대한 관심 또

한 일천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방법론적 접근부터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삶과 죽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는데, 너무 '종교'와 관련된 갈래와만 그 연관성이 논의된 감이 있다는 연구사적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고전시가 연구에서는 향가 또는 불교 가사 및 불교계 경기체가 등에 대해서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온 감이 크고, 여타 갈래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항상 '종교'와 결부되는 지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특정 갈래에 너무 특정 주제를 한정지어 오거나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학, 생사학의 시가미학사적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는, '죽음'이 가시적인 죽음(신체적 죽음)만이 아닌 '인식적 차원에서의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념사적 통찰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관련해서 혹 새로운 의견이 있어서 알려주시면 향후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生-死의 단절과 현세향유”의 설정과 관련해서 '단절'과 '현세향유' 사이 위상에는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생사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단절'이고, 현세 향유는 단절의 하위 유형으로 이해하셨는데, 저는 '단절'과 '현세 향유'가 과연 상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죽음을 '삶', '현세', '이승'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기에, 오히려 사후의 삶을 생각지 않고 현세를 즐기자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세 향유'는, '단절'의 하위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적 화자가 생사를 단절로 이해한 결과론적 행위로 제시된 것이어서 오히려 '원인(이유)-결과'의 관계로 해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제시한 '수용과 현세향유'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면서 제목 상, 다른 장들과의 통일성을 위해 '현세 향유'만 제시를 했습니다만, 주신 의견도 논문을 가다듬을 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272>의 작품 해석에 대한 부연 설명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제가 해당 작품에서, “‘죽음’은 살아생전에 겪은 억울함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 것은, 발표문에도 서술했듯이, 관찰자인 시적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冤鳥'는, 살아생전에도 억울함이 가득한 존재였는데, 죽어 재생한 새가 되어서도 그 억울함을 여전히 토로하는 상황이니, 한 맺힌 억울함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면서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서술하였습니다. 작품 해석은 논자들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과연 '원조'의 억울함이 토로되었다고 하여, 이 자체를 '욕망 결핍의 해소'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면, '알림' 그 자체에 이미 '욕망 결핍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으로는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완전한 해소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의견 주시면 향후 논문을 다듬을 시, 참고해 보도록 하지요.

다시 한번 더, 본 발표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

김지은(중앙대)

1. 들어가기
2. 웹툰에 드러난 시문학 개념의 교육적 효과
3. 시의 함축적 의미와 웹툰의 인물형상화
4. 고전시가 활용을 통한 '사극로맨스' 장르의 강화
5. 나가기 : <별안간 아씨>에 수용된 고전시가의 의미

1. 들어가기

바야흐로 디지털의 시대이고 웹툰의 시대이다. 이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로 살아 가고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디지털 스토리와 그에 따른 매체 전략 수립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가운데 웹툰의 소구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은 그 시대적 · 향유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날이 갈수록 발전과 진화를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웹툰이 본격적인 대중문화 예술의 반열에 오르면서 그저 웹(web)상에서 즐기는 단순한 '만화'의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위상과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에 걸맞은 서사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렇듯 가장 현대적이고 디지털 세대를 반영하는 웹툰 서사의 이야기 방식과 소재의 근원을 아이러니하게도 고전콘텐츠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고전문학에서 옛이야기나 고소설 등을 모티프로 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웹툰 <계룡선녀전>의 경우에도 우리 고전 이야기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변형하여 웹툰으로 재생산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고전소설이나 옛이야기를 웹툰에 접목시키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시가의 영역은 아직까지 웹툰과의 융합과 그 활용에 있어서 유효성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고전시가를 웹툰과 융합한 작품은 현재까지는 <가담항설>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⁴¹⁾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별안간 아씨>라는 작품에 주목한다. 이 작품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전시가⁴²⁾의 많은 작품들을 웹툰에 전격적으로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현재까지 생산된 수많은 웹툰 중에 연구자가 아직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고전시가를 활용한 웹툰이 희소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42) 본 연구의 대상인 웹툰 <별안간 아씨>에는 모두 9편의 古典詩가 등장한다. 이들 중 1수만 시조이고 나머지 8수는 모두 한시 장르이므로 양적으로 한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시는 시가라고 부르기에 적절치 않은 까닭에 이 논문의 제목을 '웹툰 <별안간 아씨>에 나타난 古典詩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 또는 '웹툰 <별안간 아씨>에 나타난 漢詩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詩歌인 시조작품도 비록 1수에 지나지 않지만 삽입되어 있기에 통칭하여 古典詩歌라고 지칭하기

전술한 바대로 고전시를 활용한 웹소설이나 웹툰 작품이 희소하다는 점을 인식할 때 디지털 서사물에서 고전시를 차용·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석 및 연구의 가치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별안간 아씨>에서는 전체 연재 편수(50화)를 고려할 때 고전시를 무려 아홉 편이나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에서 고전시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무수히 많은 고전시가 가운데 어떠한 작품들이 웹툰 <별안간 아씨>에 수용되었는지를 우선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시가들이 웹툰 서사 속에서 활용되고 기능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웹툰 <별안간 아씨>의 작가는 서자영으로 전형적인 사극 로맨스 웹툰이다. 同名의 웹소설 <별안간 아씨>를 웹툰화한 것으로 제1화인 <노비와 서자>가 2019년 2월 23일 카카오페이지에 올라왔다. 이후 매주 토요일에 1화씩 업로드 되다가 2019년 10월 26일 총 50화로 완결되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덕이’로 신분은 노비이다. 노비로 태어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할 만큼 늘 신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항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다가 자신이 모시는 도련님 강형수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된다. 더 이상 노비로 살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도 노비가 아닌 양반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강렬한 유혹에 덕이는 그만 강형수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안은 君臣간의 정치적 알력에 의한 희생양이 되는 것으로 노비에서 양반댁 아씨로 신분을 세탁, 위장하는 다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본작의 남주인공인 강형수는 아버지는 재상이지만 어머니가 옥루각 기생이기 때문에 자신은 서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 운명의 멍에로 인한 좌절감은 웹툰 서사 전체를 지배할 만큼 곳곳에 드러난다.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좌절과 비애를 늘 절감하며 갈등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덕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을 통해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임금인 ‘이산(정조)’과 결탁해 ‘庶孽許通’을 반대하는 정치세력 가문에 덕이를 정경부인으로 시집보내려는 계획에 덕이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덕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랑을 택하는 전형적인 사극로맨스 장르라고 할 수 있다.

2. 웹툰에 드러난 시문학 개념의 교육적 효과

기실 고전시를 웹툰 속에 단순삽입하고 차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고전시를 디지털서사 속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제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웹툰 <별안간 아씨>에는 시조 1수와 한시 8수로 비교적 많은 수의 고전시가들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시 작품을 삽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작가와 제목, 그리고 그 시를 지은 상황이나 작가에 대한 평가까지도 인물의 대사를 빌려 설명하고 있다.⁴³⁾

로 함을 밝혀 둔다.

43) 후술하겠지만 이규보의 시 <맨드라미>를 설명할 때에는 ‘고려시대 이규보라는 문인이자 대단한 문장가의 시다.’라고 작가를 평가한다거나(웹툰 제30화) 조휘의 한시 <戲贈燕京面紗美人>에서는 ‘조휘라는 이가 길 가는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 흰 부채에 적어준 시’라고 작품이 지어진 내력까지도 부연하

이는 작가가 고전시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시 작가들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시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 뿐 만 아니라 원문을 함께 실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작가가 고전시를 대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특히 웹툰 <별안간 아씨>에서 주목할 점은 시문학이 지니는 기본적인 문학의 개념을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쉽고 간결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이는 시를 채택하여 삽입함으로써 얻어지는 단순 효과를 넘어선 교육적인 측면을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다.⁴⁴⁾ 후술하겠지만 ‘시의 정의’, ‘시의 표현법’, ‘시의 감상 방법’까지 시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역시 웹툰 속에서 각 인물들이 처한 상황 및 대화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매우 영리하게 처리하고 있다. 남주인공 강형수는 노비인 덕이를 양반댁 아씨로 신분 세탁 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덕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웹툰 독자들마저 그 교육 대상의 영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한다. 주지하다시피 웹툰이 킬러콘텐츠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는 쾌락적 기능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다. 따라서 시문학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고 따분하다면 곤란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쉽고 간결하게 구성한다. 그러면서도 이론 설명의 과정과 내용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차적으로 고전시를 단순히 ‘낡은 옛것’으로 간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전시가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한다. 동시에 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밝혀줌으로써 시에 대한 낯설음에서 친숙함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웹툰 <별안간 아씨>에서 활용된 고전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삽입화	시	지은이	장르
1	13화	민극(悶極)	김시습	한시
2	13화	내마음 베어내어	정철	시조
3	13화	몽(夢)	황진이	한시
4	25화	안변성루(安邊城樓)	정몽주	한시
5	30화	맨드라미(雞冠花)	이규보	한시
6	30화	접시꽃(蜀葵花)	최치원	한시
7	34화	희증연경면사미인(戲贈燕京面紗美人)	조휘	한시
8	35화	대인걸화(代人乞花)	이익	한시
9	39화	무제(無題)	임제	한시

【표1】 웹툰 <별안간 아씨>에 수용된 시작품

고 있다.(웹툰 제34화)
 44) 웹툰은 다양한 시대와 사회를 현실적으로 담고 있어, 이를 교과와 연계하여 보다 풍성한 맥락적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웹툰의 스토리를 교육적으로 연계하려는 연구들, 웹툰 ‘바리공주’를 한국어 문화교육에 연계, 웹툰 ‘실’을 통해 문학적 기능과 문학교육, 전통문화의 교육 자료로서 ‘신과 함께’에 반영된 저승관을 연계한 연구 등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웹툰에 녹여져 있는 시대적 배경이나 서사체, 문화 등을 교육 자료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설연경, 「웹툰(Webtoon)의 교육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2020, 514쪽.)

1) 시란 무엇인가

웹툰 <별안간 아씨> 제13화에 처음으로 고전시가 소개된다. 13화의 부제가 ‘시 공부’로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웹툰의 내용도 강형수가 덕이를 교육하는 장면들이 그려진다. 강형수는 자신의 노비인 덕이를 양반집 아씨로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덕이의 걸모습부터 글쓰기와 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웹툰의 전반부에 걸쳐 펼쳐진다. 강형수는 덕이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글쓰기를 전혀 못하는 덕이에게 ‘그럼 시 외우기는 어떻겠느냐?’라고 물으며 처음으로 아래의 시를 읊어준다.

花是山中曆	꽃은 산 속의 달력이요
風爲靜裏賓	바람은 고요 속의 손님일세.
恨無沽酒債	한스럽기는 술 사올 돈이 없고
又欠過牆隣	담 너머 불러올 이웃도 없네.
竹塢涼吹急	대숲 언덕에 찬바람 불어오고
松窓月色新	솔 숲 사이 창으론 달빛이 새롭네.
閑吟聊遣寂	한가로이 노래하며 고요함을 즐기노니
箇是道中人	이게 도를 안다는 사람이라. ⁴⁵⁾

강형수 : ‘민국’이라는 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짧은 글로 쓰는 것이 ‘시’라는 것이다.

덕이 : 이것이 시...⁴⁶⁾

13화에서는 위의 시가 원문과 함께 우리말로 번역된 시 전문이 등장한다. 난생 처음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노비 덕이에게 ‘시 공부’에 대한 첫 입문으로 김시습의 한시 ‘민국’을 들려준다. 그러면서 ‘시란 자신의 마음을 짧은 글로 쓰는 것’이라고 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밝혀준다. 실제로 이 정의에 입각해 <민국>이라는 시를 감상해보면 화자의 감정을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한시만이 지니는 까다로운 형식 등은 보류하고 자신의 솔직하고 담담한 감정을 짧은 글로 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그것이 한시이든 시조이든 장르와 상관없이 시가 지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성격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13화에서는 <민국> 외에도 또 다른 시들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정철의 시조인 ‘내 마음 베어내어’인데 앞서 <민국>이라는 시를 통해서 시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시의 표현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시의 표현방법

45) 웹툰 <별안간 아씨> 13화에 삽입된 시, 김시습, <민국>,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고전시가들은 웹툰 작품 속에 인용된 시 형태 그대로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46) 웹툰 <별안간 아씨> 13화, 덕이와 강형수의 대화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⁴⁷⁾

덕이 : 마...마음을 베어서 달을 만든다구요? 세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강형수 : 이건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로 표현한 것이지.”

덕이 : 어렵습니다.⁴⁸⁾

위의 시조를 매개로 한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강형수는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곧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덕이에게는 여전히 시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모양새다. 이에 강형수는 또 한편의 시를 예로 들어 덕이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때 활용되는 시가 다음에 제시되는 황진이의 한시인 ‘夢’이라는 작품이다.

그리운 그대를 만날 길은 꿈밖에 없는데
내가 그대를 찾아가면 그대 나를 찾아 떠났네.
바라건대 다른 날 꿈 속에 아득히 한시에 출발해서
오가는 길에 만나기를.⁴⁹⁾

덕이 : “이 시도 임과 나는 떨어져 있네요? 나도 임을 찾아 떠나고 임도 나를 찾아왔는데 왜 못만난 겁니까?”

강형수 : 길이 엇갈려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엔 엇갈리지 않고 만나지길 바라는 것이다.”

덕이 : “그렇구나!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거 또 있습니까?”

강형수 : 글쓰기보다 재밌나보구나. 좋다, 다 외우면 상을 주마....”⁵⁰⁾

황진이의 시를 통해서 덕이는 비로소 시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시가 지닌 매력에 몰입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정철의 시조까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어렵다고 느꼈지만 황진이의 ‘夢’이라는 작품을 접하면서는 ‘이게 더 좋다’, ‘이런 거 또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덕이는 시의 표현방법인 비유하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특히 덕이에게 이 시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해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덕이와 강형수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47) 웹툰 <별안간 아씨> 13화에 삽입된 시, 정철, <내 마음 베어내어>

48) 웹툰 <별안간 아씨> 13화, 덕이와 강형수의 대화

49) 웹툰 <별안간 아씨> 13화에 삽입된 시, 황진이, <夢>, 원문과 함께 실린 것이 아니라 번역본만 삽입.

相思相見只憑夢
儂訪歡時歡訪儂
願使遙遙他夜夢
一時同作路中逢

50) 웹툰 <별안간 아씨> 13화, 덕이와 강형수의 대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위 시의 내용처럼 다시 만나지기를 희망하는 주인공들의 간절한 염원 및 이야기의 결말을 암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덕이의 시에 대한 관심적 태도는 계속해서 발전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3) 시의 감상방법

웹툰 제25화에서는 노비인 덕이가 그동안의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양반집 규수의 모습을 갖추게 되자 이 모든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임금 앞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온다. 임금이 덕이에게 붓을 주며 좋아하는 시를 한 수 적어보라고 하자 덕이는 자신 있게 다음의 시를 적어 보인다.

돌아가고픈 마음 아득히 먼 하늘에 뻗었는데
만 리 밖 누에 오르니 바람만 모자 가득
이 몸 정처 없음 이미 믿고 있었으니
내년엔 어디에서 가을 기러기 소리 들으려나⁵¹⁾

임금 : 이것은 포은의 시가 아니냐.

덕이 :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시라서 외웠습니다.

임금 :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이더냐?

덕이 : 감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왜 꼭 정해진 대로 해석해야 합니까?

임금 :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그리워하며 쓴 시인지 아느냐 말이다.

덕이 : 모르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옵니까?

임금 : 뭐라?

덕이 :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 누가 썼느냐 왜 썼느냐보다 읽는 이에게 어찌 읽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글이라는 것은 한 번 쓰이고 나면 더 이상 글을 쓴 자의 것이 아니라 읽는 자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었습니다. 제겐 그리 읽혔습니다.⁵²⁾

위에 제시된 시는 정몽주의 <안변성루>라는 한시이다. 이어지는 임금과 덕이와의 대화는 시의 감상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덕이는 시의 감상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정해진 대로 해석해야 하는 현실의 교육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상정함으로써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더 이상 작가의 것이 아닌 독자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문학 감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가는 웹툰 독자들에게 고전문학은 물론이고 현대에 이르는 웹툰 문학⁵³⁾까지도 자유롭게 감상하는 방법을 던지시 우회적으로 제시

51) 웹툰 <별안간 아씨> 25화에 삽입된 시, 정몽주, <안변성루>, 웹툰 상에는 번역본만 삽입.

歸心杳杳入長空
萬里登樓滿帽風
已信此身無定止
明年何處聽秋鴻

52) 웹툰 <별안간 아씨> 25화, 덕이와 임금의 대화

53) 한명숙은 웹툰이 21세기 독자들에게 문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웹툰의

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시문학, 더군다나 고전시가 문학은 서사나 옛이야기보다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가는 강형수라는 인물이 덕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련의 ‘시 공부’의 형식을 빌려 시의 개념, 시의 표현방법, 시의 감상법을 단계별로 웹툰 속에 다양한 고전시들을 채택·활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작가의 의도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웹툰 속 ‘덕이’라는 작중 인물만을 교육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적 감수성이 매마른 현대의 대중들 - 즉, 또 다른 ‘덕이’로 표상되는 웹툰의 독자·향유층까지도 포괄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3. 시의 함축적 의미와 웹툰의 인물 형상화

詩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는 매우 정교하고 의도적이다. 보통 시의 함축적 의미 파악은 그 시를 지은 시인과 당대 상황, 시적화자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시의 함축적 의미를 전혀 다른 장르인 웹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처지와 맞물려 드러내는 방식은 매우 세련되면서도 고차원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웹툰에서 인물을 형상화하는 1차적인 효과는 단연 그림체와 인물간의 주고받는 대사처리이다. 그러나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웹툰의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그림체와 더불어 고전시가의 메타포를 통해 인물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는 전략을 함께 구사게 된다면 웹툰의 인물에 대한 이해도나 몰입도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이는 또한 양질의 웹툰을 만드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시는 이규보의 한시인 <맨드라미(鷄冠花)>라는 작품이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의 처한 상황을 고전시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둘의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작품을 선정하여 인물 형상화에 매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시의 함축적 의미를 작품 속 ‘덕이’라는 인물에 그대로 투영·중첩시키고 있다.

닭이 이미 꽃이 되어 곱고 예쁘데
어이해 더러운 뒷간에 있나
여태도 전날의 습관이 남아
구더기 쪼아 먹을 생각인 게지⁵⁴⁾

강형수 : 고려시대 이규보라는 문인이자 대단한 문장가의 시다. 뒷간에 꽃을 보며 쓴 것으로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지.⁵⁵⁾

이 시를 잘 살펴보면 덕이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을 엿볼 수 있다. 덕이는 노비의 신분으로 양반댁 아씨인 홍소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이전의 모습은 매우 처참한 지경이었다. 제1구의 ‘닭이 이미 꽃이 되어 곱고 예쁘데’라는 구절에서 ‘닭’은 홍소저가 되기 이전의

문학적 기능을 밝히며 문학교육의 대비와 과제를 논의하였다.(한명숙, 「웹툰의 문학적 기능과 문학교육의 과제-작품 <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제61호)

54) 웹툰 <별안간 아씨> 30화에 삽입된 시, 이규보, <맨드라미(鷄冠花)>

55) 웹툰 <별안간 아씨> 30화, 강형수의 대사

노비인 덕이로 치환할 수 있다. 그리고 꽃은 지성과 외모를 모두 겸비하게 된 홍소저로 변신한 덕이를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덕이는 태생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습관 등이 은연 중에 드러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여태도 전날의 습관이 남아 구더기 쪼아 먹는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한 다음에 제시되는 시는 남주인공 강형수의 인물 형상화를 표현해주는 것으로 최치원의 <접시꽃>이라는 시가 활용되고 있다. 이 시의 함축적 의미 역시 강형수라는 인물과 절묘하게 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막히 거칠어진 발두둑 옆
흐드러진 꽃송이 연한 가지에 매달렸네
장맛비에 향기는 다 가셨고
보리 바람에 형체는 기울어졌구나
지나가는 이들 누가 보아주랴
별과 나비만이 옛볼 뿐인데
태어난 곳 천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도 견디고 있겠지⁵⁶⁾

실제 이 시의 지은이인 최치원은 <접시꽃>이라는 시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기도 했다. 최치원은 뛰어난 재능으로 천재라 불리며 신라 말 최고의 지성으로 어린나이 유학을 떠났지만 당나라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신분적 한계에 좌절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골품제 사회의 벽에 의해 좌절해야만 했던 최치원의 좌절과 비애나 담긴 시가 바로 <접시꽃(蜀葵花)>인 것이다. 최치원이 신분제도에 막혀 좌절한 것처럼 웹툰 속 인물인 강형수 역시 서얼로 조선시대 신분 제도로 좌절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서얼이긴 하나 총명하여 임금의 신임을 얻어 ‘서얼허통’을 추진하려는 임금의 뜻에 가담하게 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작품 내내 서얼로 겪게 되는 신분 차별로 인한 좌절이 작품 곳곳에 묻어나는데 이 시는 마치 최치원의 좌절과 비애와 매우 흡사한 강형수의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4. 고전시가 활용을 통한 ‘사극로맨스’ 장르의 강화

우리나라 웹툰의 입지는 독자적이면서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다양한 장르의 웹툰 뿐만 아니라 장르간 혼종이 이루어지는 웹툰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양산되어 왔다. <별안간 아씨>는 그 장르적 특성이 매우 융합적이다. 웹툰이면서 사극을 표방하고 사극 가운데에서도 로맨스를 지향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극에서는 주로 왕실이나 무협의 이야기들이 다루어지던 서사체에서 최근에는 남녀 간의 사랑 등을 로맨스로 다룬 작품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전통사극에서 탈피하면서 웹툰의 주 소비층인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사극과 로맨스, 그리고 이를 웹툰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각 장르들이 지니는 특징적인 부분들의 결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56) 웹툰 <별안간 아씨> 30화에 삽입된 시, 최치원, <접시꽃(蜀葵花)>

우선 ‘사극’⁵⁷⁾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감성과 결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 연장 선상에서 고전시가의 삽입은 전통적인 감성과 결합되며 작품 고유의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만을 차용하여 만든 사극에 비해 우리의 고전시가가 활용될 경우 그 시너지는 배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로맨스’ 플롯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원한 테마이기 때문에 타 장르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낮으며 보다 대중적인 장르이다. 로맨스가 최근 사극과 결합하면서 ‘한복로맨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시대성을 지니는 대표적 장르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별안간 아씨>는 사극이면서 로맨스 장르이다. 고전 시대물이기에 고전시가 작품과의 융합은 타 장르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운 서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는데 이 웹툰은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특히 로맨스 장르는 로맨스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남녀의 심리상태나 감정선의 교류가 매우 주요한데 이를 고전시로 풀어낼 경우 웹툰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대 및 중세에 지어진 시가 작품들이 현대 웹툰 장르 속에서 함께 재현된다는 것은 세대와 시·공간을 관통하는 인간사 애정에 관한 테마를 통시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고전시가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융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웹툰 제34화의 부제는 ‘연서’이다. 홍소저로 둔갑한 덕이는 자신이 시집을 가게 될 최규식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최규식은 홍소저(덕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덕이를 본 후 최규식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홍소저(덕이)에게 보내는데 그 안에는 안부와 더불어 다음의 시가 한 편 적혀 있었다.

也差行路護輕紗(야수행로호경사)
 清夜微雲露月華(청야미운노월화)
 約束蜂腰纖一掬(약속봉요섬일국)
 羅裙新剪石榴花(나군신전석류화)⁵⁸⁾

강형수 :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시다. 이견 조휘라는 이가 길 가는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 흰 부채에 적어준 시란다”
 청야에 구름 헤치고 월화를 드러냈네 / 허리는 꿀벌 닮아 가늘기가 한줌인데 / 비단치마에 석류꽃 수놓았네⁵⁹⁾

위에 제시된 부분은 강형수가 이 시의 지은이와, 시를 짓게 된 상황과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시의 원문만 제시하는데 덕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형수의 대사를 통해 시의 의미를 해석하여 풀이를 해준다. 시의 내용이 실제로 조휘가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 쓰게 된 시이므로 최규식이 홍소저에게 반한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웹툰 서사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낭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더한

57) 이 웹툰을 사극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손이 왕이 되었다’라는 정보와 공교롭게도 그 임금의 이름이 ‘산’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정조 시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실제로 정조는 ‘서얼허통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웹툰은 이러한 배경과 사건을 소재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8) 웹툰 <별안간 아씨> 34화에 삽입된 시, 조휘, <戲贈燕京面紗美人>

59) 웹툰 <별안간 아씨> 34화. 강형수와 덕이의 대화

다. 또한 이 시를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목이 <연경의 면사포 쓴 미인에게>인 점으로 보아 홍소저가 곧 자신의 신부가 될 것 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전시 하나를 선택 하더라도 그 상황과 디테일을 매우 고려하여 작품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웹툰 제39화에서는 마침내 최규식에게 시집을 가게 된 덕이는 갈등 끝에 강형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된다. 비로소 강형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덕이는 둘이서 함께 도망가자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강형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하며 외면한다. 이 때 덕이가 울면서 떠나려는 장면에서 임제의 <무제>라는 한시가 삽입되고 있다.

구름자취 바라보니 그대 정말 떠났는가
반 적삼에 묻어나는 그대의 남은 향기
더 끊어질 창자없어 슬퍼해도 헛일이라
그리며 눈물짓던 그때만 못하여라⁶⁰⁾

웹툰은 작가의 의도대로 세로로 길게 긴 호흡을 거쳐 짧게 끊어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다⁶¹⁾ 웹툰의 이러한 호흡처리는 시를 표현하기에 매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렇듯 애절하고도 절절한 감정의 결이나 선을 웹툰의 화면에서는 짧게 끊어 표현함으로써 시만이 지니는 행간의 느낌, 이별에 대한 아픔과 애절한 정서들을 더 임팩트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대사나 등장인물의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공감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웹툰과의 질적 차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로맨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시가 바로 황진이의 시세계이다. 그녀의 시조들 중에서도 유명한 애정시조가 많지만 본 웹툰에서는 <몽>이라는 한시작품이 활용되었다. 물론 이 시는 웹툰의 전반부에서 ‘시 공부’할 때 삽입된 작품이긴 하지만 이 작품은 애정시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운 그대를 만날 길은 꿈밖에 없는데
내가 그대를 찾아가면 그대 나를 찾아 떠났네.
바라건대 다른 날 꿈 속에 아득히 한시에 출발해서
오가는 길에 만나기를.⁶²⁾

앞선 2장에서도 전술한 바대로 이 시는 강형수와 덕이라는 두 인물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60) 웹툰 <별안간 아씨> 39화에 삽입된 시, 임제, <무제>

61) 설연경, 앞의 논문, 512-513쪽.

62) 웹툰 <별안간 아씨> 13화에 삽입된 시, 황진이, <몽>

황진이의 <몽>이라는 작품은 웹툰 <별안간 아씨>에 삽입된 총 9편의 고전시가들 가운데 ‘로맨스’ 정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별의 상황으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강한 열망과 애절함은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애정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4장 ‘로맨스 강화’부분에서 이 작품을 한 번 더 다루기로 한다.

그리움을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다. <별안간 아씨>의 장르적 특성인 ‘로맨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시는 매우 중요하면서 유효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5. 나가기 : <별안간 아씨>에 수용된 고전시가의 의미

양적으로 무수히 쏟아지는 웹툰 가운데 이제는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하고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방안 가운데 우리의 고전 콘텐츠를 활용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량의 고전시가를 웹툰에 적용하고 있는 <별안간 아씨>는 단순 차용이나 삽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독자에게 숨겨진 우리의 고전시를 알리고 더 나아가 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교육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적 활용과 가치측면에서 본 연구는 <별안간 아씨>에 활용된 고전시가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미진하게나마 타진해 보는 시도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웹툰 <별안간 아씨>는 독특한 소재와 기획 이외에도 눈에 띄는 성공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고전시가를 수용하여 이를 다양한 의미에서 활용함으로써 내적 구성 요소들을 추동하여 서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전시가에 표출되는 다양한 정서를 통시적으로 관통하여 현대적 콘텐츠를 통해 계승하고 융합함으로써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웹툰에 수용된 고전시의 작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웹툰 속에 융합되어 활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 예각화하지 못하고 다소 거칠게 분석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교육적 활용과 가치 측면에서의 미진한 부분들은 향후 연구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활용의 의미 연구에 대한 질의문

이채영(동국대)

김지은 선생님의 「웹툰 <별안간 아씨>의 고전시가 수용과 교육적 활용의 가치」는 고전 서사에 비해서 문화콘텐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고전 시가의 현대적 수용과 교육적 활용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툰 및 고전 시가의 연구 영역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선생님의 발표문 덕분에 웹툰 <별안간 아씨>의 고전 시가 수용과 교육적 활용의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문화콘텐츠에서 현대적 활용 양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고전 시가 장르이지만 그 속에 내재된 가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웹툰과 고전의 융합, 또는 고전의 변용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과묵하여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다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오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발표문의 제목은 ‘웹툰 <별안간 아씨>의 고전 시가 수용과 교육적 활용의 가치’입니다. 특히 ‘교육적 활용의 가치’로 제목이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고전 시가의 교육적 활용과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시문학 개념의 교육적 효과라는 2장 외에는 고전 시가의 교육적 활용과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 4장의 내용은 교육적 활용보다는 웹툰에서 고전 시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의 양상과 고전 시가의 기능적 측면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웹툰의 고전 시가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서론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을 통해 고전 시가를 접하게 하면, 학생들의 관심,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더 쉽게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도 교수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웹툰의 고전 시가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나 가치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2. 황진이 시 ‘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2.2)에서 ‘몽’에 대해 덕이와 강형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어집니다. 2.2)에서 제시된 ‘몽’은 웹툰 전체 서사의 초반부에서 덕이가 시를 배워 나가면서 강형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의 4장에서도 ‘몽’에 대한 논의를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께서는 “전술한 바대로 이 시는 강형수와 덕이라는 두 인물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다. <별안간 아씨>의 장르적 특성인 ‘로맨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시는 매우 유효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웹툰에서 ‘몽’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몽’이 왜 이 웹툰의 로맨스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

닌다고 분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몽’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웹툰 후반부에서 제시된 다든가 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 장면을 근거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논지가 더 선명하게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독의 우를 범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웹툰 <별안간 아씨>의 古典詩歌 수용과 教育적 活用의 가치에 대한 質의문’에 대한 答辨

김지은(중앙대)

1. 이 발표문의 제목은 ‘웹툰 <별안간 아씨>의 고전 시가 수용과 교육적 활용의 가치’입니다. 특히 ‘교육적 활용의 가치’로 제목이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고전 시가의 교육적 활용과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시문학 개념의 교육적 효과라는 2장 외에는 고전 시가의 교육적 활용과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 4장의 내용은 교육적 활용보다는 웹툰에서 고전 시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의 양상과 고전 시가의 기능적 측면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웹툰의 고전 시가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서론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을 통해 고전 시가를 접하게 하면, 학생들의 관심,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더 쉽게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도 교수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웹툰의 고전 시가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나 가치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답변) 사실 ‘교육적 활용과 가치’ 측면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발표문을 쓰면서도 전체 주제를 포괄하기에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여 마지막까지 발표문을 붙들고 있다가 토론자님께 발표문을 넘기고 난 이후에 제목을 수정하기도 하였는데요...(죄송합니다ㅠㅠ) 일단 고전시가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들을 발췌해서 웹툰 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는 이미 전제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문학 개념’에 외에 3, 4장에서는 교육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시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서 웹툰 속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한 감상이나 본래의 함축적 의미가 함께 환기 및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를 통해 로맨스장르를 강화한다는 부분 역시 ‘시의 정서적인 기능’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제목을 수정하거나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보완하여 추후 논문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황진이 시 ‘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2.2)에서 ‘몽’에 대해 덕이와 강형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어집니다. 2.2)에서 제시된 ‘몽’은 웹툰 전체 서사의 초반부에서 덕이가 시를 배워 나가면서 강형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의 4장에서도 ‘몽’에 대한 논의를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께서는 “전술한 바대로 이 시는 강형수와 덕이라는 두 인물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다. <별안간 아씨>의 장르적 특성인 ‘로맨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시는 매우 유효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웹툰에서 ‘몽’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몽’이 왜 이 웹툰의 로맨스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몽’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웹툰 후반부에서 제시된 다든가 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 장면을 근거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논지가 더 선명하게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듣고 나니 다분히 연구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많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황진이의 <몽>이라는 한시가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 시를 통해 전달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지적하신대로 13화에서 한 번 삽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삽입된 다른 작품들은 이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화자도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군지정’을 노래한 것 등 실제 남녀의 애달픈 이별을 담았다고 보기엔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황진이의 <몽>은 남녀 간의 이별로 인한 애절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를 강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작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들을 보완하여 논문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은 논문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읽어주시면서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채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교육]

K-POP을 활용한^[SEP]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연구

*온라인 세종학당의^[SEP]교육 플랫폼 적용과 운영에 대한 고찰 -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연구

손만복(인하대 박사과정)

1. 서론

한국에 온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거나 학문을 이수하려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 강의를 듣는 능력을 익혀야 하는 점이다. 적극적인 학습자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 외에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여기서 언어는 학습자와 교수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이자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전달하려는 내용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다. 때로는 표현 방법을 실제 언어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문법을 활용하거나 수사법을 사용한다.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 구조는 전달하려는 의미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청자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음운이나 문장구조에 강조를 두면서 화자 자신의 의도를 부각시키는 것을 강조 표현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실제 언어생활에 가깝게 말하기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문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않은 강조 표현을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강조 표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조 표현을 사용할 때 문법적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고 한 실현 수준이 아닌 다른 실현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어학 분야에서도 강조 표현에 대한 문법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이유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강조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교육 방법을 연구하며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K-POP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강조 표현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적당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소 배우기엔 까다롭지만 많은 외국인 학습자가 강조 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결(2017)⁶³⁾의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계결(2017)은 한국어 중급과 고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강조 표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20명 중에 18명이 강조 표현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특히 그중에 7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강조 표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K-POP을 비롯한 한류, 다시 말해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K-POP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습자들이 늘어났다. 이런 사실은 권재환 · 권기환(2012)⁶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63) 계결(2017), 「한국어 강조 표현 교육 내용 연구 - 한국어 교재 강조 표현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4) 권재환 · 권기환(2012),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한류 관광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있지만, K-POP이 한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가 2011년 그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자료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신문으로 수업을 하려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는 연예·오락(41.1%), 사회(32.6%), 경제(14.8%), 문화(11.5%)를 꼽았다. 이와 같이 K-POP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그 자체가 흥미로운 대중문화의 한 장르이며, K-POP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은 언어 교육은 물론 문화 교육으로까지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POP은 한국어 교육, 특히 그중에서 강조 표현을 학습하기 위한 매우 적당한 자료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K-POP 노랫말의 특징 중에 강조 표현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K-POP 노래는 대부분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가사에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떤 어휘를 반복해서 부르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IOI의 '너무너무너무'에서 '너무너무너무', '자꾸자꾸자꾸'의 반복된 강조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 어휘적 강조 표현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 특징이 K-POP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K-POP을 통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의 개념과 특징

2.1. 어휘적 강조 표현의 개념

강조 표현의 기존 연구에서 전정미(2008)⁶⁵)는 구어 강조법의 실현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어휘를 통한 강조 표현 방법 이라고 하였으며 권재일(1987)⁶⁶)은 어휘 층의 강조 방법은 주로 파생 층과 곡선 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반면에 임성규(1989a)⁶⁷)는 어휘 강조를 수식어 강조와 대명사 강조로 나누었으며, 이정미(1993)⁶⁸)에서는 어휘적 강조 표현을 다시 상태 어휘 강조와 동작 어휘 강조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명숙(2012)⁶⁹)은 강의 담화 중 어휘 활용을 강조하는 면에서 강조점을 어휘, 인과연계, 강조부사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박내별(2010)⁷⁰)은 부정사 강조, 부사 강조, 반복적 동의어 강조, 파생 강조, 굴곡 강조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흐(2016)⁷¹)에서는 어휘 반복, 교육적 대안, 부정사 단어, 강조 부사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강조 표현 연구와 달리 어휘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집중적

항공경영학회지』 10.4 (2012): 207-226, 한국항공경영학회.

65) 전정미(2008),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강조법 연구」, 『한말연구』23, 한말연구학회.

66) 권재일(1983), 「현대 국어의 강조법-‘종결어미’류 결합의 경우」, 『대구어문논』총 1, 대구어문학회.

67) 임성규(1989a), 「현대국어의 강조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8) 이정미(1993), 「현대 국어의 강조 표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9) 정명숙(2012), 「한국어 강의 담화에 강조 발화의 특성」, 『이중언어학』50, 이중언어학회.

70) 박내별(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강조 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 부흐(2016), 「현대 한국어의 강조표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현희(2013)⁷²⁾는 사전 의미론에서 주로 '강조'를 포함하는 테이블 컨트롤을 9개 분야로 제시해 어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즉 어떻게 반복되고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현의 유형을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김영신(1998)⁷³⁾은 강조된 보충에 초점을 두었고, 박동근(2007)⁷⁴⁾은 기능적 방면으로 한국어 강조 부사 범주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최련(2015)⁷⁵⁾은 강조 보조사로서 '나/이나', '만', '도', '은/는', '야/이야'에 대해 통사적인 특성과 의미적인 특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K-POP 가사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휘적 강조 표현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적, 부사적, 반복적, 파생적 강조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실용적인 어휘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어휘적 강조 표현의 유형과 특징

2.2.1. 부정적 강조 표현의 특징

우선 부정적 강조 표현으로 '뭣도, 아무것도, 누구도, 아무도, 하나도'를 들 수 있다.

(1) 너 어제 뭘 샀어?

(1') {뭣도, 아무것도} 안 샀어. [부정]

(2) 그 수업에 누가 갈까?

(2') 그 수업에서 {아무도, 누구도} 안 갈걸. [부정]

(3) 숙제를 하나도 안 했다.

(1, 2)에서 제시한 '뭘, 누구'는 의문사로 강제를 받는다. 그러나 (1', 2', 3)의 '뭣도, 아무것도, 누구도, 아무도, 하나도'는 부정사나 수량사의 역할이 아니라 '아니'라는 부정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전혀'와 같은 '-도'가 안 붙어도 부정의 뜻만 표현하는 어휘가 있다.

부정적 강조 표현을 실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하려는 대상에 따라 기능이 다른 어휘를 골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강조하는 경우에 '아무도, 누구도' 등을 사용하고 사물을 강조하는 경우에 '아무것도, 무엇도' 등을 사용한다. 또한, 명령문의 경우에 '절대' 등을 사용한다.

2.2.2. 부사적 강조 표현의 특징

부사적 강조 표현은 다양한 강조 부사를 잘 활용하며 효과적인 강조 표현이 된다. 박동근

72) 이현희(2013), 「어휘 차원에서 '강조' 실현 방식과 그 특징」, 『한국학연구』4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73) 김영신(1998), 「강조 보조용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 박동근(2007), 「현대국어 강조부사 범주의 설정과 기능적 분석」, 『한글』275, 한글학회.

75) 최련(2015), 「한국어 강조 보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에 선정한 강조 부사는 '매우, 아주, 너무, 몹시, 되게, 엄청, 굉장히, 대단히, 무진장, 상당히'의 10개이다. 이어서 <한국어 학습용 어휘목록>에 의해 이 10개 강조 부사에 대해서 2차 선정을 실시하였다. '무진장'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목록>에 없는 것이어서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나머지 9가지의 강조 부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4)ㄱ. 너무 좋다/너무 작다/너무 싫다/너무 많다/너무 예쁘다

- ㄴ. 아주 좋다/아주 작다/아주 예쁘다/아주 많다
- ㄷ. 매우 좋다/매우 덩다/매우 크다/매우 짜다
- ㄹ. 몹시 춥다/몹시 덥다/몹시 아프다/몹시 배고프다
- ㅁ. 되게 좋다/되게 크다/되게 많다/되게 예쁘다
- ㅂ. 대단히 크다/대단히 감사하다/대단히 훌륭하다/대단히 잘하다
- ㅅ. 엄청 좋다/엄청 크다/엄청 많다/엄청 예쁘다
- ㅇ. 굉장히 좋다/굉장히 크다/굉장히 많다

예문 (4ㄱ~ㅇ)은 그 순서를 강조 정도가 가장 약한 '너무'부터 제시하였다⁷⁶⁾. (4ㄱ)의 「너무」는 사전에 있는 의미인 [지나침]과 다르며 '너무 좋아'와 '너무 싫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게 [강조] 의미를 실현하는 강조부사가 된다. (4ㄴ)와 (4ㅁ)에서 '아주' 뒤에 있는 형용사와 '되게' 뒤에 나오는 형용사의 양상이 비슷하다. (4ㄷ)에서의 '매우'도 '아주, 너무'와 같이 '좋다'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4ㄹ)의 '몹시'의 경우는 '덥다, 춥다, 아프다' 등 몸의 감각이나 느낌과 잘 어울리며, (4ㅂ)의 '대단히'는 특정한 인사말 '대단히 감사합니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ㅅ)에서의 '엄청'은 '많다, 크다' 등과 같이 수량이나 시각적 감각을 표현하는 서술어와 어울리고, (4ㅇ)에서의 '굉장히'의 경우에는 '크다'와 어울린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굉장하다'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강조 부사는 용언을 강조하는 역할과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 강조 부사가 아니라 (5)에 있는 부사에도 강조 의미를 가지고 있다.

(5)ㄱ. 매일매일, 서로서로, 아주아주

- ㄴ. 더욱더, 더더욱, 또다시
- ㄷ. 아마도, 너무나, 자꾸만

위의 어휘의 품사를 고려하면 부사이지만 의미를 고려하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5ㄱ)와

76) 박동근(2007)에서 "강조 부사의 강조 정도에 대한 언중의 심리적 판단은 '굉장히-무진장-엄청-대단히-되게-몹시-아주-너무'순으로 나열했는데, 이러한 순서는 대체로 사용 빈도와 반비례하다."라고 제시하였다. 위의 예문은 박동근(2007)에서 나타나는 보조사 중에 **답변자 수가** 10명 이상이 선택한 '부사+용언'의 예시들이다.

(5ㄴ)과 같은 경우는 어휘의 반복함을 통해 반복되지 않는 형태로 단어보다 더 강조를 표현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진술하겠다. 그러나 (5ㄱ)과 (5ㄴ)의 다른 점은 (5ㄱ)은 형태를 반복하는 것이고 (5ㄴ)는 의미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5ㄷ)도 마찬가지로 설문 조사나 접미사의 조합은 어휘 수준에서 강조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5ㄷ)의 '너무나'와 '너무'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가 개입해도 어휘의 뜻풀이는 변하지 않고, 사전 의미를 참고하면 '너무나'는 '너무'에 대해서 강조하여 이르는 것으로 '너무너무'와는 다른 층위의 강조라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층위에서의 강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너무너무'같은 상황은 어휘 층위에서 보면 '너무'보다 강조 기능이 있지만, 문장 층위에서 보면 다른 종류의 문장 성분에 영향을 받는 어휘로서 본 연구의 연구 범위라고 할 수 있다.

2.2.3. 반복적 강조 표현의 특징

반복적 강조 표현은 반복합성어에 의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 (6) 짹짹, 곳곳, 덜컹덜컹……
- (7) 쿵작작, 아사삭……
- (8) 울긋불긋, 얼룩덜룩, 알쏭달쏭……
- (9) 차디차다, 크나크다……

이러한 반복합성어는 (6)처럼 형태 전체를 반복하기도 하고 (7)처럼 형태 일부분을 반복하기도 한다. 또 (8)과 같이 유사한 형태를 반복할 수도 있고 (9)처럼 다른 형태를 반복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살금살금, 출렁출렁'과 같은 의태어와 '쿵작작, 아사삭'과 같은 의성어를 구성하는 합성어는 반복 합성어를 제외한 대상으로 삼겠다.

2.2.4. 파생적 강조 표현의 특징

파생 강조법은 주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접두사 강조법으로서 현대 국어에서 주로 다뤄진 강조 기능이 있는 접두사로 색깔 형용사의 정도를 강화를 시키는 '새/시-', '셋/짓-'을 예로 들 수 있다. 접두사 '새-'에 대한 대상인 어휘적 강조 표현은 '-앙-'파생 색채어들이다.

- (10) 새빨갳다, 새노랗다, 새파랗다, 새까맣다, 새하얗다
- (11) 셋-노랑다 셋-누렇다
새-까맣다 시-꺼멧다

이 외에도 현대 한국어에서 강조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접두사를 살펴보면 임성규(1989a)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 체언 접두사: 막말, 깡추위, 한밤중(오밤중), 맨처음, 뒤범벅, 날강도

용언 접두사: (1) 동사-내지르다, 내리먹다, 검질기다, 뒤덮다, 들볶다, 들이
덮치다, 짓이기다, 몰박다, 휘날리다, 처먹다, 치솟다, 휩쓸
다, 박차다, 막지르다

(2) 형용사-뒤늦다, 드넓다, 휘둥그렇다

현대 한국어의 강조 접미사에 관해 최현배(1975)⁷⁷⁾에서 '-치-, '-추-(늦추다, 맞추다)', -뜨
리- (엎다 ; 엎치다 ; 엎뜨리다)'를 포함하고 있다. 강조 접미사의 경우에는 '-추-, -치-, -뜨
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성규(1989a)는 요약하였다.

(13) '-추-'는 의미, 기능 변화에 따라 어휘대립을 이루므로 제거된다.

(14) '-치-'의 경우에는 유무의 대립에 따라 비어휘 대립을 이루는 '날치다, 깨치다, 넘치다,
뻥치다, 밀치다, 펼치다, 떨치다, 몰아치다, 지나치다' 등은 강조를 나타내나 '받치다, 덮치다,
걸치다, 놓치다, 터치다' 등은 비강조로 본다.

(15) '-뜨리-'의 경우에도 '깨다 : 깨뜨리다'라는 형식에 강조 표현으로 인정되고 또는 '떨다
: 떨어뜨리다, 넘다 : 넘어뜨리다, 빠다 : 빠뜨리다, 무너지다 : 무너뜨리다, (쓰러-, 이그러-,
자빠-) 등 어휘들은 비강조로 본다.

III. K-POP에 나타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3.1. K-POP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3.1.1. K-POP의 개념과 특징

양종모(2011)⁷⁸⁾에서는 K-POP은 한국인이 만들어 외국인이 즐기는 음악의 일종으로 정의된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주제가 외국인 학습자로, K-POP 역시 외국인이 선호하는
곡의 선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는 양종모(2011)에서 설명한 K-POP 개념과 일치한다. 송재란
(2014)⁷⁹⁾에서는 K-POP을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학습자들에게는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K-POP을
통해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며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는 잠재적 학습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K-POP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와 잠재 학습자 모두가
듣고 즐기는 최신곡이야 한다. 본고는 양종모(2011)에서 기술한 K-POP에 대한 정의가 비슷
한데, 본 연구는 한국인이 만들어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최근의 음악⁸⁰⁾이라고 정의한

77)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78) 양종모(2011), 「케이 팝의 학교 음악교육에 수용 탐색을 위한 음악적 특징 분석」, 『음악응용연구』
제4권, 한국음악응용학회.

79) 송재란(2014), 「케이 팝(K-POP)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향상 방안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

3.1.2. K-POP을 통한 한국어 학습

한국어 교육과 K-POP의 연결고리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노래를 배우고 따라한 경험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독고현(2000)⁸¹⁾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독고현(2000)은 Loznov의 연구의 기초를 바탕으로 암시적 교수법(suggestopedia)으로 이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인데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노래의 특성을 언어학습에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해은(2009)⁸²⁾과 김주영(2001)⁸³⁾을 들 수 있다. 송재란(2014)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과 K-POP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학습자의 67%는 K-POP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했고, 반면에 60%는 한국어 수업에서 K-POP을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와 언어의 연관성도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두위(2012)⁸⁴⁾는 다음과 같이 노래 수업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노래를 통한 교육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6) ㄱ. 가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어와 문형을 배운다.

ㄴ. 듣기 능력을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키운다.

ㄷ. 보다 쉽게 가사를 노래의 반복 효과를 통해 외운다.

ㄹ.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사이 수업에 참여한다.

ㅁ. 부르기로 기억해 운율과 따라 오래 남는다.

ㅂ. 수업에 도움을 뮤직 비디오를 활용해서 준다.⁸⁵⁾

ㅅ.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사용하면 영화 사용 시와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ㅇ. 서로 정보 교환을 하거나 가사를 바꿔본다.

또한 음악을 통한 언어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한다는 점이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질 수 있다. K-POP이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었을 때의 이런 효과는 물론 그중 어떤 노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 논의할 K-POP 목록을 선정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 K-POP을 활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80) '최근'이라는 범위는 K-POP이 한류의 중심이 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3기의 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81) 독고현(2004), 「고등학교 영어 학습을 위한 팝송의 활용 방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 이해은(2009), 「팝송과 UCC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영어 지도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 김주영(2001), 「프랑스어 수업에서의 상송 활용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 두위(2007), 「한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중국어 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 김경지(2001)에서 인용.

3.2. 한국어 학습을 위한 K-POP 노래 목록 선정

3.2.1. K-POP 노래 목록 선정의 기준

K-POP을 한국어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곡 선정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제시한 연구로 픽셀(1999)⁸⁶⁾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터키앙카라대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노래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7) 가. 사전의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노래
 - 나. 가사와 리듬이 평화한 노래
 - 다.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며 학습을 잘 통제하는 노래
 - 르.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의 심상을 담은 노래
 - ㅁ.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노래

픽셀은 대상 곡으로 K-POP, 특히 인지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3년 이내를 비교적 최근 곡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김경지(2011)⁸⁷⁾의 선정 기준과 일치한다. 김경지(2001)는 공부에 적합한 곡을 선정할 때 리듬이 다소 바뀌더라도 교사나 학습자는 설명과 이해가 쉬운 곡을 선택하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서 교육에 적합한 곡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위(2007)는 중급 중국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곡 선정에서 최근 유행하는 곡이고 가사 내용도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I believe'를 뽑았다.

본 연구에서는 K-POP을 선정하기 위한 곡 선정 기준에서 첫 번째로 사전을 이용할 수 있는 노래, 두 번째로 가사가 명확한 노래, 세 번째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노래, 네 번째로 3년 이내의 노래, 다섯 번째로 멜로디와 가사가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부르기 쉽고 재미있는 노래를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

K-POP 노랫말에 나타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K-POP 목록 선정 범위로 서 <유튜브 차트>와 <K-Pop Korean 케이팝 코리아>을 이용했다. 앞의 K-POP 선정 기준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며 학습을 잘 통제하는 노래라고 한다. K-POP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 각지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라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매체인 유튜브의 조회수 순위를 확인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다. 그리고 2016년에 출판된 <K-Pop Korean 케이팝 코리아>은 총 K-POP 노래 20곡을 선정해 가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다. K-POP 가사에 쓰인 다양한 어휘와 글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고, 익숙한 K-POP 가사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한국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교육대상이 초급에서 중급 단계 수준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라는 교재라서 목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정된 K-POP 목록은 모두 170곡이나, 유튜브의

86) 픽셀 튀르키주(1999),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87) 김경지(2001),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영화와 노래를 중심으로 한 수업활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특성상 같은 곡이나 다른 가수가 부른 곡, 혹은 출연 매체만 다른 곡, 버전만 다른 채로 중복되는 곡, 그리고 영어로만 부르는 곡 등은 부적정 곡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 <K-Pop Korean 케이팝 코리안>에 포함된 곡 중에는 앞에 제시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래, 즉 오래된 노래거나 외국인에게 낯선 곡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에 나와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인기 아이돌이나 가수의 곡만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K-POP 노래 목록 선정 대상 곡

K-POP 목록 및 곡수	K-POP 목록 곡명
2019년 유튜브 가장 많이 본 K-POP 동영상 TOP 50 (47곡)	No, Double Knot, 사계, I'M OK, LION, 음파음파, HIT, Butterfly, Psycho, 해야, Say My Name, Alligator, %% (응응), 밤밤, Focus on me, 부작용, Home, 누구 없소, Uh-Oh, Cat & Dog, Wonderland, Obsession, Eclipse, BOOM, HIP, I'm So Hot, Jopping, 봉봉쇼콜라, Snapping, Violeta, 니가 부르는 나의 이름, TWIT, 짐살라빔, Birthday, Flash, 벌써 12시, 고고베베, MIROH, Senorita, Adios, Crown, ICY, Feel Special, 달라달라, Fancy, 작은 것들을 위한 시, Kill This Love
2020년 유튜브 가장 많이 본 K-POP 동영상 TOP 50 (43곡)	HOME; RUN, 이데아, THANXX, 덩가딩가, From Home, 사랑해, Candy, Ridin', INCEPTION, 환상동화, 살짝 설렘, BOY, We are Bulletproof : the Eternal, FIESTA, 90's Love, Answer, NOT BY THE MOON, Left & Right, 덤디덤디, LA DI DA, Monster, 아무노래, Outro : Ego, Interlude : Shadow, Black Mamba, 영웅, 에잇, Back Door, Oh my god, Not Shy, Make A Wish, 마리아, 神메뉴, 대취타, DUN DUN, I CAN'T STOP ME, Life Goes On, Black Swan, MORE & MORE, WANNABE, ON, Lovesick Girls, How You Like That
2021년 유튜브 가장 많이 본 K-POP 동영상 TOP 50 (41곡)	I'm Not Cool, Christmas Eve, Bambi, Dun Dun Dance, LO\$ER=LO♡ER, Odd Eye, Forever, Ready To Love, Eleven, 불놀이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Rock With You, PTT (Paint The Town), 색안경, ASAP, 0X1=LOVESONG, Ping Pong, You Can't Sit With Us, Don't Call Me, Fever, Drunk-Dazed, riBBon, XOXO, 라일락, Sticker, Hello Future, SCIENTIST, FIRST, Queendom, Don't Fight The Feeling, DUMB DUMB, After School, Celebrity, LOCO, 소리꾼, Savage, 맛, 마.피.아. In the morning,

	Next Level, Alcohol-Free, Lalisa
<K-Pop Korean 케이팝 코리안> (14곡)	오늘부터 우리는, 벚꽃 엔딩, 남자 없이 잘 살아, NoNoNo, 너뿐이야, 하루만, 노래가 늘었어, Man In Love, Ah-Choo, 너의 모든 순간, Give It to Me, A, 썸, Error

3.2.2. K-POP 노래 가사에 나타난 어휘적 강조 표현

<표 1>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K-POP은 모두 145곡이었다. 이중 어휘적 강조 표현을 종류별과 출현 횟수 순서로 정리하면 <표 2>이다.

<표 2> K-POP의 종류별 어휘적 강조 표현(횟수 순서)

종류	부정적	부사적	반복적	파생적
어휘 적 강조 표현	절대(12), 아무것도(7), 아무도(6), 누구도(3), 무엇도(3), 조금도(3), 전혀(3), 아무나(2), 절대로(2), 하나도, 도무지, 누구라도, 누구나, 한번도	너무(22), 참(12), 너무나(6), 별써(5), 아주(3), 얼마나(3), 자꾸만(3), 정말(3), 너무도, 유달리, 하도, 많이	깜깜하다(5), 매일매일(4), 깜깜하다(3), 하나하나(2), 기나길다(2), 하루하루, 위태위태, 뻘하디뻘하다, 몰래몰래, 꼭꼭하다, 후끈후끈하다, 곳곳, 사이사이, 찌릿찌릿하다, 두근두근거리다, 차디차다, 알록달록, 간질간질, 반질반질, 밤밤, 따끈따끈하다, 따끔따끔하다,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다, 색색, 무시무시하다, 어질어질, 영영, 빨리빨리, 아등바등하다,	멤-돌다(8), 똑-같다(8), 물-들이다(7), 새-빨갳다(5), 똑-바로(4), 붙-잡다(4), 메-마르다(3), 벽-차오르다(3), 새-까맣다(3), 무너-뜨리-다(3), 펼-치-다(3), 수-많다(3), 와-닿다(2), 뒤-섞이다(2), 맨-정신(2), 뒤-영키다(2), 맞-잡다(2), 흠-날리다(2), 휘-날리다(2), 되-살리다, 뒤-쳐지다, 한-낫, 뒤-돌다, 새-파랗다, 뒹-굴다, 걸-맞다, 새-하얗다, 휩-쓸리다, 물-들다, 앞-지르다, 내-밀다, 들-뜨다, 휘-젓다,

			어리버리	되-찾다, 떠-오르다, 날-뛰다, 건-잡다, 덮-치다, 앞-지르다
개수	14	12	31	39

<표 2>를 보면 총 96개의 어휘적 강조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종류는 여전히 파생적 강조 표현이지만 39개의 어휘에서 한 번만 나온 어휘도 많이 있다. 그중에서 5번 이상 나온 어휘는 '멤-돌다(8), 똑-같다(8), 물-들이다(7), 새-빨갳다(5)'로 총 28번이다. 반복적 강조 표현도 파생적 강조 표현과 같이 한 번만 나온 어휘는 많이 있으며 그중에서 5번 이상 나온 어휘는 '깜깜하다(5)'만 있다. 나머지 부정적 강조 표현과 부사적 강조 표현에서는 출현 횟수가 많은 어휘들이 있다. 부정적 강조 표현에서 5회 이상 나온 어휘는 '절대(12), 아무것도(7), 아무도(6)'이고 총 25번이다. 부사적 강조 표현에서 5회 이상 나온 어휘는 '너무(22), 참(12), 너무나(6), 벌써(5)'로 총 45번이다. 가장 많이 나온 어휘적 강조 표현은 '너무(22)'이었고, '절대(12)', '참(12)'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총 237번인 어휘적 강조 표현이 나타난 빈도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92번, 2020년에는 78번, 2021년에는 67번이다. 점점 적어진 추세가 형성된 이유는 많은 음악 회사가 가수를 세계적으로 더 홍보하기 위해서 가사에서 갈수록 더 많은 영어를 넣어 한국어 어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대부분 가사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 교육면에서 유용하다.

지금까지 K-POP에 나온 어휘적 강조 표현과 한국어 기관 교재에 출현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살펴본 결과, 공통된 어휘는 부정적 강조 표현과 부사적 강조 표현의 2가지만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강조 표현은 '아무것도, 누구도, 무엇도'가 있으며, 부사적 강조 표현은 '너무, 참, 아주, 얼마나, 하도'가 있다. 이를 보면 K-POP에 등장하는 어휘적 강조 표현 중에 있는 상당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학습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K-POP을 통해 새로운 어휘적 강조 표현을 학습하고 어휘 확장의 계기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V.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 사용 양상 분석

4.1. 분석 방법과 내용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가 어휘적 강조 표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교육 현황을 파악한 후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급 학습자들은 어휘적 강조 표현에 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및 그 이상 급수를 가진 학습자만 선별하였고, 그에 맞는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본 논문을 작성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온라인 형식으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협조해준 조사 참여자 20명은 모두 중급 및 그 이상 등급의 한국어 실력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이다. 조사 참여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 6명과 여자 14명이다. 그리고 한국어 실력은 전원 중급 및 그 이상이고 TOPIK 등급을 보면 '4급'은 3명, '5급'은 6명, '6급'은 1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 한국어를 배운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은 없고, '1년~2년 미만'은 3명, '2년~3년 미만'은 3명, '3년 이상'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참여자는 주로 3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설계된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개인 정보, 어휘적 강조 표현의 활용 능력과 어휘적 강조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한 현황, K-POP과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K-POP 노랫말에서 어휘적 강조 표현이 실제 사용한 현황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층위에서 연구 주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사 참여자에 대한 기본 개인 정보를 알아보는 질문이다. 3개의 질문을 통해 조사 참여자의 성별, TOPIK 등급 및 한국어를 배운 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① 성별 :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② Topik 급수 :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input type="checkbox"/>	4급	<input type="checkbox"/>	5급	<input type="checkbox"/>	6급	<input type="checkbox"/>
③ 한국어를 배운 기간 :	6개월~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두 번째 부분은 조사 참여자의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 현황 및 인지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1. 어휘적 강조 표현에 관한 조사
1. 다음 문장을 읽고 적합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고르세요. (복수답 인정)
1-1. 일찍 와서 교실에 _____ 없다.
① 하나도 ② 아무도 ③ 무엇도 ④ 누구도
1-2. 어제 생일이지만 남자친구가 _____ 안 주었다.
① 아무것도 ② 하나도 ③ 조금도 ④ 무엇도
1-3. 고향은 _____ 변하지 않았다.
① 하나도 ② 조금도 ③ 전혀 ④ 아무것도

- 1-4. 이 말은 남에게 _____ 하지 마라.
 ① 아무도 ② 아무것도 ③ 절대 ④ 전혀
- 1-5. 이 가게가 _____ 맛있어!
 ① 절대 ② 전혀 ③ 정말 ④ 대단히
- 1-6. 새해 복 _____ 받으세요.
 ① 많이 ② 굉장히 ③ 아무것도 ④ 하나하나
- 1-7. 나는 _____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싫어요.
 ① 하루하루 ② 하나하나 ③ 사이사이 ④ 매일매일
- 1-8. 지하실이 _____ 불을 켜주세요.
 ① 조마조마해서 ② 차디차서 ③ 깜깜해서 ④ 새까매서
- 1-9.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_____ .
 ① 찌릿찌릿하다 ② 멍돌다 ③ 무시무시하다 ④ 흘날리다
- 1-10. 나는 형과 키가 _____ .
 ① 맞잡다 ② 와닿다 ③ 똑같다 ④ 앞지르다
- 1-11. 노을이 온 마을을 A B .
 A. ① 새빨강게 ② 새하얗게 ③ 기나길게 ④ 벅차오르게
 B. ① 펼치다 ② 휘날리다 ③ 붙잡다 ④ 물들이다

2. 어휘적 강조 표현에 속하는 어휘를 교재에서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① 많다 ② 보통이다 ③ 적다 ④ 전혀 없다
3. 어휘적 강조 표현을 실제 대화 중에서 사용한 적이 많으십니까?
 ① 많다 ② 보통이다 ③ 적다 ④ 전혀 없다
4. 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어휘적 강조 표현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보 전달 ② 감정 강화 ③ 둘 다 ④ 기타 _____
5.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다 ② 보통이다 ③ 적다 ④ 전혀 없다

문항 1을 통해 조사 참여자가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11가지 문항은 어휘적 강조 표현에 속하는 부정적, 부사적, 반복적, 파생적 4가지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선택항은 모두 어휘적 강조 표현이지만 그중에서 문장에 적합한 어휘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모두 적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수 답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학습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경향의 어휘적 강조 표현을 더 많이 쓰는지,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다 고찰할 수 있다. 그 다음 문항 2, 3, 4는 학습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 현황과 실제 대화 중의 이용 현황을 알아보는 질문이다. 학습자들이 앞에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인지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부분은 주로 조사 참여자들이 K-POP에 대한 인지도와 K-POP이 한국어 학습에 대해 어떤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2. K-POP에 관한 조사

1.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K-POP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K-POP은 한국어 공부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0% ② 30% ③ 60% ④ 90%

4. 한국어 학습자들이 K-POP에 대한 적당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K-POP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러므로 문항 1과 2를 통해 K-POP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떤 흡인력이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문항 3과 4를 통해서 K-POP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어떤 정도로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지와 한국어 학습자들이 K-POP에 대해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네 번째 부분은 본 연구의 주제를 맞춰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K-POP과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인식을 결합해서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겠다.

<p>3.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에 관한 조사</p> <p>1. K-POP 노래 가사에 어휘적 강조 표현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③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p> <p>2. 어휘적 강조 표현이 나온 K-POP 노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다 <input type="checkbox"/> ②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③ 적다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p> <p>3. K-POP 노래 가사에서 나온 어휘적 강조 표현은 주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정보 전달 <input type="checkbox"/> ② 감정 강화 <input type="checkbox"/> ③ 둘 다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_____</p> <p>4. K-POP 노래 가사를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교육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③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p>
--

앞에 두 번째 부분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대화 중에서 어휘적 강조 표현의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K-POP 노래말에 출현한 어휘적 강조 표현의 이용 현황을 문항 1, 2,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항 4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설문지의 네 가지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 참여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과 K-POP, 또한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휘적 강조 표현의 활용 능력과 오류 원인까지 이 설문지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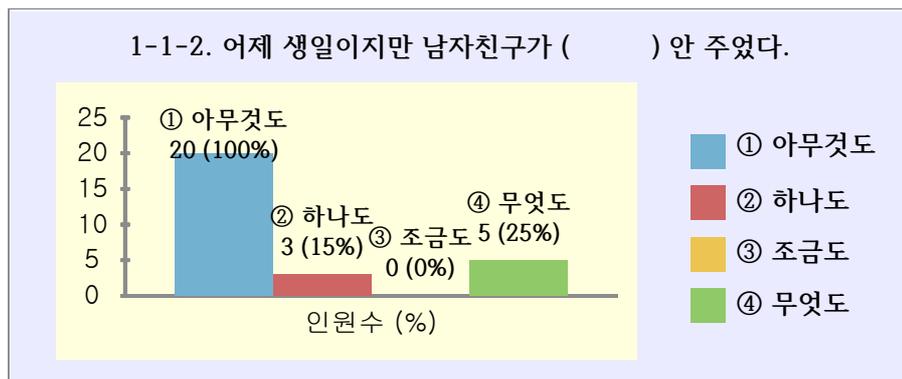
4.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조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참여자들이 K-POP에 대한 개념과 인지도,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이해력 및 활용 능력, 그리고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에 대한 견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먼저 문항 1-1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어 학습 교재 중에 어휘적 강조 표현을 활용하는 예문을 11개를 선정하여 제시된 어휘적 강조 표현인 선택항에서 적합한 것을 모두 선택하라는 것이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문장을 어휘적 강조 표현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어떤 경향의 어휘적 강조 표현을 더 많이 쓰는지, 어휘적 강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어휘적 강조 표현은 부정적, 부사적, 반복적, 파생적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문항에서 주로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문항 1-1-1부터 1-1-4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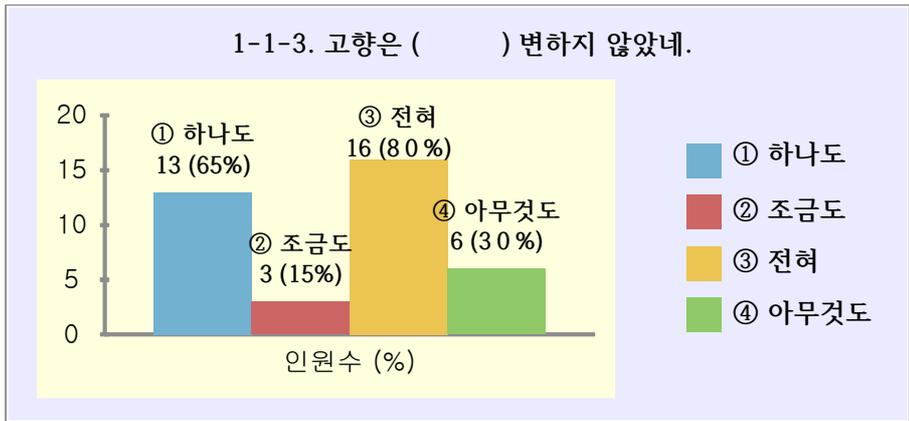


<그림 1> 문항 1-1-1에 관한 조사 결과



<그림 2> 문항 1-1-2에 관한 조사 결과

이 두 문항에서 '아무도'와 '아무것도'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실제 대화중에서도 '아무도'와 '아무것도'를 더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문항 1-1-3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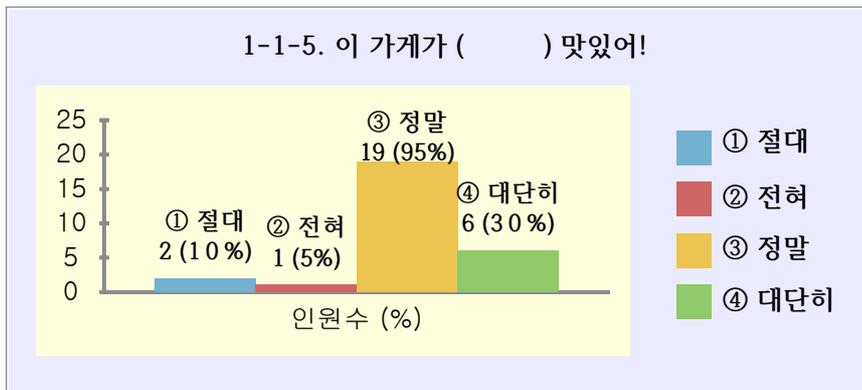
문항 1-1-3에서는 고향의 변화에 대해 강조하려면 사실 정도나 사물을 강조하는 네 가지 선택항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서 이 문항에서 조사 참여자들이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한 '① 하나도'와 '③ 전혀'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 4> 문항 1-1-4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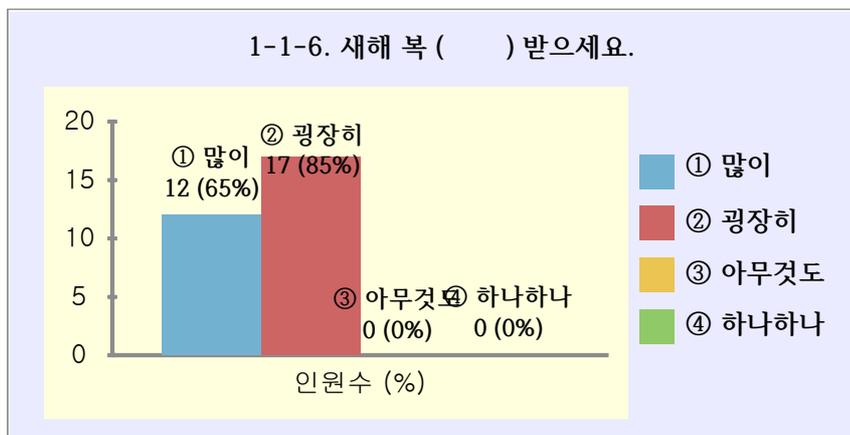
문항 1-1-4는 앞에 세 가지 문항과 달리 명령형 문장이라서 '③ 절대'만 쓸 수 있다. 여기서도 다른 선택항을 선택하는 조사 참여자들이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문항 1-1-5와 1-1-6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문항 1-1-5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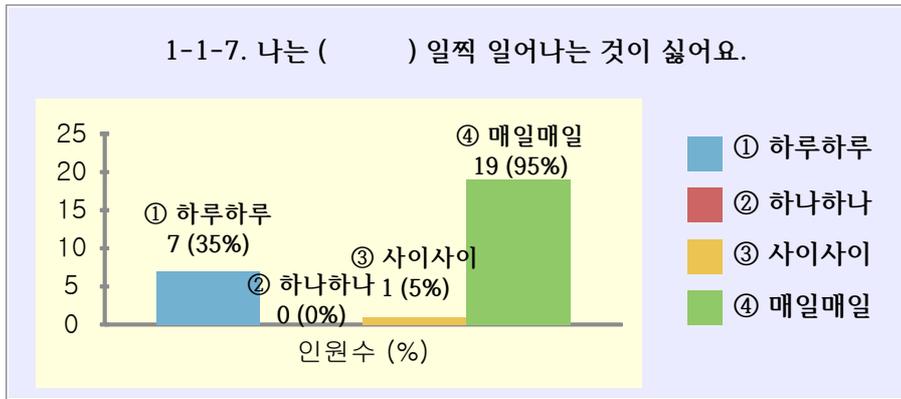
문항 1-1-5와 1-1-6은 부사적 강조 표현에 관한 질문이다. 부사적 강조 표현은 모두 정도 부사라서 학습자들에게 알아보고 정확히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면 된다. 문항 1-1-5의 조사 결과를 보면 '④ 대단히'보다 '③ 정말'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더 많다고 알아볼 수 있다.



<그림 6> 문항 1-1-6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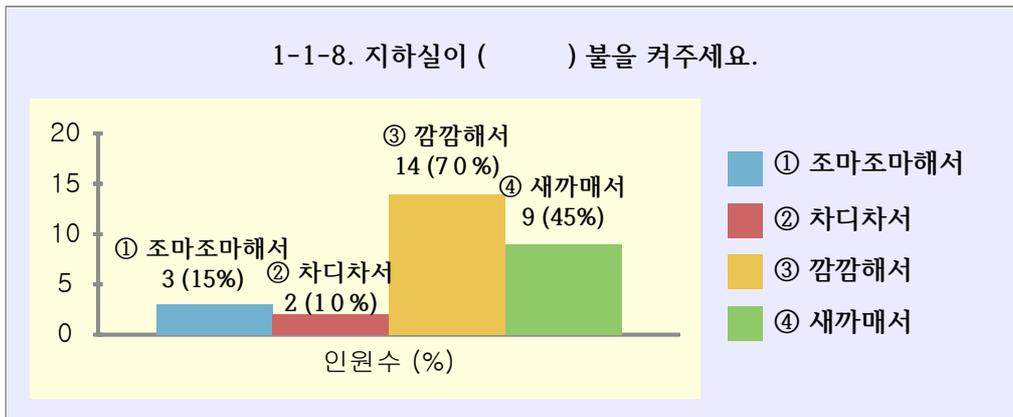
문항 1-1-6에서 12 명이 '① 많이'를 선택하고 총 인원수의 65%에 차지하였고, 17 명이 '② 굉장히'를 선택하고 총 인원수의 85%에 차지하였다. '① 많이'보다 '② 굉장히'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조금 많다고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습관에 따라 '② 굉장히'가 여기서 거의 안 쓰는 편이라서 학습자들에게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적합한 정도 부사들을 사용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문항 1-1-7와 1-1-8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문항 1-1-7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1-1-7과 1-1-8 이 두 가지 문항은 3.2.2에서 선정된 반복적 강조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출현한 '매일매일'과 '깜깜하다'에 대한 조사하는 질문이다. 문항 1-1-7에서는 부사를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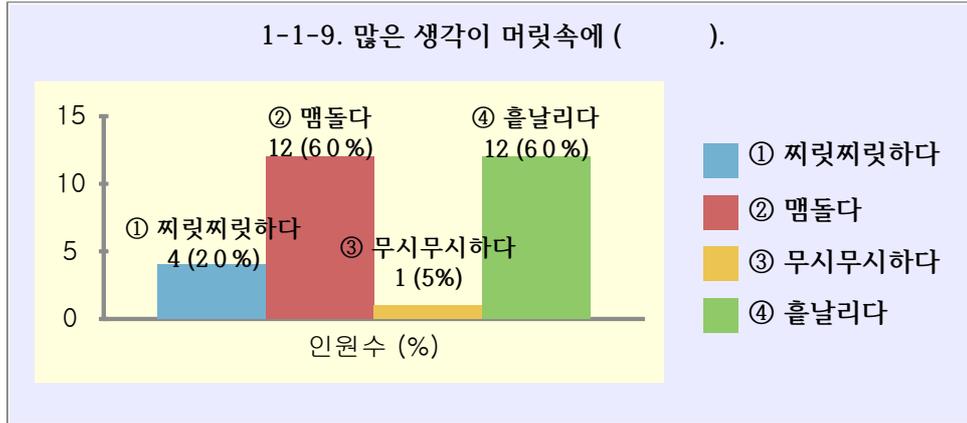
<그림 8> 문항 1-1-8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1-1-8에서는 형용사를 선택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사에 대한 질문에 틀린 조사 참여자가 거의 없지만 형용사에 대한 질문에 틀린 조사 참여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지하실에 들어가고 어떤 원인 때문에 불을 켜달라는 부탁을 해서 환경을 형용하는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① 조마조마해서'는 사람이나 그 마음을 형용하는 어휘이고 '② 차디차서'는 환경을 형용하는 어휘이지만 온도만 형용할 수 있어서 불과 관계가 없어서 이 두 가지는 모두 틀린 답이다. '③ 깜깜해서'와 '④ 새까매서'는 비슷하지만 '④ 새까매서'는 색채를 형용하는 어휘라서 환경을 형용하는 '③ 깜깜해서'만은 정답이다. 하지만 '④ 새까매서'는 반복적 강조 표현이 아니라 파생적

강조 표현이라서 이것이 반복적 강조 표현에 관한 오류가 아니라고 여긴다.

따라서 문항 1-1-9부터 1-1-1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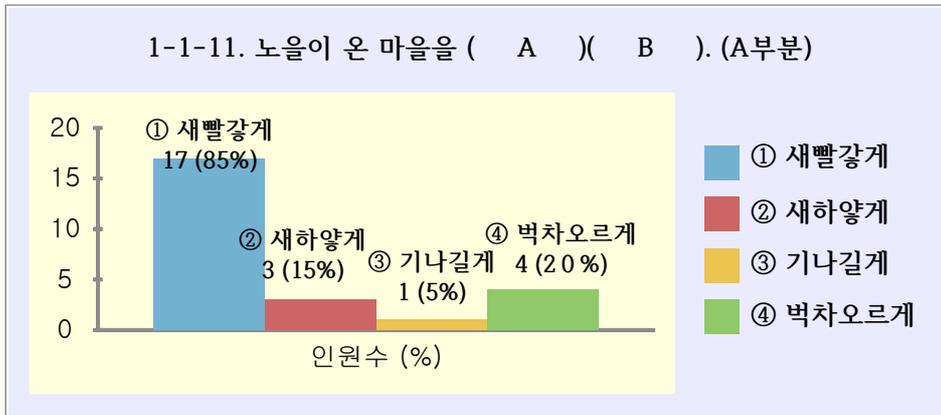
<그림 9> 문항 1-1-9에 관한 조사 결과

이 네 가지 문항은 모두 3.2.2에서 선정된 파생적 강조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출현한 '멤들다', '똑같다', '물들이다', '새빨갳다'에 대한 조사하는 질문이라서 문항마다 정답인 선택항은 하나만 있다. 문항 1-1-9에서는 '생각'을 형용하려면 '② 멍들다'만 선택할 수 있지만 '④ 흘날리다'를 선택하는 조사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이 '④ 흘날리다'는 사물만 수식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오류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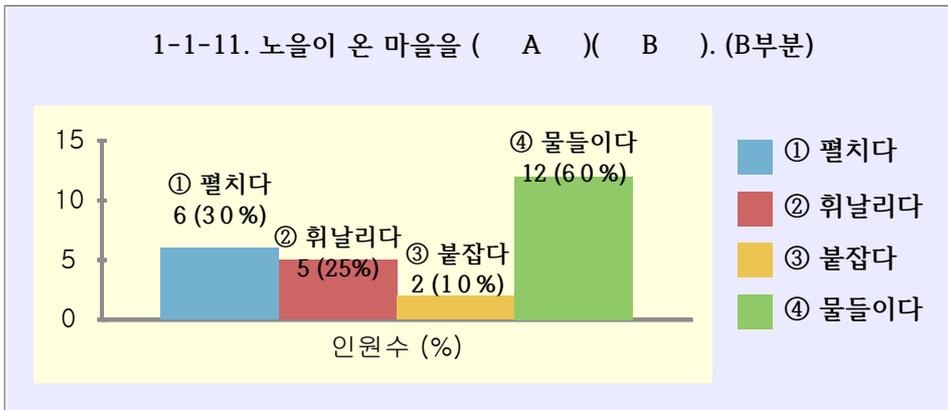


<그림 10> 문항 1-1-10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1-1-10에서는 조사 참여자들이 대부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림 11> 문항 1-1-11(A부분)에 관한 조사 결과



<그림 12> 문항 1-1-11(B부분)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1-1-11에서는 A부분과 B부분을 일치시켜 선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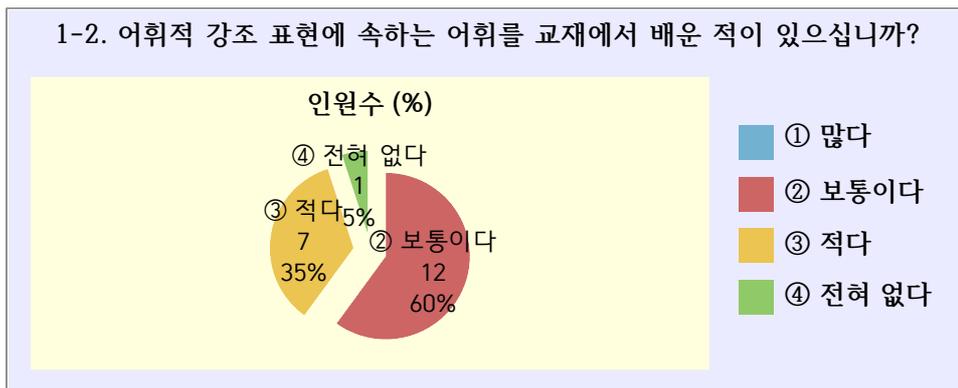
질문 보기를 통해서 맞는 선택항은 '① 새빨강게'와 '④ 물들이다'이라는 것이 알 수 있지만 다른 선택항을 고르는 조사 참여자들도 있다. 특히 B부분에서 문장과 관계가 없는 '① 펼치다'를 선택하는 6 명과 '② 휘날리다'를 선택하는 5명은 대부분 어휘 자체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상은 조사 참여자들이 예문 11개를 읽고 적합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선택하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해 참여자들이 부정의 대상에 따라 부정사를 명확히 고를 수가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른 경우에 정확한 부정사를 제시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사적 강조 표현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정도 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복적 강조 표현과 파생적 강조 표현의 경우에는 잘못 쓰는 것보다 어휘 자체의 뜻을 모르는 상황이 많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학습

자들은 자신의 어휘량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총 11가지의 예문을 읽고 적합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선택하기를 통해 조사 참여자가 어휘적 강조 표현을 잘 이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문항 1-2부터 1-5를 통해 조사 참여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사용 현황을 알아볼 수 있고, 문항 2-1부터 2-4를 통해 K-POP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문항 3-1부터 3-4를 통해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림 13> 문항 1-2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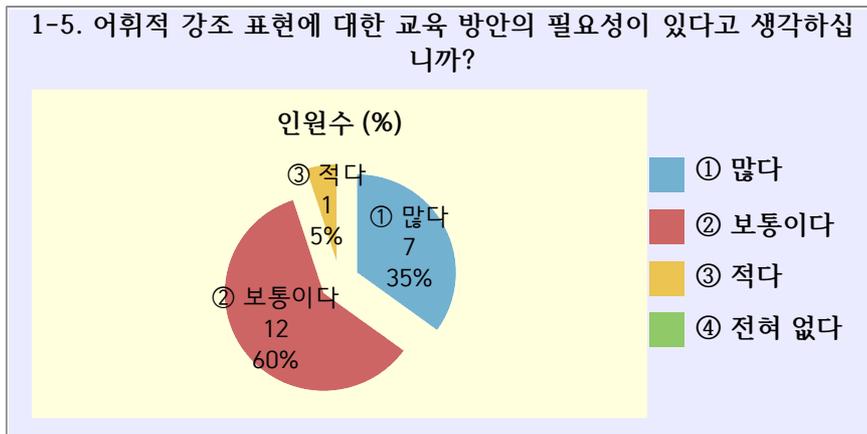
<그림 14> 문항 1-3에 관한 조사 결과

앞에 문항 1-2와 1-3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이 실제 대화에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자주 쓰지만 교재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수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림 15> 문항 1-4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1-4의 조사 결과를 보면 어휘적 강조 표현의 두 가지 기능인 '정보 전달'과 '감정 강화' 중에 모든 조사 참여자들이 자신이 어휘적 강조 표현을 쓰는 목적이 감정 강화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70%가 '③ 둘 다'를 선택한 것을 보면 '감정 강화'보다 적지만 '정보 전달'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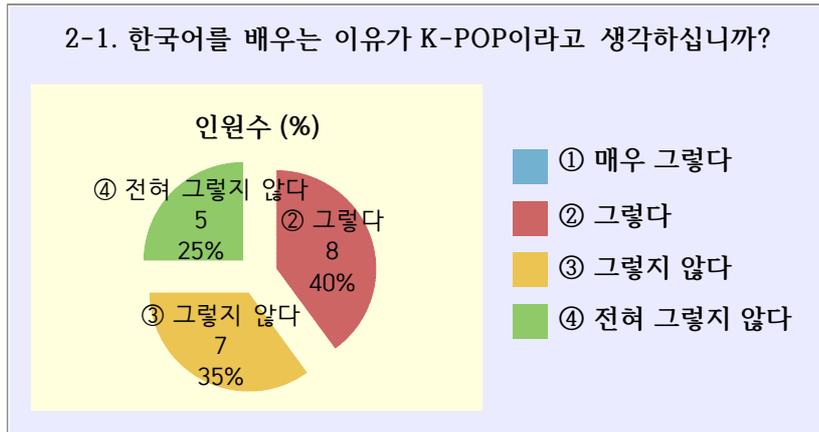
<그림 16> 문항 1-5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1-5에서는 한 명만 '③ 적다'를 선택하고 '④ 전혀 없다'를 선택한 조사 참여자들이 한 명도 없다. 이런 결과를 통해 대부분 학습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문항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이 실제 대화에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자주 쓰지만 교재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수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을 사용하는 목적이 대부분 '감정 강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중에 교육 방안을 설계할 때도 '감정 강화' 목적 위주로 예문이나 연습 문제를 제시하겠다. 셋째, 대부분 학습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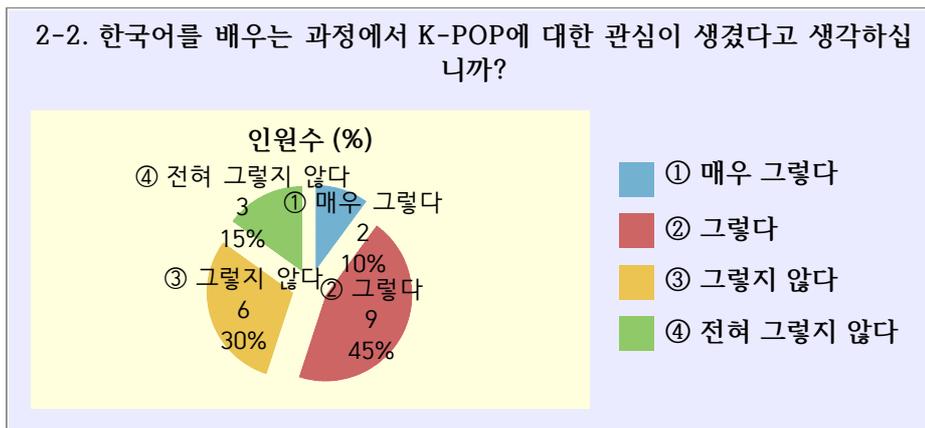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문항 2-1부터 2-4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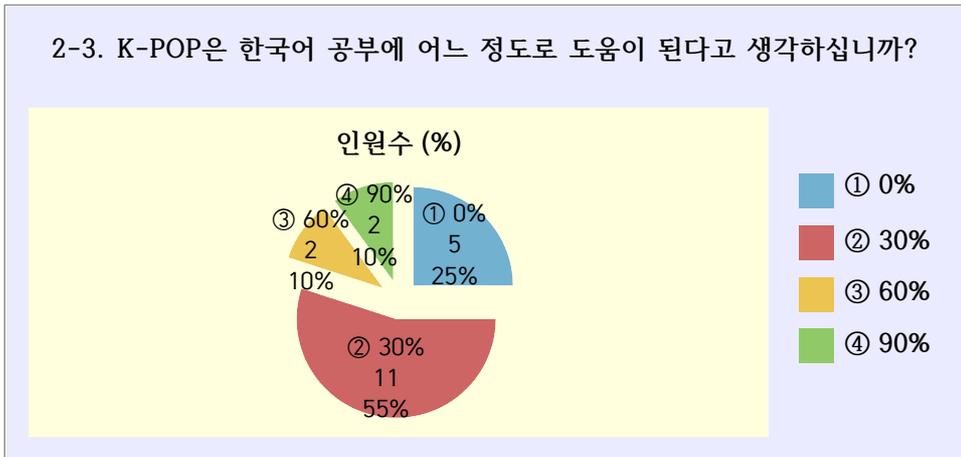
<그림 17> 문항 2-1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2-1을 통해 조사 참여자들 중에 K-POP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인원이 40%로 차지한다는 것을 보면 앞에 2.1에서 언급한 듯이 K-POP이 한국대중문화 안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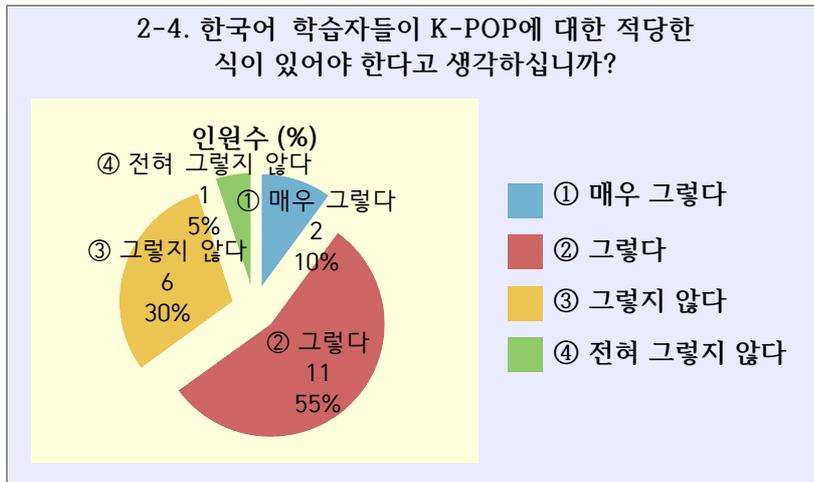
<그림 18> 문항 2-2에 관한 조사 결과

그 뒤에 문항 2-2를 통해 반수 이상의 조사 참여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보면 K-POP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흡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문항 2-3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2-3을 통해 K-POP이 한국어 공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조사 참여자가 75%로 차지하고 특히 그 중에 K-POP이 한국어 공부에 대해 90%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2명이 있다는 것을 보면 K-POP과 한국어 교육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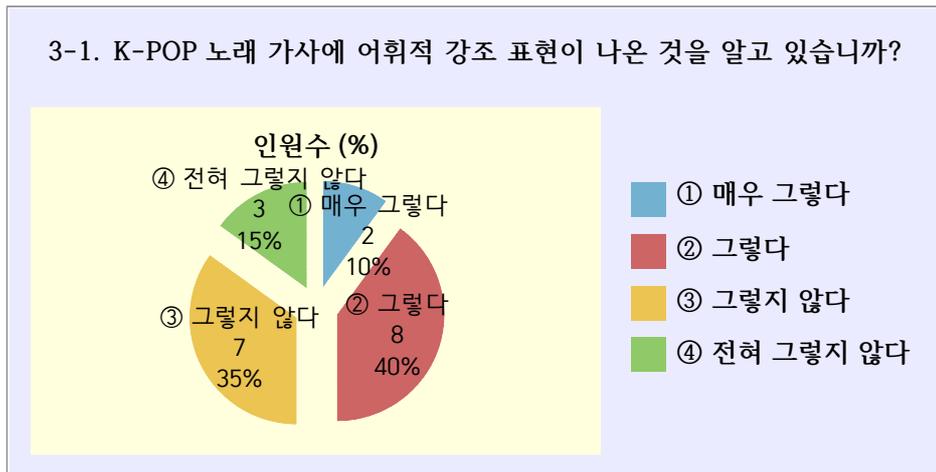
<그림 20> 문항 2-4에 관한 조사 결과

그 다음 문항 2-4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K-POP에 대한 적당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사 참여자가 65%로 차지한다는 것을 보면 K-POP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한국대중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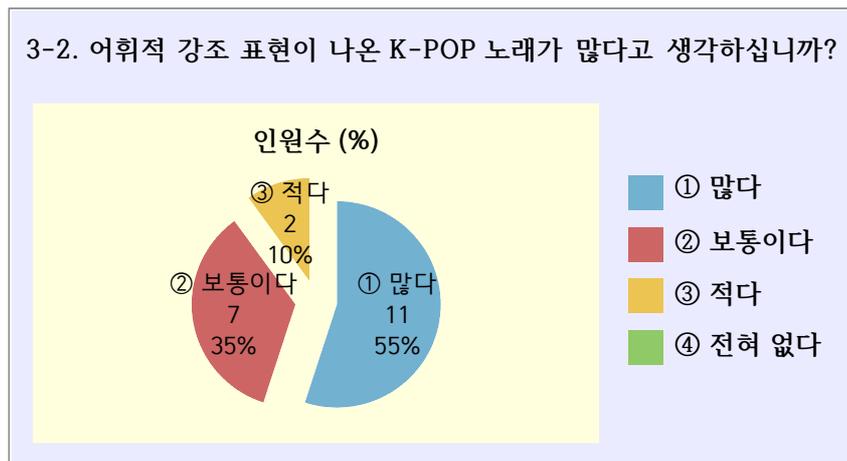
이 네 가지 문항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K-POP이 한국대중문화 중의 영향력과 일정한 흡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 학습자들은 K-POP이 한국어 학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K-POP과 한국어 교

육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K-POP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한국대중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문항 3-1부터 3-4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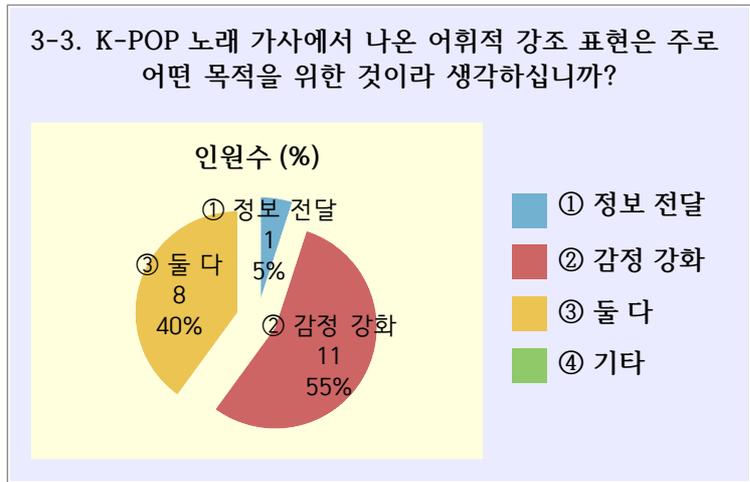


<그림 21> 문항 3-1에 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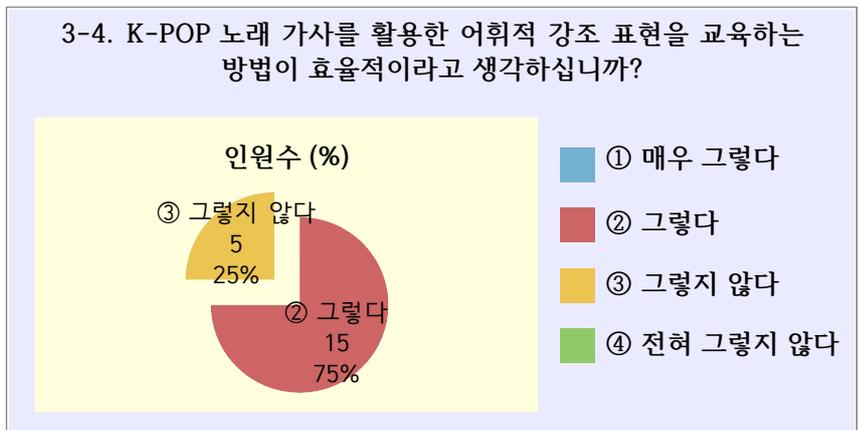
<그림 22> 문항 3-2에 관한 조사 결과

앞에 문항 3-1과 3-2를 통해 조사 참여자들 중에 K-POP 노래 가사에 어휘적 강조 표현이 나온 것을 알고 있는 인원이 반수로 차지하고 어휘적 강조 표현이 나온 K-POP 노래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가 55%를 차지한다. 이를 보면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에서 K-POP 노래 가사가 적합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문항 3-3에 관한 조사 결과

문항 3-3을 통해 K-POP 노래 가사에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쓰는 목적이 앞에 문항 1-4와 같이 '정보 전달'보다 '감정 강화'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문항 3-4에 관한 조사 결과

마지막에 문항 3-4를 통해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방안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 문항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 K-POP 노래 가사가 적합한 학습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이 앞의 문항 1-4와 같이 K-POP 노래 가사에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쓰는 목적이 주로 '감정 강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K-POP 노래 가사를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방안

K-POP을 활용한 한국어를 수업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 책에서 벗어난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둘째, 노래의 특성상 멜로디와 리듬으로 기억하기 쉽고, 셋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어 수업 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의를 끌기 쉬운 어휘적 강조 표현에 K-POP의 멜로디나 리듬이 합쳐진다는 면에서도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적 강조 표현을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어휘적 강조 표현은 대부분 부사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네 개의 대학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어휘적 강조 표현은 모두 부정적 강조 표현이나 부사적 강조 표현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강조 표현은 {아무것도, 누구도, 무엇도}, 세 가지만 한 교재에 나타났다고, 나머지 부사적 강조 표현은 많이 나타나서 네 가지 교재에서 다 나타난 어휘는 {너무, 참, 아주, 매우}가 있다. 이에 4개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휘적 강조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3> 어휘적 강조 표현 실현 분석

어휘적 강조 표현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종류
아주	1권	1B	1권	1권	부사
매우	2권	1A	1권	2권	부사
너무	1권	1B	2권	1권	부사
참	2권	1A	1권	1권	부사
몹시	3권		3권	3권	부사
엄청	4권	5A	4권	3권	부사
하도	4권	4B	3권		부사
불과			4권	4권	부사
무엇도	4권		4권		부정사
누구도			4권		부정사
아무것도			4권		부정사
얼마나	3권	4B	3권		부사
어찌나		5A	4권	3권	부사
더더욱		5A			부사
마저	4권		4권		부사
이나마	4권				부사
총	12개	9개	14개	8개	

네 가지 한국어 교재의 급수나 권수에 따라 그중에서 나타난 어휘적 강조 표현을 등급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교재에 의한 등급별 어휘적 강조 표현

초급	중급	고급
아주, 매우, 너무, 참	몹시, 엄청, 하도, 불과, 무엇도, 누구도, 아무것도, 얼마나, 어찌나, 마저, 이나마	더더욱

이를 보면 어휘적 강조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중급 이상부터인데 초급에서도 어휘적 강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 학습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노래 선정은 교사의 직관적인 의견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준에 맞는 K-POP 노래 선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표 1>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 교재나 K-POP에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의 출현 중 부사적 강조 표현이 가장 많은 사실을 볼 때, 더욱 균형 있는 어휘적 강조 표현의 교수.학습 연구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POP을 이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함에서도 균형감을 유지하고, 학습자들이 어휘적 강조 표현의 종류별로 골고루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 및 절차를 제시할 것이다.

요즘 인터넷을 기반으로 K-POP의 확산이 매우 크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K-Pop의 인기를 가늠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또한 유튜브 차트나 K-Pop 가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와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다. 이에 친숙한 K-Pop 가사와 삽화를 통해 쉽게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K-Pop Korean 케이팝 코리아>으로 K-POP 노래 가사에서 출현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3장에서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74% 이상이 어휘적 강조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정적 강조 표현에서 5번 이상 나온 어휘는 '절대(11), 아무것도(8), 아무도(6)'로 총 25번이다. 부사적 강조 표현에서 5번 이상 나온 어휘는 '너무(20), 참(11), 너무나(5), 벌써(5)'로 총 41번이다.

교재에 수록된 어휘적 강조 표현의 출현 빈도 외에 4장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어휘적 강조 표현과 K-POP,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의 중요성,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목적과 어휘적 강조 표현의 활용 능력, 그리고 오류 분석까지 설문지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에 11개의 선다형 문제를 통해 학습자들의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 능력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한 오류는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났다. 문항 1-1-1에서 조사 참여자 6명이 사람을 강조하는 문장에서 '하나도'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문항 1-1-4에서는 조사 참여자 2명이 행동을 강조하는 문장에서 정답인 '절대'를 선택하지

않았다. 부사적 강조 표현에 대한 오류도 주로 문항 1-1-6에서 참여자 8명이 특정 상황에 사용되는 '많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항 1-1-2에서 '아무것도'를 모두 선택하였고 문항 1-1-3에서 '전혀'를 16명이 선택하였다. 또한 문항 1-1-5에서 '정말'을 19명이 선택하는 등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세 가지 어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부정적 강조 표현은 '아무것도, 누구도, 무엇도, 절대, 아무도, 하나도, 전혀' 등이며, 부사적 강조 표현은 '너무, 참, 아주, 매우, 너무나, 벌써, 정말, 많이' 등이다.

그리고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은 초, 중, 고급 각 등급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3.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에서 주로 초급단계에서 어휘적 강조 표현 어휘들이 나타났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어휘들을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K-POP 가사와 같이 정리해온 어휘는 모두 초급과 중급에서 나타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초급과 중급에 속하는 어휘만 분석해서 다음의 교육 내용도 초급과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작성하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위에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표 8>에서 제시한 내용과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출시한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https://www.topik.go.kr/usr/cmm/subLocation.do?menuSeq=2110503&boardSeq=64217>)을 참고해서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⁸⁸⁾

<표 5> 초급, 중급의 교육 내용

등급	부정적 강조 표현	부사적 강조 표현
초급	아무도, 아무것도, 누구도, 무엇도, 하나도, 전혀	너무, 아주, 참, 매우, 정말, 많이, 벌써
중급	절대	너무나

하지만 모든 어휘적 강조 표현을 등급별에 맞는 K-POP 노래 목록을 정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초, 중, 고급의 등급별 교수.학습 모형보다는 어휘적 강조 표현의 종류, 즉 부정적 강조 표현과 부사적 강조 표현에 따라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또 듣기와 말하기, 쓰기에서 디토크로스 활용하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K-POP을 활용한 어휘적 강조 표현의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이상의 교육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수업 기본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어휘에 관한 지식을 어떤 정도로 가지고 있는 초,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PPP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PPP 모형이란 '제시-연습-활용'이라는 단계에 따라 교수 및 학습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수업 모형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도입 단계, 제시 단계, 그리고 연습 단계, 활용 단계, 마무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88) 총들이 있는 어휘는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에 따라 제시한다.

<표 6>과 같이 수업 내용 개요와 수업 기본 절차를 알아볼 수 있다.

<표 6> 수업 내용 개요 및 기본 절차

학습 내용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학습 목표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이해하기 및 활용하기		
학습 기능		강조하기		
학습 시간		50분		
학습 대상		초, 중급 학습자		
학습 단계		활동		시간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학습 동기 유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5분
제시	노래 듣기	노래를 들어주기	노래를 듣기	5분
	어휘 제시	어휘를 설명하기	어휘를 배우기	15분
연습	연습 문제	연습 문제를 보여주기 및 시간주기	연습 문제를 풀기	15분
활용	감수 얘기하기	가사를 보여주며 노래를 다시 들어주기	배운 어휘를 이용해서 노래에 대한 감수 얘기하기	8분
마무리	경험 쓰기	어휘를 정리하기	과제로 경험을 적어오기	2분

<표 6>은 PPP 모형을 적용하여 설계한 수업 개요와 기본 절차이다. 도입 부분에서는 교사가 학습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소개하면서 학습 동기 또는 의욕을 부여하여 학습 흥미 또는 의욕을 유발하는 활동을 준비한다. 이어서 제시 단계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해당 종류 어휘가 나오는 K-POP 노래를 들어주고 어휘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연습 단계는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활동을 재확인하는 단계이다. 활용 단계는 교사가 노래가사를 보여주며 노래를 다시 한 번 들려주고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이용해서 노래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며 어휘를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수업을 정리하면서 배운 어휘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어오도록 과제를 내주는 단계이다. 다음에는 부정적 강조 표현을 예시로 교수-학습 방안의 실재를 제시하겠다.

앞 장에서 부정적 강조 표현은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부정적 강조 표현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대부분은 의문사 뒤에 '-도'가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의 부정의 뜻이 강조된다.'고 한다. '대부분'이라는 말은, 모든 부정적 강조 표현이 '아무도, 무엇도, 조금도' 등 의문사 뒤에 '-도'가 붙어서 된다는 뜻이다. '절대, 전혀'와 같은 부정적 강조 표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 교재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적 강조 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된 경우

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이 사람인 부정적 강조 표현에서, '아무도'는 어느 교재에서도 제시되지 않았고 '누구도'는 서울대학교 교재 4권 29과에서만 제시되었다. 대상이 사물인 부정적 강조 표현에서, '무엇도'만 경희대학교 교재 4권 8과와 서울대학교 교재 4권 7과에서 제시되었고 '아무것도'와 '하나도'는 어느 교재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대상이 정도와 행동인 부정적 강조 표현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 강조 표현은 한국어 교재에서 중시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장 <표 2>을 보면 K-POP 노래 가사에 출현한 총 16개의 부정적 강조 표현에서 5번 이상 나온 어휘는 '절대(11), 아무것도(8), 아무도(6)'이고 총 25번이다. 그러한 사실은 K-POP 노래 가사에 출현한 부정적 강조 표현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장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론을 보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도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부정적 강조 표현을 위한 곡으로 다른 어휘적 강조 표현과 자연스럽게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연구에서는 종류별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교수·학습 모형만을 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어휘적 강조 표현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표 1>의 K-POP 목록에 수록된 115곡 중 부정적 강조 표현이 노랫말에 등장하는 곡수는 총 36곡이다. 그중 노랫말 텍스트 안에 부정적 강조 표현이 두드러지고, 출현 수가 많은 여자친구의 '해야'를 선정하였다. '해야'에는 {조금도, 아무것도, 절대}라는 부정적 강조 표현이 등장하였다. 노래듣기 단계에서는 다른 부정적 강조 표현이 들어 있는 엑소, Winner, 아이즈원, IU의 곡들도 짧게 들려주고 다양한 노랫말 텍스트에 나오는 부정적 강조 표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가. 도입 단계

먼저 노래 전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할 부정적 강조 표현을 자연스럽게 끝 수 있도록 가벼운 이야기로 유도한다. 노래를 듣기 전에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유도하는 절차가 다음과 같다.

(18) ㄱ. 학생들에게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고 본 적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단히 질문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온다. '예쁘다, 노래를 잘한다' 등)



<그림 1> K-POP 단체 '여자친구'

ㄴ. '여자친구'의 사진을 가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보이냐고 질문한다.

('안 보여요'라고 대답이 나온다.)

ㄷ. 칠판에 '여자친구를 가리면 _____ 안 보인다.'라고 적고 학생들에게 빈 칸에 무엇을 쓸 수 있냐고 질문한다.

('누구도', '아무것도' 등 대답이 나오면 적는다.)

ㄹ. 부정적 강조 표현에 대한 의미정보를 설명해준다.

부정적 강조 표현: 대부분은 의문사 뒤에 '-도'가 붙어서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의 부정의 뜻이 강조된다.

학습자의 관심을 갖고 자신이 보이는 대상에 대해 어떤 부정사를 써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부정적 강조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제시 단계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부정적 강조 표현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음악을 제시한다.

<h2>해야</h2>	여자친구
더 이상 불러봤자 아무리 그래봤자 <u>조금도</u> 꿈쩍하지 않잖아 됐어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u>아무것도</u> 모른척하지 말아줘 (중략)	
차디찬 찬란한 해야 해야 숨어 봐야 봐야 <u>절대</u>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른 부정적 강조 표현이 포함되고 있는 다른 곡을 짧게 들려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어휘를 볼 수 있게 한다.

하나도 안 피곤해 아니 부족해 더 가까이 이리 와 널 원해, 원해, 원해, 더 (Winner - Everyday)
<u>아무도</u>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봐 Oh baby

(아이스원 - 라비앙로즈)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내 곁에 너를 지킬게
(엑소 - Tempo)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u>무엇도</u> 사랑하고 싶지 않아
(IU - 예잇)

이 노래의 텍스트들을 통해 {조금도, 아무것도, 절대}를 빼고 다른 부정적 강조 표현 {아무도, 누구도, 무엇도, 하나도}를 볼 수 있다. 또 가사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부정하는 대상에 대해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음에 앞에서 보여준 부정적 강조 표현이 강조하는 대상을 종류별로 나누어 예문과 같이 제시한다.

<표 7> 대상에 따라 쓰는 부정적 강조 표현

대상	사람	사물	정도	행동
어휘	아무도, 누구도	아무것도, 무엇도, 하나도	하나도, 조금도, 전혀	절대

(19)ㄱ. 대상이 사람인 부정적 강조 표현:

아무도: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

누구도: 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ㄴ. 대상이 사물인 부정적 강조 표현:

아무것도: 입원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도: 안개가 짙으니까 무엇도 보지 못한다.

하나도: 흐른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

ㄷ. 대상이 정도인 부정적 강조 표현:

하나도: 미역국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먹었다.

조금도: 초등학교 친구와 만나는데 얼굴이 조금도 안 변했다.

전혀: 숙제가 어려워서 전혀 못 한다.

ㄹ. 대상이 행동인 부정적 강조 표현:

절대: 저 길이 공사 중이라 절대 가면 안 된다.

이 단계에서는 도입 단계와 같아서 학습자들을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킨다. 그리고 부정적 강조 표현의 특징을 비롯해 심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연습 단계

앞에 4.2에 나오는 설문 분석 결과를 통해 '감정 강화' 목적 위주로 예문이나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 지면 문제를 통해 학습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학습자들에게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고 다 풀 후에 답안을 제시하며 해석한다.

문제 1. 맞는 것을 고르고 채우기.

누구도, 아무것도, 조금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_____ 좋아지지 않았다.
 이 책을 _____ 알아볼 수 없다.
 눈을 감으면 _____ 안 보인다.

문제 2. 틀린 문장 선택하기.

이 건물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의 말을 하나도 안 들린다.

문제 3. 부정적 강조 표현을 이용해 문장 만들기.

아무도: _____
 무엇도: _____
 전혀: _____

라. 활용 단계

노래 가사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가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를 다시 한 번 듣는다. 부정적 강조 표현을 이용하여 노래에 대한 느낌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20) ㄱ. 이 노래가 어떤 가사 내용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ㄴ. 노래 가사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준다.

ㄷ. 노래 가사 내용과 자신이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게 한다.

마. 마무리 단계

교사가 부정적 강조 표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고, 부정적 강조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어내도록 과제를 내 준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활용 정보를 주고 부정적 강조 표현을 사용할 때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 어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는 포인트를 제시한다. 또한 학습자가 지면 문제와 말하기, 쓰기 등을 통해 부정적 강조 표현을 인지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수·학습에 K-POP을 활용하는 제안을 하며, K-POP에 들어있는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을 조사해 목록화하고, 부정적 강조 표현과 부사적 강조 표현의 종류별 교육 방안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연구는 중요도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한류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학습자와 잠재 학습자들이 K-POP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K-POP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고 K-POP에 대한 연구도 아주 적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 물론이고, K-POP을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특히 K-PO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의 교수·학습에 학습자의 수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K-POP을 더욱 명확하게 목록화하고, K-POP 노래 가사 텍스트에 쓰인 어휘적 강조 표현 어휘를 정리,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휘적 강조 표현과 K-POP의 연구가 더욱 다각도로 이루어진다면, 어휘적 강조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 의욕 또는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박선영(2016), 『K-Pop Korean 케이팝 코리안』, 다락원.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학술지>

곽셀 튀르키쭈(1999),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권재일(1983), 「현대 국어의 강조법-'종결어미'류 결합의 경우」, 『대구어문논』총 1, 대구어문학회.

권재현 · 권기환(2012),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한류 관광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0.4 (2012): 207-226, 한국항공경영학회.

박동근(2007), 「현대국어 강조부사 범주의 설정과 기능적 분석」, 『한글』275, 한글학회.

양종모(2011), 「케이 팝의 학교 음악교육에 수용 탐색을 위한 음악적 특징 분석」, 『음악응용연구』 제4권, 한국음악응용학회.

이현희(2013), 「어휘 차원에서의 '강조' 실현 방식과 그 특징」, 『한국학연구』4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정미(2008),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강조법 연구」, 『한말연구』23, 한말연구학회.

정명숙(2012), 「한국어 강의 담화에 강조 발화의 특성」, 『이중언어학』50, 이중언어학회.

<한국어 교재>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0), 『한국어 초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1), 『한국어 초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중급 I~II』, 경희대학교 출판국.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3), 『한국어 고급 I~II』, 경희대학교 출판국.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6), 『서강 한국어 4A~5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 1A~3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 1~4』, (주)문진미디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말이 트이는 한국어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3, 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말이 트이는 한국어 5』,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학위논문>

김경지(2001),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영화와 노래를 중심으로 한 수업활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신(1998), 「강조 보조용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영(2001), 「프랑스어 수업에서의 상송 활용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계 결(2017), 「한국어 강조 표현 교육 내용 연구 - 한국어 교재 강조 표현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독고현(2004), 「고등학교 영어 학습을 위한 팝송의 활용 방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두 위(2007), 「한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중국어 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내별(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강조 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 흐(2016), 「현대 한국어의 강조표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미(1993), 「현대 국어의 강조 표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은(2009), 「팝송과 UCC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영어 지도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성규(1989a), 「현대국어의 강조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재란(2014), 「케이 팝(K-POP)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향상 방안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 련(2015), 「한국어 강조 보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토론문: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연구

손진희(강원대학교)

위 논문은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을 선정하고, 학습자들의 설문지를 통해 그 인식을 알아본 뒤, 교육 방안까지 적용한 연구입니다. K-POP을 통한 교육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연구 논문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1. 서론

서론의 마지막에 이 논문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논문 제목과 연결하여 더욱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는 '교육 연구'라 하여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론(2쪽)에서는 '학습 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론 2쪽에서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를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의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가장 최근의 자료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2쪽 중간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자료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언급하였는데, 누가 설문조사한 것인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수정하겠습니다.

2.1 어휘적 강조 표현의 개념

소제목은 '어휘적 강조 표현의 개념'인데, 내용은 분류 방법에 대해 여러 연구 논문에서 밝힌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으니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적 강조 표현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적, 부사적, 반복적, 파생적 강조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 이것이 앞에 있는 선행연구의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을 융합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어휘적 강조 표현의 유형과 특징

소제목은 어휘적 강조 표현의 유형과 특징인데, 그 내용에 그 특징에 대해 더욱 명시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2에 어휘적 강조 표현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들은 V. <표 3> 어휘적 강조 표현 실현 분석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이것을 기준으로 K-POP에 나타난 어휘적 강조 표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2.2에 어휘적 강조 표현의 예들은 사전에 찾아온 예시고 <표 3>은 교재에서 정리해 나온 어휘적 강조 표현입니다.

3.1.1. K-POP의 개념과 특징

제목은 ‘K-POP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개념과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개념의 경우, 양종모(2011)에서 기술한 정의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양종모(2011)에서는 K-POP은 한국인이 만들어 외국인이 즐기는 음악의 일종으로 정의 되어있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만들어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최근의 음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최근'이라는 범위는 K-POP이 한류의 중심이 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3기의 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각주에서 적어있습니다.

4.1. 분석 방법과 내용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사자의 국적 분포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조사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초급학습자들은 어휘적 강조 표현에 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픽 3급 및 그 이상의 급수를 가진 학습자만 선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표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휘적 강조 표현을 보면 1급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초급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설문지 문항은 간혹 중급이라도 어려운 법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국어로만 제시하였는지 다른 언어로도 제공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휘적 강조 표현’이란 단어 자체가 고 급 학습자들에게도 어려운 표현으로 보입니다.

답변: 여기서 조사자의 국적은 모두 중국입니다. 국적이 본 연구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급을 배제한 이유는 학습 경험이 더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결과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수정하겠습니다. 조사자가 모두 중국인이어서 중국어 버전으로 조사했습니다.

4.1. 15쪽 설문지

설문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다음 문장을 읽고 적합한 어휘적 강조 표현을 고르세요’라고 하였는데, 답이 여러개인 경우도 있고 답을 고르기가 어색한 문항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인지, ‘많이 자주 쓰는’ 표현을 고르는 것인지요?

2) 1-8. 지하실이 _____ 불을 켜주세요.

- ① 조마조마해서 ② 차디차서 ③ 째깍해서 ④ 새까매서

-> 이 문장의 경우는 '-아/어서'와 명령형 종결형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문장이 어색합니다.

3) 1-11. 노을이 온 마을을 _____ A _____ B _____ .

- A. ① 새빨갳게 ② 새하얗게 ③ 기나길게 ④ 벅차오르게
B. ① 펼치다 ② 휘날리다 ③ 붙잡다 ④ 물들이다

-> 이 문장은 한 문장에서 두 가지 표현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부분의 조사 목적은 학습자들에 대해 오류분석과 어휘 사용 빈도를 밝히는 것이라서 선택지에서 틀린 것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어휘도 있는데 조사자들이 자기의 의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라고 해서 제목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자주 쓰는' 것을 선택하라면 대부분 택일형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한 문장에서 두 가지 표현을 찾아야 하는 문제는 이유가 특히 없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5.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방안

35쪽 <표 6>

1) '수업 내용 개요 및 기본 절차'에서 학습 대상자가 초, 중급입니다. 두 계급을 한꺼번에 수업한다는 것이지요? '나. 제시 단계'에 나타난 노래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기엔 초급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급도 학습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두 계급을 한꺼번에 수업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계급에 대해 다 적용하다는 뜻입니다. 모국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가사도 당연히 번역하겠습니다. 초급 학습자들에 대해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포함시켰습니다.

2) '감수 얘기하기'에서 '감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답변: 가사에 대한 감상입니다.

3) 과제로 경험을 적어오라고 하였는데, 어떤 경험을 적어오는 것인가요? 초급에게도 적절한 과제인가요?

답변: 어휘적 강조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나 글을 쓰는 경험입니다. 초급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서 따로 설치를 안 합니다.

6. 기타

문장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

1. (2') 그 수업에서 {아무도, 누구도} 안 갈걸. [부정]
-> 그 수업에 {아무도, 누구도} 안 갈걸. [부정]

답변: 적당한 표현으로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쪽

2. 한국어 교육과 K-POP의 연결고리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노래를 배우고 따라한 경험에 비추어 볼 수 있다.(?)

답변: '연결고리'는 그냥 '연결'이라는 뜻이고 '따라한'은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뜻입니다.

9쪽

3. (16) ㉠. 부르기로 기억해 운율과 따라 오래 남는다.(?)
㉡. 수업에 도움을 뮤직 비디오를 활용해서 준다.(?)

답변: ㉠. 운율과 따라 부르기로 기억해 오래 남는다.
㉡. 뮤직 비디오를 활용해서 수업에 도움을 준다.

17쪽

2. K-POP에 관한 조사

1.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K-POP(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어를 배우면서 K-POP에 관심이 생겼습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4. 한국어 학습자들이 K-POP에 대한 적당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당한 인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앞의 두 가지 모두 맞은 이해입니다. '적당한 인식'은 K-POP에 대해 적당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POP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적 강조 표현 교육 연구'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의 질문들이 작게나마 선생님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문에서 논문을 곱해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토론자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세종학당의 교육 플랫폼 적용과 운영에 대한 고찰⁸⁹⁾
-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김명권 · 안여경⁹⁰⁾
(선문대학교)

1. 서론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2012년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의 전신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의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한 3개국 13개소에서 2022년 6월 기준 84개국 244개소로 증가하였고, 학습자 수는 2007년 740명에서 2021년 8만 1476명으로 110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동안의 누적 학습자 수는 58만 4174명에 달한다. 세종학당은 국외 한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 지정 및 국외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 등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84개국 244개소로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보급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누리-세종학당과 온라인 세종학당을 통해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중심이 되면서 이전부터 준비하여 운영해 오던 누리-세종학당 및 온라인 세종학당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입자 수 역시 2021년 기준 40만 3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이미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학습을 보완하고자 누리-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학습자의 교육 효율 및 관리의 한계가 있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세종학당을 기획하였고, ‘2020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시범 운영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2021년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21년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은 전 세계를 4개의 권역으로 각각 나누고⁹¹⁾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었다. 권역별 시범 운영 사업 중 하나였던 ‘2021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온라인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권역의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의 과정을 제시하여 지역적 특성과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세종학당의 중심 플랫폼인 학습관리시스템(LMS)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학습자들에게 어떤 성과를 주었는지 제시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온라인 세종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89) 본고는 세종학당재단에서 2021년에 발주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운영 사업’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90)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선문대학교 한국어세계화연구소

91) A권역(동남·동북아시아), B권역(러시아, 서남·중앙아시아), C권역(아프리카, 유럽), D권역(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온라인 교육 현황

2.1.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환경 및 현황 분석

2.1.1. 북아메리카의 지역 환경 및 현황 분석

북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 산업 시장을 가진 나라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을 한류의 확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아메리카의 대표국인 미국은 한국학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주요 대학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를 위한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이 상당수 존재해 교육 및 장학금 지원이 자체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 관한 영문 자료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학술회의와 주제별 범문화적 출판물에도 나타나 있듯이 불교 연구, 중국과 일본의 역사, 정치, 예술과 같은 이웃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을 포함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미국 전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오랜 한국어교육 역사를 기반으로 꾸준한 학습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로 특징을 가지는 지역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으며, K-드라마 또는 K-Pop의 영향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북동부, 중서부,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사립대학 중 하버드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종합적인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빙엄턴 대학교가 세 번째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워싱턴 D.C. 지역은 하버드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빙엄턴 대학교와 같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없지만 1~2명의 교수진을 보유한 몇몇 대학과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정책연구소 및 기관들이 있다. 그렇기에 워싱턴D.C. 지역은 한국학계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가진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정부와 국제 이슈 분야 전문가와 북한과 국제사회 전문가, 한국 역사사회학자가 소속되어 있다. 중서부 지역은 미시간 대학교만 종합적인 한국학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미시간 대학교의 한국학 교수진은 8명으로,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카고대학교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한국학을 지원하는 한국학위원회가 있었고,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와 역사학과에 각각 1명의 교수가 있다. 시카고 대학교는 한국 역사 및 문학 분야에서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로스앤젤리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와이 등을 아우르는 미국 서부 지역은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중심지로서 한국어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2.1.2. 남아메리카의 지역 환경 및 현황 분석

남아메리카는 지리적인 제약과 지역 문화의 색채가 강해서 문화 콘텐츠 수출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한류에 대한 열정이 타 지역보다 강하다. 많은 K-pop 그룹들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식, 화장품, 교육, 관광 등의 사업적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1905년에 시작된 한인 이민 역사와 더불어 다국적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인해 남아메리카 지역의 소도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남아메리카 지역의 열정적인 팬덤으로 인해 수동적 수용이 아닌 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재생산해 내고 있는 곳이다.

한국어교육은 남아메리카 전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 취업 기회의 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멕시코는 여러 대학교와 더불어 한국문화원에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나야리트 자치대학교의 경우는 2013년 8월 한국학 학부과정을 개설했으며 해당 학부는 신청자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온라인 교육 역시 관심이 높은 편인데 그 선발주자인 *ecnológico de Monterrey*는 약 98,000명의 학생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Coursera와 연계해서 약 33개의 과정을 MOOC 플랫폼을 통해 제공⁹²⁾하고 있다.

칠레는 칠레 내의 한국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의 수요로 인해 현지 취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계기를 통한 방문 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으로는 칠레센트랄 대학교 산티아고 세종학당과 칠레센트랄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가 있다. 온라인 교육은 Ford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Universidad de Diego Portales*)이 만들어 운영⁹³⁾하면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페루는 정식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없으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 카톨릭대학교, 리카르도 팔마 대학교 등에서 비정기적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수요가 생기면서 한국 정부 및 기관과 관련한 직종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취약하지만 모바일 트래픽의 빈도가 높다. 특히 한국 문화를 접하는 매체는 SNS와 유튜브를 중심이 되는데 이는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가 청년층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번역 없이 접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꾸준히 한국어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학 목적의 한국어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Pop 및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인구 및 보급률도 높아 온라인 매체 및 웹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Veduca(www.veduca.com.br)*라는 MOO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21개 영역, 300개 이상의 강좌를 통해 80만 명이 넘는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한국학 분야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다양한 영역 및 전공의 깊이를 추구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칠레는 한국학에 대한 연계 전공 수요가 있어 연구 분야를 다양화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가장 오랜 한국학 연구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어서 학문적 깊이를 가진다. 브라질은 아직 한국학 미정착 지역이나 자국의 경제적 반성에 대한 벤치마킹국가로 한국을 삼고 있어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2.1.3. 오세아니아의 지역 환경 및 현황 분석

오세아니아의 중심 국가인 호주는 NALSAS 정책으로 주요 필수 4대 아시아 언어로 지정되었지만, 2012년 필수 아시아 언어에 배제되면서 잠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학 재정지원 협약에서 호주의 전략적 언어 목록에 추가되었다. 한국어교육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어 학습

92) <https://www.coursera.org/tecdemonterrey>

93) <http://mooc.udp.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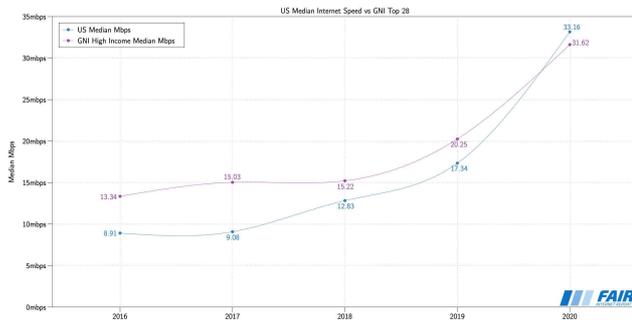
저변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학 역시 확장기(30년)를 지나 유지기(10년)에 접어들어 한국학 프로그램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가장 중요 무역 상대국 중의 하나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면에서도 중간 파워 블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제 정세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전략적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대학, 한글학교, 초중고교(제2외국어), 일부 마니아층에 국한된 한류 영향 수요가 있으나 그 학습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 현황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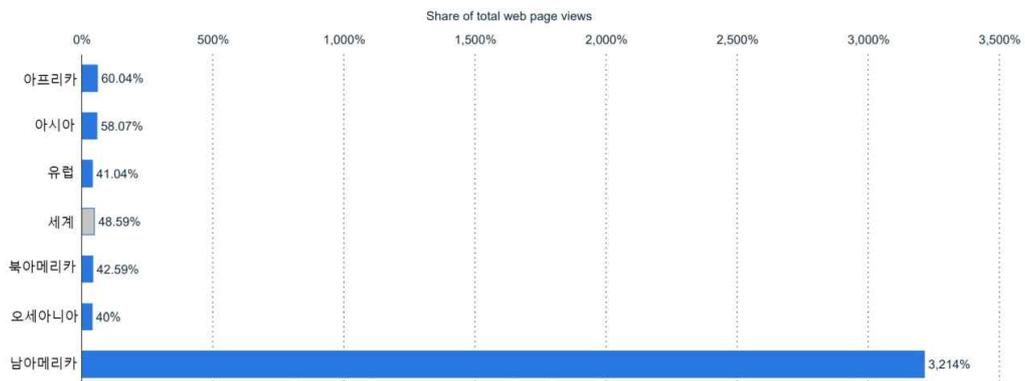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중심의 시장 체제로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다. 그 중 2021년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 중 대상 권역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에서 거점 지역인 미국, 페루, 호주를 중심으로 권역별 온라인 접속 환경과 권역별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권역별 온라인 접속 환경

먼저 북아메리카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평균 이상의 인터넷 속도 환경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의 77%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아메리카는 인터넷 인프라 발전에 따라 사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⁹⁴⁾ 1인당 평균 3.0개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연결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의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약 66배 높은 3.214%를 차지하고 있어 모바일 환경 의존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94) 2015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5G 속도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주요도시 5G 속도(6위), 다운로드 속도(4위), 최대 다운로드 속도(10위), 영상 재생(9위), 게임(9위), 통화 어플리케이션(7위) 등 인터넷 환경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2.2. 권역별 온라인 학습 인프라

권역별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온라인 인프라가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정부의 주도적 투자를 통해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보편화되고 있다. LA의 경우 2020년 6월에는 LA중앙도서관에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신설하여 온라인 화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휴스턴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My dear Korea UCC Contest'를 개최하였다.

페루는 KOICA가 주최하는 글로벌연수사업인 씨앗(CIAT: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중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및 능력 신장(고급)' 연수를 6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수법, 한국 사회문화 강의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능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KOICA의 지원으로 페루 국립대학교 언어학센터(Ceid-UNCP: Centro de idioma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l Centro del Peru)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교육기관에서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비대면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호주·뉴질랜드의 초중고들이 국내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시범사업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다. 온라인 협력수업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함께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 호주·뉴질랜드 학생들은 한국어로 말하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주시드니한국문화원은 한국어 학습 및 문화에 관심 있는 호주 현지의 성인(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한국어 강좌를 운영. 12주간 주 1.5~2시간씩 초급에서 중급까지 운영하고 있다.

2.2.3. 학습자 특성

먼저 미국은 2010년 이후, 전통적 수업 방식을 고수하던 공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 관련 앱의 개발도 많아지면서 한국어 학습 앱, 그리고 ZOOM을 활용한 수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공격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을 교육의 한 흐름으로 인지하고 있음. 한국어 수업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는 다양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거부감이 없다. 실제 페루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수업의 예를 들면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 콘텐츠는 온라인 모임 앱인 밴드(Band)에 올리고 왓츠앱을 통해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형식의 수업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홍보하고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습활동 사진과 동영상도 업로드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페루의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 방향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온라인 한국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모두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온라인 학습 효과가 미미하고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0년 현재 호주 사회에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학습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이용에 한정한다고 국한시킨다. 언어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을 좋아하거나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다.

2.2.4. 온라인 학습 참여율

미국 LA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봄학기부터 한국어 강좌를 온라인 강의 플랫폼(ZOOM)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강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강좌로 지역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타주에서도 한국어 학습 신청이 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의 출석률과 수료율은 이전 대면수업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휴스턴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My dear Korea UCC Contest'를 개최하였고 우수 작품 37개가 출품되었으며 작품을 각기 유튜브에 게재하도록 하여 한국어와 한국 교육원에 대한 홍보 효과도 얻게 되었다.

페루는 인터넷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나 그것보다는 제때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못해 인터넷이 끊겨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유선 네트워크보다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좋은 편이며 다양한 에듀테크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한국어 학습자들 역시 온라인 학습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면 수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 2021년 2월 멜번 한국어 학교의 경우 대면 수업을 시작하였고 호주의 수능과 같은 VCE 시험에 한국어를 선택하여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이 많다.

2.2.5. 분석

각 권역별 현황과 온라인 접속 환경, 온라인 학습 인프라, 학습자 특성, 온라인 학습 참여율을 분석했을 때 일률적인 수업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권역별 특성에 맞추어 온라인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각 지역적 온라인 수업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아메리카는 범용 인터넷 환경(PC+모바일)을 고려한 일반 수업을 구성할 수 있기에 일반적 온

라인 세종학당 콘텐츠 활용하여 보편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남아메리카는 모바일 환경 의존도에 따른 모바일 배려 수업을 구성한다. 이에 모바일 특화 학습 자료 구성(글자 크기 및 단순화 등)하여 소통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배려 실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는 빠른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특화 수업 구성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대용량, 고품질 자료)하여 학습자 상호 매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구축한다.

3.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2장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추어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 페루, 호주를 거점으로 하되, 목표 집단을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에 따른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의 실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1.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의 실제

지역별 수강 인원				
권역 및 국가	미국	페루, 칠레	호주	전체
도시	코네티컷, 일리노이, 라스베이거스	리마, 산티아고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빅토리아 멜번	
학습자 인원	192명	339명	321명	852명
비율	22.53%	39.79%	37.68%	100%

<표 38> 지역별 수강 인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권역 전체 학습자 수는 852명(100%)로 북아메리카지역 192명(22.53%), 남아메리카지역 339명(39.79%), 오세아니아지역 321명(37.68%)이었다. 또한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에 따라 ‘교육 대상’을 달리 설정해 수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공통 교재 각색을 통한 지역적, 문화적 콘텐츠로 학습자 유관성 확보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전반의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교육 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역별 메신저 앱을 활용한 학습 연계 및 학습자 관리를 위해 세종학당 온라인 플랫폼과 국가별 선호 메신저를 결합한 학습 연계 및 학습자 관리를 체계화하려 했다. 그리고 지역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학습 현황 관리 및 특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려 했다.

제공하는 학습유형은 총 3가지로 온라인 기반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지원형’, 동영상 등의 수업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실에 학습자가 접속해 본인의 일정과 계획에 맞춰 학습을 하고 교수자는 학습 진행 상황과 과제 등을 확인하고 학습을 독려하는 ‘학습지원형’, 학습지원형과 같이 동영상 등의 수업자료를 활용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교수자는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자가학습형’이다.

3.1.1. 권역별 학습자 특성(목적, 목표집단)

	분류	지역	기관명	목표 학습자
서부	거점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Wongu University of Oriental Medicine	한의학 전공생 및 지인
중부	거점	일리노이 주 요크빌	IMA Martial Arts 태권도장	태권도장 수련생, 학부모 및 지인
동부	거점	코네티컷 주	Bridgeport International Academy	한국어 선택 학생 및 지인

<표 39> 북아메리카 학습자 특성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10대 청소년 학습자,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10대 청소년 학습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인종의 성인 학습자로 설정했다. 이에 미국 서부 지역은 한의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개설했는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춘 한의학 전공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미국 중부의 경우, 한국의 국기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 수련생을 위한 한국어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미국 동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학교 교과목으로 배우는 고등학생을 위한 기초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류	기관명	목표 학습자
페루	거점	셀트리온 헬스케어 페루 법인	직원 및 지인
칠레	협력	셀트리온 헬스케어 칠레 법인	직원 및 지인
	추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르헨티나 사무소	직원 및 지인
	추가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등	각 국 거주 한류 팬

<표 40> 남아메리카 학습자 특성

남아메리카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한국 회사에 다니거나 한국 회사 취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 글로벌 기업의 현지 직원 및 가족에게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원을 목표집단으로 설정했다.

분류	지역	기관명	목표 학습자
거점	뉴사우스웨일스	AKD채스우드 한글학교	호주, 뉴질랜드, 피지 지역 한글학교 성인, 고교생 학습자, 학부모 및 뉴질랜드 지역 입양아 현지인 부모 등
협력	빅토리아	멜번 한국어학교	호주 남동부 지역 한글학교 성인, 고교생 학습자, 학부모 등

<표 41> 오세아니아 학습자 특성

오세아니아는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학습자와 한국계 입양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입양 부모를 위한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글학교 성인 학습자 및 입양아 부모 대상의 한국어 수업을 계획했다.

3.1.2. 수업시간⁹⁵⁾

	지역	강의유형	과정명	수업일시
1	북아메리카	강의지원형	입문1	월-금 14:25-15:10(EDT/Newyork 기준시)
2			입문2	일 20:30-23:00, 수 20:30-22:30(EDT/Newyork 기준시)
3			입문3	월,수,금 21:00-22:30(EDT/Newyork 기준시)
4			입문4	화,목 17:00-17:45(EDT/Newyork 기준시)
5			입문5	화,목 20:00-20:45(EDT/Newyork 기준시)
6			K-wave1	월 07:00-09:00(EDT/Newyork 기준시)
7	남아메리카	강의지원형	입문	수 19:00-20:30, 토 09:00-12:00(Lima 기준시)
8			입문	목 20:00-21:30, 토 19:00-22:00(Santiago/BuenosAires 기준시)
9			입문	화 19:00-21:00, 목 19:21:30(Lima 기준시)
10			초급1	수 19:00-21:10, 토 09:00-11:10(Lima 기준시)
11			초급1	수 19:00-20:20, 토 19:00-22:00(Santiago/BuenosAires 기준시)
12			비즈니스한국어 1A	금 19:00-21:00(Lima 기준시)
13	오세아니아	강의지원형	여행한국어	월,금 18:00-21:00(sydeny 기준시)
14			여행한국어	금 18:00-20:00(sydeny 기준시)
15			여행한국어	월,금 18:00-21:00(sydeny 기준시)
16			여행한국어	금 18:00-20:00(sydeny 기준시)
17			입문3	월,화,목 19:00-20:30(sydeny 기준시)
18			입문4	화,목 23:00-24:30(sydeny 기준시)
19			입문5	토,일 18:00-19:30(sydeny 기준시)
20			입문1	월,화,목 20:30-22:00(sydeny 기준시)
21			입문2	화,목 19:00-20:30(sydeny 기준시)
22			초급1	화,금 18:00-21:00(sydeny 기준시)

<표 42> 수업시간

지역별 수업시간은 각각 위의 <표- >과 같다.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권역은 한국과의 시차가 꽤 나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수성과 그에 따른 수업 시간 조절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머타임(ST, DST)이 적용된 사례도 있음을 밝힌다.

3.1.3. 수업과정, 진행 중 특성

북아메리카 지역의 교육과정은 강의지원형 6개, 학습지원형 7개, 자가학습형 5개 과정으로 총 18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중 강의지원형은 세종학당 표준교육과정인 입문1~5 각 1개 총 5개 과정, 특별교육과정인 K-wave1 1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습지원형의 경우, 표준교육과정인 입문2~4 각 1개 총 3개 과정, 초급1A과정 2개 과정, 특별교육과정인 K-wave1 1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자가학습형의 경우, 표준교육과정인 입문,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각 1개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북아메리카는 목표 학습자 집단을 ‘10대 청소년 학습자’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인종의 성인 학습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미디어적 한류’를 중심으로 한 K-wave를 선정, 운영하였다.

북아메리카의 전체적 수업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의지원형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 강의지원형 입문 1 교육과정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학습지원형 교육에서는 1차시 수업에서 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학습을 독려했다. 자가학습형은 온전히 온라인으로 스스로 학습

95) 학습지원형과 자가학습형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자 교수자와 학습자의 실시간 수업형이 아닌 학습자 주도형의 학습형태로 수업 시간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는 과정이므로 운영상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크다. 학습의 첫 차시에 학습자들에게 학습 기간 및 방법, LMS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남아메리카 지역의 교육과정은 강의지원형 6개 과정, 학습지원형 7개 과정, 자가학습형 6개 과정으로 총 19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중 강의지원형은 표준교육과정인 입문1~3 각 1개, 초급 1A 2개 총 5개 과정, 특별교육과정인 비즈니스한국어1A 1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습지원형의 경우, 표준교육과정 입문1~4 각 1개 총 4개 과정, 초급1A 2개, 특별교육과정인 비즈니스한국어1A 1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자가학습형의 경우, 표준교육과정인 입문,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각 1개 총 6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강의지원형은 한국어 교원이 직접 강의를 하는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 개강에서 입문 과정 2개 (입문 1, 입문 2)를 개설하였고 2차 개강에서 [입문 3]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초급 과정은 1차 학기에 총 2개를 개설하였고 특별 과정으로 [비즈니스 한국어]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강의지원형의 경우에는 총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학습지원형은 VOD를 보고, 게시판에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교원이 피드백을 주면 학습자는 이것을 보고 수정을 하고 한국어 능력을 개발한다. 1차 개강에서 입문 과정 3개가 개설(입문 1, 입문 2, 입문 3) 되어서 운영되었다. 2차 개강에서 추가로 [입문 4]가 개설되어서 운영되었다. 초급 과정은 1차 개강 시 2개 반 (초급 1-1, 초급1-2)이 개설되어서 운영되었다. 또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이 1개 개설되어서 운영되었다. 따라서 학습지원형의 경우에는 총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자가학습형은 6개 과정 운영 관련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남아메리카는 목표 학습자 집단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한국 회사에 다니거나 한국 회사 취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특별과정을 ‘비즈니스한국어’로 선정, 운영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교육과정은 강의지원형 7개 과정, 학습지원형 7개 과정, 자가학습형 5개 과정으로 총 19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중 강의지원형은 표준교육과정인 입문1, 입문3, 입문4, 입문5, 초급 1A 각 1개 총 5개 과정, 특별교육과정인 여행한국어 2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습지원형의 경우, 표준교육과정 입문1, 입문3, 입문4 각 1개, 초급1A 3개 과정으로 총 7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자가학습형의 경우, 표준교육과정인 입문,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각 1개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강의지원형은 한국어 교원이 직접 강의를 하는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 개강에서 입문 과정 5개를 개설하였으나 [입문 1], [입문 2]는 폐강이 되었고, 2차 개강에서 [입문 2]는 폐강이 되어서 입문 과정은 [입문 1], [입문 3], [입문 4], [입문 5] 등 4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초급 과정은 1차 개강 시 총 3개를 개설하였으나 수강생 부족으로 [초급 1A-3] 과정만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특별 과정으로 운영한 여행한국어는 1차 개강 시 2개 반이 모두 폐강되었다가 2차 개강 시 [여행한국어 1]과 [여행한국어 2]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강의지원형의 경우에는 총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학습지원형은 VOD를 보고, 게시판에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교원이 피드백을 주면 학습자는 이것을 보고 수정을 하고 한국어 능력을 개발한다. 1차 개강에서 입문 과정 4개를 개설하였으나 <입문 1>만 개설되고, 3개 과정은 폐강되었고, 2차 개강에서 <입문 3>, <입문 4>는 개설되었고, <입문 1>과 <입문 2>는 폐강이 되었다. 입문과정은 1차와 2차 개강을 통해 <입문 1>, <입문 3>, <입문 4> 등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초급 과정은 1차 개강 시 3개 반을 개설하였으나 <초급 1-1>, <초급 1-2>반이 개설되고, <초급 1-3>은 폐강이었다. 2차 개강에서 <초급 1-3>과 <초급 1-4>반이 개설되었다. 초급 과정은 4개 반이 개설되었다. 따라서 학습지원형의 경우에는 총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자가학습형은 5개 과정 운영 중의 특이사항 및 문제점은 없었다. 오세아니아는 목표 학습자 집단을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학습자’와 ‘한국계 입양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입양 부모’로 설정하였다. 이에 연령대에 제약이 크지 않고 보편적 문화 접근을 통해 한국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여행한국어’를 선정, 운영하였다.

3.2.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결과

3.2.1. 학생 요구 조사 결과

① 학생 사전 기초 정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자의 국적은 37개국이었으며 북아메리카가 19개 국가, 남아메리카가 9개 국가, 오세아니아가 9개 국가에 해당했다. 북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인원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미국과 베냉의 순이었다. 남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멕시코가 가장 학습자 수가 많았으며 브라질과 니카라과가 그 뒤를 이었다. 오세아니아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와 필리핀이 가장 많았으며 영국과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북아메리카의 경우 1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오세아니아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 학습 경험을 보면 북아메리카의 경우 60% 이상, 남아메리카의 경우 65% 이상, 오세아니아의 경우 50% 학습자가 이미 학습 경험이 있었다. 또한 얼마 동안 한국어를 이전에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북아메리카의 경우 처음이거나 3개월 이내인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고 남아메리카의 경우 약 50%, 오세아니아의 경우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학습 목적의 경우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학습자는 한국 문화가 가장 높았고 남아메리카는 단순 흥미가 가장 높았다.

오프라인 학습 경험은 북아메리카의 경우 약 50% 이상이 남아메리카의 경우 약 40% 이상이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경우 60% 이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오프라인 학습 만족도의 경우 북아메리카의 경우 5점 만점 기준 3.4점이었으며 남아메리카의 경우 4.4점, 오세아니아의 경우 약 2.5점이었다. 그에 비해 온라인 학습 경험 유무에 관해서는 북아메리카의 경우 약 39%, 남아메리카의 경우 약 58%, 오세아니아의 경우 약 82%가 있다고 답했다. 과거 받았던 온라인 학습 만족도는 북아메리카의 경우 5점 기준 약 4점, 남아메리카의 경우 약 4.2점, 오세아니아의 경우 약 3.3점에 해당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세종학당을 알게 된 방법은 모든 지역에서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고 남아메리카의 경우 특이하게 거의 대등한 비율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가 많았다.

② 학생 사후 기초 정보 분석

해외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 학습자의 국적은 19개국이었으며 북아메리카가 9개 국가, 남아메리카가 6개 국가, 오세아니아가 4개 국가에 해당했다. 북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와 벨라루스, 몰도바와 이탈리아 영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순이었다. 남아메리카 국가는 니카라과, 멕시코와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이었다. 오세아니아는 이집트와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있었다.

연령은 북아메리카의 입문의 경우 '40대 이상(53.8%)>30대(30.8%)>20대(15.4%)'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초급의 경우에는 '20대(71.4%)>30대(14.3%)=40대 이상(14.3%)'로 조사되었다. 남아메리카 입문의 경우 '10대(66.6%)>20대(33.3%)'로 조사되었고 초급은 '10대(50%)>20대(16.6%)=30대(16.6%)=40대 이상(16.6%)'로 조사되었으며 특별반의 경우 '20대(100%)'로 조사되었다. 오세아니아는 입문의 경우 '20대(100%)'로 조사되었고 초급은 '20대(50%)=30대(50%)'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아메리카 입문은 '강의지원형(76.9%)>학습지원형(15.4%)>자가학습형(7.7%)'로 응답하였고 초급은 '강의지원형(100%)'로 응답하였다. 남아메리카 입문은 '강의지원형(100%)'로 응답하였고 초급은 '강의지원형(83.3%)>자가학습형(16.6%)'이

였으며 특별은 '강의지원형(100%)'로 조사되었다. 오세아니아 입문은 '강의지원형(100%)'로 응답하였고 초급은 '자가학습형(50%)=학습지원형(50%)'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세종학당의 한국어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였느냐는 질문에 북아메리카 입문 (4.8/5.0)', 초급 (4.7/5.0)으로 응답하였다. 남아메리카 입문 (5.0/5.0), 초급 (4.3/5.0), 특별은 (5.0/5.0)으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 (4.5/5.0)이었으며 초급 (5.0/5.0)으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한국어 학습과 비교할 때 온라인 세종학당이 어떠한 질문에 북아메리카 입문 (4.7/5.0)이었으며 초급 (4.8/5.0)으로 조사되었다. 남아메리카 입문 (5.0/5.0), 초급 (4.0/5.0), 특별 (5.0/5.0)으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 (5.0/5.0), 초급 (5.0/5.0)으로 응답하였다.

이후에도 온라인 세종학당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북아메리카 입문은 92.3%, 초급은 85.7%가 '네'로 조사되었다. 남아메리카는 입문과 초급, 특별 모두 '네(100%)'라고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은 '네(50%)', 초급은 '네(100%)'로 조사되었다.

③ 온라인 학습 방법 사전 점검 분석

사전설문에서 대부분의 학습자가 VOD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 인프라나 통신 속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들은 영상자료를 가장 선호했다. 북아메리카 입문 '영상(84.6%)>음성(7.7%)=기타(7.7%)', 초급 '기타(71.4%)>PDF(2.6%)'로 조사되었다. 남아메리카 입문 '영상(66.6%)>음성(33.3%)', 초급 '영상(83.3%)>PDF(16.6%)'로 특별 '영상(100%)'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 '영상(50%)=과제(50%)', 초급 '영상(50%)=기타(50%)'로 조사되었다. 남아메리카 입문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성 자료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데 이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성자료가 여전히 필요한 학습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는 경우는 대륙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북아메리카 입문(3.5/5.0), 초급 (3.6/5.0), 남아메리카 입문 (4.0/5.0), 초급 (4.6/5.0)이었으며, 특별은 (5.0/5.0)으로 조사되었다. 오세아니아 입문 (4.0/5.0), 초급 (4.5/5.0)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학습 접근성이 용이한 북아메리카의 경우는 낮았고 학습 접근성이 어려운 남아메리카의 경우는 높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중·고급이 개설된다면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자료의 제공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온라인 학습에 대한 태도, 인식 및 평가 분석

온라인 학습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실제 학습을 한 후의 결과가 사전 조사 때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 조사의 경우, 북아메리카의 경우 (3.8/5.0), 남아메리카 (4.3/5.0)이었으며 오세아니아 (4.2/5.0)이었다. 사후 조사의 경우, 북아메리카 입문 (4.5/5.0), 초급 (4.4/5.0)으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입문 (5.0/5.0), 초급 (4.6/5.0)이었으며 특별 (4.0/5.0)으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는 입문, 초급 모두 (5.0/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이 온라인 학습의 유용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학습이 시간을 절약한다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실제 학습을 경험한 후 더 많아졌다. 사전 조사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이라고 답한 학습자는 북아메리카 (4.0/5.0), 남아메리카 (4.0/5.0), 오세아니아 (4.6/5.0)이었다. 사후 조사에서는 북아메리카 입문 (4.8/5.0)이었고 초급 (4.4/5.0)으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입문 (5.0/5.0)이었고 초급 (4.3/5.0)이었으며 특별은 (4.0/5.0)으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 (5.0/5.0), 초급 (5.0/5.0)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려면 장소의 이동이 필수적인데 그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온라인 학습 자체가 집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통상 오프라인 강의의 50%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집중해서 듣고 잘 이해한다면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서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 것을 학습자들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한국어 학습의 다양성을 실감한 학습자도 북아메리카의 경우 (3.8/5.0), 남아메리카는 (4.4/5.0), 오세아니아의 경우 (4.1/5.0)에 해당했다. 특히 실시간 화상 강의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가 대단히 좋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동영상 보기, 게시판 쓰기, 선생님과 화상 강의 등)으로 배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아메리카 입문 (4.8/5.0), 초급 (4.7/5.0)으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입문 (5.0/5.0)이었고 초급 (4.6/5.0)이었으며 특별 (5.0/5.0)으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 초급 (5.0/5.0)으로 나타났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에서 접하기 힘든 실시간 화상 강의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⑤ 온라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 기대 분석

사전 조사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학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단히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아메리카 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4.3/5.0) 이어서 오세아니아(4.2/5.0)와 북아메리카(3.8/5.0)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오세아니아가 (4.6/5.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남아메리카 (4.3/5.0)와 북아메리카(4.2/5.0)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면 한국어 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냐는 질문에 북아메리카 입문 (4.9/5.0), 초급 (4.9/5.0)으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입문 (4.6/5.0), 초급 (4.3/5.0)이었으며 특별 (4.0/5.0)으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과 초급 모두 (5.0/5.0)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 향상 가능성 여부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해 오세아니아 지역 학습자의 호응이 제일 좋았는데 이는 온라인 학습 자체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인프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평가

북아메리카의 학습자들은 사전 조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다. 콘텐츠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이 보였는데 퀴즈나 시험 그리고 친구들과의 게시판 활동에 대해서도 북아메리카의 학생들의 기대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 과제와 한국어 능력 향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남아메리카 학습자가 (4.7/5.0), 오세아니아 학습자가 (4.6/5.0), 북아메리카 학습자가 (4.6/5.0)의 호응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과제가 한국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퀴즈도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학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남아메리카 학습자(4.7/5.0)가 가장 높았고 오세아니아 학습자(4.6/5.0)와 북아메리카 학습자(4.3/5.0)가 그 뒤를 이었다. 시험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학습자도 전반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세아니아 학습자(4.8/5.0)가 가장 높은 호응을 보였고 뒤를 이어서 남아메리카 학습자(4.5/5.0)와 북아메리카 학습자(4.4/5.0)가 분포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학습자도 많았다. 오세아니아(4.9/5.0)가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서 남아메리카(4.6/5.0)와 북아메리카 (4.6/5.0)가 분포했다. 친구들과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호응이 있었다. 오세아니아(4.8/5.0)가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남아메리카(4.5/5.0)와 북아메리카(4.5/5.0)가 자리했다.

그러나 학습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세종학당 콘텐츠에 대해 북아

메리카 입문 (4.8/5.0), 초급 (4.1/5.0)으로 평가했고 남아메리카 입문 (4.6/5.0), 초급 (4.5/5.0)이었으며 특별 (4.0/5.0)으로 응답하였다. 오세아니아 입문과 초급 모두 (5.0/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퀴즈나 시험 그리고 친구들과의 활동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했다.

⑦ 한국어 온라인 교수학습 활동 선호도 평가

사전 조사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말하기나 듣기 실력의 향상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종료 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VOD학습의 경우 어휘 실력의 향상을 이야기하는 학습자가 제일 많았다. 한편 실시간 화상 강의의 경우 전반적으로 말하기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습자가 제일 많았다. 따라서 차후 실시간 화상 강의의 경우 말하기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게시판 활동에 대해서는 주 1회를 선호하는 학습자가 가장 많았고 차후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주 1회 정도의 게시판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⑧ 실시간 화상 수업 만족도

사전 조사에서 실시간 화상 수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습자의 수보다 사후 조사에서 실시간 화상 수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습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 즉,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았다. 90% 이상의 학습자가 지역을 막론하고 화상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는 말하기 연습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주 1회의 화상 수업을 선호했으며 40~50분 정도의 수업시간을 선호했다. 화상 수업을 통해 발음연습과 말하기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학습자가 가장 많았으며 한 반 학습자의 수는 10명 이하가 가장 좋다고 보았다. 또 학습자들은 화상 수업에서 교재나 어휘, 문법 설명 자료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어휘와 문법에 대한 학습 욕구가 크다는 점과 교재를 통해 자신의 학습 위치를 스스로 점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2.2. 교원 요구 조사 결과

① 사전 사후 기초 정보

참여 한국어 교사는 100% 한국어 원어민 교사, 오프라인 교수 경험과 온라인 교수 경험을 모두 갖춘 교사로 구성하였다. 사전/사후 조사 결과 오프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사전 4.3점, 사후 4.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 수행 후 오프라인 수업의 효과가 더 크다고 기대하였다. 반면에 사전 조사에서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만족도가 3.5점으로 온라인 세종학당 수행 이전에 교사들의 한국어 연수 기관에서의 만족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 후에는 만족도가 2.8점으로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는 LMS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향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② 온라인 수업의 기대효과 및 결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사전에 1.6점에서 사후 1.4점으로 실제 운영한 결과 수업 준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와 오프라인 수업 내용을 비교한 결과 사전에 3.6점에서 2.9점으로 조사되었다. 운영 결과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수업의 양이 온라인에서 줄어들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수업이 오프라인보다 수업의 전달 방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2.4점에서 사후 2.2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수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계속 가르치고 싶다는 질문에 사전

3.2점, 사후 2.9점으로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반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1.9점에서 2.5점으로 향상되었는데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온라인 수업 운영의 어려움 분석 결과

강의실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 사전에 3.1점, 사후 4.8점으로 조사되었다. 사전 교육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실제 운영해 본 결과 강의 구성 LMS가 매우 어렵고 불편하다고 볼 수 있다. 출결 관리 부분에서도 사전 2.8점, 사후 4.2점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과제 피드백 부분에서도 사전 2.2점, 사후 3.0점으로 조사되었다. 과제 피드백은 학생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 대해서는 강의지원형의 경우 ZOOM으로 운영하였고, 온라인 수업에서 익숙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덜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출결 진도 관리에 대해서 4.2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학생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④ 세종학당 온라인 학습에 대한 평가

온라인 세종학당의 VOD 콘텐츠에 대해서 사전에는 3.8점이었으나 사후에는 4.8점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VOD콘텐츠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세종학당의 시험은 사전 3.6점 사후 3.4점으로 시험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실시간 수업 방식에 대해서 사전 4.3점, 사후 4.7점으로 다른 타 수업 방식보다 강의지원형 수업 형태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⑤ 한국어 온라인 교수학습 활동 선호도 평가

온라인 수업이 도움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문법과 어휘는 일치하지만 사전 조사에서는 듣기가 낮은 순위였는데, 사후에서는 3번째로 차이를 보인다. 온라인 수업에서 듣기의 역할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도움 되는 영역은 사전과 사후에 동일하게 '말하기>듣기>문법'의 순서였으나, 어휘, 읽기, 쓰기 영역은 사전 '어휘>읽기>쓰기', 사후 '쓰기>어휘>읽기'의 순서로 차이를 보인다. 화상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 쓰기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전과 사후 동일하게 교사의 피드백은 주 1회가 적당하고 보고 있다.

⑥ 온라인 교수 운영 방법 사전 점검에 대한 평가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에 사전과 사후 'VOD+실시간 화상 혼합 수업' 방식이 각각 88.9%와 83.3%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교육의 효율성이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사전에서 '실시간 강의>학습 독려>시스템 사용 안내 및 지도>학습 상담>학습 자료 제공>출결 관리>과제/퀴즈 출제·학습 관련 불편 사항 파악 및 전달>학습자 개별 지도>효과적 교수학습 방안 제시>시험 출제>게시판 운영>공지사항 전달'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사후에는 '실시간 강의>효과적 교수학습 방안 제시>학습자 개별 지도> 학습 독려>학습 자료 제공>출결 관리·학습 관련 불편 사항 파악 및 전달>학습 상담·시스템 사용 안내 및 지도>과제/퀴즈 출제·시험 출제>게시판 운영·공지사항 전달'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시간 강의이며 교수학습 방안이나 학습자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온라인 세종학당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는 교사는 한국어 수업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이다. 강좌에서 공통으로 제안하는 공지 사항을 전달하거나 게시판을 교사가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강의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⑦ 실시간 화상 수업 만족도

실시간 화상 한국어 수업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도움되는 되는 영역은 사전에서 ‘말하기>문화 이해>듣기>상호작용>배경지식 확장’으로 조사되었고, 사후에서 ‘말하기>듣기>상호작용>문화 이해>배경지식 확장’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사전 조사에서 ‘문화 이해와 듣기’가 높은 비율이지만, 수업 후에는 ‘듣기와 상호작용’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온라인 수업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 문화 이해의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실시간 수업에서 구어와 상호작용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전체 내용을 모두 구성하기보다는 교사와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이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 연습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는 ‘말하기와 듣기 연습’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나 사후에는 ‘발음 연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교사는 발음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연습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⑧ 온라인 수업 운영의 어려움 예측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가 찾아보는 내용은 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휘(38.1%)>문법(33.3%)>발음(14.3%)>기타(9.5%)>문화(4.8%)’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세종학당의 수업 준비에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은 교재에 수록된 어휘 목록이다. 수업에 제시하는 어휘 목록은 수강생의 모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면 수업의 진행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시문과 어휘는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 참고 자료는 주로 어디에서 찾아보느냐는 질문에 ‘온라인 검색 사이트(33.3%)>누리 세종학당(29.6%)>사전이나 책(22.2%)>온라인 세종학당(14.8%)’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검색 사이트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특히 어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사진이 매우 효율적이다. 누리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 학습 참고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다. 수업 교재와 도구를 함께 개발하여 제공하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쉬울 것이다.

4.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결과 및 분석

2021년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은 동일한 플랫폼이지만 각각의 다른 콘텐츠를 구성하여 권역별 전용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그룹에 따른 수업을 구성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환경, 연령 등을 고려하여 특별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결과를 권역별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4.1.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결과

먼저 북아메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결과, 미국 고등학교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진행하였으므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참여도가 높아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사례로 학습자와 교사 모두 집중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본 수업의 큰 성과이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운영한 한국어교육은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학습 의욕은 높았으나, 자발적으로 강의지원형 수업을 등록한 학습자들의 참여는 회차를 거듭하면서 줄어드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이 정해진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의무감을 갖고 수업에 임한 것과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한 학습자들 간에 학습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업 이후 VOD 학습 동영상 시청과 과제 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학습자들이 강제성이 없는 학습에서는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사가 학습 참여를 독려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교사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드러났다. 교사와 학습자의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교사가 온라인상에서 학습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국에 있는 학습자에게 간접적으로 메일과 쪽지만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미국 학습자들의 특성 측면에서 바쁜 활동과 일정으로 본인의 뚜렷한 의지와 목적 없이는 부수적인 수업이나 과제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앞으로 북아메리카 지역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더욱 세밀하게 학습 형태에 따라 나눠 살펴보면 우선 학습지원형의 경우, 대부분 수업에 등록한 학습자들의 참여와 수료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교원이 참여가 저조한 학습자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이 최선책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나 연결고리가 미흡한 상황에 메일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과제 수행을 위한 안내와 제출을 요청하여도 응답이 없거나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등록한 학습자들에게 초기부터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며 교사와 학습자 간에 지속적으로 활발한 연결고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법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 영상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지원형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은 등록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이며, 그 과정에서 참여가 저조한 학습자들에게는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관리 측면이 교사 역할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학습 기간 종료를 알리고, 학습자들의 수강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열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운영 지원과 동시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퀴즈나 시험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교사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남아메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메리카 권역의 강의지원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사정으로 컴퓨터 접속이 불편하였다. 현재의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VOD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학습자들이 VOD 수강보다는 실시간 화상 강의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강의 수강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고 개설된 모든 강의에 수강 신청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셋째, 수업 시수가 많아서 학습자나 교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결석 학습자들을 독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학습자들에게 이메일로 독려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LMS 구성이 복잡해서 남아메리카권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스페인어 번역 제공이 요구되었다. 여섯째, 온라인 세종학당 LMS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여 수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지원형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의 참여가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교사가 강의 수강 관련 메일을 여러 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둘째, 수료율이 매우 낮았다. 학습을 동기 부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셋째, 쓰기 과제에 한정하여 제출, 쓰기 과제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 과제 업로드 방법도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 넷째,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쓰일 역량을 다른 강의 형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가학습형은 VOD를 보고 학습자가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수강신청자가 다른 과정에 비해서 많은 편이었다. 1차 개강에서 상기의 표와 같이 입문 2개, 초급 2개, 중급 2개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입문은 37명, 초급은 47명, 중급은 57명이 수강하였다.

오세아니아 권역의 강의지원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사정으로 컴퓨터 접속이 불편하였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VOD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VOD 수강보다는 실시간 화상 강의를 선호하였으나 홈페이지 접속에 어려움과 VOD 수강에 강제성이 없어 실시간 강의로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있었다. 셋째, 수업 시수의 부담감이 크다. 일주일에 세 번, 90분 수업은 다소 학습자들에게 버거울 수 있고, 일주일에 세 번이면 1시간 수업이 적절하다. 넷째, 미출석 학습자들에게 출석 독려 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출석 학습자들의 경우 공지사항이나 VOD, 쪽지 등을 본 흔적이 전혀 없어서 아예 로그인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LMS 구성이 복잡. 외국인 학습자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좀 더 깔끔하고 간단한 구성이 필요하다.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매뉴얼 구성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휴대폰 기반 플랫폼을 개발한다. 온라인 세종학당 접속시 PC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ISO에서 접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온라인 세종학당 LMS와 화상 회의 프로그램과 연결한다. ZOOM을 사용하고 있으나 출석 관리, 수업 영상 녹화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세아니아 권역의 학습지원형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습자의 교류가 부족하다. 직접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라포 형성이 되지 않아서 학습자들은 메일이나 게시판 문의가 없었다. 둘째, 강제성이 결여되어 수업 참여가 저조하였다. 무료 수강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강제성이 없고 교사와 친밀감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사가 자기소개를 올리고 WhatsApp 계정도 공유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셋째, 수료율이 매우 낮다.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라포 형성이 불가능하다 보니, 수업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수료율이 매우 낮다. 넷째, 쓰기 과제에 한정하여 제출, 쓰기 과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 과제 업로드 방법도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 다섯째, 학습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가학습형은 VOD를 보고 학습자가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수강신청자가 다른 과정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1차 개강에서 5개의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입문 31명, 초급 1은 85명, 초급 2는 43명, 중급 1은 13명, 중급 2는 13명으로 총 5개 강좌에 185명의 수강생이 등록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공통적으로 제기된 가장 큰 문제점은 온라인 세종학당 LMS 연계이다. 강의를 듣고 출석을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연결 통로인 LMS 연결이 어렵고 불편하며 학습자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입장하면 오류가 뜨는 문제 등으로 학습자들에게 많은 거부감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한국과 다르게 빠르지 않은 미국의 인터넷 연결 상황도 한몫을 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동시에 LMS에 접속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의 ZOOM 아이디를 공개해서 학습자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접속하는 데 불편을 줄여주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교사와 학습자 간에 쌍방향 소통도 힘들었고 수업 운영에도 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접속의 문제는 강의지원형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참여 학습자들 모두에게 많은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안겨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강의지원형 수업 운영에 앞서 세종학당의 온라인 LMS 접속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권역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강의유형이 강의지원형, 학습지원형, 자가학습형으로 나뉜다. 사업의 특성이 온라인 기반 학습인만큼 학습자들을 대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진행과 수업 참여에 대한 관리와 독려가 매우 중요했다. 이에 강의지원형, 학습지원형, 자가학습형 모두 '학습자용 안내 자료'를 준비해 활용했다. 이 자료에는 각 과정별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수업별 안내, 학습자의 학업 참여 독려 메시지, 다음 과정에 대한 등록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든 자료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영어, 스페인어로 각각 번역, 활용되었다. 후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LMS로 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문의사항을 받기 위해 개설한 사업 공용 메일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메시지 발송을 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공용메일로 800명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메일을 전송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랐다. 이 과정에서 '대량 발송 메일(스팸메일)'이나 '위험 메일'로 오인되어 메일함 휴지통으로 자동 분류되거나 메일에 위험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국 학습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게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학습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여 수업 담당 선생님들과 행정팀의 개인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이 방식을 통해 절반의 성과와 문제점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학습자와 교수자간 신뢰 및 친분이 쌓이기도 했고 학습자들의 메시지 확인 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편한 시간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활용에 효율적인 면도 있었다. 반면, 교수자의 업무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온라인 한국어 교수에 대한 만족은 3.5/5.0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LMS의 문제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 개설부터 수업 관리까지 초기 수업 진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2020년 시범운영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다. 교원 대부분이 교내의 LMS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는데, 온라인 세종학당의 LMS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수업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LMS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2. 온라인 교육 플랫폼 분석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모든 참여 한국어 교원은 온라인 세종학당 교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교수자, 학습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세종학당의 LMS 개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2.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제점 분석

4.2.에서는 세종학당 교원과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LMS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받은 LMS상의 문제점은 총 30건이었으며 해당 부분을 시스템, 설계 및 구조, 기능 요소로 나누어 대분류로 구성하였고, 그 외의 항목은 기타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분류로 나누었던 내용을 해당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기능에서는 각각 강의 개설, 송수신, 현황으로 나타났고, 설계 및 구조에서는 구조, 디자인으로 나타났고, 시스템에서는 VOD, 검색, 송수신, 접속, 출결로 나타났고, 기타로는 화상이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민원을 수합하여 온라인 세종학당 LMS 이용 시의 문제점 등을 받아 정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의 민원을 살펴보면, 단순히 LMS 이용이 안 된다는 불명확한 상황여서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학습자들과 소통이 원활한 경우 해당 부분을 캡처해서 받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수합하여 LMS 사용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나누면 아래와 같다.

4.2.1. 세종학당 LMS 문제점 현황 및 개선 방향

① 시스템

가. VOD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문의가 가장 많았던 항목 중의 하나는 VOD 시청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해당 부분은 PC에서 접속했을 경우와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했을 때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PC로 접속했을 때 VOD의 로딩이 계속되는 현상이 있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학습자의 인터넷 환경과 서버 문제가 그것이다. 학습자 환경과 관련해서는 세종학당 측에서 브라우저의 인터넷 사용기록, 쿠키 및 캐시 삭제(기간 전체 설정) 등의 방법을 제시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학습자의 인터넷 환경과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지 인터넷 환경(속도, 브라우저 등)과 세종학당 LMS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학습자의 경우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시도했었는데, 영상 시청을 할 수 없었다는 상황도 나타났다. 대부분 PC에서 해당 브라우저의 인터넷 사용기록, 쿠키 및 캐시를 삭제 후 다시 이용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부분이 학습자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PC보다는 모바일 환경에서 VOD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역시 인터넷 환경과 관계가 깊은 경우가 많았는데, 유독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의 접속이 더뎠다. iOS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재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캐시 및 쿠키 등을 삭제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VOD를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세종학당 LMS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온라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VOD 재생과 관련한 스트리밍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나라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안정적인 인터넷 PC 환경보다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속이 많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VOD 재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시된 해결방법도 PC 사용 환경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학습자들이 모바일 사용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학습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우저와 관련된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많은 VOD 서비스 업체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엣지 포함)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한다면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시범 사업 기간에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접속 및 VOD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드로이드 환경에 대한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브라우저의 문제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VOD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VOD의 재생 문제는 시청 기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해당 VOD의 log 파일을 캡션으로 보여준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VOD 서비스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세종학당도 VOD 시청 기록에 대한 log를 만들어 제시한다면,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내가 봤던 VOD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더 쉽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나. 검색

검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강생이 원하는 강좌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물론 직접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역시 SNS(페이스북) 메신저나 링크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강의 제목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분을 찾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한 결과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제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 방법에 대해 명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수업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검색 관련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과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검색이 안 되거나 정상적으로 강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가학습형의 경우에는 스스로 접속해서 혼자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강의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학습을 포기하거나 해당 내용 검색 시 다른 강의를 나타났을 때 자신의 학습 목적과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를 수강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것보다는 대소문자 관계없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타가 나거나 강의 제목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를 생각하여 추천 검색어나 수정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학습자들이 수월하게 해당 강의를 찾아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송수신

메일이나 쪽지 송수신 기능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다. 학습자들에게 보낸 쪽지나 메일의 확인 기능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한 결과 확인 기능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계정-쪽지를 접속했을 경우에 해상도가 높거나 넓게 쓰는 상황에서는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놓치기 쉬운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해상도가 낮거나 와이드 화면이 아닌 경우에는 웹 화면 확장/축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한, 받은 메시지나 보낸 메시지 역시 클릭했을 경우에는 받은 날짜/보낸 날짜만 확인할 수 있어 학습자들의 수신 확인이 어려웠다. 이 부분 역시 구현되지 않은 기능은 아니었으나, 한 번 더 클릭해야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문제는 해당 쪽지를 클릭했을 때 창이 나타나는데, 어느 부분이 수신 확인인지 나타나지 않고, 날짜 및 시간만 표출되어 명확히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나중에 교원들과 소통하여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지하였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지 기능은 공지를 등록하면 해당 부분을 메일로 학습자에게 보내는 기능이다. 그런데 공지를 등록했을 때 단순히 등록했다는 메시지만 내용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세종학당 LMS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기능은 메일을 보내는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메시지와 메일은 다른 기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세종학당의 메일 서버에 교원의 메일 주소만 발송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스팸으로 처리되거나 스팸 주의 메일로 나타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메일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어느 누구라도 스팸 경고 메시지와 함께 메일을 받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메일을 클릭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 송수신과 관련 부분은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콘의 배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화면 해상도에 따라 확장/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 수신 확인을 위해서 한번 더 학습자를 클릭하기 보다는 수신 메시지함 자체에서 수신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의 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교원의 이름으로 온라인 세종학당 서버에서 메일을 송신하면 대부분의 메일 시스템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등록된 메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팸으로 처리하거나 스팸 경고 문구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세종학당 교원들에게 자체 아이디 및 메일 주소를 발급하여 해당 서버에서 해당 메일로 송신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 접속

접속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세종학당 LMS 접속 자체가 안 되거나 너무 로딩이 길어져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교원들에게도 익스플로러와 네이버 웨일에서만 LMS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많은 교원들이 힘들어하였다. 특히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이미 MS사에서 서비스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이버 웨일도 처음에는 서비스지원이 되었지만,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세종학당 운영 상황 중 윈도11이 출시되면서 윈도11로 업데이트를 하는 사용자가 많아졌다. 윈도11에서는 익스플로러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고 네이버 웨일이 업데이트되면서 윈도11 사용자는 공식적으로 세종학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시스템 작업을 통해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지만, 이미 많은 불편을 겪은 후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자 및 교원들에게는 학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접속 속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다. 이 부분은 교원과 학습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인데, 강의 개설 시에 20~30분을 기다려도 화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강의 개설 시에 로딩 시간이 긴 것이 교원들이 가장 힘들어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 이 부분은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실제로 한 학습자의 경우 예정된 수업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로그인 후 클릭하면서 다음 화면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 학습자의 경우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많은 학습자들은 들어가는 데 30분이 넘게 걸린다면 대부분 학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지원형이나 자가학습형의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남아 있어 접속과 관련된 학습 상황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앞서 언급한 VOD 관련 부분도 있었지만, 과제 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에러가 나타나 과제 제출 자체를 포기하는 학습자들도 나타났다.

전 세계의 학생들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에서 보안 업데이트 및 브라우저 호환성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익스플로러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특정 브라우저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면 사용자들은 그 플랫폼을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관리자나 교원과 직접 소통이 쉽지 않은 자가 학습자의 경우에는 몇 번 시도하다가 되지 않을 경우 학습을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보안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을 하여 가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 및 호환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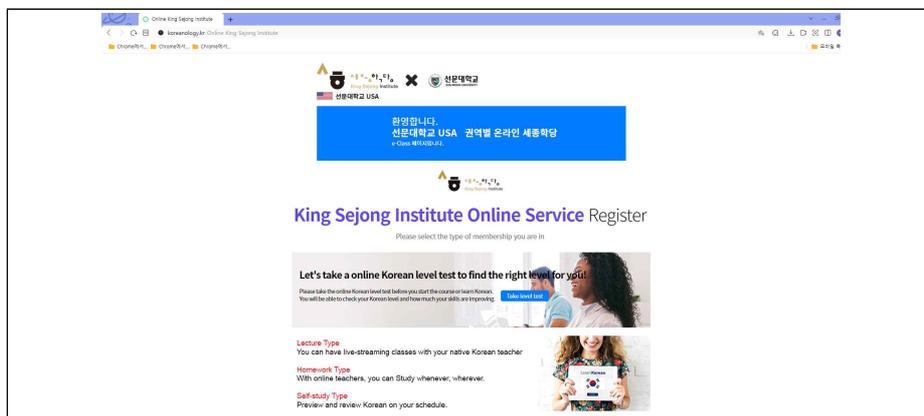
또한 현지에 있는 세종학당과 연계하여 세종학당 플랫폼의 접속 상황을 확인하고 Ping 값 등을 통해 인터넷 접속 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콘텐츠나 이미지 등이 너무 무겁다면 이미지 및 플랫폼 최적화 작업을 통해 기능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열악한 인터넷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화면에 뜨는 이미지 자체가 무겁다면 해당 플랫폼의 접속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습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이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활한 인터넷 학습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플랫폼 개발은

가볍게 만들어 쉽고 빠르게 접속하게 하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 다양한 지역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터넷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지역의 인터넷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기준으로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유료로 나누어 유료 사용자에게 한해서는 인터넷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다운로드 재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물론 DRM 설정을 하여 다른 곳으로 복사하거나 옮길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SNS(페이스북)과 관련하여 Redirection error가 발생했다. 세종학당에서는 학습자들이 찾아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임시로 접속 링크를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세종학당 재단에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에 대해 각각 미국은 <https://www.iksi.or.kr/lms/rg/amo1>, 남아메리카는 <https://www.iksi.or.kr/lms/rg/amo2>, 오세아니아는 <https://www.iksi.or.kr/lms/rg/amo3>의 링크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다. 문제는 일부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들이 사이트로 접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페이스북)에서는 해당 링크 자체에 Redirection error가 발생하여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SNS(페이스북)의 보안 정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링크는 전혀 문제없이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습자들을 모집하는 초기에는 이 링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Redirection error로 인해 학습자들이 해당 세종학당 사이트에 대해 의심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링크 안내를 중단하고 다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개소별 세종학당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세종학당 사이트 배치의 가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찾는 데 오래 걸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Redirection Error는 개발 언어 버전 등의 문제로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기는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 문제는 도메인 등의 연결을 통해 접속 문제를 임시적으로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의 경우에는 다른 호스팅 서버를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우회 접속 페이지를 만들어 학습자들이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각 개소별 세종학당의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단순히 링크만 시킨 것이 아니라, 학습자 계정 등록 링크, 레벨테스트 링크, 온라인 세종학당의 학습 유형 설명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현 및 제공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결과 <https://www.iksi.or.kr/lms/rg/amo1>(북아메리카), <https://www.iksi.or.kr/lms/rg/amo2>(남아메리카), <https://www.iksi.or.kr/lms/rg/amo3>(오세아니아)의 링크는 문제없이 학습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학습자들의 해당 부분에 대한 민원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2> 세종학당 접속을 위한 우회 페이지 예시

마. 가입 및 등록

수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입 및 등록 절차이다. 아무리 학습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 및 등록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입을 하거나 수강 등록을 할 때 오류가 나타나 가입 자체를 못하거나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학습자가 가입을 진행하는데 Authentication code가 떠서 결국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가입 항목에 대해 모두 기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입력 후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출되었다. 또한, 수강신청을 했는데, 수강 신청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도 나타났다. 교원 LMS에는 수강 신청 상태로 나타나 있었지만, 학습자 상황에서는 모두 0으로 나타나 학습자가 해당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입 인증 오류는 대부분 로딩 과정에서 인터넷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시 불러오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타났다는 것은 불러오는 데이터의 크기가 인터넷에서 불러오는 데이터의 크기에 비해 너무 크거나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해당 정보의 양을 각각 나눠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수강 신청 오류 역시 과목 신청 시의 데이터 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탈퇴 후 재가입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반복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역시 사이트의 최적화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에서 해결 방안이 있다 하겠다.

가입 및 등록은 학습을 시작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학습자들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학습 의욕이 꺾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의 경우에는 학습 의지가 떨어지게 되면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지를 최대한 줄여 텍스트로 제공하면서 플랫폼의 최적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텍스트로만 구성한다고 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직접 개발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최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의 학습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되어 만들어진 솔루션(solution)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작업을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진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은 기존의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한 것이 아닌 개발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개발 언어에 따라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손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은 개발 업체와 소통하여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바. 출결

출결과 관련한 문제도 나타났는데, LMS의 화상 강의 출석 여부에 대한 것과 출결 현황, 그리고 성적/수료 등이 실제 입력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아래에 제시된 학습자의 경우 출석 입력이 되었고, 화상 강의에서도 출석으로 처리되었으나, 수료 상황에서는 0으로 표기되어 미수료 상태로 표기된 경우가 있었다. 해당 부분은 다시 처리를 했으나 처리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LMS로 접속한 것도 확인했지만, 미출결로 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출석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반대의 상황도 나타났다. 특히 화상 강의에서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화상 강의를 하기 전인데 학습자의 화상강의 출결 부분이 출석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본 결과, ZOOM 수업 참여 링크를 클릭하면 그 자체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수업일이 아니었을 때 교원의 이메일 주소로 다음에 참가했다는 안내 메일을 확인했다. 해당 일은 수업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출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해당 주치의 수업에 출석으로 인

정되어 있었다.

세종학당 LMS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ZOOM으로 화상 강의를 직접 접속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처음 사업이 시작했을 때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해야 출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침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후 접속 상황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에야 수동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였다. 이때부터 강의지원형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자들이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강의지원형뿐만 아니라 학습지원형이나 자가 학습형의 경우에는 VOD 시청이 출결로 인정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접속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업 참여, 과제 제출, 수료율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결은 학습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척도이다. 학습자들이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학습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출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습자들의 출석 상황 그대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출결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데이터의 연동이 필수적이다. 또한 log 기록을 연동하여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 기록 등이 연계되어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ZOOM의 경우에는 ZOOM에 접속하는 순간 로그 파일이 생성되어 접속하는 상황과 접속이 끊기는 상황이 밀리초 단위로 기록이 된다. 또한, 소회의실 생성, 파일 공유, 채팅창의 내용도 같이 기록되어 강의를 끝나는 순간 해당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자체 화상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분의 기록을 기반으로 출결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의 부분은 강의지원형에 한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습지원형이나 자가학습형은 VOD 등의 log 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출결 인정 기록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에 대한 모든 log가 기록되어 사용자가 영상을 멈췄다 하더라도 로그인 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전에 어디까지 영상을 시청했는지,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하여 시청하기를 클릭하였을 때 바로 영상을 이어서 볼 수 있다. 특히 학습을 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구조 및 설계

가. 구조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트를 설계할 때 학습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로그인 위치나 학습 현황, 수강 위치 등의 구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메시지함처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글을 쓰거나 지울 때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항상 한 단계씩 더 들어가 있어 학습자들이나 교원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부분이 버튼(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들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해당 창에 textarea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원이나 학습자들은 textarea에 클릭을 하고 타자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타자가 쳐지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search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로 선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마우스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search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textarea를 클릭했을 때 바로 Curriculum이나 ID, 이름 등이 호출되어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들이나 교원이 보다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원들이 LMS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자들의 출결 현황을 보려고 하면 아래 이동 바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동 바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바깥쪽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아래 학습자들이 표 출되지 않는다. 해당 이동 바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학습자 목록이 14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차라리 목록 전체를 제시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과정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다른 메뉴의 항목(계정, 콘텐츠, 과제/토론/퀴즈/시험/설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메뉴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과정을 누르고 다시 한 번 과정을 불러와야 정상적인 메뉴 표시가 되어 여러 번 클릭하여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상위 페이지의 메뉴 언어를 불러오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로(path) 설정을 미리 잡아 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매번 메뉴를 클릭하고 나올 때마다 다시 불러오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구조적인 부분은 콘텐츠의 배치를 변경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생각보다는 그 해결 방법이 복잡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인과 맞물려 있어 디자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단순히 위치 등을 변경한다거나 정보를 제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디자인을 반영하여 구조를 계획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선 버튼이나 이동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정이 수월하다. 색깔, 길이 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 작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 디자인

디자인의 경우 구조와 같이 진행되는 작업이고, 상황에 따라 최적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와 같은 단순 작업이 아닌 이상 쉽게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웹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종학당 플랫폼에서 문제가 나타났던 부분은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간단한 디자인 표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특히 교수자 안내 메뉴에는 'new'가 뜨나 수강생 쪽이나 과제 제출 시에는 신규 쪽지 및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학습자들이 보낸 내용을 확인하려면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수자 안내 메뉴 역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교원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이 새로운 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글만 올라오기 때문에 게시글이나 과제, 쪽지 등이 오든 안 오든 직접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나 학습자로서는 피로감이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자인은 너무 무겁게 이미지를 탑재하지만 않으면 플랫폼을 돌리는 데 부담이 없다. 물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이트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시각적인요소보다는 학습자와 교원의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학습자들도 해당 부분에 대한 인지가 빠를 것이다.

③ 기능

가. 강의 개설

세종학당의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에 교원들은 강의 개설을 먼저 하고 학습자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그러나 강의 개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나 기능상의 부족으로 개설이 늦어지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과정 개설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개설 시 개설 강좌를 찾는 방법이나 키워드

인식 등의 문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과정 제목이 긴 경우에는 과정 제목이 모두 표출되지 않았다. 구조적인 부분과 맞물려 과정 제목들이 똑같이 나타나 있었고, 이 때문에 앞부분의 과정 제목이 똑같아서 교원들은 어떤 과정을 불러와야 할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잘못 불러왔을 경우에는 다시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에 과정 개설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새로운 과정을 개설할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사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만들어진 과정을 불러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과정 가져오기나 콘텐츠 불러오기, 질문 게시판 등에서 가져오기를 할 경우 키워드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목의 기호까지 똑같이 써서 복사해야 해당 과정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해당 과정의 제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복사를 했어도 잘못 복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과정뿐만 아니라 콘텐츠, 질문, 시험 등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소문자, 기호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 뜨지 않아 교원이 강의를 개설하는 데 있어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추후 일부 키워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과정 중에 수정이 이루어져 대소문자 구분 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제목이 길기 때문에 제목 표출이 되지 않아 교사가 과정의 제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권한 설정에 한계가 있어 처음 개설 시, 해당 과목의 개설 담당이 아니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강의 개설은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강의 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사는 지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mouseover 등과 유사한 기능을 활용하여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 표기를 하게 하여 직관화했다면 학습자나 교원 및 학습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 개설 시 과정 복사 기능을 활용할 경우 위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과정의 제목이 상당수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을 업체 측에 건의하여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 해당 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 플랫폼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의 개설과 관련하여 교원이나 행정 측의 권한 설정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강의 개설 작업을 할 때 강의를 개설한 사람과 해당 교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강의 개설 상황을 알 수 없었다. 권한의 층위를 달리하여 전체 관리자가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학습자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하고 수업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과 행정은 각 두 명까지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수업 개설과 관련하여 유연한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에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한다면 강의 개설 작업이 수월해질 것이다.

나. 현황

이 부분은 관리자 권한 설정과 관련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관리자나 교원은 담당하는 과목의 통계나 전체 과정의 통계를 쉽게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과정별로 통계를 선택하여 수동으로 합산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전체 흐름을 알고 부족한 학습자나 진도 현황, 과제 제출 현황, 수료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이 없어 사업 기간 동안 업체에 의뢰하여 해당 자료를 그 때 그 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학습 통계 화면이 존재했지만, 각 과정에 대한 통계만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학습 상황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해당 부분의 데이터의 전달이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학습 현황은 플랫폼의 마스터 관리자만 그 권한을 가진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료의 형태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해당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 수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다. 화상 접속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ZOOM 강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강의지원형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서 ZOOM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ZOOM으로 직접 화상 강의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세종학당 플랫폼 접속이 안 되어 학습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수업의 참여를 위해 ZOOM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ZOOM 접속 아이디를 안내하였고, 학습자들은 그제서야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접속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결석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세종학당에 건의 후에 수동 출결 처리를 해야 했다. 또한 LMS의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LMS를 통해 ZOOM에 접속했을 경우 유독 화상 강의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 심한 경우 한 수업에서 40회에 가까운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부분은 인터넷 환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학습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직접 ZOOM으로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 출결을 수동으로 처리해야 했는데, 이 또한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서 대안이 필요하다.

화상 수업은 처음에 Webex와 ZOOM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세종학당의 경우 Webex를 기본으로 하는데 해외에서 Webex의 접속이 쉽지가 않아 현 사업에서는 모두 ZOOM으로 진행하였다. 사업 기간 동안 개발팀 회의에서 출결을 처리할 수 있는 링크를 개발하여 다음 사업에서는 ZOOM으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도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 결론

2021년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은 각 권역별 특징을 파악하여 학습자들이 온라인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 사업이다. 시범 사업 특성 상 교육과정 및 플랫폼 운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습자의 접근에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긴밀한 소통과 수업 운영 방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이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과정에 대한 수업 시간도 짧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학습자들은 한 번에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저조한 참여율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학습자들이 여유 있게 학습을 하고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 현장을 고려한 학습 콘텐츠 활용 방안이다. 지역별 현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남아메리카 지역은 모바일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다. 그런데 모바일 환경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들은 학습 사이트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학습 상황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학습자들은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료에 DRM 서비스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이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자료 및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LMS의 안정화이다. 접속, 가입, 학습, 평가 등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LMS에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원의 강의 등록에서도 문제가 생겨 학습자 및 교원 모두 수업 외적인 부분에 힘들어 한 경우가 많았다. 서버 속도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반영, 플랫폼 기능의 다양화 등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논문

- 곽수진(2007), “비즈니스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3권 1호, 163-186.
- 김근호(2008), “한류 영상물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 역할극(role play)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1호, 352-361.
- 김명광 외 2명(2020),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한 유튜브 한국어 교육 연관 검색어 분석에 대한 일고”, 교육문화연구, 26권 6호, 667-688.
- 김수리, 김소영(2019), “한국어교육에서의 한류 문화콘텐츠 활용 현황 및 과제 : 통합형 한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호, 79-81.
- 김수미(2013), “국어학 : 비즈니스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주제별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13권, 101-133.
- 김시연(2020), “ZOOM을 활용한 중국 대학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교육 사례 -상해 S대학 한국어과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80권, 1-29.
- 김은지(2019),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레벨테스트 개발 및 활용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71-483.
- 김정란(2021), “한국어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 촉진 방안 -협동학습에서 상호의존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2권, 55-80.
- 김정훈, 유승금(2001),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국어 학습 전략 연구”, 한국어 교육, 12권 2호, 355-376.
- 김현우(2020), “온라인 한국어 수업과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의 학습자 성취도 비교 연구 : 초급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3권, 19-35.
- 김현진 외 4명(2018), “세종학당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29권 3호, 83-115.
- 김혜민(2020), “독일 대학 교육에서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 사례와 시사점 -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46권, 173-207
- 노채환(2021), “온라인 한국어교육에서의 상호작용 증진 연구 -비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대학작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4호, 145-157.
- 민경아 외 2명(2021),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강의에서의 학습자 만족도 분석- 상호작용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2권, 131-150.
- 민원전(2011), “중남미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발전적 연계를 위한 한류활용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4-60.
- 박나리(2014), “초급 한국어 교재의 ‘여행’ 텍스트에 대한 장르 기반적 분석”, 이화어문논집, 95-116.
- 박민신, 윤여탁(2019),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재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 온라인 한국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권, 329-349.
- 박서욱(2021), “한국어 온라인 담화통합 쓰기 전략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교육, 32권, 109-139.
- 박은정 외 3명(2008), “한국어 온라인교육(e-Learning)에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호, 410-415.
- 박진철, 장지영(2020), “온라인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의 동료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연구 - ZOOM을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9권, 181-200.
- 방성원(2021), “온라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8권 1호, 1-30.

- 서진숙, 방성원(2019), “화상교육을 활용한 한국어 튜터링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74권, 213-237.
- 손성희(2021),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의지 향상을 위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2권, 177-197.
- 왕혜숙(2016),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 학습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32-240.
- 우원목(2017), 모바일을 활용한 한류 기반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17권 9호, 120-131.
- 이수미(2019), “세종한국어 회화 교재와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367-383.
- 이연정(2015),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이메일 담화 연구”, 語文論集, 61권, 539-561.
- 이영제(2019),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사례 연구”, 겨레어문학, 63호, 277-309.
- 이준호(2019),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레벨테스트 운영 방안 수립”,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384-394.
- 이훈호(2020),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한국어교육 사례 분석 연구”,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3호, 215-223.
- 장뢰(2010), “비즈니스한국어의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조선)어교육연구, 7권, 306-320.
- 장미라(2012), “문화 기반 초급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교수요목 설계 및 단원 구성 방안 연구”, 語文學, 116호, 103-130.
- 장소원 외 3명(2019), “세종학당 여행한국어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설계”, 언어와 문화, 247-270.
- 정명숙(2003), “비즈니스 한국어의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연구”, 한국어 교육, 14권 2호, 403-421.
- 조연주(2020), “장애 요인 분석을 통한 한국어 온라인 수업 발전 방향 모색”, 새국어교육, 124호, 297-324.
- 조윤경(2021),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이러닝 준비도가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17호, 697-706.
- 조인옥(202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와 개선 방향 : 한국어 교육기관의 전면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8권, 241-265.
- 진정란(2013), “한국어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의 현황과 개발 과제”, 외국어교육연구, 27권, 149-175.
- 최혜령(2015), “사례연구법을 적용한 비즈니스한국어 수업모형 개발”, 한국어 교육, 26권 3호, 267-285.
- 한상미 외 8명(2012),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권, 411-448.

온라인 세종학당의 교육 플랫폼 적용과 운영에 대한 고찰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토론자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교육원
임현아

세종학당재단의 해외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적용과 운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권역별(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온라인 세종학당의 교육 현황과 시범 운영을 하면서 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은 차후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충실하게 정리된 논문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과정, 진행 중 특성(9쪽)에서 목표 학습자 집단에 따라 내용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별로 내용 구성을 달리한 것인지 그렇다면 단계별 학습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업 운영 중 강의지원형의 경우 인원수 제한 여부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태도, 인식 및 평가 분석에서(12쪽) 대부분 학생이 온라인 학습의 유용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기대하는 유용성에 개인의 만족도가 부응하는 것인지가 드러나면 좋을 듯합니다. 제공한 측과 제공을 받는 측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13쪽 ⑤의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종학당 LMS문제점 현황 및 개선 방향에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논하였습니다. 다만 LMS를 운영할 정도이면 각 나라의 상황을 알아 본 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문제점의 크고 작음을 살펴보는 것인지 또는 이미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때 학습자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는지도 궁금합니다.(학습자에게 시스템에 대한 사전 공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했으면 합니다. 시범 운영의 실제와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논하였으나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을 ‘강의지원형’, ‘학습지원형’, ‘자가학습형’으로 제공되었을 때 학습자의 참여도와, 교수자의 수업 운영 현황, 그리고 인터넷 환경 및 시스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

이 모두 논의되었음에도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권역별로 정리할 경우 권역별에서 온라인 수업 형태로 서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수업 후 운영 결과를 도표를 사용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도표나 표로 정리 후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는 D권역, 러시아는 B권역으로 (1쪽 각주3)제시되었는데 11쪽(둘째 줄)에서 북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인원수가 많았다는 서술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용 중 문제점과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18쪽) 이 부분은 나누어서 서술하면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완성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A, B언어는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의 구분에 준하는 것으로 통·번역학계에서는 모국어를 A언어라 하고 모국어 이외의 제2언어인 L2를 B언어로 칭하고 있다.

온라인 세종학당의 교육 플랫폼 적용과 운영에 대한 고찰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토론문 답변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한국어세계화연구소
김명권, 안여경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은 온라인 학습자의 교육 효율 및 관리의 한계를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권역별 시범 운영 사업 중 하나였던 ‘2021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성화한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시범 사업의 운영 기간이 짧았기에 목표하고자 했던 기대치보다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겠으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의 결과를 기본으로 작성한 관계로 상세 정보 등을 모두 이번 발표 내용에 실 수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2022-8월 현재 ‘2021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권역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결과보고서(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i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9220000004195&bbsId=BBS_MSTR_00000000012&pageIndex=1&menuNo=

1.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및 수업 구성은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교육과정(K-Wave,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을 제외한 표준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세종학당에서는 해당 언어 콘텐츠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했고, 강의지원형은 영어의 경우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와 호주를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강의지원형은 한국어교원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원수 제안을 두었습니다. 시범 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세종학당의 제안에서부터 목표 학습자 수가 정했는데, 개소별(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로 아래와 같이 최소 목표 과정을 두었습니다.

과정운영 유형		학기당 최소 목표 과정	과정 당 최소 학습자	'21년 최소 운영 학기	총 학습자
학습 관리형	강의지원형	3개	10명	2개	60명
	학습지원형	3개	10명	2개	60명
자가 학습형	-	상시운영			330명
총 목표		12개	-	-	450명

2. 2021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의 경우, 기본적 구축이 끝난 플랫폼을 A, B, C, D 권역을 위탁 운영하는 각 기관의 교육과정에 공통 적용해 각 권역의 특징 및 특수성을 발견해 각 권역에 맞춘 학습과정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준비한 플랫폼의 시범 적용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발견해 학습자의 시스템 접근성과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 플랫폼을 제공한 세종학당재단의 기대 유용성에 대한 부분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D권역 위탁 교육기관인 저희 기관 교수자들의 기대 유용성, 학습자들의 기대 유용성 등은 2021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IV. 사업 결과 분석 (2) → 1. 학생 요구 조사(202~286쪽), 2. 교원 요구 조사(287~365쪽)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을 이번 발표 자료에 모두 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 현황 조사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에 따라 인터넷 현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현황에 맞추어 별도의 LMS를 구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범용 LMS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의 특성상 시스템을 미리 구축 후에 학습자 및 교원의 피드백에 따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업 시작 후에 온라인 학습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시스템을 반영하기보다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집에 제한이 있었고, 이는 곧 학습 요건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각각을 나눠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학습자와 교수자 부분에 대해 ‘강의지원형’, ‘학습지원형’, ‘자가학습형’ 부분을 나눠 명시한 자료가 2021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운영 결과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제시해 사업 결과에 대해 명확히 부각을 시키고 싶었지만 지면의 한계가 있는 이번 발표의 특성상 내용을 개소별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5. 사업의 특성상 결과보고서 작성에 도표가 많이 들어가 있었으나 그 양이 방대하여 최대한 내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표의 경우 가시성은 좋으나 그 내용을 같이 설명하기에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표 및 그래프는 앞서 제시된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모든 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